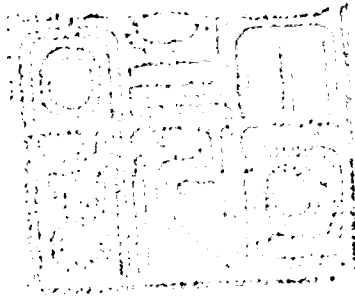


고등학교

#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교사용 지도서



통일교육원



# 차 례

## 제 1 부 총 론

- I. 통일교육의 새 방향 / 3
- II.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 / 17
- III. 통일교육 지도 지침 / 25
- IV. 지도서의 체계 / 38

## 제 2 부 지도의 실체

- I. 21세기, 남과 북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 / 41
- II. 북한 사람들의 삶 / 94
- III.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 / 203
- IV. 하나됨을 위하여 / 273

## 부 록

- 1. 북한권력기구도(2001. 12. 31 현재) / 335
- 2. 북한의 주요 대남제의 / 340
- 3. 2002년도 북한 주요행사 예정표 / 342
- 4. 통일/북한 관련 국내·외 사이트 현황 / 346



# 제 1 부

## 총 론

I. 통일교육의 새 방향

II.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

III. 통일교육 지도 지침

IV. 지도서의 체계



## 1. 통일교육의 새 방향

### 1. 통일교육에 대한 두 접근

#### 가. 통일교육의 개념

통일은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및 가치관과 생활방식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단절적이고 대립적인 분단체제를 총체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하여 분단체제를 특징짓는 대립적인 이념, 정치체제와 권력구조 등을 통합하고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이질화된 문화적 지표와 생활방식 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 따라서 통일은 체계통합과 사회통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통일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기초로 우리는 현재의 통일환경과 남북관계 변화를 고려하여 통일교육이라는 개념을 ‘민족화해교육’과 ‘민족통합교육’의 두 단계로 나누어서 정립함으로써 보다 개념적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 먼저 ‘민족화해교육’은 남북한간의 적대감과 대결감정을 해소하여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남북이 화해와 협력, 신뢰에 기초하여 인적, 물적 교류를 이루는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이룰 때까지의 범국민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의 통일 상태에 이르기 위한 교육으로서 민족화해에 필요한 지식, 태도, 사고, 가치관, 행동규범 등을 청소년들에게 습득하게 하는 교육이다.

이에 비해 ‘민족통합교육’이란 제도적 및 영토적 통일, 즉 체계통합을 이룩한 이후 통일국가를 완성하여 같은 민족으로서 이질적 측면을 완화하고 동질성을 제고함으로써 통합에 이르는데 요구되는 적절한 지식, 태도, 가치관, 의식, 사고, 행동규범 등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습득케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두 형태의 개념을 설정할 수 있지만 화해협력시대의 통일교육은 ‘민족화해교육’에 중점을 두어

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정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교육의 대상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주요 관심사도 다르다. 그들은 또한 새로운 변화된 환경속에서 자라나는 패션을 밟는 세대이고, 통일의지나 통일의식 또한 대학생이나 성인들에 비해 약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 정의보다는 보다 특화된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학교 통일교육의 정의를 규정하면, 학교 통일교육은 청소년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약화된 인식을 고양시키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남북한 사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기초한 통일의지를 함양시키며, 통일환경과 과정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합리적 판단력을 습득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무엇보다도 당장의 통일보다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기초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이룩하고자 하는 의식과 태도를 함양시키는 데 두게 된다.

#### 나. 통일교육에 있어 두 접근

1980년대 들어오면서 학교현장에서 비교적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반공교육에서 승공 또는 멸공교육이 강조되었던 때가 있었고, 안보교육이 강화된 때도 있었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통일 관련 교육은 통일안보교육이라는 명칭으로 변화되었고, 6차교육과정 개정과 더불어 통일교육이라는 명칭이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은 크게 체제중심의 접근과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체제 중심의 접근

통일교육에 있어 체제 중심의 접근이란, 남북한의 이념과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



문화체제, 교육체제, 통일정책 등과 같은 사회의 구조와 제도, 정책 등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주민들의 생활보다는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수령과 당의 역사에 중점을 두는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나 정책, 이념과 체제에 중점을 두는 체제 중심의 접근은 북한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이해교육에 큰 공헌을 해 왔다. 주로 6차 교육과정 이전의 통일교육은 주로 이러한 경향을 많이 지녀왔다.

이념과 체제의 측면에서는 수령론에 기초한 당국가체제와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강조하였고, 경제체제의 측면에서는 북한 경제의 작동 메커니즘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 사회체제의 측면에서는 출생이후 탁아소 생활에서부터 여성의 경우 55세, 남성의 경우 60세까지 조직에서 생활해야 하고, 지속적인 감시체제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았다. 교육체제 또한 일인 이상화와 관련된 과목의 중요성에 비추어 북한의 정치사상교육 특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따라 제기되어 온 북한의 통일정책과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우리의 통일정책의 합리성을 비교우위적 입장에서 전달하고 있는 측면도 강하였다.

특히 체제 중심의 접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측면은 통일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러한 접근은 이분법적 논리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우리의 통일정책에서는 분단 이후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우리의 통일정책에서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는 통일의 방향을 찾아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분단 이후 북한이 추구해 온 통일정책을 열거할 수 있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통일과 통일정책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으로써 왜 북한이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지, 선결조건을 내세우는지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나아가 남북한 통일정책을 절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접근이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접근 또한 북한 이해와 통일문제 이해에 있어 중요하다라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수

령과 당의 유일체제에 의해 움직이는 북한 사회의 체제적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북한 사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에도 체제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반면 체제중심의 접근에서는 체제나 이념, 제도, 정책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이 들어설 여지가 희박하다는 단점이 있다. 즉 통일이라는 문제가 국가통합이요, 정치제도, 경제제도 등의 통합이지만, 이를 만들어 가는 주체는 사람이요, 통일 이후 상이한 이념과 체제속에서 삶을 영위해 온 사람들이 진정한 화합을 형성해 가고자 시도할 경우 이것의 주체도 역시 사람임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제도는 있으나 인간의 의식이나 가치관의 화합이라는 요소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 (2)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

과거의 경험에서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통일은 결코 한두번의 남북대화나 상호방문, 또는 정상회담으로서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통일은 흡수식의 동서독통일의 후유증과 타협식의 예멘의 통일 후 내전이 중요한 교훈으로 제시해주듯이 체제통합만으로 간단히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통일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것은 통일은 정신적 또는 가치관의 통일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노력이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동시에, 어떤 면에서 비가시적인 성격을 지니는 의식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와 실행을 통해서 접근될 수 있는 하나의 장기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은 분단 반세기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일구어온 사람들간의 의식이나 가치관을 이해하는데 주목한다. 그럼으로써 남북 사람들의 의식이나 가치관이 얼마나 달라졌으며, 반대로 동질적인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주목한다.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은 남북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견지한다. 즉 남북한의 이질화는 남북한 사회의 공통적이고 동일한 형상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각 사회의 구성원들이 신

봉히는 개인들의 '인식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 즉 사회구조나 제도내에서 그들의 존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인식의 틀의 상이성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질적인 상대방에 대한 접근 방식은 우선 공통적인 것에서의 접근을 시도한다. 그럼으로써 남북한간에 신뢰감을 형성하여 '사회 심리적 저항감'도 완화할 수 있으며, 특정분야에서는 남북한간의 상호 협력과 보완을 통해 무한경쟁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고양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은 문화적 상호이해를 지향한다. 즉 남한 주민이나 북한주민이 보이는 행동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잣대에 따라 가치판단이 개입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한 상태에서 문화특수적인 접근, 즉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개별기술적 접근을 먼저 취한다. 그리고 개별기술적 접근을 통해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전체적 이해가 이루어진 이후 보편적 가치와 민족적 가치의 차원에서 평가하고, 아울러 남한사회도 평가해 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사회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며, 나아가 남북의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이 체제 중심의 접근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은 제도나 정책, 이념과 체제보다는 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초점을 두고 이를 이해하고자 한다. 즉 가족관계, 의식구조, 의식주생활, 학교생활, 관습 등의 일상생활과 가치관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이념과 체제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로 중요시한다. 다만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은 이념과 체제를 이해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체제나 이념이 사람들의 의식구조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실제로 어떻게 행동에서 나타나는 지를 알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은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로, 통일교육에서 정치적 대결의 논리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남북한 의사소통망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그동안 통일교육에서 체제 중심의 접근은 남북한의 체제상응성의 결핍으로 인해 서로의 이질성만을 확인하는 장을 제공하였다. 특히 청소

년들은 우리 체제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생활방식으로 체득하기보다는 제도적 내지 덕목적 측면만을 인식해 왔고, 맹목적인 우월성을 습득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이 없지 않았다. 반면 북한의 일인 중심의 체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왜 이러한 체제가 어떠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 내지 체제중심의 접근에 비해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을 통해 구성되는 내용은 비교적 이념적 색채가 적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동질성을 많은 부분에서 발굴하게 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은 정치 내지 체제적 문제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피하고 점진적인 상호이해와 민족 화해·협력의 기초를 바로 세워주는 데에 아주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둘째로,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은 멀리있는 통일교육이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의 관심에 근접함으로써 가까이 있는 통일교육을 지향한다. 체제중심의 접근이 학생들의 관심이나 생활과 거리가 먼 내용, 예컨대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 등을 다루는 데 비해,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은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학생들의 가치관, 관습, 도덕규범, 의식주생활 등을 중요시한다. 즉 사람들의 삶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통일의식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상적인 삶의 문제, 특히 그들의 생활세계와 관련된 북한 문제나 통일 문제를 다루어줌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 통일의지를 함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로,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은 남북 양 사회에서의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을 일정하게 수용하게 하며,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나아가 서로의 차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민주적 훈련을 절실하게 요구한다. 남한사회는 민족주의의 과잉과 과소가 혼재하는 가운데 한국적인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강한 배타적 감정을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배타적 감정, 중국 연변 조선족들을 대하는 태도, 제3세계 국민들에 대한 냉소적 분위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혐오증적 극단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지나친 자주성의 고집과 배타성으로

인해 유형은 다르지만 동일한 심성구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이 갖는 의미는 이것이 단순히 서로간의 문화적 일체성의 보장이라는 차원을 포함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포용과 융합의 가치를 함양하는 민주적 통합의 훈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데에 있다.<sup>1)</sup>

끝으로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이 갖는 장점은 남북한 사회의 분단반세기 동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동질적 측면을 소개함으로써 동질성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당사를 위주로 한 체제 중심의 접근을 취할 경우 남북한 사회의 이질적 양상은 내용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지만, 남북한 주민의 의식구조나 생활상, 문화 등의 사회문화를 소개할 경우 많은 부분에서 동질성이 잔존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아울러 과거에 남북한 사회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왔던 ‘이질성의 극복과 동질성의 회복 및 확장’<sup>2)</sup>이라는 단순 도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2.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 가. 통일교육의 지향가치

서독은 통일이전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에서 양독 주민간의 동포애적 유대강화를 위해 우선 동독의 현재 상황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해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한 바 있다.<sup>3)</sup> 주목되는 것은 사회질서에 대한 지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로 인해 동독주민들에게 어떤 결과가 생겨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는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습득된 지식들을 사실 그대로의 판단과 통찰을

1) 임현진·정영철,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남북통합의 모색 : 현실과 과제”, 통일연구(연세대 통일연구원), 제3권 제1호 (1999), pp.339-340 참조.

2) 통일부, 2001 통일교육지침서(서울 : 통일부, 2001), p.4.

3) KMK, *Die deutsche Frage in Unterricht* (Bonn, 1978), p.11; 오기성, “서독의 통일대비 정치교육-「독일문제 교육지침」이 한국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교육』(서울: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 2000), p.56.

넓히기 위해 서독의 가치척도나 국가사회적 관계들을 동독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 불가결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교를 통한 가치판단은 기본법의 가치척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학교 통일교육 또한 통일환경의 변화와 남북 관계의 진전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체(體)로서의 가치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크게 인류역사상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온 기본 가치와 한민족의 역사적 특수성에서 나타나는 특수적 가치로 구분될 수 있다. 이는 서독의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서 나타난 가치판단의 척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sup>4)</sup>

여기서 우선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치로서는 첫째, 억압과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하여 인간과 자연을 위협하는 모든 비평화적 요소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평화적 가치, 둘째, 인간의 존엄성, 평등, 다양성의 인정, 풍요와 복지의 균형 그리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제도가 강조되는 민주적 가치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민족적 가치로는 첫째,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존의 가능성을 여는 민족화해의 가치, 둘째,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통해 창조될 수 있는 민족번영이라는 가치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와 민족적 가치에 의한 가치판단은 서구중심적인 가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면서도 우리 민족이 지녀온 고유한 가치라는 특수성의 묘합(妙合)을 의미한다.

## 나.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공존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우리 나라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

4) 이우영, “대학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42 ; 이근철·오기성,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이해하는 통일교육론』(서울: 엑스퍼트월드, 2000), pp.205-211.

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는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탈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통일교육은 이러한 법체계의 토대 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우리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헌법 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질서의 하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바탕으로 민족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토록 하는 이념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기본으로 삼아야 할 가치이다.

민족공동체는 혈연, 지연, 언어, 문화, 역사 등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민족의식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추가되어 공고하게 결합된 인간공동체를 말한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한민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왔으며, 현재의 분단은 이러한 민족의 삶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통일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선호하는 통일방식을 합의에 의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은 통일 이후에 민족구성원이 서로 협력하여 정치·경제·사회적 공동체를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우리 민족이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민족공동체의식에 바탕을 두고 통일을 지향하는 가치관 및 태도의 형성, 즉 바람직한 통일관의 정립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 (2)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국제사회의 탈냉전 추세와 남북간 국력격차의 심화로 인한 북한의 변화 불가피성은 우리 주도의 평화통일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된 통일환경에 맞추어 현재의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한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냉엄한 국제 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가의 유지·보존을 위한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남북한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가는 안보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위해서는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보 요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정치적 안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제고를 통해, 경제적 안보는 국민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재정·시장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안보는 국민 갈등 해소와 화합 증진을 통해 이루어가야 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 (3)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및 통일실현의지 함양

남북한 통일은 현재와 같은 이질적 체제에서 하루아침에 이룩될 수 없다. 남북한 사이에는 아직 정치·군사적 신뢰가 쌓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이 통일의 기회가 갑자기 다가왔을 때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이미 오랜 기간동안 쌓아 왔



던 동서독간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경험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남북한간에도 무엇보다 먼저 화해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서 평화공존의 단계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평화공존의 경험이 없는 평화적 통일이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분단은 남북한 모두에게 천문학적인 분단비용의 지출과 필요 이상의 국력을 낭비하게 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 한반도의 위상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 역량의 선양과 세계 평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적극적 기여를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교육은 헌법 질서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 그리고 통일환경을 고려하여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실현하고, 나아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평등, 복지를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교육이다.

#### 다. 통일교육의 방법 및 평가

과거의 통일교육 방법은 비교방식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즉 남한사회와 북한사회를 견주는 상호비교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예컨대 반공교육은 북한의 전체적인 부정과 남한의 전체적인 긍정이라는 이분법적이고 흑백논리적인 사고를 특징으로 하고 파괴적 적대의식을 고취시켰다. 여기에 이해와 화해, 협력과 포용, 공존과 통합이라는 내용이 있을 자리가 없다. 따라서 반공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의 가능조건을 만들어주며, 통일을 앞당기는 교육은 아니었다.<sup>5)</sup> 또한 통일안보교육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유화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과 의식을 배양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런 교육은 일종의 소극적 교육이었다.

문화적 상호주의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 상대사회의 이질적 문화구조 사이에서 두 문화의 상호작용 영역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정체감을 갖는 사람들이다.<sup>6)</sup> 이 유형

5) 오인탁, "통일교육의 방향," 이영선 편, 『통일준비』(서울: 오름, 1997), pp.141-142.

6) J. Matsuoka, "Differential Acculturation among Vietnamese Refugees," *Social Work*,

의 사람들은 두 사회 사이에서 사회문화적 유동성을 성취하면서 경제적, 정치적 장애를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극복한다.

사회문화 중심에 중점을 두는 학교통일교육은 문화적 상호주의자로서의 능력 함양을 중시한다. 즉 통일교육은 남한주민이 북한문화가 우리의 문화와 상이함을 이해하여 북한주민 혹은 사회를 현실상황에 맞게 적절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다원적 사회안에서 살고 있는 남한 주민들이 북한사회의 가치나 기준을 이해하고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고의 틀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상호주의를 지향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만 제시하자면, 우선 역할채택(role-taking)이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콜버그가 제안한 역할채택 질문 전략(role-taking questions and strategies)이 큰 시사점을 준다.<sup>7)</sup> 또한 문화이해지(Culture assimilator)를 통한 방법도 교육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문화이해지를 통하여 학생들은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리고 나는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배운다. 즉 타문화의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을 할 때, 서로가 행동원인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를 출현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다.<sup>8)</sup> 아울러 현실 교육환경에서 적용가능한 방법을 예시하면, PMR, 브레인스토밍, NIE, 피즐 게임, 유비 토의, 직소우, 문학 및 영상 작품 활용, 마인드 맵, 가계부 작성과 같은 북한주민 생활 체험, 통일 O, X퀴즈 등이 적용될 수 있다.<sup>9)</sup>

---

Vol. 35, No. 4 (1990), p.342 ; S. Fong, "Assimilation and Changing Social Roles of Chinese American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29, No. 2 (1974), p.115.

- 7) 역할채택 질문에서 주목되는 점은 타인 인식의 초보단계를 자극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가족관계에 호소하는 것이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충성은 가족관계에서 처음으로 일어난다. 통일의 당위성 또한 이러한 가족관계에 호소하는 역할채택을 적용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Richard H. Hersh, John P. Miller, and Glen D. Fielding, *Models of Moral Education*(New York: Longman Inc. 1980), pp.145-146 참조.
- 8) 정진경, "남북한 간 문화이해지 제작", 『통일연구』, 제2권 제2호(서울: 연세대 통일연구원, 1998), pp.167-168 참조.
- 9) 아울러 앞서서 들고 마는 일회성교육이 아니라 생활속의 실천을 속에 내면화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족화해교육의 방법은 자발적인 실

통일교육이 교과교육으로서 가르쳐지는 한, 그것이 본래 가르치고 의도했던 바에 비추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또 가능한 한 핵심적인 성취영역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남북한 실상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판단능력, 민감성, 태도, 행동성향 등도 평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도덕·윤리와 교육평가는 기존의 평가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sup>10)</sup> 즉 첫째, 이제까지 평가에서 주류를 이루어 왔던 선택형의 평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택형 검사는 학생들의 창의성, 문제해결력, 비판력, 판단력, 정보수집 및 분석력, 통합력 등 고등 사고기능과 정의적 영역의 평가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둘째,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질적 평가의 일반적인 특성은 단편적인 영역에 대해 일회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학생 개인의 변화와 발달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통합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교수학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질적 평가의 대표적인 예로는 수행평가를 들 수 있다.<sup>11)</sup>

통일교육의 평가는 학생들을 변별, 선발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화해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학생의 학업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 자체의 개선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는 선택형과 단답형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수행

---

천을 통해 즐기는 통일과 관계된 삶을 갖게 하는 방법을 지향한다. 예컨대 현재의 지역 사회만의 고유한 축제나 관습에 연관시켜 즐길 수 있는 통일축제에 참가함으로써 민족화해 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은 성인만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가족 단위가 참가함으로써 가정내에서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통일문제에 대한 남남대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오기성 외, 『사회통일교육 표준프로그램모델 개발』(서울: 통일교육원, 2000), p.14.

10) 조난심, “도덕윤리와 평가론”, 『한국도덕윤리교육학회보』, 제9호(서울: 한국도덕윤리교육학회, 1998), pp.194-198 참조.

11)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 평가와 새로운 평가에 대한 비교설명은 차우규, “도덕윤리와 수업 개선을 위한 새로운 평가 방안 연구”, 『도덕윤리교육』, 제9호(서울: 한국도덕윤리교육학회, 1998) 참조.

평가 기법들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에서 본래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 도달도를 제대로 짚 수 있는 평가기법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러한 평가방법의 다양화는 최근 평가의 일반적인 경향인 수행평가와 일맥상통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sup>12)</sup> 동시에 통일교육에서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을 취할 경우 학습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에 기초한 통일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기법으로는 서술형 및 논술형 검사, 실기 시험, 관찰법, 토론법, 구술시험, 면접법,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보고서, 연구보고서법, 포트폴리오법 등을 들 수 있다.

---

12) 수행평가는 학생들이 이해한 것을 표현하고, 지식, 기술들, 그리고 마음의 습관을 다양한 맥락에서 사려깊게 적용할 기회를 주는 다양한 과제들 및 상황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들은 흔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형태를 지닌 결과물이나 관찰가능한 수행으로 귀착된다. 그것들은 자기평가(self-evaluation), 수정(revision)을 권장하고 설정된 평가 기준에 근거한 향상(proficiency)의 정도를 나타내며 채점기준을 공개한다 ; 정창우, “도덕과 수행평가의 원리와 실제”, 『도덕윤리과교육』, 제9호(서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1998), p.450.

## II.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

### 1. 7차 교육과정과 통일교육의 내용

7차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으로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편성한다.

교과활동으로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는 10개이며, 수학은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10단계로, 영어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단계로 단계형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국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사회와 과학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재량활동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중등학교의 선택 교과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다. 특별활동은 학생이 주도하는 활동인 자치 활동, 학생이 선택하는 활동인 봉사활동, 학교가 주관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활동인 수련활동, 행사활동 등 중학교 특별활동을 7가지 영역으로 편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7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덕과의 통일교육 내용을 6차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 7차 교육과정 통일교육 관련 내용 비교

학교급	학년	통일교육 관련 내용 비교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바른 생활	1	·국기, 애국가에 대한 바른 자세 가지기 ·나라를 위해 애쓴 분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국기 바르게 달기 ·애국가 바르게 부르기
		2	·우리 나라에 긍지를 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기르기 ·해외 동포들의 생활에 관심 가지기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염원가지기	·무궁화 사랑하기 ·우리 나라의 자랑거리 알기 ·통일에 대한 관심 가지기
	3	·국가, 민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규범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단극복의 의지를 가지기	·나라 사랑하기 ·분단 현실과 통일 필요성 알기	
	4	·국가의 민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생활태도를 가다듬기 ·국가 발전에 공헌하려는 자세 가지기	·민족 문화 유산 애호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5	·국가, 민족 생활에 필요한 여러 규범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평화 통일과 국제 우호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	·국가 발전에의 협력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6	·민족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 가지기 ·다가올 통일에 대비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기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해외동포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중학교	1	·국가와 민족의 의미 파악 ·국가와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 까닭 ·국가,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	(없음)	
	2	·민족 분단의 현실과 통일 과제 ·통일의 필요성 ·북한의 정치, 경제, 언어, 문화현실 ·남북한의 통일정책, 민족통일의 당면과제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 ·올바른 애국 애족의 자세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의지	
	3	·민족공동체 번영과 통일국가의 실현방안 ·민족 공동체의 위상을 높이며,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길	(없음)	
고등학교	진학년	·통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한국인상 ·통일 과업의 달성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굳은 의지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남북한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 2. 학생용 교재의 구성 및 내용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설정된 학교 통일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도,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에 기초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예시될 수 있다.

〈표〉 학생용 교재의 구성

영역	요소
I. 21세기, 남과 북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분단된 삶의 원인과 과정
	통일을 위한 노력
II. 북한사람들의 삶	북한의 문 두드리기
	의식주생활
	가정생활
	가정경제와 소비생활
	사회생활
III.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	문화생활
	교육과정
	학교생활
	과외·여가생활
IV. 하나됨을 위하여	고민거리
	통일한국의 모습
	분단국 사례
	통일 준비
	청소년의 마음가짐과 자세

### 가. “제2부 I. 21세기, 남과 북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의 내용 구성

이 영역은 통일을 당위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우선 실용적 차원에서 통일이 왜 필요한지를 다룬다.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변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에 맞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즉 흔히 N세대 청소년들의 문화와 이에 기초한 통일의식의 실용주의적 경향, 청소년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생활세계로부터 출발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의 차원에서는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분단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등의 주제를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다룬다. 그리고 여기에 ‘이산의 아픔을 넘어 한 동포로서 삶을 위하여’, ‘문화·복지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등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 문제에 접근한다. 그럼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있어 현재의 우리의 삶을 정신적·물질적으로 더 윤택하게 하고 한민족의 우수성과 자존심을 바탕으로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면서도 꼭 되어야 한다는 점을 균형적으로 인식하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필요하고 해야만 하는 통일된 삶을 이루지 못하였을까? 즉 분단된 삶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통일된 삶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희망적인 혜택이 있고, 민족사적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분단된 삶을 살아야 했는가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분단된 삶을 살게 된 원인에 대한 탐구를 통해 학생들은 왜 우리가 통일된 삶을 살지 못하고 분단의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원인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분단이라는 물리적·정신적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된다.

끝으로 이 영역은 그 동안 이러한 분단이라는 왜곡된 삶을 극복하기 위해 50여년 동안 남과 북의 노력은 어떠했으며, 이러한 경험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도록 한다. 크게 냉전 시대의 남북의 만남과 다가서기, 정상회담과 이후 남북의 만남과 다가서기의 변화 등을 통해 다루어진다.

#### 나. “제2부 II. 북한 사람들의 삶”의 내용 구성

“II. 북한 사람들의 삶”은 북한의 체제와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영역은 북한의 체제와 이념, 권력구조 등에 중점을 두는 체제 중심의 접근과 주민들의 의식주생활, 가정생활, 소비생활, 하루 일과를 포함하는 사회생활, 문화생활 등에 중점을 두는 사회문화적 접근이 조화롭게 수렴되도록 구성



되어 있다.

‘북한의 문을 두드려 볼까’에서는 국제적으로 냉전이 해체되고, 남북한간에 평화에 기초한 화해협력의 토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다룬다. 아울러 북한 사회의 체제적 특징과 이념, 정치권력 구조와 기본적인 사회메카니즘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 인식을 기초로 각론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 생활 문화에 중점을 두어 북한 사회를 인식하도록 하게 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일상생활 문화는 자라나는 통일교육의 대상인 청소년 세대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에서는 의복과 식생활, 주거생활을 통해 그들의 삶의 양식을 이해한다. 가정생활에서는 북한의 가정에 대한 관점 및 가족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한 후, 대표적인 사례, 즉 결혼, 혼수, 족보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가정생활을 이해하도록 한다. 소비생활에서는 소득수준과 분배 실태, 가계지출과 소비유형을 이해하게 한다. 특히 소득원과 그 양태, 화폐의 형태, 백화점이나 시장 등의 활용 실태 등을 중심으로 가정경제와 소비생활을 이해하도록 구성한다. 사회생활에서는 직장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하루일과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구체적인 사례, 즉 휴일과 휴가, 통신, 교통수단, 범죄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사회생활을 이해하도록 구성한다. 문화생활에서는 북한의 문화정책과 주민들의 문화향수 실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구체적인 사례, 즉 명절, 여가생활, 인기있는 스포츠, 대중가요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이해하도록 구성한다.

#### 다. “제2부 III.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의 내용 구성

학교통일교육은 통일환경변화와 세대의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되, 추상적이고 과거지향적인 통일교육, 당장의 통일을 ‘꿈꾸는’ 당위론적 통일교육보다는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소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각종 설문조사와 통일교육 시범학교 보고서를 보더라도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이나 또래 청소년들의 생활에 집중되어 있다. 예컨대 북한 청소년들은 어떤 과목을 배울까?,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할까?, 개학과 방학은 언제일까?, 시험은 어떻게 치를까? 유급이나 퇴학이 있을까?, 과외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의 특수목적고와 같은 특수한 학교가 있을까?, 수능시험이 있을까? 재수생도 있을까? 속칭 일류대학은?, god와 같은 10대 스타가 있을까? 오빠부대는?, 야간자율학습이 있을까?, 서구식 문화가 유입되고 있는가?, 노래방은 있을까?, X세대가 즐겨보는 만화영화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을까?, DDR이나 게임방이 있을까?, ‘왕따’나 ‘공주병’이 있을까?, 헤어스타일은?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Ⅲ. 북한 청소년의 생활”은 학생(주로 고등중학교 4학년 이상)으로서 북한 청소년들이 배우는 과목을 비롯한 교육과정과 학제 등을 중시하는 체제 중심의 접근과 아울러 통일교육의 대상인 우리의 청소년들의 관심사, 특히 자신들의 생활하는 생활세계와 관련된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 등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접근을 조화롭게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북한 청소년들은 어떤 과목을 배울까?’에서는 우리 처럼 교육체제가 초·중·고로 구분되는지,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우리 처럼 영어가 중요시 되는지, 그리고 우리와 같은 특수 목적고가 있는지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주로 체제 중심의 접근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반면 ‘북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활할까?’는 주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이해하는 부분이다. 우선 등교부터 하교까지의 생활을 다루고, 개학과 방학 시기, 우리처럼 시험이 중시되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유급이나 퇴학이 있는지, 야간자율학습도 하는지 등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과의 및 여가생활은 어떠할까?’에서는 북한 학생들의 과외활동의 일반적 형태를 기초로 컴퓨터 내지 오락 게임 실태, 연예인과 팬클럽, 노래방, 즐겨보는 만화영화, 서구식 문화의 영향 등을 다룬다.

끝으로 우리의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성문제와 진로, 집단따돌림 등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하듯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에서는 북한의 고등중학생

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는지 등을 다룬다.

#### 라. “제2부 IV. 하나됨을 위하여”의 내용 구성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어떤 것일까? 대체로 여러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통일한국의 모습의 공통점을 추출해 보면, 자유, 민주, 인권, 복지, 평등, 행복 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데 그 바탕을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구성되는 사회라는데 일치하고 있다. 현행 고등학교 도덕 또한 이러한 시각에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한국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은, 그리고 통일된 사회에서의 삶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발전과 융성을 위한 하나의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이질적인 삶의 양식을 지속해왔다는 점은 통일 이전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의 증대를 통해 서로를 많이 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여지가 남아있고, 이는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이 우리 한민족에게 주는 의미와 이질적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간의 피할 수 없는 갈등이라는 두 가지의 요소를 고려할 때 통일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서로를 배척하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서로의 장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단점을 반성하며, 그럼으로써 민족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IV. 하나됨을 위하여”의 첫 번째 주제 ‘통일된 사회의 모습’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점을 중시하여 통일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보다도 ‘다름을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같음을 기뻐할 수 있는 사회’ 구축이 중요함을 제시한다. 아울러 남북의 경제적 격차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멸시와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기보다는 ‘나눔의 문화가 풍성한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다룬다. 아울러 무한경쟁 속에서 자유방임주의가 팽배한 자본주의보다는 보다 ‘인간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통일사회의 경제체제로, 함께사는 삶, 자유로운 삶,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상승된 국력을 가진 도덕적 민주공동체를 통일사회의 모습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

를 다루었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준비 노력을 보기 전에 타산지적으로 삼을 수 있는 분단국의 통일노력을 사례를 ‘다른 분단국은 어떻게 통일을 준비했을까’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를 교훈삼아 통일을 위한 노력을 체제중심의 차원과 사회문화 중심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를 통해 살펴보았다. 끝으로 통일 담당세대가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이 현재 이 시간에 생활하고 있는 삶의 세계 속에서 통일을 위해 어떤 마음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통해 다루었다.

### Ⅲ. 통일교육 지도지침

#### 1. 고등 학교급의 지도지침

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는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개척 능력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sup>13)</sup>

이러한 중학교 교육의 중점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통일교육은, 가정과 사회, 국가 내의 비평화적 요소를 극복하는 평화능력의 형성을 기초로 북한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남북간의 화해·협력, 그리고 통일문제와 관련된 인식을 심화하고,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함양하며, 능동적으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통일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보다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 ①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비평화적 사태 해결 사례와 남북한 교류협력 사례, 그리고 지구촌에서 갈등의 평화적 해결 사례에 대한 탐구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② 민주주의의 이념과 체제, 제도, 민주시민의 덕목과 능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비민주적 요소를 극복·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정치참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③ 분단과 전쟁의 원인과 폐해를 역사적,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여 통일을 달성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혜택을 인식하여 통일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심어 주도록 한다.

---

13) 위의 책, p.4.

- ④ 북한사회와 주민, 청소년 생활을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고, 이를 기초로 남북한 사회에 대한 비교인식을 통해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질성을 이해하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도록 한다.
- ⑤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된 민족공동체를 재창조하기 위해 자신과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부문들을 이해하도록 한다.

## 2. 교과별 지도지침

분단국 사례를 통해 볼 때, 통일 전 서독은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에서 통일 대비 정치교육을 다루는 주요 교과로서 역사, 사회생활, 지리, 독일어를 중시하고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음악이나 미술 수업에서도 통일문제와 독일 상황과 관련된 주제들이 다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통일교육 또한 첫째, 범교과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도덕과, 국어과, 국사과, 일반사회, 지리, 음악, 예술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통일관 정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 및 과외활동을 통한 다양한 통일교육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과교육 차원에서 통일교육은 범교과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도덕과를 비롯한 국어, 사회, 역사뿐만 아니라, 예체능 교과에서도 다룰 수 있는 교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수업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도덕과는 북한 및 통일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토대로 평화의 기초 위에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한간의 도덕적·윤리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바람직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한다.

국어과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남북한 국어교육의 총체적인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초 지식을 통해 국어의 이질화 문제를 민족동질성의 회복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언어의 측면에서는 남북한 언어의 장단점을 이해하여

통합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언어체계의 수립 가능성을 인식하게 하고, 문학적 교류를 통해 한국 문학의 토양을 보다 깊게 할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데 주안점을 둔다.

국사과는 우선 남북한 역사관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역사서술상의 특성을 비교 이해하게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남북 분단의 역사적 사실과 조건을 인식하고, 한국사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일사례를 통해 현재의 남북한의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

일반사회과는 남북한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이질성과 동질성을 인식한다. 나아가 통일 한국에서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세를 갖도록 한다.

지리과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북한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을 환경공동체로 인식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토통일의 미래상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음악·미술과는 북한 음악·미술을 이해하고 남북한 음악·미술의 가치지향과 구체적인 표현양식에서 나타나는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이해와 화합을 이루어 음악과 미술을 통해 남북 분단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함양시키는데 중점을 둔다.<sup>14)</sup>

### 3. 내용상의 지도지침

#### 가. 통일의 필요성과 분단현실 문제

##### (1) 실용주의적 접근에서 출발하는 통일의 당위성

대부분의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은

14) 오기성, “학교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공주교육대학교 세미나 주제발표논문 (2001. 7), pp.24-25.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중등학생의 통일의식을 보면, 중학교가 초등학교보다,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낮은 인식도를 보인다. 아울러 대학에 입학하면서 낮았던 인지도는 한시적이거나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의 통일의식, 그리고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를 보였던 2001년도 통일의식 조사 결과가 편차를 보인다. 즉 정상회담 직후 이루어진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학생들의 통일의식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1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 낮은 수준의 통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통일의식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 중의 하나는, 대체로 학생들은 통일을 당위적인 차원에서 '무조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기보다는 필요성의 차원에서 보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통일문제를 과거의 규범적 내지 당위론적 통일론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흔히 N세대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의 통일의지 함양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은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변화에 맞추어 필요성의 차원에서 먼저 접근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통일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여기에 학생들의 관심과는 비교적 거리가 먼 민족사적 측면을 포함하는 통일의 당위성 논의가 부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볼 경우 통일의 필요성은 통일이 가져다 줄 경제적 혜택, 예컨대 분단비용 감소와 통일의 편익의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감소된 분단비용이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 즉 교실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이나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 등에 투여됨으로써 실제로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일의 혜택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통일을 '희망'할 수 있는 적극적인 통일의지를 함양할 수 있다. 이외에도 통일이 가져다 줄 혜택에 대한 예는 통일할 경우 통일한국이 국제경기에서 얻을 수 있는 메달의 수, 육로를 통한 북한 지역, 나아가 유럽으로의 수학여행 등 많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통일은 단순히 북한지역을 여행하거나 교실 환경 개선만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통일이 가져다 줄 혜택의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여기에 민족사적 차원이나 동북아의 평화, 해외 동포와 이산가족 등의 고통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당위적 측면을 부가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조화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 학생들의 현재 생활세계에서 출발하는 분단의 원인

1945년 4월 8일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 한민족은 해방을 맞이하였다. 아울러 연합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38선으로의 분단상황은 6.25 전쟁과 더불어 분단의 고착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내용 전개는 전통적으로 학교 통일교육이 분단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시도할 경우 교과서에서 전형적으로 진술되는 논리 전개방식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자신의 문제로 현재의 문제로 다가갈 수 있을까?

분단의 원인과 과정, 폐해를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과거의 오욕의 역사, 고통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게 하는데 있다. 그러나 먼 과거의 사건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은 그리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사건이 일어난 연도별 사건을 나열하는 것은 학교 통일교육에서 지양되어야 할 접근방식이다.

따라서 분단의 원인과 과정, 폐해, 교훈 등을 다룰 경우 무엇보다 현재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학급회의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경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간의 특정 주제에 대한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 토론과 설득능력, 타인의 견해의 장점을 수용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수정해나가는 능력, 의견이 다르더라도 관용을 가지고 경청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교사들이 파악한다. 그럼으로써 학급회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민주 시민의식과 능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민족은 얼마나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분단의 원인과 과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분단의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 민족 내부의 취약성, 특

히 해방공간에서 지도자들간의 민주시민의식과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통일된 민주국가를 건설하지 못한 결과 분단으로 이어졌음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주변국의 이해와 전략 등의 외쟁형 분단의 성격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분단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의 관심과는 먼 과거의 남의 사건으로 인식되도록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공간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역사상에서 나타난 분단의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와 연계되고 동시에 자연스럽게 현재와 과거를 연계시켜 학습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 (3)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분단의 현실

일반적으로 분단의 폐해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 등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측면에서는 분단상황의 지속 속에서 안보이데올로기의 강화와 군사문화의 형성으로 인해 우리의 사고가 흑백논리적 경향이 강함으로써 남한의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으며, 군사력의 유지를 위해 외국의 지원 속에서 초래되는 지원국 국민과 수혜국인 우리 국민들의 처우상의 불평등과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성을 살리지 못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건설하지 못함으로써 민족역량을 낭비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남북한간의 군비경쟁으로 인한 전쟁의 위험성과 군비확장에 따른 군사비의 과도한 지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적색혐오증과 같은 사회의식의 형성, 권위주의 문화의 형성, 언어 및 문학 예술 그리고 미풍양속의 이질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산가족과 해외동포들의 분단으로 인한 고통도 초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분단의 폐해를 학생들에게 나열할 경우, 그러한 문제가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중대한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데 있다. 특히 자신의 문제가 아닌 남의 문제라고 보이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분단의 폐해를 다룬 경우에도 거창한 세계적 문제나 국가의 문제보다는 학생들의 생활세계로부터 출발하여 보다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예컨대 분단의 폐해의 극복을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논의는 남의 고통이 아니라 학생들 자신의 고통으로 공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정에서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베풀어 주는 여러 가지 배려와 사랑,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사랑 등을 열거하게 한다.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주제를 허심탄회하게 발표하게 한 후, “만일 그러한 자상한 어머니가 오늘 안계신다면?”, 나아가 “그런 어머니를 이제 볼 수 없다면?” 등의 질문을 통해 어떤 일이 생길지를, 아울러 자신과 아버지, 언니나 누나, 동생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 것인지를 발표하게 한다. 그리고 이산가족의 고통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이러한 접근은 결국 청소년 자신의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통해 이산가족의 고통에 대한 감정이입적 이해를 함으로써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 나. 북한사회의 이해

### (1) 북한을 보는 시각

북한은 한반도에서 한 핏줄을 타고났으며 반세기를 함께 살아온 형제이다. 동시에 앞으로 우리와 하나된 자주적인 힘을 주축으로 주변국의 협력을 통해 통일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동반자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남이 아닌 우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6.25를 통해 동족상잔을 일으킴으로써 민족사에 비극을 만들어냈으며 이로 인해 물질, 인적 고통을 주었다. 그리고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서도 아직도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만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은 남이며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볼 때 남과 북은 형제이지만 아직까지도 군사적으로 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이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현실 속에서 북한의 적대성을 완화하고 그들을 공존과 동반자적 관계로 이끌어 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일방적 편견을 벗고 ‘우리 아닌 남’으로

서의 북한을 ‘남 아닌 우리’로서 끌어안아야 할 존재로 인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북한 주민과 청소년의 생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이해에서는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합리적·생활체험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지리에 대한 제도·체제적 특징(체제중심의 접근)과 아울러 그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상(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을 소개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소개할 경우 주민들이 살아가는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실제적 삶의 내용을 사실 그대로 알려주고 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선전하는 내용을 마치 북한의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의 사회문화적 현상 및 주민들의 생활실태를 남북한간 직접 비교를 통하여 남한의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하기보다는 ‘차이’라는 관점에서 이해시키도록 하며 우리와 다른 그러한 ‘차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문제의식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에서는 북한의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의 전교육과정 및 교과목, 교육내용, 북한 학교에서의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교우관계 등을 소개하고 그 특성을 제시하되, 우리의 교육현실과 같은 점은 없는지 등도 설명해 주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동년배로서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 상, 즉 교과활동과 교과의 활동을 포함하는 북한 학생들의 하루 일과, 가정 생활, 단체 활동, 여가 활동 등도 소개하여 생활체험적으로 접근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주제를 다룰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북한이 사회주의 교육 이념에 따라 사상교양을 중요시해 왔다는 사실만을 기초로 북한의 교육을 김일성 우상화교육, 인민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 남한 사회주의 혁명의 도구라는 단순 논리속에서 고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북한 교육은 정치사상 교양의 강화를 중요시하고 있지

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보편적인 지식들을 교육내용으로 설정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인간됨됨이에 대한 교육 또한 중요시하고 있다는 측면도 소개하여야 한다.

### (3) 남북한 사회의 다름과 같음

분단 이후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건설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자신들의 모습을 일구어 왔다. 이 과정에서 남북은 서로 다름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이질화 속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같음, 즉 동질성을 지녀왔다.

이 부분을 지도할 경우 남과 북의 모습과 관련하여 이질적 측면과 동질적 측면을 소개하지만 체제가 지향하는 이념에 영향을 받는 측면과 영향을 받지 않는 측면,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속되어 온 측면을 중요시해야 한다. 이것은 남북한 사회문화의 같음의 이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측면이나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측면,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속되어 온 측면들은 남북의 같음에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남과 북의 서로의 모습을 같음과 다름의 차원에서 가감없이 전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동안 남북의 평화와 화해협력, 그리고 통일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우리들은 남북한 문화가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견해를 많이 들어왔다. 이러한 견해는 남북한이 분단 반세기 동안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의 이질성과 전통적 측면에서의 동질성을 보여준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당위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남북한 문화가 전통적인 측면에서 동질성이 있고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 이질성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주로 70년대에 남북한 냉전체제하에서 정립된 남북한 문화에 대한 시각에 기초한다. 그러나 남북한 문화에 있어 전통적 측면에서만 동질성이 있는 것도 아니요,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 이질성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남북한 문화의 동질성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만 작용하지

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남북의 이질적 측면, 즉 '다름'일지라도 양자의 화해협력과 통합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 다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남북의 '긍정적 다름'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사회를 비하하거나 열등한 사회로 보아온 시각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함으로써 서로 화해협력할 수 있고, 나아가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문화국가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통일을 희망적으로 갈구할 수 있도록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다. 통일 미래상과 하나됨을 위한 노력

##### (1) 통일미래상 인식의 문제

통일 사회의 미래상은 '다름을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같음을 기뻐할 수 있는 사회', '나눔의 문화가 풍성한 사회', '인간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상승된 국력을 가진 도덕적 민주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민주라는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시장경제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통일한국의 미래상의 기초라고 볼 때 민주라는 가치는 어떤 것일까?

민주라는 가치는 '반공'과 동의어이거나 북한에 비한 무조건적 우월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맹목적 신념 함양보다는 그 원리와 지향가치를 단순히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신뢰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는 인류 역사를 통해 인류가 여러 대안적인 이념과 체제를 구상하고 실험해 오는 가운데 최선의 가치이자 체제라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는 여러 대안적 이념과 체제들과 차별된 형태라기보다는 발전과정에서 여러 이념과 체제를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온 열린 이념과 체제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인류가 살아가는데 있어 여러 가지 이념과 체제가 하나의 스펙트럼 속에 위치할 수 있으며, 여기에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와 가치가 여러 대안 중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인류의 행복을 구가해줄 수 있는 이념이자 체제가 될 수 있다는 개방적 견해를 가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교사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단순히 이념이나 덕목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체득하고 동시에 소중한 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 (2)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이 부분에서 우선 중요시 되어야 할 문제는 남북한간에 평화와 이에 기초한 공존이라는 인식이다. 남북한은 그동안 6.25라는 동족상잔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동족상잔의 비극은 분단상태를 지속해오면서 서로를 위협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군비증강을 지속시켜 오게 했다. 그럼으로써 한반도는 냉전의 토양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한간에는 적대감과 대결심리가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한간에 가장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한민족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전쟁이 다시는 발발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이 함께 평화를 정착시키고 유지시키며,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를 만드는 능력의 함양으로서 평화교육은 남북한간의 평화 문제 이전에 청소년들의 경우는 학교생활에서 비평화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 능력 배양에서 출발한다. 예컨대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교실에서 힘이 센 한 아이가 폭력으로 자신을 구타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탐구함으로써 평화교육은 시작된다. 즉 학교생활속에서의 평화만들기가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의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의 문제가 선행되고, 이를 기초로 남북한간의 평화, 세계평화의 문제가 논의된다.

## 4. 교수·학습 방법상의 지도지침

과거의 통일교육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 중의 하나는 학습자의 관심과는 멀리있는

통일교육을 시행해 왔다는 점이다. 통일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통일교육 수요자의 의식도 변하고 있다.

교육이라는 것이 학습자가 원하는 것만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관심과 성향을 무시한 통일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통일교육의 내용이나 소재는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는 현재로부터, 제도나 정책에 대한 거창하고 먼 추상적인 이야기 보다는 청소년들 주변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는 북한사회를 학생들이 학습하게 될 경우, 지도자, 권력구조, 이념 등의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또래들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교수-학습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과외활동, 어린이들의 고민, 여가생활 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통일교육은 다양한 학습 및 실천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수업내용들을 단순히 지식으로 암기하고 평가받는 차원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통일교육은 다양한 학습 및 실천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하여 통일의지의 내면화를 유도해 내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 올바른 이념과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통일의지를 지닐 수 있도록 독후감 쓰기에부터 북한관 견학에 이르기까지, 교과학습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활용하고 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기회 및 학습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통일교육을 이끌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면 첫째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통일의 대내외적 환경에 부응하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사자료를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NIE, PMR, Portfolio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 교실에 앉아서 듣기보다는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 통일문제를 학습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북한 통일문제 관련 OX 퀴즈, 주사위놀이, 4행시, 낱말과 퍼즐, 초대장 만들기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시청각 자료를 활



용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국내 방송사에서 편집, 방영되었던 북한 아동영화나 수원 효원고등학교에서 제작된 '일심'을 활용할 수도 있다.

넷째로, 남북한 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삶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현장체험학습, 봉사활동, 문화이해지, 역할 놀이 등이 있다.

끝으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집단탐구와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이 있다. 예컨대 Jigsaw, 집단조사활동, 정보사냥대회, CD활용 수업 등이 있을 수 있다.

## Ⅳ. 지도서의 체계

### I. 대단원명 :

#### 1. 단원의 개관

대단원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학습해야 할 내용을 기술

#### 2. 단원 학습목표

대단원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 제시

#### 3. 단원의 구성 도표화

대단원의 구성요소로서 중단원, 소단원의 항목을 도표로 구성하여 제시

#### 4. 단원별 지도 자료

##### (1) 중단원 명

중단원 이름 제시

##### (2) 학습 목표

해당 중단원을 통해 성취해야 할 구체적인 학습 목표 제시

##### (3) 수업 방법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 적합하며, 동시에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 소개

##### (4) 교수-학습 과정안

제시된 수업모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본시 수업지도안 제시

##### (5) 학습 자료

학생들이 수업 진행 중 또는 말미에 직접 작성해야 할 학습지를 제시하여 추후 수행 평가 자료로 활용

##### (6) 참고 자료

해당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를 보완하는 다양한 자료 제시

## 제 2 부

# 지도의 실체

I. 21세기, 남과 북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

II. 북한 사람들의 삶

III. 북한 청소년의 생활

IV. 하나됨을 위하여



## 1. 21세기, 남과 북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

### 1. 단원의 개관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일제 치하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기쁨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한 채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다. 분단은 우리 민족의 통일 역량이 부족한 탓도 있었지만 열강의 이해를 둘러싼 각축과 이에 따른 미·소의 자국 위주의 정책 결정에도 그 원인이 있다. 1950년 민족 상잔의 비극은 이러한 분단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분단을 고착화 시켜왔다.

동족으로서 남과 북으로 헤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이 무려 1천만명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척도이다. 우리 민족은 이산가족의 고통 이외에 민족 문화의 이질화 현상을 겪고 있다. 언어와 각종 문화는 반세기 이상을 지나오면서 이질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라나는 신세대들은 이질화된 민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북한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6·25 전쟁 후 냉전적이었던 남북 관계는 1960년대부터 통일에 대한 노력이 서서히 가시화되면서 통일을 이루어야겠다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남북한은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1973년 '8·15 평화통일 구상 선언'을 필두로 시작된 우리의 꾸준한 통일 노력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교환 방문 등을 통해 통일의 그 순간이 다가온 것처럼 급진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몇 차례에 걸친 일방적인 남북대화의 중단과 도발적인 행위는 통일논의를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한국은 몇 차례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통일에 대한 투자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1980년대말 세계 정세의 변화에 힘입어 한·소 수교와 한·중 수교 그리고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1991. 9)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더욱이 한국은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과의 정상회담까지 약속하기에 이르렀으나, 갑작스런 김일성의 사망으로 한동안 침묵기를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추진결과는 2000년 6월 13일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양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남북 정상이 서로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실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문제를 자주·평화·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 통일은 우리의 삶을 보다 평화롭게 하기 위함이고, 이산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한 인류애적인 노력이며, 대립적인 경제 비용을 줄여 문화 선진국에 도달하기 위함이며, 세계인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단원의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왜 분단된 삶이 시작되었을까?'에서는 한반도 분단의 원인과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통일은 분단극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분단 원인이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반세기 이상을 분단된 채 살아오게 되었는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둘째, '왜 통일이 필요할까?'에서는 우리가 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의 뚜렷한 목적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즉, 통일은 청소년들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평화롭게 하기 위함이고, 경제적으로 분단비용을 문화·복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계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은 이 단원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여 통일에 대한 굳은 의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통일을 위해 남북한은 어떠한 노력을 해 왔을까?'에서는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한의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 남북이 분단된 후 60년대까지는 냉전 상태를 거듭하면서 서로를 적대시하였다. 민족문화는 이질화되었으며,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냉전적인 분위기는 남한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1970년대부터 빛을 보기 시작하여 남북이 통일논의 현장에서 서로 만남을 갖기 시작하였다. '7·4남북 공동성명'으로부터 30년에 가까운 2000년 6월 13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까지의 과정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 화해·협력 시대를 맞이하면서 증대된 남북의 만남과 다가서기의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통일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였다.

## 2. 단원의 목표

가. 분단의 원인과 과정을 알고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 (1) 분단의 원인을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2) 남북으로 나뉘어진 분단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3) 남북 분단의 원인과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말할 수 있다.

나.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 이를 내면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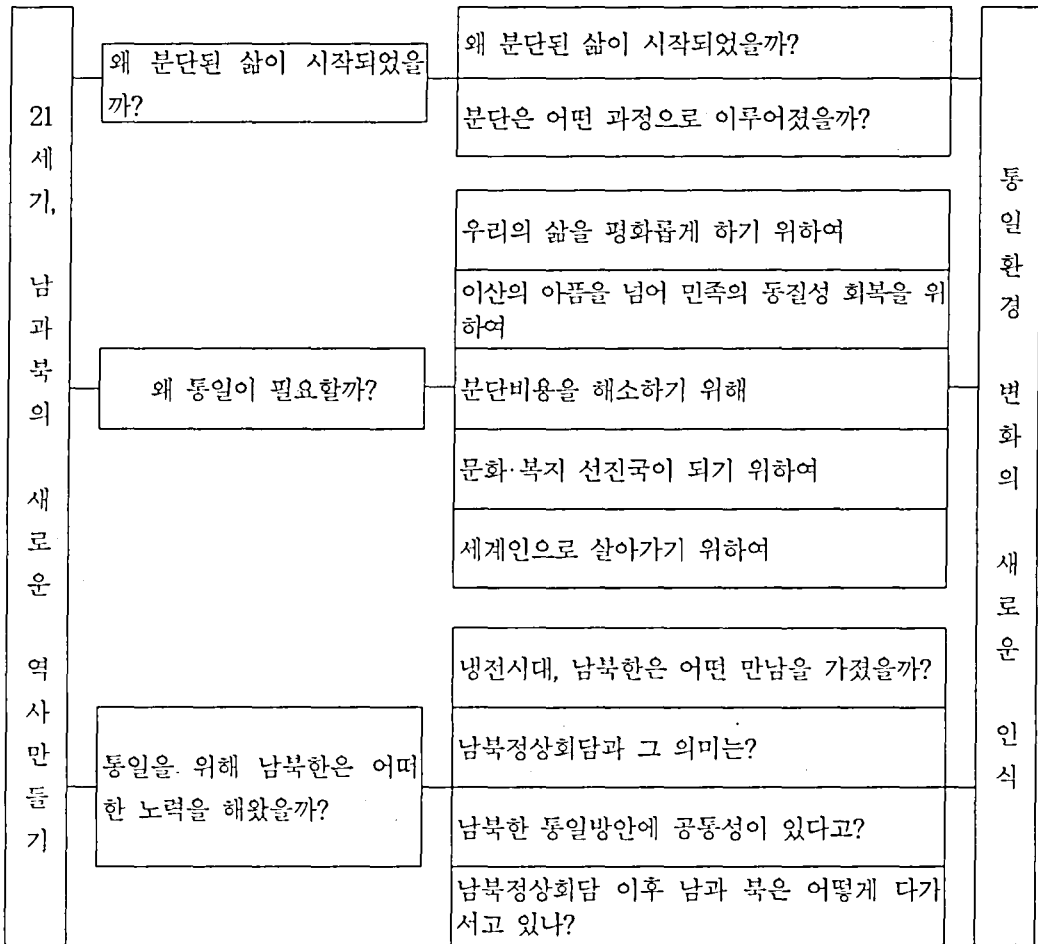
- (1)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 (2) 통일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당위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다. 분단 이후 통일을 위한 남북의 노력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제시할 수 있다.

- (1) 남북 통일정책의 변천과정과 남북 통일 방안의 공통점을 찾아 설명할 수 있다.

- (2)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 (3)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 3. 단원의 구성





#### 4. 단원별 지도 자료

##### 가. 왜 분단된 삶이 시작되었을까?

###### (1) 학습 목표

- (가) 분단의 원인을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나) 남북으로 나뉘어진 분단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다) 남북 분단의 원인과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말할 수 있다.

###### (2) 교수-학습 모형 : 시청각 매체 활용 모형

###### (가) 시청각 매체의 특성

시청각 매체는 주로 비디오 카메라에 의해 제작되고 VTR에 의해 시청되는 비디오 자료, 영화제작용 카메라에 의해 제작되고 영사기를 통해 활용되는 영화, 그리고 방송국에서 카메라로 제작, 송출되어 TV나 VTR을 통해 활용되는 교육방송, 컴퓨터에 의해 제작되어 컴퓨터로 활용될 수 있는 CD, DVD(digital video disk) 자료 등이 있다.<sup>15)</sup> 물론 이러한 시청각 자료는 교육단계별 수준에 맞게 제작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예컨대 시청각 자료는 남남북녀의 결혼, 북한의 민속놀이, 남북한의 가족생활, 북한주민의 여가생활, 남북의 청소년 교육, 북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여가생활 등을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차별화 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시청각 자료의 개발은 재정적으로나, 시간적,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시청각 자료의 개발을 위해 특히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들을 녹화하여 두었다가 활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또는 학생들로 하여금 어느 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일정 기간 동안 모니터 한 후에 그 느낌을 발표하게 할 수도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북한 기

15) 한만길·오기성·정영순,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통일교육 지도지침 및 자료 개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9), pp.48-49.

행문이나 수기들, 통일교육 관련 동화들이 많이 발간되었으므로,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는 실제 인물 시범이나 문학 작품 속의 시범, 영상 매체 속의 시범 등을 다채롭게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하는데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시청각 자료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통일교육은 학생들이 북한과 통일 관련 정보를 주로 TV나 라디오와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얻고 있고, 최근에 무궁무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CD-Rom 및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히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매우 적절하고 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시청각 매체를 통해 현실적인 학습 경험을 거의 무한히 확대시킬 수 있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 (나) 시청각매체 활용 모형 단계

수업에 활용할 매체와 자료를 선정하는 것은 수업의 목표와 수업방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매체나 다른 자료를 선정하는 것은 수업방법의 선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수업방식의 선정은 수업목표와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업방법, 매체, 그리고 자료를 선정하는 것은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수업설계는 시청전 사전점검, 시청활동, 시청후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1) 1단계 : 시청전 점검

미리 매체를 시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봐야 한다. ① 학습목표의 달성에 도움을 주는가? (효과성) ② 학습목표의 달성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가? (효율성) ③ 학습자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내용과 구조인가? (매력성) ④ 학습자들에게 도덕적으로 안전한 내용인가? (안정성) ⑤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며 사용된 언어는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한가? (선수학습면) ⑥ 화질과 음질은 양호한가? (기술성) ⑦ 활용하는 장비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설비면) ⑧ 활용하는데

필요한 환경은 구성되어 있는가? (환경면) ⑨ 학습자들의 주의를 집중하기에 충분한가? (주의집중성) ⑩ 최신의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가? (시사성)

### 2) 2단계 : 시청활동

교사는 시청하기 직전에 프로그램의 개요와 특징, 그리고 선행조직자를 제시하고, 특별히 주의해서 보아야 할 요소와 부분을 지적해준다. 프로그램의 시청은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하는 것이 좋으며 시청중의 유의사항은 ① 시청도중 학습자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는지,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한다. ② 보충설명이나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메모한다. ③ TV나 스크린에 확대되어 제시된 결론이나 사건의 인상에 대한 오해나 착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보충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

### 3) 3단계 : 시청 후 활동

시청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간단한 질의, 응답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청시간이 길었다고 생각되면 꼭 정리하도록 하며, 시청 중에 한 메모를 토대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설명을 한다. 또한 시청내용에 직접 해보는 활동이 요구되는 것이면 함께 해보도록 한다.

#### (다) 본시 수업 모형 활용의 유의사항

- 1) 시청각 매체 활용 수업의 경우 인지적 측면의 효과보다는 내면적 측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각 매체 선정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 2) 교사는 사전활동을 통해 시청각 자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작업을 해야한다.
- 3) 시청각 매체 활용 수업의 경우 학생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어 수업시간을 무의미하게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시청활동 전 유의 사항을 반드시 교육하여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4) 시청후에는 반드시 학생들의 소감을 적게 하거나, 발표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성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3) 교수-학습 지도안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학습상기</li> <li>○ 학습 동기 부여</li> <li>○ 학습 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학습 '왜 통일이 필요할까?'에 대해 질문한다.</li> <li>○ 38도선에 관한 사진을 보여준다.</li> <li>○ 학습목표를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의에 응답한다.</li> <li>○ 경청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료&lt;1&gt; 통일교육CD자료</li> </ul>
전개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전 유의 사항 점검</li> <li>○ 해방</li> <li>○ 분단의 원인</li> <li>○ 분단에 관한 V T R 자료 (10')</li> <li>○ 6·25전쟁에 관한 VTR자료(5')</li> <li>○ 시청 후 보고서 자료 정리</li> <li>○ 소감문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전 유의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한다.</li> <li>○ 해방의 기쁨에 관한 사진 제시한다.</li> <li>○ 한반도 분단에 대한 대내외적 원인을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단의 대외적 원인</li> <li>·분단의 대내적 원인</li> </ul> </li> <li>○ 남북분단에 관한 VTR자료(한국전쟁 10부작-(1) 분단, (2) 남과 북)을 보여준다.</li> <li>○ 6·25전쟁에 관한 VTR자료(한국전쟁 10부작-(4) 50년 6월부터 9월까지, (5) 북진)를 보여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 분단이 더욱 고착되었음을 강조한다.</li> </ul> </li> <li>○ 시청 후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다.</li> <li>○ 몇 명을 지명하여 소감문을 발표하게 한다.</li> <li>○ 남북 분단의 교훈을 강조하여 설명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용히 경청한다.</li> <li>○ 사진을 본다.</li> <li>○ 경청하면서 메모한다.</li> <li>○ 조용히 시청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공책에 메모한다.</li> <li>○ 작성한다.</li> <li>○ 소감문 내용을 발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할 때의 태도 교육</li> <li>○ 8·15해방으로 기뻐하는 우리 민족의 사진</li> <li>*참고자료&lt;1&gt;, &lt;2&gt;</li> <li>○ 학습자료&lt;2&gt;</li> <li>○ 학습자료&lt;3&gt;</li> <li>*참고자료&lt;3&gt;</li> <li>○ 학습자료&lt;4&gt;</li> </ul>
정리 및 평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li> <li>○ 형성평가</li> <li>○ 차시학습예고 및 과제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내용을 정리해 준다.</li> <li>·38선과 군사분계선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준다.</li> <li>○ 학습자료 5를 분배한다.</li> <li>○ 차시 학습을 예고(통일을 위해 남북한은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 및 과제를 부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료&lt;5&gt;를 작성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료&lt;5&gt;</li> <li>○ 학습자료&lt;6&gt; 과제 제시</li> </ul>

## (4) 학습 자료

## &lt;1&gt; 분단의 배경과 과정 사진16) - 2000통일교육지도자료 '대립에서 화합으로' 사진

우리 민족은 지리적, 정치적, 그리고 민족적 차원의 3단계를 거치면서 고착화되고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지리적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처리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이들을 무장해제하기 위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 점령하면서 비롯되었다. 전후 전승국들은 일정기간 신탁통치를 거쳐 독립시켜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한 찬반논쟁은 남북 지역의 좌우익간의 갈등과 함께 미소공동위원회의 개최를 가져왔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는 모두 결렬되었고, 한반도의 통일국가 수립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함으로써 남북 독자정부 구성은 불가피해지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그 후 남과 북에는 각기 독자적인 헌법과 정부가 구성되어 한반도에는 사실상 2개의 국가가 성립되었다.

## &lt;2&gt; VTR 자료 1 : 한국전쟁 10부작 중(KBS 90년작, 각 50분) (1) 분단, (2) 남과 북

## (1) 분단(해방 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카이로와 알타, 그리고 포츠담으로 이어지는 연합군의 수뇌회담에서 한반도의 운명적인 분단을 본다.

## (2) 남과 북(해방이후부터 1948년 8월까지)

한민족은 정치적 혼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3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극과 극의 적대적인 이데올로기의 옷으로 구분되는 민족으로 분열되었다

## &lt;3&gt; VTR 자료 2 : 한국전쟁 10부작 중(KBS 90년작, 각 50분) (4) 50년 6월부터 9월까지, (5) 북진

## (4) (1950년 6월부터 9월까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기습 남침한 북한군의 대성공으로 38선은 무너지고 서울은 단사 혼란에 북한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서울수복까지 90일 동안의 공산통치 모습이 전개된다.

## (5) 북진(1950년 9월부터 10월까지)

인천상륙 작전은 한국전쟁의 양상을 일순에 역전시켰다. 미 8군과 인천 상륙 부대인 10군단은 북한군의 주력을 격파하고 서울 남쪽에서 합류한다.

16) 한국교육개발원, 2000통일교육지도자료 '대립에서 화합으로(CD자료)' 1-1-1 (2000. 11)에 제시된 사진의 내용은 '군사분계선'에서 국군과 인민군의 모습이 나와 있는 사진임.

<4> 남북 분단의 이해에 관한 소감문

제 ( )학년 ( )성명 ( )	
한 반 도 분 단 의 대 외 적 원인	1. 일본의 항복 이후 한반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나?  
	2. 만약 소련이 한반도 북쪽에 들어오기 전 미군이 먼저 한반도에 들어왔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 한반도에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게 된 명목상의 이유는 무엇이었나?  
한반도 분단의 대내적 원인	1. 우리 민족이 통합되지 못하고 분열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신탁통치안 결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분열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김구 선생은 남북통일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6·25 전쟁의 결과	1. 6·25전쟁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기습적인 침투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대한민국은 UN의 지원으로 압록강까지 반격하여 통일을 눈앞에 두었으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다시 후퇴하여 원치 않던 군사정전협정을 맺게 되었다. 여러분이 당시의 대통령이었다면 어떠한 결정을 하였을까요?  

<5> 한반도 지도 그려보기

**한반도 지도 그리기  
(38선과 휴전선 그리기)**

1. 준비물 : 한반도 지도책, 연필, 지우개, 색깔이 다양한 사인펜 준비	
2. 활동 사항 : 가. 지도책을 보면서 한반도 지도를 그린다. 나. 38선과 휴전선을 다른 색의 사인펜으로 표기한다. 다. 남북한의 유명한 산과 강을 표기한다. 라. 작성하면서 국토 분단의 소감을 기록해 본다.	
3. 한반도 지도 그리기	
4. 소감문 작성	
지도 교사 확인 :	

<6> 남북 분단 관련 퍼즐 맞추기

<문제지>

						(4)			
①									
		②							
								(5)	
③			④	(3)					
(1)	(2)								
			⑤						

<해답>

								김	
냉	전							구	
			트	루	먼				
									에
닉	슨			군	장				치
					읍				슨
알		카							
타		이		모	스	크	바		
		로							

<가로 열쇠>

- 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 사이에 걸친 대립과 체제 경쟁을 일컫는 말로 미국의 언론인 월터 리프먼이 처음 사용하였다.
- ② 1947년 미국 의회에서 발표되었던 ○○○ 독트린은 공산화 위협에 처한 그리스, 터키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 정책을 천명하면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진영간의 냉전의 시작을 알렸다.
- ③ 1969년 미국의 대통령은 ○○은 ‘세계의 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고, 공산국가와의 정면 대결을 완화할 것을 선언하는 ○○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한반도에서 열전으로까지 치달았던 냉전은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 ④ 우리 민족의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왔던 38선의 최초의 의미는 임시적인 군사 작전 분계선이었으나, 이후 남북한에서 미군과 소련군이 최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을 통해 영구적인 분단선으로 자리잡게 된다.
- ⑤ 미·소 공동위원회의 개최와 반탁 운동이 전개된 직접적인 계기는 1945년 12월 ○○○○에서 열린 미·영·소 3국 외상 회의였다.



## &lt;세로 열쇠&gt;

- (1)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 방침은 이미 1945년 2월에 개최된 ○○ 회담에서 미·영·소 삼국에 의해 비밀리에 결정되었다.
- (2)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확인한 국제 회담으로 1943년 11월 루스벨트, 장제스, 처칠이 회합한 이집트의 도시 이름을 딴 이 선언은 ○○○ 선언?
- (3) 유엔 결의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론에 대한 민족주의 계열의 반응은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었는데, 이승만은 ○○ 발언을 통해 단독 정부론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 (4)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독립 국가 수립이라는 유엔의 결의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라는 주장을 통해 유엔 결의를 반대하고 평양으로 건너가 김일성과 통일을 위한 남북 회담을 개최한 이는?
- (5) 1950년 1월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한다는 이것의 발표는 북한의 남침 야욕을 부추겨 한국전쟁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라인

## (5) 참고자료

## &lt;1&gt; 왜 분단된 삶이 시작되었을까?

한반도 분단의 배경에는 크게 보아 2개의 서로 연결된 요인들이 있다. 하나는 민족 내부적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 외부적 요인, 즉 국제적 요인이다.

우선 민족 내부적 요인부터 검토할 때 멀리는 19세기 후반 이후 민족적 과제로 등장한 근대적 민족국가의 수립에 성공하지 못해 외세의 각축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긴 민족 내부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망국은 조선조 후기 이후 깊어가던 민족 내부의 갈등을 더욱 더 첨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고, 또 한민족을 일제의 일원으로 취급받게 함으로써 전후 처리 과정에서 분단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민족 내부의 요인 중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항일민족해방투쟁 과정에서의 분열이다. 이 분열은 단순히 투쟁의 방략을 둘러싼 분열이 아니라 해방된 나라의 미래

상을 둘러싼 보다 근원적이고 이념적인 분열이었으며, 그 분열 속에는 계급 투쟁적 요소마저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

해방투쟁의 분열이 이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없이 민족의 구심점이면서 동시에 국제적 승인까지 얻어낼 수 있는 망명정부를 수립하지 못하였다. 물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민족 해방투쟁의 구심력을 발휘했던 것은 다행스런 일이었다. 특히 임시정부가 1940년 이후에는 이념적 노선을 달리하는 여러 정치세력을 규합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일제에 대해 선전을 포고했던 것은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빛나는 업적들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국제사회에서는 이 임정이 민족해방투쟁을 대표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임정은 망명정부로 공인되지 못했던 것이다. 만일 공인된 망명정부가 있었다면, 분단은 회피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해방투쟁의 분열이 분단의 민족 내부적 요인이라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민족 내부의 갈등은 1945년 8월의 분단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일제가 패망해 식민 통치기구 자체가 붕괴되고 새로운 조국의 건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좌우 계급 투쟁은 더욱 날카로워 졌다. 이 계급투쟁은 남북한 각각에서 좌우대결을 낳았고 또 남북대결을 깊게 만들었다. 이러한 이념적 갈등은 마침내 1948년 8-9월 남북한에 별개의 서로 충돌하는 정권을 만들어 내는데 이바지한 것이다. 이 점은 오늘날의 한반도 분단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어 민족 외부적 요인을 검토할 때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경쟁이다. 유럽의 폴란드와 벨기에가 그랬듯이 한반도 역시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충돌하는 지역이다. 다시 말해 열강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인 한반도를 자신의 독점적 지배나 영향아래 두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자신 역시 참여하는 공동지배나 공동관리하에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한민족은 오랫동안 독립을 유지하기는 했으나 열강의 권력정치 또는 세력균형의 정치에 희생된 역사적 기록들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

1945년 8월의 한반도 분단은 열강의 각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열강이 한

반도의 장래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의 패전이 예견되기 시작한 1943년에 들어와서이다. 이 때 가장 구체적인 구상을 마련한 나라는 미국이었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구상에 대해 반응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미국은 한반도를 미·소의 협력을 토대로 하는 관련 강대국들의 공동관리 아래 두는 구상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 강대국들의 이해가 중화되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은 회피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에 “아시아 인민들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일정한 기간 민주정치의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루즈벨트의 지론이 결부되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미·영·중·소 4개국의 신탁통치 방안으로 굳어져 갔다.

물론 신탁통치 구상 그 자체에는 분단을 추구하는 구상이 들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4대국 공동관리’ 그 자체는 미·소의 ‘공동점령’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곧 군사적 분할임은 처음부터 명백한 사실이었다.

(김학준 외, 남북의 생활상, 박영사, 1987, pp.3-7 참조)

<2> 한국전쟁 10부작(KBS 90년작, 각 50분)

(1) 분단(해방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카이로와 얄타, 그리고 포츠담으로 이어지는 연합군의 수뇌회담에서 한반도의 운명적인 분단을 본다.

(2) 남과 북(해방이후부터 1948년 8월까지)

한민족은 정치적 혼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3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극과 극의 적대적인 이데올로기의 옷으로 구분되는 민족으로 분열되었다

(3) 전쟁의 시그널(1948년 8월부터 1950년 6월까지)-

하나일 수밖에 없는 한반도에 두 개의 적대적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미 전쟁의 신호탄은 오른 셈이었다.

(4) (1950년 6월부터 9월까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기습 남침한 북한군의 대성공으로 38선은 무너지고 서울은 단 사흘만에 북한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서울수복까지 90일 동안의 공산통치 모습이 전개 된다.

(5) 북진(1950년 9월부터 10월까지)

인천상륙 작전은 한국전쟁의 양상을 일순에 역전시켰다. 미 8군과 인천 상륙 부대인 10군단은 북한군의 주력을 격파하고 서울 남쪽에서 합류한다.

(6) 또다른 전쟁(1950년 10월부터 51년 6월까지)

미국은 중공군의 개입을 오판함으로써 두 번 후퇴의 고배를 맛본다. 미군 철수와 1.4후퇴 등으로 패배주의가 UN측에 번져 서방국가들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유엔군의 철수론까지 거론된다.

(7) 협상의 비탈(1951년 6월부터 52년 5월까지)-

휴전협상의 신호가 말리크 소련외상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이 기대는 지루하게 이어지는 협상 끝에 산산이 깨어지고 한국전쟁 최대의 사상자를 내기 시작했다.

(8) 후방전쟁(1952년 6월부터 53년 3월까지)-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한 산간오지는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이라 할 만큼 빨치산의 활동이 극심했다.

(9) 휴전(1953년 3월부터 7월까지)

막바지 협상 끝에 쌍방은 드디어 역사적인 군사정전협정에 서명을 하게 되나, 남한만은 참전당사국 중 유일하게 서명하지 않았다.

(10) 반성, 40년 후(휴전직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숫자는 3-4백만, 국토의 4분의 3이 전란에 휩싸였으며, 산업은 황폐되었다. 과연 한국전쟁은 무엇을 남겼는가?

(1) KBS 영상사업단 영상사업부 : 02-781-8471, 02-781-8484~9 FAX:02-786-5645

(2) MBC 프로덕션 : 02-789-0100, 02-789-0182~4 FAX : 02-789-0111

(3) SBS 프로덕션 : 02-789-9500 FAX : 02-784-6660

(4) EBS 영상사업팀 : 02-522-8400~2 FAX : 02-522-8420

## 나. 왜 통일이 필요할까?

### (1) 학습목표

(가)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나) 통일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당위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 (2) 교수-학습 모형 : 토의학습 모형

#### (가) 토의학습의 목적<sup>17)</sup>

토의학습 집단 구성원들은 각기 조정자, 지도자, 참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일정한 장소, 시간에 모여 의사를 교환하고 경청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토의학습의 목적은 크게 교과 학업 성취, 태도 변화, 문제 해결 능력, 동기 유발, 민주적 기능, 발표력 등으로 볼 수 있으나 근본 목적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토의학습의 또 다른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일이다. 토의학습은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과 상호 작용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토의 학습의 동기적 특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보상이 되고 수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한다.

---

17)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연린교육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의 이론과 실제 (1997), pp.300-312.

(나) 토의 학습의 일반적 특징

과정	활동 내용	주관자
주제결정	·토의 목적 확인	교 사
	·토의 주제 결정	
안 내	·토의 방식(토의 형태) 결정	교 사
	·집단 편성(집단의 크기) 및 역할 분담, 좌석 배치	
	·토의에 필요한 준비물(읽기 자료, 기록지 등) 확인	
	·토의의 구체적인 절차 확인	
토의 전개	·집단별 구체적인 토의 주제 및 내용 확인	학 생
	·집단별 구체적 토의 절차 확인	
	·집단에서의 역할 분담	
	·개인별 사고, 집단 구성원간의 토의	
정 리	·집단별 토의 결과 정리 발표	학 생 교 사
	·집단별 토의 과정 반성 및 평가	
	·학급 토의 결과 종합 정리	
	·학급 토의 과정에 대한 반성 및 평가	

(다) 버즈법(Buzz법)<sup>18)</sup>

1) 특 징

학생들을 4~6명씩 소집단으로 구성하고 학습해 가는 도중에 6~10분 정도로 학습 주제에 대하여 집단별로 자유롭게 토의를 전개하는 방식이다.

2) 방 법

이 방법은 필립(Phillips)이 개발한 방법으로 6명을 1개 집단으로 6분간 토의한다고 하여 필립 6.6이라 불린다. 즉 학생 6명을 한 개 집단으로 하여 나눈 후 1분간은 지도자와 서기를 선출하는 데 활용하고, 1분이 지날 무렵 교사는 토의 문제를 간단히 그리고 명확하게 제시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6분간에 걸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한다. 이 방법은 개념 성취를 위한 도입 활동으로 유용하다. 또한 문제나 개념에 주의를

18) 위의 책. pp.304~5.

기울이게 하거나 흥미를 갖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 방법에 있어서 교사가 할 일은 주제를 결정하고 집단을 구성하며 토의 활동을 관찰하는 일이다.

### 3) 역할 분담

역할 분담은 모든 집단 구성원들에게 공히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교사의 역할, 조장의 역할, 기록자의 역할, 참여자의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가) 교사의 역할

- ① 토의를 안내한다.
- ② 토의의 참여 정도를 결정한다.
- ③ 토의 내용을 분석하고 논리나 관련성, 사실의 정확성을 평가한다.
- ④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질문을 제기한다.
- ⑤ 소수 학생의 독점을 막고 소극적인 학생을 토의에 참여시킨다.
- ⑥ 토의가 혼란에 빠지거나 주제와 동떨어질 경우, 토의에 개입하여 토의의 문제를 재인식시키고, 토의에서 거론되는 사실, 견해들을 재정리하여 토의를 진행시킨다.
- ⑦ 학생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스스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조정한다. 이때 교사가 답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 나) 조장의 역할

- ① 주제에 흥미를 갖도록 하여 참여자들의 반응을 유도한다.
- ② 토의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서로 다른 자신의 견해들을 제시하도록 격려한다.
- ④ 자신의 견해는 자제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 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줄 것을 강조한다.
- ⑥ 특정인이나 소수 집단의 주도권을 방지한다.

- ⑦ 토의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 ⑧ 토의의 결과를 요약한다.

#### 다) 기록자의 역할

토의 기록자는 토의 동안에 이루어진 언어적 상호 교환을 어떤 형태로든 기록하여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칠판이나 플로우 차트(flow chart), 토의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관계들을 보여주는 개념망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의 특성이나 토의의 목적에 따라 얼마나 상세히 기록할 것인가와 얼마만큼의 아이디어를 기록할 것인가를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단지 중요한 단어를 기록하는 것으로도 계속되는 토의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와 상호 교환이 일어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라) 참여자의 역할

- ① 자신의 의견을 간단 명료하게 제시한다.
- ② 자신의 의견을 조직하여 제시한다.
- ③ 순서나 규칙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 ④ 남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과 비교하며 경청한다.
- ⑤ 남의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 ⑥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 ⑦ 집단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
- ⑧ 집단 구성원의 인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 4) 토의 전개

토의의 전개 단계는 실제로 토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일단 토의가 전개되면 교사는 토의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간간이 필요한 질문과 요점을 개괄하는 것은 토의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고(思考)를 요하는 질문을 하여 토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되도록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따금 침묵이나 간단한 설명이 효과적일 수 있다. 침묵이란 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생각하게 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준다. 끝으로 교사는 토의가 목표를 향해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점검해야 한다.

- 가) 토의된 내용의 요약
- 나) 제시된 사실 증거의 검토
- 다) 논의된 것은 무엇이고, 나머지 논의할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하기
- 라) 지금까지의 결론에 관한 진술
- 마) 지금까지의 토의 과정의 분석

#### 5) 정리 및 발표

모둠별로 토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학급 전원에게 발표한 후 다시 토의 과정을 통해서 종합 정리한다.

#### 6) 평가<sup>19)</sup>

모둠별 또는 학급 수준에서의 토의 과정을 평가하도록 한다.

#### 7) 버즈(Buzz)학습 방법의 효과<sup>20)</sup>

- 가) 대집단 토의로 발전시키기
- 나) 목표와 토의의 배경지식을 재 설정하기
- 다) 다음에 무엇을 토의할 지 결정하기
- 라) 규칙을 정하기
- 마) 아이디어나 경험의 교환

19) 권낙원, 토의수업의 이론과 실제 (서울: 현대교육출판, 1997), pp.165-174 참조

2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토론문화의 정착 방안-토론(토의)수업을 중심으로 (1999), p.16.

- 바) 탐구할 문제 설정
- 사) 논쟁거리나 차이점 부각시키기
- 아) 토의를 끌어내기
- 자) 학습 경험 함께 나누기
- 차) 문제에 대한 즉각적 반응

(라) 본시 학습에서의 적용

1) 본시 학습에서의 버즈법 적용 방법

토의 학습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왜 통일이 필요할까?’ 라는 중단원 수업에서는 버즈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가) 주제 설정

본시 학습의 주제는 ‘왜 통일이 필요할까?’라는 주제를 정하였고, 각 모둠별로 토의 할 소주제를 정하도록 한다.

나) 안내

이 단계는 토의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토의 방식, 토의 집단 구성, 역할 등을 결정하고 토의에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하며, 구체적 절차 등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 ① 모둠(집단)구성 : 모둠은 7명씩으로 구성한다.
- ② 좌석 배치 : 좌석은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도록 배치한다.
- ③ 모둠별 토의 방법 : 버즈법 토의 학습에서는 1인당 1분씩 토의 시간을 부여했으나 본 학습에서는 자유롭게 토론을 하도록 하고 시간을 최대한 많이(25분) 부여하도록 한다.
- ④ 모둠별 명칭 및 역할 정하기 : 모둠의 명칭은 통일 단원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

로 정하도록 하고(예: 북한이 산 이름이나 강 이름 등), 모둠장과 서기를 정하여 토의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발표 순서를 정하고 발표 방법은 모둠에서 정하도록 한다.

(마) 본시 수업 모형 활용의 유의사항

- 1) 토의 학습은 영역이 넓고, 활동 시간이 충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수업에서는 시간적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전 모둠별 탐구 주제를 선정하여 최소 2주전에 주제를 부여해 주도록 한다.
- 2) 각 모둠에서 토의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사전에 “모둠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통해 발표 방법을 정해 두고, 발표시 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 한다.
- 3) 교사는 지도서상의 참고자료를 사전 주지하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본시 학습에 활용하도록 한다.

(3) 교수-학습 과정안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동기 부여</li> <li>○ 학습 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VTR(이산가족 상봉)을 보여 준다.</li> <li>○ 학습목표를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용히 시청한다.</li> <li>○ 경청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료&lt;1&gt;</li> </ul>
전개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듈별 주제 부여 및 설명</li> <li>○ 토의 활동</li> <li>○ 토의 내용 정리</li> <li>○ 토의 내용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HP자료를 이용하여 모듈별 주제를 부여하고 설명해 준다.</li> <li>·1조: 동일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li> <li>·2조: 이산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li> <li>·3조: 현재의 국방비를 통일 후 복지비용으로 전용한다면?</li> <li>·4조: 우리의 국토 개발을 위해 동일이 필요한 이유는?</li> <li>·5조: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li> <li>·6조: 통일 한국인으로서의 자랑 거리는?</li> <li>○ 모듈별 토의 활동을 지시한다.</li> <li>· 토의 활동 순회</li> <li>· 토의 과정에서의 질의 응답</li> <li>· 토의 과정에서 목표점에 도달하는지의 여부 확인</li> <li>○ 토의 내용 정리 및 발표 준비</li> <li>· 발표 방법 및 발표자 선정 지시</li> <li>· 발표시 유의사항 전달</li> <li>○ 발표순에 의해 발표지시</li> <li>· 발표 후 질의 응답 시간</li> <li>· 주제별 발표 내용 요약 설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듈별 주제를 확인하고 공책에 기록한다.</li> <li>○ 모듈별로 토의 활동을 한다.</li> <li>· 모듈장 중심 - 서기에 교사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한다.</li> <li>○ 발표자 선정 및 발표 방법을 협의한다.</li> <li>○ 모듈별 발표순에 의해 발표</li> <li>· 발표 후 질의 응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료&lt;2&gt;</li> <li>○ 학습자료&lt;3&gt;</li> <li>○ 특정 학생 위주의 토의가 되지 않도록 유의</li> <li>○ 다양한 방법의 발표가 이루어지도록 지도</li> <li>* 참고자료&lt;1&gt;, &lt;2&gt;</li> <li>* 참고자료&lt;3&gt;, &lt;4&gt;, &lt;5&gt;</li> </ul>
정리 및 평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li> <li>○ 형성평가</li> <li>○ 차시 학습 예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하여 정리한다.</li> <li>○ 형성평가</li> <li>· 이산가족의 고통체험하기</li> <li>○ 차시 학습(왜 분단된 삶이 시작되었을까?) 예고</li> <li>○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용히 경청한다.</li> <li>○ 학습자료&lt;7&gt;을 정리한다.</li> <li>○ 공책에 기록한다.</li> <li>○ 합창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료&lt;6&gt;</li> <li>○ 녹음기 준비</li> </ul>

## (4) 교수-학습 자료

## &lt;1&gt; VTR 자료 1 : 이산가족 상봉

<p>제목 : 2000. 8 이산가족 상봉  출처 : KBS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가는 길(2000. 6. 20)  분량 : 60분  주제 : 남북정상회담 후 첫 이산가족 상봉 그 다섯 가족  줄거리 : 6·15 공동선언의 약속을 이행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조치로서 이산가족이 서울과 평양에서 만났다. 이 다큐는 월북한 가족이 서울로 와서 남녘의 가족과 상봉을 하게 되는 5가족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잔잔하게 스케치하고 있다.</p>
---

## &lt;2&gt; OHP자료 2 : 모둠 구성 및 토의 주제

순서	모둠명	모둠별 토의 주제	모둠장	서기
1조	금강산	통일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	○○○
2조	백두산	이산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
3조	압록강	현재의 국방비를 통일 후 복지비용으로 전용한다면?	○○○	○○○
4조	대동강	우리의 국토 개발을 위해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	○○○
5조	묘향산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	○○○
6조	두만강	통일 한국인으로서의 자랑거리는?	○○○	○○○

<3> 모듈별 편성 자료

모듈별 편성 자료

( ) 학년 ( ) 반

조	별	칭	모	듈	장	별	칭	의	이	유	모	듈	구	성	원	(	발	표	순	)	
1																					
2																					
3																					
4																					
5																					
6																					
7																					

## &lt;4&gt; 모둠별 토의 학습시 역할 분담 평가표

## 모둠별 토의 학습시 역할 분담 평가표

( )학년 ( )반 ( )조

단원명				수업일시	
모둠별 토의 주제					
수업 자료 준비			발표 준비		
순번	번호	조원 명단	모둠별 역할	토의 활동이나 발표시 구체적으로 한 일	
1					
2					
3					
4					
5					
6					
7					

\* 토의 학습 역할에서는 매번 '조장'과 '기록자'를 반드시 정하도록 한다.

<5> 모둠별 토의 학습 평가표

모둠별 토의 학습 평가표

제 학년 반

일시	모둠	발표자	협동성					창의성					발표준비					발표력					태도					종합		
			6	5	4	3	2	1	6	5	4	3	2	1	6	5	4	3	2	1	6	5	4	3	2	1	6		5	4
1																														
2																														
3																														
4																														
5																														
6																														



## &lt;6&gt; 이산가족의 고통 체험하기

## 이산가족의 고통 체험하기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맞게 서술하시오.

1. 다음의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기록해 보세요.	
<사진 자료>  사진을 붙여줄 것  (모자(母子)간의 이산가족 상봉 장면)	느낀점
2. 가설의 내용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보세요.	
이산가족 상봉 장면  (남한의 어머니와 북한의 아들이 만나는 장면) 어머니 : 얘야! 네가 진정 내 아들 한강이란 말이나? 아들 : 예 오마니! 후후후... 어머니 : 내 너를 만나지 못해 아직까지 눈을 감지 못했거늘... 이젠 한이 없구나.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아들 : 오마니! 오마니래 이렇게 살아계시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우리 빨리 통일이 되어서 우리 오마니 모시고 살고 싶어요. 오마니 오래오래 사시라요.	느낀점
3. 종합	제시문 1, 2를 통해 이산가족의 아픔이 크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산가족의 상봉도 못해 본 수많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기록해 보세요.

## (5) 참고 자료

<1> 전쟁위협을 해소할 위해 통일은 필요하다.

### ▶ 남북한 군사력과 군사비 지출

군사력은 전쟁가능성을 가늠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남북한과 같이 각자가 상대의 영토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는 한에서는 군사력의 격차는 전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국방백서의 내용을 토대로 현재 북한의 군사력은 어느 수준에 있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대처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남북한의 군사력은 이미 서로를 치명적으로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선 병력수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남한이 69 만 명, 북한이 117만명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여,사단 규모로 살펴보면, 남한은 71개의 여,사단, 북한은 153개의 여,사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 또한 남북한은 공히 다수의 예비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양쪽을 합치면 무려 968만명이 넘는 숫자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1천 만 명이 넘는 가용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지상군(육군)의 장비를 비교해 보면, 전차, 장갑차, 야포 등 주요 전력부문에 남한이 북한에 비해 열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해군과 공군전력에 있어서도 남한은 해군 병력 수와 공군의 헬기 보유 수에서만 북한보다 다소 앞서 있을 뿐 나머지 수상전투함, 지원함, 잠수함, 전술기, 지원기 등에서 북한보다 열세에 있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올리고 있어 한반도 전역이 그들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군사비를 비교해 보면, 남한의 연간 군사비 지출이 120억 5천 달러로 북한의 50억6천만 달러(94년 기준)를 압도한다. 군사장비의 유지와 훈련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북한은 한국보다 1,5배의 병력 그리고 우세한 양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군사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단순히 수적 우위가 질적 우위로 직접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남한의 대북 방어는 한미연합전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만의 군사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 그 의미가 반감된다.

## ▶ 안보와 평화

어쨌든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이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남북한은 공히 상대를 괴멸할 정도의 군사력을 각기 보유하고 있다. 즉 이는 한쪽의 오판에 의해 대량보복공격을 할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 어느 한쪽도 무모한 전면전을 펼치기 힘들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남한으로서는 소규모의 국지전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탐지, 정찰 등의 기능을 확충하는 등 방어적, 정보적 기능의 첨단군비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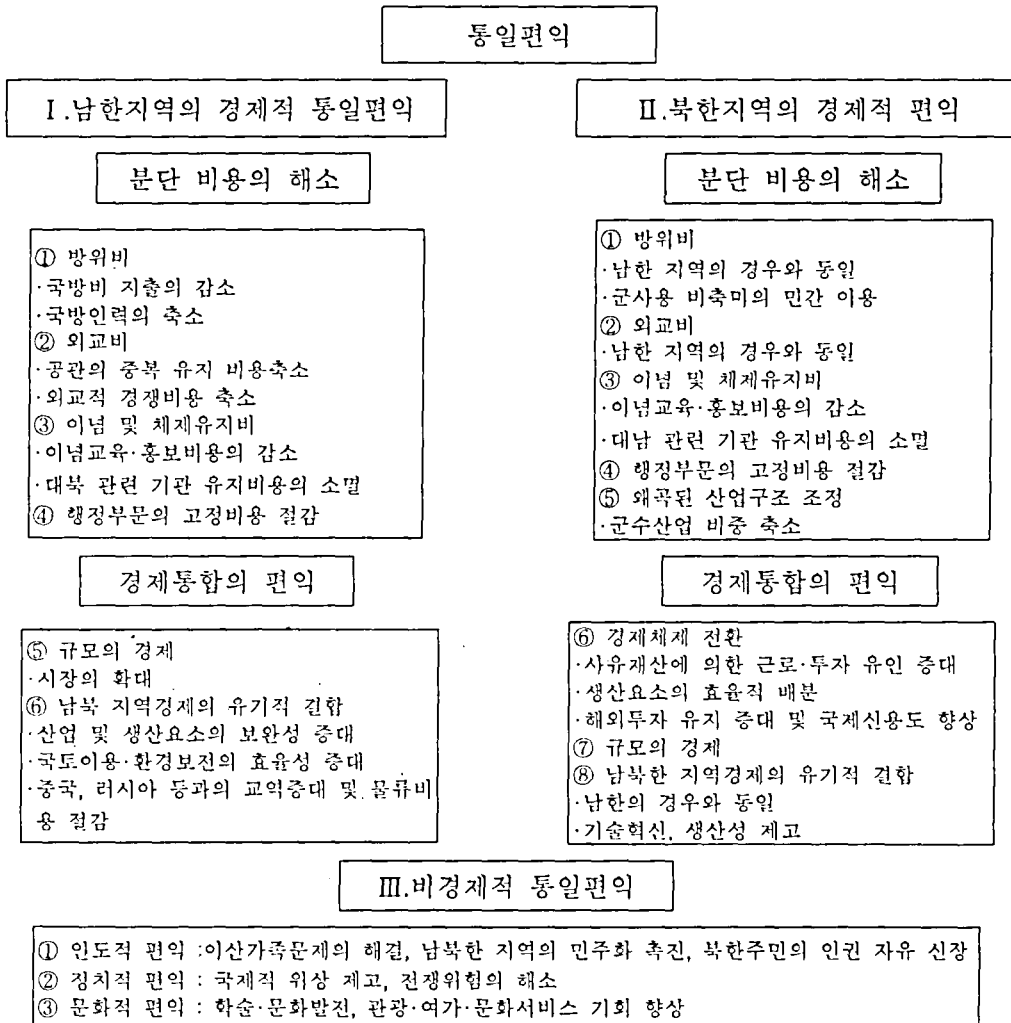
군비경쟁은 논리상 소모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남북한이 서로의 안보확실성과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양적 팽창을 도모하는 것은 어느 편에도 이롭지 않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현실은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군비축소 주장을 대부분 일축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현실은 더욱 그러하다. 단 한번의 전쟁 또는 그러한 위협의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군비를 보유하고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화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 변화에 대응하여 그것에 대등한 군사력의 확보가 관건이 된다. 이러한 논리는 남북한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당연한 논리로 확인되고 있다. 즉 남한이 공존이라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보가 고려되어야 한다.

(평화문제연구소, 한국방송프리듀서연합회, 통일·북한핸드북,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1997), pp.99-103 참조.

## &lt;2&gt; 통일의 경제적 이익(통일편익)

통일비용이란 통일된 남북한 지역, 통일한국이 통일로 인하여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반면 분단비용이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까닭에 남북한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통일이 되면 남북한이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일비용과 마찬가지로 통일편익이란

통일한국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통일을 통해 얻게 되는 편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할 경우 이는 통일편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통일비용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동호,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민족통일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1997), pp.62~67 참조)

### <3> 이산가족의 한

#### ▶ 생이별 순간들

50년간 생이별이라는 통한의 삶을 살아온 남북 상봉단의 이산(離散) 사연은 어느 하나 기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전쟁의 참화 속에 살붙이를 떨어뜨려야만 했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죄’ 를 빌었고, 50년이 흘러 할아버지가 돼 돌아온 남편은 아내의 주름진 손을 부여잡고 회한의 눈물을 떨궜다.

평양을 방문한 서순화(82·평남 대동군)할머니는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던 막내아들 김병길씨(56)를 품에 안고 서울에서 준비해간 양말과 신발을 내놓았다. 51년 겨울 발에 동상이 걸린 병길씨를 데리고 피난을 오다 끙끙 얼어붙은 대동강을 함께 건너지 못한 채 어린 아들의 손을 놓아야 했던 피맺힌 모정의 ‘속죄’ 였다. 서씨는 “그때 너를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라며 통곡했다.

부인 오상현씨(77)와 아들 회중씨(64)를 만난 김일선씨(80·평남 평원군)는 서로 상대방을 찾아 헤매다 길이 엇갈려 버렸다. 50년 서울에서 살다 홀로 남북된 김씨는 북한군을 탈출해 고향에서 숨어 지내다 ‘1·4’ 후퇴 때 아내를 찾아 서울로 내려왔으나 아내와 네 살배기 아들 회중씨는 김씨가 도착하기 5일 전 남편을 찾아 북쪽으로 떠난 뒤였다. 김씨는 “5일이 50년이 될지 누가 알았느냐” 며 목놓아 울었다.

평남 개천이 고향인 정명희씨(72)는 병에 걸린 아버지의 약을 사오겠다고 나섰다 피란 행렬에 휩쓸려 끝내 고향을 다시 찾지 못했다.

서울을 방문한 북측 이산가족 중에는 자전거를 사러 나갔다 가족과 헤어진 이복연씨(73)의 사연이 심금을 울렸다. 서울에서 살던 이씨는 전쟁이 터지자 고향인 안동으로 피난하기 위해 자전거를 사러 나갔다 인민군에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다. 15일 50년만에 이씨를 만난 남쪽의 아내 이춘자씨(72)씨는 자전거에 한이 맺힌 듯 “헤어질 때 사오겠다고 자전거는 사왔냐” 고 물은 뒤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김상현씨(67·황해 수안군)는 평양에서 누나 상원씨(69)를 만나 “1·4후퇴 때 누나가 백 리만 피란가 있으라고 해서 피란 갔는데 헤어진 채 50년이 흘렀다” 며 울부짖었다.

공부를 하고 싶어 18세이던 47년 부모님 사진에 큰절을 하고 서울로 몰래 왔던 윤 대호씨(72·평남 순천군)는 53년만에 평양에서 동생들을 만나 “사진이 아닌 부모님께 진짜 큰절이라도 올리고 떠났다면 이렇게 가슴 아프진 않았을 것”이라며 아들을 그리다 세상을 등진 부모님에게 속죄를 구했다.

서울 할머니 댁에 놀러 왔다 고향인 경기 개풍군이 전쟁으로 북한 땅이 되면서 고향을 찾지 못한 김홍택씨(57)도 지난 50여 년 간 ‘죄 없는 죄인’ 이었다.

(동아일보, 2000. 8. 16)

<4> 한국서 살아보니 ; 이산상봉 늘면 통일 보인다.

분단국가의 비극은 무엇보다도 분단의 피해자인 수많은 개인들의 비극이다. 요즘 관심의 초점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큰 정치’의 결과로 가족과 생이별한 수십만, 수백만의 이산가족들이다.

▶ 주민접촉 확대 독일통일에 한몫

독일에서도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인한 분단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지는 비극을 가져왔다. 헤어진 가족들은 그때부터 각각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인 서독과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동독으로 갈라져 살게 되었다. 독일과 한국이 갖는 이러한 역사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분단은 한국보다는 그래도 견딜 만한 것이었다. 분단된 독일에서는 처음부터 양쪽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연락 창구와 접촉 가능성이 존재했다. 서독과 동독 주민간의 편지연락이 가능했고 전화연락도 끊기지 않았다. 가난했던 동독에서 인기가 있었던 것은 부유한 서독에서 오는 소포들이었다.

얼마 전 한국 신문에서 남한측 이산가족 방문단이 북에 사는 가족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갈지 고민한다는 기사를 보고 부모님과 함께 동독의 친척들에게 보낼 소포를 준비하던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소포는 대부분 잘 전달됐고 소포 속에 들어있던, 동독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초콜릿이나 커피 같은 ‘사치품’은 동독의 친척들에게

기쁜 선물이 됐다.

동서독 주민간의 인간적인 접촉 확대가 1970년대 초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동방정책’의 일차 목표였다. 이 정책은 역사적 관점에서 일단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70년대 말에는 매년 300만 명의 서독인들이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 이후에는 100만명 이상의 동독 주민도 서독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분단 독일의 국민이 처했던 운명을 개선하는 것, 즉 분단을 전될 수 있을 만하게 만드는 것이 동방정책의 주관심사였다. 이는 인도주의적 동기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개인들간의 접촉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 양 독일 주민들의 머릿속에 민족통일에 대한 생각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것을 서독은 알고 있었다.

나는 70년대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속에 깃들여 있는 기본적인 철학과 오늘날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하는 ‘햇볕정책’의 근간이 되는 생각간의 뚜렷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시종일관 끈기 있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당시 서독 총리도 집요하게 동서독간의 접촉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100명의 북한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한 방문과 남한 방문단의 북한 방문은 의심할 여지없이 한국 역사의 한 이정표다. 해당 개인들이나 그들의 가족에게는 평생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만남은 시작일 뿐이다. 방문단에서 제외된 다른 많은 이산가족들의 고통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그들에게 이번의 선발 과정은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었다.

#### ▶ 만나다 보면 마음의 벽 무너져

남북한 긴장 완화 노력이 얼마나 성공을 거두느냐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이산가족의 만남이 가능해질 것이냐에 달려있다.

사람들간의 접촉을 증가시켜 나가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늘려나가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분단 반세

기만에 헤어져 있었던 가족들을 만나는 선택받은 200명의 양측 이산가족 방문단에 집중돼 있다. 이번에 선택되지 못한, 야만적인 분단의 결과로 가족을 만나는 기초적인 인권으로부터 소외된 나머지 이산가족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로날드 마이나라두스(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기고, 동아일보, 2000. 8. 16>

<5> 제 4차 국토 종합 계획<sup>21)</sup>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궁극적으로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을 위하여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형성, 지역경쟁력 고도화,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조성, 고속 교통·정보망 구축,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이라는 5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전략별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

1) 개방형 국토골격을 형성한다.

- 우리 국토가 지리적으로 환태평양, 유럽, 대륙을 향한 전략적 관문(Gateway)이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신국토축을 형성함으로써 동북아 교류중심국가로 육성하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

21) 김태환,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인천의 발전방향”, 지역사회연구, 제3집 (1999), pp.11-14 참조.



신국토축		해 당 지 역	발 전 방 향
연안국토축	환황해축	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 (~신의주)	중국, 유럽 및 동남아시아를 향한 중심축으로서 중국성장에 대비한 신산업벨트를 조성
	환동해축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선봉)	극동러시아, 중국, 일본 및 환태평양을 향한 중심축으로서 국제관광의 중심지 및 기간산업의 고도화를 지향
	환남해축	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	환황해와 환동해경제권을 남쪽에서 연계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 일본, 환태평양을 향한 중심축으로서 국제물류, 국제관광 및 산업특화지대로 육성
동서내륙축	중부내륙축	인천~원주~강릉·속초	수도권 기능의 분산수용과 산악-연안 연계관광을 위한 중심축으로 기능
	남부내륙축	군산·전주~대구~포항	영호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간 연계강화를 위한 축으로 기능
	북부내륙축	평양~원산	(장기구상)

○ 신국토축은 바다 3면을 이용한 「연안국토축」과 연안-내륙을 연계하는 「동서내륙축」으로 구성됨. 「연안국토축」은 대외지향적 개발축으로서, 「동서내륙축」은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을 내륙에서 연계해주는 개발축으로서 기능을 담당한다.

2)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지역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산업구조 고도를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조성을 통해 지역별 경쟁력을 고도화한다.

○ 수도권을 체계적·분업적으로 재정비하고,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을 위해 지방으로의 분산 및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 동시에 지방대도시는 거점·본사기능 및 지역별 특화산업 유치 등을 통해 과학기술, 국제물류, 섬유패션, 영상, 첨단, 자동차 등의 산업별 수도로 육성한다.

○ 중소도시는 지역여건에 따라 관광·첨단·교육·문화 등 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대도시와는 차별화 된 정주공간을 조성함. 농어촌과 낙후지역은 그들이 지닌 독특한 자연·역사·문화자원을 新자원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친환경 농업 등 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 새로운 전략거점으로 인천-아산만-군장-광양만-진주를 잇는 전략적 신산업지대를 조성함. 정부주도가 아닌 입지수요에 부응하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미디어

밸리, 테크노파크 등 벤처지식기반산업에 적합한 산업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입지를 공급함. 전략적 육성지역 및 낙후지역을 위한 기업축진지구(Enterprise Zone)를 지정하여 지원한다.

- 문화·관광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을 병행하는 생태자원 활용지대를 구축함. 국제관광루트를 개발하고, 복합 컨벤션센터 등 국제관광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동북아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3)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한다.

- 국토개발사업 전반에 친환경적 개발모형이 도입되도록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주요 산·하천·연안을 연계하는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질서 있는 토지이용 및 관리체계구축을 위하여 난개발방지 및 경관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수변의 일정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수변역관리제도 등을 도입한다.
-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댐·광역상수도 건설, 물 수요·수질·홍수관리에 대한 유역권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주거커뮤니티 형성과 다양한 주거공간을 창출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한다.
-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는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고 선진형 복합신도시를 조성한다.
- 환경친화적 하천개수율을 '98년 현재 63%에서 2011년 100%로 제고 시키는 등 국토방재체계를 구축한다.

4) 동북아 관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속 교통·정보망을 구축한다.

-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해 합리적 수송분담 연계를 통한 통합교통체계를 형성하고, 7×9 격자형 고속도로망 구축 및 대도시 순환도로와 중소도시 우회도로 등을 건설한다.
- 중장거리 수송분담율 제고를 위해 기존철도의 복선전철화를 추진하고, 경부고속

전철은 2010년까지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계속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연안철도망을 구축한다.

- 국제공항 기능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건설하며, 지역별로는 거점공항을 육성한다.
- 국제항만 기능강화를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하며, 권역별 거점항만을 확충하고, 항만별 기능특화를 도모한다.
-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010년까지 물류비용을 GDP대비 10%까지 감축한다.
- 지능화된 디지털 국토형성을 위해, 광케이블·디지털 전화망·무선통신망 등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연결한 광속 디지털국토를 형성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원격의료나 원격교육 등의 도시적 정보서비스를 촉진함. 또한 국토자원 정밀조사의 정기적 실시 및 GIS를 이용한 체계적 국토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5) 통일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 우선 접경지역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한반도 평화벨트를 조성하고, 자원의 공동개발, 백두대간 공동관리, 금강산·설악산 연계관광 등 다양한 남북교류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 남북한간 단절된 연계교통망 복원을 위해 7번, 31번 등 6개 국도노선과 동해북부선 등 4개 철도노선을 단계적으로 복원하고, 남북한간 주요 항구를 직접 연결하는 연안수송체계를 구축한다.

다. 통일을 위해 남북한은 어떠한 노력을 해 왔을까?

(1) 학습 목표

- (1) 남북 통일정책의 변천과정과 남북 통일 방안의 공통점을 찾아 설명할 수 있다.
- (2)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 (3)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2) 교수-학습 모형 : 집단 탐구 수업 모형

(가) 집단탐구 수업 모형의 특성

통일이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우리들에게 다가옴에 따라 국민 개인이 해결해야 될 통일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문제 해결 과정에의 참여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수업 방법이 집단탐구 수업 모형이다.

이 모형의 특징은 집단을 이루고 있는 학생들이 공동으로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에 다양한 주제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법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각자 수행해야 할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을 학습시키는 데 있다.<sup>22)</sup> 일반적으로 이러한 집단탐구 수업 모형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이 7단계로 구성된다.<sup>23)</sup>

- |  |
|--|
| 1. 문제 상황의 제시 → 2. 탐구 문제의 확인 → 3. 탐구 문제의 세분화<br>→ 4. 탐구 계획의 수립 → 5. 탐구의 실시 → 6. 탐구 결과의 발표<br>→ 7. 탐구의 대한 평가 |
|--|

22) 인천광역시 윤리교과연구회, '97 교육부 지원 교과연구활동 윤리교과연구자료집 (1997), pp.35-44 ; 서강식, 도덕·윤리과 수업모형 (서울 : 양서원, 1999), pp.110-125 ; 한국교육개발원, 민주사회 민주시민 교사용 지도자료 (1993), pp.68-71 ; 본 모형은 협동학습의 한 형태로서 학습집단을 사이비 학습 집단(pseudo-learning group), 전통적인 교실에서의 학습 집단(traditional classroom learning group), 협동 학습 집단(cooperative learning group), 탁월한 협력 학습 집단(high-performance cooperative learning group)이라는 학습집단의 유형에서 협동학습집단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협동학습집단은 공통된 다섯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① 학생들은 한 사람이 실패하면 모두가 실패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각자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학습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② 학생들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집단의 성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③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굴을 맞대고 진지하게 협력한다. ④ 집단의 구성원들은 사회적 기능들을 배우며, 그러한 사회적 기능들을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학생들은 그들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동했는지를 진지하게 분석한다. 그 결과, 전체 집단의 질은 개인적 능력의 총합에 비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은 그들이 혼자서 과제를 해결했을 때보다 더 높은 성취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협동학습집단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협동학습모형의 형태로는 STAD, TGT, Jigsaw 등이 있다 ; 추병완, 도덕교육의 이해 (서울 : 백의, 1999), pp.315-317 참조.

23) 서강식, 도덕·윤리과 수업모형 (서울 : 양서원, 1999), pp.110-125.

## (나) 집단탐구 수업 모형의 단계

### 1) 문제상황의 제시

우선 교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 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비디오 테이프, 이야기 읽기 자료, 교사의 이야기, 만화, 신문을 이용하기, 역할극 내지는 연극, 녹음된 자료, OHP 필름, 영화필름, 사진 및 화보를 이용한 패도, 학생들의 대본 읽기, 인형놀이, LAN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제시, 교과서나 특정한 책의 이야기 등 다양한 형태로 문제 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상황에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한두 개 정도의 질문만을 포함시킨다. 너무 많은 질문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제시되는 질문은 바로 학생들이 탐구할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 2) 탐구 문제의 확인

교사는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탐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3) 탐구 문제의 세분화

탐구 문제를 확인하여 탐구 주제가 정해졌으면 다음에는 이러한 문제나 주제를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 실제로 탐구를 행할 경우, 앞 단계에서 정한 문제나 주제가 포괄적일 경우 실제로 무엇을 탐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는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탐구 주제의 의의, 탐구 내용의 범위, 탐구 문제와 관련된 내용의 한계 등을 결정해야 한다. 학생들이 탐구 문제를 제대로 세분화하지 못할 경우 교사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 4) 탐구 계획의 수립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교사는 학생들이 탐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

도록 한다. 또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떤 제안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탐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과 탐구 결과를 발표하는 방법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교사는 탐구를 시작하기 전 또는 탐구를 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능을 지도하기 위해 집단 또는 개인별로 지도할 수 있다. 또한 한 집단이 탐구를 진행하는 동안 다른 집단을 지도할 수도 있다.

#### 5) 탐구의 실시

실제로 탐구를 실시하여 나가는 것은 학생들이이다. 교사는 뒤에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탐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또 합리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도해야 한다. 교사는 각 집단의 과제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지켜보아야만 하며, 학생들이 함께 힘을 모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탐구의 과정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민감해야 한다. 또 학생들이 어려움에 당면하여 낙담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여 학생들이 탐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 6) 탐구 결과의 발표

각 탐구 집단은 자신들의 탐구를 끝낸 후에 자신들이 발견한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각 집단은 탐구의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몇 가지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각 탐구 집단은 탐구 결과를 연극, 신문, 만화, 극화, 벽보, 보고서, 발표회 등의 제시방법을 통하여 발표할 수 있다. 학생들은 창의적인 탐구 결과 발표방법을 놓고 고민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으로 되며,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흥미 분야를 발견할 수 있다. 즉, 탐구한 것을 발표함으로써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성취한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각 발표 집단의 조사, 발표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질문을 할 수 있다. 이어서 조사,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발표 내용을 종합하여 요약, 정리를 해줄 수 있다.

### 7) 탐구에 대한 평가

탐구가 끝나면 학생들은 탐구과정 중에 있었던 자신들의 경험을 반성해 봄으로써 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탐구 주제의 학습이 아니라 탐구과정의 활동과 각 단계가 토의의 주제가 된다.

#### (다) 본시 수업 모형 활용의 유의사항

- 1) 집단탐구 수업 모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사는 유연성과 융통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 2) 교사는 학생들에게 탐구 과정에서 어떤 단서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 3)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학습 집단의 능력이 각기 다르므로 교사는 수업 단계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각 단계의 시간을 자신의 판단과 의도대로 조정할 수 있다.
- 4) 탐구 활동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5) 탐구 과정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조절한다.
- 6) 탐구 결과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발표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한다.
- 7) 집단 탐구 수업 모형에서 제시하는 단계에 적용하기 위해 무리하지 않도록 융통성을 발휘하고, 다른 수업 모형을 병용할 수도 있다.

(3) 교수-학습 지도안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학습상기</li> <li>○ 문제상황제시 (3)</li> <li>○ 학습 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왜 분단된 삶이 시작되었을까?'를 간략히 정리한다.</li> <li>○ VTR자료(KBS일요스페셜 서울-평양)자료를 보여준다.</li> <li>○ 학습목표를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용히 경청한다.</li> <li>○ VTR자료를 시청한다.</li> <li>○ 경청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료&lt;1&gt;</li> </ul>
전개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구문제의 확인(2')</li> <li>○ 탐구문제의 세분화(1')</li> <li>○ 탐구계획의 수립(2')</li> <li>○ 탐구의 실시 (15')</li> <li>○ 탐구결과의 발표(15')</li> <li>○ 탐구에 대한 평가(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방이후부터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되었음을 강조한다.</li> <li>○ 탐구 주제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조 해방 이후 남북은 분단극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을까?</li> <li>·2조 6·25전쟁 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li> <li>·3조 70년대 이후 남북한간의 변화 과정은?</li> <li>·4조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는 무엇인가?</li> <li>·5조 남북 통일방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li> <li>·6조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과의 할 일은 무엇인가?</li> </ul> </li> <li>○ 각 모듈별로 탐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li> <li>○ 탐구활동을 지시한다.</li> <li>○ 탐구한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시킨다.</li> <li>○ 탐구발표를 평가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 있었나를 생각해 본다.</li> <li>○ 주제를 공책에 기록한다.</li> <li>○ 각 조별로 탐구 활동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li> <li>○ 조장의 주도로 탐구활동을 한다.</li> <li>○ 탐구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 준비를 한다.</li> <li>○ 탐구활동 발표에 대해 질문을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구할 동기를 부여한다.</li> <li>*참고자료&lt;1&gt;</li> <li>○ 학습자료&lt;2&gt;</li> <li>○ 시간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다.</li> <li>*참고자료&lt;2&gt;</li> <li>*참고자료&lt;3&gt;, &lt;4&gt;</li> <li>○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li> <li>○ 다양한 방법의 발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li> </ul>
정리 및 평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li> <li>○ 형성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질문한다.</li> <li>○ 형성평가지로 평가한다.</li> <li>○ 차시 학습을 예고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변한다.</li> <li>○ 형성평가지들 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고자료&lt;5&gt;</li> <li>○ 학습자료&lt;3&gt;</li> </ul>



## (4) 학습 자료

## &lt;1&gt; VTR 자료 1 : KBS일요스페셜 서울-평양

제목 : 6. 13~6. 15 서울-평양  
 출처 : KBS 일요스페셜(2000. 6. 20)  
 분량 : 60분  
 주제 :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2박3일  
 줄거리 :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2박 3일을 밀착 취재한 내용, 2000년 평양에서의 두 정상의 감격적인 만남과 남북 수행원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부르는 감격적인 장면과 평양 시민들의 대대적인 환영의 모습이 보인다.

## &lt;2&gt; OHP자료 1 : 모듈별 토의 주제

순서	모듈명	모듈별 토의 주제
1조	금강산	해방 이후 남북은 분단극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을까?
2조	백두산	6·25전쟁 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3조	압록강	70년대 이후 남북한간의 변화 과정은?
4조	대동강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는 무엇인가?
5조	묘향산	남북 통일방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6조	두만강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의 할 일은 무엇인가?

<3> 형성 평가지

1. 다음 중 우리 통일정책의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정답:⑤)
  - ① 우리의 통일정책은 정권이 바뀔에 따라 기본 골격부터 변화되었다.
  - ② 해방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과 단절되기를 더 원하였다.
  - ③ 6·25전쟁 이후 남북은 화해와 교류의 평화통일을 추구하였다.
  - ④ 남북 정상회담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었다.
  - ⑤ 남과 북이 긴장과 대립을 하면서도 본격적으로 통일 논의를 하게 된 것은 70년대 이후부터다.
2. 다음 (        )를 채우거나 미완성 문장을 완성하세요.
  - ① 우리의 통일 방안은 자주적, 평화적, (        ) 방법에 의한 통일이다.
  - ② 나는 통일이 되면 (        )을 하고 싶다.
  - ③ (        )회담의 가장 큰 의미 중의 하나는 남북이 화해·교류·협력을 통한 통일노력을 하자는 데 있다.
  - ④ 남북연합의 기구 중 통일된 국가의 헌법을 만드는 기구는 (        )이다.
3. 우리 나라의 통일 방안 중 '남북연합 단계'의 내용과 그 의의를 서술하시오.

## (5) 참고자료

## &lt;1&gt; 1985년과 2000년의 이산가족 상봉은 '격세지감'

2000년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85년 첫 상봉과 비교할 때 세월의 깊이 만큼이나 성숙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우선 85년 상봉은 남북간 치열한 체제 경쟁과 경직된 정치적 상황에서 이뤄진 탓으로 한술밥을 먹었던 가족끼리도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일부 북측 상봉자들은 쏟아지는 눈물을 억지로 참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타고 화해 지향적으로 치러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북측 방문자들은 공항에 도착하면서 보무 당당하게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 보이는 여유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북측 가족들의 태도도 한결 달라졌다. 지난 85년의 경우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 은덕을 베풀어 이렇게 상봉을 이뤄주시니…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는 식의 판에 박힌 발언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울방문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은덕을 내세우면서도 “앞으로 꼭 통일된 나라에서 다시 가족이 만나야 한다”거나 “6·15 공동선언을 잘 이행하자.” 등 통일과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강조하는 이들이 많았다.

아울러 85년에는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이 동시에 교환돼 관심이 분산된 느낌이 었으나 이번에는 이산가족 상봉단만 교환돼 혈육의 정을 나누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이 다르다. 85년에는 예술공연을 통해 남북 양측이 체제를 과시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이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북한 당국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태도도 사뭇 달라졌다. 과거 시혜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남북이 함께 일궈낸 결실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번 8·15 이산가족 방문단을 이끌고 온 유미영 북측단장은 “단합,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김정일 장군과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합의해서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 85년 당시 서상철 조선적십자회 상무위원은 “상봉은 우리 아량으로 이뤄진 것”이라

며 “주관적으로 열의를 내고 있으나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는데 한계가 있다” 고 쓰아붙였다.

(국민일보, 2000. 8. 16)

## <2> 7·4 남북공동성명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8·15 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1971년 8월 12일 ‘1천만 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제의하였고, 북한적십자사가 8월 14일 이에 동의함으로써 분단 26년만에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대화가 열리기 시작했다. 특히 김용식 외무부 장관은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인도적 문제의 해결, 비정치적 문제의 해결, 정치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남북문제 해결의 3단계론을 제시했는데, 3단계론은 1970년대 이후 정부의 통일접근의 주요 시각이 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적 차원의 남북적십자회담의 진행과 병행하여 남북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당국간 공식문서라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이 1972년 7월 4일 발표되었다. 7개항으로 되어 있는 공동성명의 핵심은 통일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한 남북간의 합의였다.

- ①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②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 ③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도적 차원의 적십자회담과 함께 정치적 차원의 대화인 남북조절위원회회담이 세차례 진행됨으로써 남북간에는 비로소 두 개의 대화통로가 열리게 된 셈이었다. 그러나 양측 최고당국자

의 밀사가 만든 7·4 남북공동성명은 10월 유신발표를 이유로 북측이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사문화되고 말았다.

### 7·4 남북공동성명 전문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점을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건을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선을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1972년 7월 4일

<3> 남북한통일방안 비교

	남한	북한
방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발기	김영삼 전 대통령이 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	김일성 주석이 노동당 제6차 대회 (80.10.10)에서 발기
원칙	자주·평화·민주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과정	화해협력→남북연합(남북정상회의 및 각료 회의 상설화, 남북 국회 대표가 통일헌법안 및 통일절차 마련)→통일국가(총선거-통일 국회-통일정부)	남북제정당,사회단체,해외민족단체예비회담→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준비위원회→고려민주연방공화국
연합·연방	1민족 2체제 2정부 연방정부(無)  남 지역정부      북 지역정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상설위원회 (연방정부) 최고민족연방회의 (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수의 해외 동포 대표로 구성) 남 지역정부      북 지역정부
주권	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에 군사권·외교권·내정권은 지역정부에 있음	군사권·외교권·내정권은 잠정적으로 지방정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연방정부'의 권한이 약하며 대부분의 권한이 지역정부에 있기 때문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4일 오후 회담에서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단계로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연방(연합)정부가 아니라 지금처럼 각각 남북의 '지역'정부가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	
최종 형태	1민족 1국가 1제도 1정부 -남북 국회 대표가 마련하는 통일헌법 초안에 따라 최종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미 확정 -통일국가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통일국가 건설은 후대에게 넘겨줌

#### <4>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

과거에 남북 당국간 대화와 합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7·4남북공동성명은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비록 이 원칙에 대한 남북의 입장 차이로 빛을 보지 못했지만, 3대 원칙은 그 후에도 통일논의의 기본정신과 자세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재천명된 바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처음으로 ‘특수관계’로 인정하고 교류와 협력, 평화를 위한 불가침, 정치적 신뢰회복 등을 위한 구체적 이행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합의서의 실천은 평화정착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 실현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서도 이행조치 실행의 조건 등을 둘러싼 남북간의 이견으로 10년 가까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6.15남북공동선언은 ① 남북이 통일방안의 접점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② 남북한의 두 정상직접 합의·서명했다는 점에서 이전 합의서보다 한 차원 진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하려는 북한의 정책과, 일관된 대북 화해·협력 정책으로 북한을 대화와 공존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우리의 정책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선언은 보다 실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 6·15 남북공동선언(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방	위	원	장
김	대	중	김	정	일		



## &lt;5&gt; 역대 합의서와 6·15 남북공동선언의 비교

구분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기본 원칙	지주·평화·민족대단결	화해·불가침·교류협력	자주통일원칙·통일방안의 공동성인정·인도주의적 문제해결·교류협력활성화
특징	통일 원칙천명	이행조치 내용의 명문화	구체적 실천 문제 논의
실천 방안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분과 위원회, 공동위원회 설치	당국간 대화
서명 주체	이후락 특사·김영주 특사	정원식 총리·연형묵 총리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 변화	남은 유신체제, 북은 유일체제 강화	이행조치에 대한 이견·북한문제의 국제 문제화	실질적 조치 이행 중

(통일교육원, 새천년 통일문제 새로 보기, 2000, pp.54-57 참조)

## &lt;6&gt; 형성평가지 서술형 답안

4. 우리 나라의 통일 방안 중 '남북 단계'의 내용과 그 의의를 서술하시오.

우리 나라의 통일은 반세기 이상 민족이 분단된 채, 민족성이 상당 부분 이질화되어 있다. 따라서 성급하게 통일을 이루게 되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통일은 민족 구성원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남과 북이 교류·협력을 통해 잦은 만남과 동질성을 회복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급진적인 통일로 혼란과 체제의 갈등을 가져오기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고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양 체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중립적인 '남북 연합'인 것이다. 즉,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중간 단계의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II. 북한 사람들의 삶

### 1. 단원의 개관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는 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 대상이라는 점과 하나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포라는 이중적인 현실인식이 필요하며, 남북이 서로간의 적대성을 감소시키고 동포애를 증진시켜 북한을 공존과 동반자 관계로 이끌어 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첫째 합리적인 북한 인식이 필요하다. 선입견이나 불신에 기초해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폄하 하기보다는 사리를 따져보는 분별력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둘째, 북한을 감정에 치우친 견해보다는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서 제대로 보아야 한다. 과거의 사실에 너무 집착하거나 미래의 당위성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현재의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북한에서 정치는 현실적으로 최고권력자인 수령(혹은 영도자)을 정점으로 전체사회가 일원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수령-당-대중이 삼위일체라는 사회구조 속에서 최고지도자의 통치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북한의 정치 이념은 주체사상이며 최고 권력기관은 조선노동당이다. 북한의 국가기구는 형식적인 체계로 볼 때 크게 주권 및 행정 부문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그리고 국방위원회 양대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의식주 생활의 측면에서 북한은 지난 반세기동안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내부 경제자원의 고갈과 폐쇄적인 경제 정책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은 주민통제와 배급체계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일부 마비시키기까지 함으로써 식량난을 초래하였으며, 일반주민들의 사회주의적 경제 생활 패턴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적극적으로 외부세계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점차 개방쪽으로 정책을 전환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의복생활의 경우 북한은 1980년대 이전까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라는 전제아래 신체를 보호하는 1차적 기능만 강조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 시대 변화에 맞추어 멋을 표현하는 2차적 기능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에서의 주택은 국가예산으로 건립되는 '집단적 소유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 소유가 허용될 수 없다. 주민들은 주택을 국가로부터 공급받아 매달 월 수입의 0.3%의 사용료를 내고 이 임대형식으로 살고 있다.

북한에서는 가정생활이나 직장 생활, 여가 생활 등 주민들의 일상 생활이 모두 주체사상과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 주민의 상당수가 당국에서 제시하는 공식적인 가치관을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겉으로만 공식적인 규범에 따르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추구하는 생존규범을 따르는 이중적인 양상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모든 부분에서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와 지방의 편차를 고려한 변화 양상까지 이해하는 폭넓은 안목이 필요하다.

본 단원의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문을 두드려 볼까?'에서는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이며, 동시에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는 이중성을 갖는 존재임을 전제로 경계의 대상에서 동반자로 이끌어야 할 존재로서 북한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북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여 북한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습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는다.

둘째 ‘의식주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의복 생활의 기본 형태와 최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다루며, 식량난에 따른 식생활의 특징과 모습을 학습한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주거 생활의 실태를 통해 우리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공부하도록 한다.

셋째 ‘가정생활은 어떠할까?’에서는 해방이후 북한의 가정이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지를 학습한다. 특히 최근의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신랑 신부감을 통해 결혼과 가정의 모습을 이해하고, 각 가정의 가구 실태를 통해 주민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경제 생활은 어떠할까?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가정 경제 생활의 단면을 알아보는 내용이다. 북한 주민들의 임금과 소득 실태, 북한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경제의식을 엿볼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에서는 북한의 사회 통제 정책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 속에서 전개되는 북한 주민들의 하루 일상 생활의 모습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 휴일과 휴가, 전화 실태, 교통 수단, 사회 질서와 인권문제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북한 사회의 기본 질서와 주민들의 사회 생활을 이해하도록 한다.

여섯째 ‘문화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에서는 북한의 문화 정책과 주민들의 문화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명절, 여가, 스포츠, 가요 등을 통해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도록 한다.

## 2. 단원의 목표

- (1) 북한의 지리, 행정, 정치적 이념 등을 알고, 북한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 (가) 북한의 어떠한 곳인지를 지리, 행정, 이념 등을 통해 파악한다.
  - (나) 적과 동반자라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북한을 이해할 수 있다.
  - (다) 북한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특징을 열거할 수 있다.
  
- (2)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을 이해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인식할 수 있다.
  - (가) 북한 주민들의 의복 생활을 이해한다.
  - (나)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식량난의 실태와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다.
  - (다) 북한 주민들의 주거 생활을 이해하고 우리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있다.
  
- (3) 북한 주민들의 가정 생활의 특징과 변화를 이해하고, 우리와 공통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
  - (가) 북한 주민들의 가정 생활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 (나) 북한 주민들의 가정 생활의 변화 추세를 설명할 수 있다.
  
- (4) 북한 주민들의 소득과 소비 생활을 이해하고, 남북한 경제 활동의 차이점을 인식한다.
  - (가) 북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이해한다.
  - (나) 북한 주민들의 소비생활 모습을 말할 수 있다.
  
- (5) 북한 주민들의 사회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남북한의 동질적인 면을 찾으려는 태도를 갖는다.

- (가) 남북한 주민의 하루 생활 모습을 통해 우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 (나) 북한 사회의 질서와 인간의 보편적 인권의 실태를 설명할 수 있다.
- (6) 북한 주민들의 문화 생활에 대해 이해를 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태도를 갖는다.
- (가) 북한 주민들의 문화 활동의 특색을 이해한다.
  - (나) 남북한 문화 활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 3. 단원 구성

북한 사람들의 삶	북한 개관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북 한 주 민 의 삶 을 객 관 적 으 로 이 해
		북한은 어떤 곳인가?	
		북한의 정치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	
	의식주 생활	북한 사람들은 어떤 패션의 옷을 주로 입을까?	
		북한 사람들은 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을까?	
		북한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은 어떤 것일까?	
		북한에 하모니카 집이 있다던데?	
	가정 생활	연애결혼이 가능할까? 선호하는 신랑·신부감은?	
		북한 주부들이 모두 갖기를 원하는 5장 6기란?	
		북한에도 우리와 같은 족보가 있을까?	
	경제 생활	수입원과 소득은 어떨까?	
		화폐는 우리처럼 1000원권이 많을까?	
		우리처럼 백화점이 있을까? 시장이 있을까?	
	사회 생활	하루 일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언제 휴일· 휴가를 가질까?	
		북한 사람들도 공중전화를 이용할까?	
		휴대폰은 있을까?	
		북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까?	
		북한의 사회질서와 인간의 보편적 권리는 양립할 수 있을까?	
	문화 생활	북한도 우리와 같은 명절을 보낼까?	
여가는 어떤 식으로 보낼까?			
북한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스포츠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의 대중가요를 부른다는데?			

#### 4. 단위별 지도자료

##### 가. 북한의 문을 두드리려 볼까?

###### (1) 학습목표

- (가) 북한의 어떠한 곳인지를 지리, 행정, 이념 등을 통해 파악한다.
- (나) 적과 동반자라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북한을 이해할 수 있다.
- (다) 북한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특징을 열거할 수 있다.

###### (2) 교수-학습 모형 :구조화된 논쟁

###### (가) 구조화된 논쟁(Structured controversy)<sup>24)</sup>

이 방법은 토의 절차에서 가장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서 두 개의 반대되는 의견을 지닌 2~3명으로 구성된 논쟁 참가자 팀이 주제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것이다. 한 팀이 주장을 내세우면 다른 팀은 계속해서 논박하게 된다. 절차에 따른 논쟁 토의가 끝난 후 청중과의 일반적인 토의도 가능할 수 있다.

- ① 과제 부여 : 교사는 네 명으로 구성된 학생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편성한다. 4명 가운데 2명은 찬성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2명은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교사는 경제 지원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한다.
- ② 계획 : 첫 시간에 교사는 찬성 및 반대 의견을 각각 뒷받침해 주는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준다. 교사는 학생들이 수집한 자료 및 교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집단에서 2명이 다른 2명을 설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거

24) 통일부, 2001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2001), pp.103-105.



를 확보하도록 지도한다. 찬성 의견을 가진 2명과 반대 의견을 가진 2명은 서로 상대방을 잘 설득하기 위한 논거를 찾아야만 한다.

- ③ 변호 : 두 번째 시간에 교사는 2인 1조로 된 각 팀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발표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거부하는 전체 토론에 참여하여, 대북 경제 지원의 계속 여부에 대한 최상의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④ 입장 교환 : 세 번째 시간에 각 팀은 서로 입장을 바꾼다. 처음에 반대했던 학생들이 이 번에는 찬성 입장을 맡아보는 것이다.
- ⑤ 합의 도출 : 네 번째 시간에 4인으로 구성된 각 집단은 그들이 보기에 양측의 입장에서 제기된 것 가운데 최상의 정보와 추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의 합의된 해결 방안으로 종합한다. 그리고 나서 집단의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한다.

이러한 활동이 두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첫 시간에는 과제 부여·계획·변호를,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입장 교환과 보고서 제출을 하게 할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구조화된 논쟁을 이용한 토의 수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교육자는 학습자들이 다음과 같은 규칙들을 잘 지키게 해야 한다 ; ① 나는 사람에 대해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에 대해 비판적이다. ② 나는 논쟁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최상의 결정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③ 나는 모든 학습자들이 참여하여 모든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도록 고무시켜 준다. ④ 비록 내가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귀담아 듣는다. ⑤ 나는 어떤 학습자가 말한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알기 쉽게 바꾸어 말한다. ⑥ 나는 처음에 양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모든 생각들과 사실들을 분명히 하며, 그 후에 그것들을 수궁이 가는 하나의 방식으로 통합한다. ⑦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한 두 입장들을 모두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⑧ 나는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나의 생각을 바꾼다.

구조화된 논쟁은 교육자가 통일 문제에 대한 논쟁을 한편으로 기울게 만드는 편견

을 방지하고, 학습자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본시 수업모형 활용의 유의사항

이 단원을 수업하는데 있어서 주로 사용되는 교수-학습 모형은 구조화된 논쟁이다. 이 수업모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모둠 구성과 퍼즐풀이 방식을 변형해서 적용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 1) 교사는 전시학습에서 사전수행자료로 학습자료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자료를 단원 주제에 맞게 조사해온다.
- 2) 개념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가 퍼즐을 작성해서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하며 풀도록 한다.(오답을 다시 풀어 봄으로서 개념을 정리)
- 3) 모둠간의 구조화된 논쟁을 활용하여 학습자간의 의견 및 역할교환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
- 4) 논쟁 결과는 발표를 통해 학생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

## (3) 교수-학습 과정안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학습 상기</li> <li>○ 학습 동기 유발</li> <li>○ 학습 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사회에 대해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전시 학습과 관련시켜 상기시킨다.</li> <li>○ 북한에 대한 관점의 상반된 자료를 제시한다.</li> <li>○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학습한 내용을 상기한다.</li> <li>○ 제시된 자료를 통해 자신의 관점을 정한다.</li> <li>○ 학습 목표를 경청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료&lt;1&gt;</li> <li>· 통일 교육 CD 자료1</li> </ul>
전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수행 자료 확인</li> <li>○ 북한에 대한 관점 토론</li> <li>○ 논쟁의 결론</li> <li>○ 발표 및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에 내준 사전수행자료를 확인한다</li> <li>○ 모둠별로 구성을 지시한다(적이라는 입장·동반자의 입장)</li> <li>○ 북한을 적으로 볼 것인가? 동반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정립하도록 지도한다.</li> <li>○ 교사가 논쟁의 주제를 제시하여 논쟁이 시작되도록 한다.</li> <li>○ 논쟁의 최상의 결과를 학습지3의 결론에 적도록 한다</li> <li>○ 논쟁의 결론을 모둠별로 대표자가 발표하도록 지시한다 내용에 대하여 북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비해 온 자료를 모듬별로 수집한다</li> <li>○ 자기 모듬으로 간다</li> <li>○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모듬의 입장을 정립하도록 한다.</li> <li>○ 모듬 대표자가 일어서서 모듬의 의견을 차례로 발표한다.</li> <li>○ 다른 의견 발표자의 내용에 대해 반박의견을 개진한다.</li> <li>○ 모듬 구성원의 의견과 토론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정리하도록 한다.</li> <li>○ 논쟁의 결과를 수용하여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수행자료</li> <li>· 학습자료&lt;3&gt;:모듬별로 북한 관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조사해오도록 한다.</li> <li>○ 미리 모듬별로 책상 배치를 지시해 놓는다.</li> <li>○ 모듬 구성원 모두의 참여로 풀도록 한다.</li> <li>○ 발언권은 한 사람에게만 주도록 하여 논쟁이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대비한다.</li> <li>○ 학생 스스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하도록 한다</li> </ul>
정리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퍼즐풀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퍼즐지를 모듬별로 나누어 주어 풀도록 한다.</li> <li>○ 퍼즐지 답을 제공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자료를 참조하여 제시된 퍼즐지를 풀이한다</li> <li>○ 퍼즐지에 대한 오답을 스스로 정정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료&lt;2&gt;</li> <li>○ 퍼즐풀이는 통해 북한에 대해 정립된 시각을 확인한다.</li> </ul>

※ 본 지도안은 구조화된 논쟁의 절차 중 입장을 바꾸어 논쟁하는 부분은 시간상 제외하였다. 아울러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퍼즐풀이는 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4) 학습 자료

<1> CD 자료1

제목: 새천년 함께 하는 남과 북  
 출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새천년 함께 하는 남과 북 (2000)  
 분량: 10분 발채  
 주제: 남북의 갈등 및 교류 협력의 소역사  
 줄거리: 남북관계 소역사, 정상회담, 남북경협, 사회문화 교류,  
 이산가족 상봉, 동반자 관계 등

<2> 퍼즐지

		2		3					5					
								4						
				4			5							
1														
3							7							
					6									
												10		
					9				8					
		7												

[가로열쇠]

1. 북한은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를 개최하여 주석제를 폐지하고 김정일을 이 직책에 재 추대했다.
2. 지난 82년 4월 15일 김일성의 70회 생일을 맞아 축조된 대표적인 김일성 우상화 상징물이다.

3. 1977년 4월 15일 김일성의 65회 생일을 맞아 준공된 □□□은 김일성의 관저로 정식명칭은 [금수산 의사당]이다. 유럽식 궁전을 본딴 4-5층 건물로, 지하 2백m 깊이에 지하철이 있다.
4. 우리나라의 이것 1호는 동대문이다. 북한의 이것 1호는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지역의 대표적인 평양종이다.
5. 북한이 우리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이것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북한은 적이기보다는 이것으로서의 모습이 필요하다.
6. 남한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 통일과 상호교류, 협력에 관한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한 회담.
7. 북한은 자신들의 이 이데올로기를 ‘우리식 □□□□’라고 부르는데, 이는 수령의 유일 영도에 따라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살아가는 체제라는 의미이다.
8. 일종의 ‘북한판 부국강병론’으로 이 구호는 사상의 강국, 군사강국을 통해 경제강국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 [세로열쇠]

1.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하기전에 가지고 있던 직책 ‘□□ □□’
2.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
3.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제도
4. 면적 9만 9373km<sup>2</sup>(남한). 인구 4685만 8463명(1999). 인구밀도 472명/km<sup>2</sup>(1999). 통칭 한국이라고도 한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반도와 3,2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5. 400명 이상의 성인 주민들이 살고 있고, 4단계 행정구역 체계를 3단계 행정구역 체계로 조정하면서 면을 폐지하는 대신 생겨난 새로운 행정단위
6. 지역적 특성상 유명한 사례를 이 말에 빗대어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남쪽 지방은 남자가, 북쪽 지방은 여자가 잘 생겼다는 말

7. 북한의 이것은 광복 이후 50여차례에 걸쳐 조정되었으며, 현재 1특별시, 2직할시, 9도, 25시, 38구역, 147군, 2구, 149읍, 3천3백11리, 896동으로 편성되어 있다.
8. 면적은 1만 6873.72km<sup>2</sup>, 인구는 155만 2667명(1999)이다. 동쪽으로 동해에 접해있고, 서쪽으로 황해도·경기도, 북쪽으로 황해도·함경남도, 남쪽으로 경상북도·충청북도와 만난다.
9.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복선철도
10. 경기(북한) 북서부에 있는 시. 8·15광복 이후 북위 38° 바로 남쪽에 자리한 남한 최북단의 도시가 되었다가, 6·25전쟁으로 휴전선 북방의 북한 지역에 위치하게 되었다. 서울 북서쪽 78km 지점, 한강(漢江)과 예성강(禮成江) 하류에 발달한 좁은 분지에 위치

♣ 퍼즐 정답지

		2주	체	3사	상	탐			5노					
		권		회				4한	동					
				4보	물		5동	반	자					
1국	방	위	원	장				도	구					
가														
3주	석	궁					7행							
석					6남	북	정	상	회	담				
					남		구							
					북		역							
					녀									
										10개				
					9경				8강	성	대	국	론	
										원				
			7사	회	주	의				도				
					선									

## &lt;3&gt; 모둠별 사전 수행자료 및 토론지

학 년		반		모듬명	
주 제	우리나라와 북한은 적대관계이다.				
반대의견					
조사내용 (주제에 맞는 조사자료를 첨부할 것)					
결론					

학 년	반	모듬명
토론주제	우리나라와 북한은 동반자의 관계이다.	
반대의견		
조사내용 (주제에 맞는 조사자료를 침부할 것)		
결론		



연, 체육행사, 그리고 토론회 및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김일성 사망 후에도 생존자와 같이 김일성 생일기념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30여 개에 달하는 각종 기념일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들 기념일은 해당부문 종사자들끼리 모여 생산을 독려하거나 노력동원의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개요(2000), 통일부 정보분석국, pp. 164-467

#### 참고자료 ④ 북한의 민속놀이

① 북한은 경기놀이·겨루기놀이·가무놀이·어린이놀이 등 4가지로 분류

· 경기놀이

- (널뛰기, 그네뛰기, 씨름, 줄당기기, 활쏘기, 말타기, 격구) 등이 포함
- 북한은 1994년 처음으로 ‘텔레비전 민족씨름경기’ 를 개최하고 중앙 TV를 통해 녹화 중계하였다. 이 경기의 우승자에게는 황소나 송아지 한 마리씩이 상품으로 수여되는 등 우리의 민속씨름 경기와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 겨루기 놀이

- (윷놀이, 장기, 바둑) 등
- (윷놀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놀 수 있는 대중적인 오락으로서 “조선 인민이 가장 즐겨 는 민속놀이의 하나” 라고 함
- (바둑)과 (장기)를 놀이과정에서 사람들의 사고력을 높여주는 유익한 놀이라고 하여 마을회관이나 직장에 (바둑판과 장기판)을 준비
- 장기판은 우리 것에 비해 4배정도 큰 것을 사용하며 말은 모두 한글

· 가무놀이

- (농악놀이, 탈놀이, 꼭두각시놀이, 불꽃놀이, 화전놀이, 강강수월래, 길쌈놀이) 등
- 농악무는 민간무용의 하나로서 균중성이 있고 낙천적이며 흥미있는 좋은 무

용이라고 평가

· 어린이 놀이

- (연떡우기, 팽이치기, 썰매타기, 줄넘기, 바람개비놀이, 숨바꼭질, 공기놀이) 등
- 북한의 학생들은 방학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줄넘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등을 함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 통일교육의 실제(중학교용 2001)

민속놀이의 변형

시 기	내 용
6·25전쟁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민속놀이 존속</li> <li>- 그네, 씨름(단오)</li> <li>- 널뛰기, 윷놀이, 연날리기(음력설)</li> <li>- 농악무, 북청사자놀이, 봉산탈춤 등</li> </ul>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속놀이 일부가 생산성 제고 수단으로 활용</li> <li>- 농악을 행사에 이용(5·1절, 8·15 등)</li> <li>- 노동자의 놀이로서 씨름, 그네, 줄달리기 장려</li> </ul>
196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형태로 변형</li> <li>- 군중적 집단놀이로 변형</li> <li>- 환쏘기 등을 계급교양과 결부(표적은 미군)</li> <li>- 씨름, 그네를 '민족경기'로 채택</li> </ul>

북한개요(2000), 통일부 정보분석국 pp. 468

## 7. 북한의 교육제도는 어떻게?

### 가. 단원의 개관

중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통일 교육의 내용 중에서도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와 교육제도를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첫째, 북한 정규교육의 기본 학제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교육체계는 어떤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북한의 학교와 교육제도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교육체계와 비슷하지만, 유치원 높은 반 1년, 인민학교 4년,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하지 않고 고등중학교를 6년으로 정하고 있다.

둘째, 북한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그 특징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학교교육의 내용을 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으로 나누고 있다. 고등중학교에서는 각 학년별로 13-18개의 과목을 배우며 총23개의 과목을 학습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의 비중이 높다.

이 단원을 지도하는데 있어서의 유의점은 북한 교육제도의 특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북한 학생의 생활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를 미래 통일 세대의 주역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 나. 학습 목표

1. 북한의 교육체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2. 북한 고등중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3. 남북한 교육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4. 남북한 학교 교육의 이질화 극복이 중요함을 실감하고 노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지도 방법 및 자료 활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전개	<p>○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의 모습과 교육제도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한다.</p> <p>○ 북한의 학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조사해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2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교 4-7년</li> <li>- 실업계 중등교육이 없음</li> </ul> <p>○ 북한의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과 비교해서 조별로 발표해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학교 12과목</li> <li>- 고등중학교 23과목 (각 학년별로 13 - 18과목 수강)</li> </ul> <p>○ 북한의 개학과 방학은 언제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월부터 상학기(1학기)</li> <li>- 9월부터 하학기(2학기)</li> <li>-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이 있음</li> </ul>	<p>학습지①</p> <p>학습지 ②③ 참고자료⑨</p>	<p>학생들이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유도한다.</p> <p>다른 조의 발표를 주의 깊게 보도록 한다.</p> <p>인터넷을 활용하여 스스로 정보를 찾도록 지도한다.</p>
정리	○ 남북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정리하도록 한다.		

### <3> 북한의 위치와 면적

한반도의 전체면적은 22만2154km<sup>2</sup>. 이 가운데 남한은 9만9392km<sup>2</sup>, 북한은 12만2762km<sup>2</sup>로 북한이 한반도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북한지역은 북위 38도선 부근에 새로 설정된 휴전선을 경계로 북쪽으로 뻗어 압록강과 백두산,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의 동북지방, 러시아의 연해주와 접해 있다.

위도상으로 한반도는 북위33° ~43° , 동경124° ~138° 동반구 동쪽에 위치해 있다. 그 중 북한지역은 북위 37° 41′ 00″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 남쪽끝) 에서 북위 43° 00′ 36″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북쪽끝) 경도상으로는 동경 130° 41′ 32″ (라선시 선봉군 우암리 동쪽끝)에서 동경 124° 10′ 47″ (평안북도 신도군 비단섬 서쪽끝) 사이에 놓여 있다.

지형적으로는 바다가 동해와 황해로 분리되어 있으며 동북쪽의 관북지방은 해안을 따라 형성된 좁은 평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높은 고원이나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해 서쪽의 관서지방은 평야와 구릉지가 발달하였다.

(NK조선, 북한사람 북한이야기 ; <http://nk.chosun.com/glossary/>)

### <4> 북한의 행정구역

1945년 해방 당시 북한의 행정체계는 6개도 9시 810읍·면으로 되어 있었다. 이후 북한은 종전 4단계 행정구역 체계에서 면(面)을 폐지하여 3단계 행정구역 체제로 개편하였다. 또한 광산, 임업사업소, 수산사업소, 공장, 기업소 중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임금노동자가 400명 이상 거주하는 곳으로 노동자구를 설치하였다.

1946년 평양시를 평안남도에서 분리시키고 강원도를 신설하였으며, 1945년 양강도, 1949년 자강도를 신설하였고 황해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리, 신설하였다. 또한 개성시를 직할시로 승격하였으며 1980년 남포시를 직할시로 승격시켜 현재는 9개도, 4직할시(평양, 남포, 개성, 나선), 24시, 42구역, 147군, 2구, 147읍 3311리, 896동, 251노동자구와 특별행정구역인 함경남도 금호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구란 노동력을 집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탄전지

대, 공업단지, 염전, 광산지역, 발전소, 어장, 특수농장 등 인구밀집 지역에 도시형태를 갖추어 설치한 행정단위로 일종의 특수촌락이다.

해방 당시 6개 도에서 9개 도로 늘어난 것은 자강도(1949.1)와 양강도(1954.10)가 신설되고 황해도가 황해북도와 황해남도로 분리(1954.10)된 결과이다. 4개 직할시는 평양과 남포, 개성 및 경제특구로 지정된 나진-선봉시(나선시)이다. 국내의 출판물이나 웹사이트 가운데 평양을 특별시로 표기한 것이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북한의 공식 출판물들은 한결같이 평양을 직할시로 명기하고 있다.

북한이 '혁명의 수도'로 부르는 평양은 19개 구역(우리의 區에 해당)과 4개 군으로 구성돼 있다. 면적은 약 2800km<sup>2</sup>로 서울의 4배정도 되는 크기이다. 그러나 실제로 인구밀집지역은 전체 면적의 2%를 넘지 않는다.

이 밖에 공식 행정단위는 아니지만 2개 구(區: 평남 청남구, 함남 수동구)와 1개의 특별행정구역(함남 금호지구)이 있다.

북한 행정구역 개편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간추려진다.

우선 군(郡)단위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는 군이 생산의 기본단위로 규정되면서 그에 맞게 잘게 나뉘었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구역 명에 전투적인 색채를 띤 것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 평양 모란봉구역의 항미(抗美)·전우(戰友)·전승(戰勝)동과 강원도 원산시 승리(勝利)동 등이 그것이다.

셋째, 곱고 순수한 우리 말 표현도 심심찮게 만나게 된다. 평양 만경대구역 웃고개동, 자강도 희천시 솔모루동, 황남 과일군, 황북 송림시 꽃핀동, 황남 장연군 샘물리, 함남 금야군 솔밭리 등이 대표적인 예.

넷째, 김일성 이상화 차원의 개명사례와 사람이름을 지명으로 차용한 것도 적지 않다. 함북 은덕(敬興)·새별(敬원)군, 함남 영광(오로)·낙원(퇴조)군, 강원도 원산시 개선동 등은 전자에 해당한다.

황남 재령군 김제원(金濟院)리, 함북 김책(金策)시와 은덕군 안길(安吉)리, 강원도 평강군 이수덕(李壽德)리 등은 후자에 속한다. 량강도 김형직(金亨稷, 김일성 부)·김

정숙(金正淑, 처)·김형권(金亨權, 숙부)군 등은 양쪽에 다 걸친다.

#### <5> 북한의 주민통제를 통한 사회통합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단히 '공산주의형 인간개조' 작업을 실시한다"는 정책아래 철저한 다중통제·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통제 유형은 조직생활 통제, 경제생활 통제, 사회생활 통제 등이 있다.

조직생활 통제는, 주민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의무적으로 각종 사회조직에 가입시켜 통제하는 것으로, 0세-6세는 탁아소와 유치원, 7세-13세는 소년단, 14세-30세는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31세-65세는 직업동맹·농업근로자 동맹·민주여성동맹에 가입해야한다.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통제하는데, 20-40세대를 인민반으로 묶어 인민반장이 모든 주민의 전·출입 감시, 노력 및 행사동원, 사상교양을 하고 있으며,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에서는 인민반내에 비밀정보원을 심어놓고 인민반 구성원들의 동향을 감시한다.

이것도 모자라, 1958년부터 김일성의 지시에 의거 5세대당 열성당원 1명씩을 배치하는 5호담당제를 실시하고, 각종 총화(總和)를 통해 자기비판은 물론, 타인을 의무적으로 비판케 함으로써 상호 감시와 불신평토를 조성하고 있다. 경제적 통제는, 주민생존의 기본수단을 장악하여 주민통제에 이용하는 수법으로 의식주 생활에 대한 철저한 배급제 실시를 말한다.

의복배급은 기본의복에 한해 실시하고, 나머지는 할당표와 구매카드에 의해 국영상점에서 구매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점에 물건이 없다. 식량배급은 근로자와 비근로자(부양가족)를 구분, 배급량에 차이를 두어 노동의 기피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있고, 주택도 신분을 고려하여 차등배급하고 있다.

사회적 통제의 경우, 직장배치시 개인의 소질, 능력, 희망과는 전혀 관계없이 출신성분에 따라 결정되며, 자의로 직장이동을 할 수 없다. 주거지 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당국의 허가없이 이동하면, 공민증(주민증)을 받을 수 없고, 직장도 식량배급

도 받을 수 없다.

여행도 통제되는데, 여행하려면 인민보안성(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여행증을 소지해야 하며 공무상 여행시에도 도착, 출발 신고제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여행으로 인한 정보의 소통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상과 같이 북한주민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 겹의 감시망 속에 갇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통일정책연구소, 북한의 주민통제)

## <6> 주체사상

### ① 주체사상의 형성·발전

주체라는 말은 1955년 김일성 주석이 당 사업에 있어서의 주체 확립을 제기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 당시 소련의 영향력을 제어하고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이 용어는 그 후 중소분쟁이 격화되면서 대외정치의 명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던 1967년부터 이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그 성격이 급격히 변질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주체 사상은 1970년대 들어 당의 유일한 이념으로 표방되고, 다시 1972년 헌법에서는 공식 통치이데올로기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에 김정일 비서가 공식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주체사상은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고 권력승계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다. 예컨대 1986년 그가 기존의 '수령론'을 보완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제기하여 수령·당·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강조한 것도 이런 흐름을 잘 말해주고 있다.

### ② 주체사상의 주요 내용과 변화

주체사상의 내용은 1982년 김정일 당비서 명의로 발표된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종합적으로 체계화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 ② 인민대중이 사회역사의 주체라는 사회역사원리, ③ '자주



적 입장 견지, '창조적 방법의 구현',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어야 한다'는 3개의 지도적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이지만 이들이 역사주체로서 역할을 다하자면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수령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는 소위 '혁명적 수령관'이다.

북한은 1980년대 말 동구의 '형제나라'들이 잇달아 붕괴하고 경제난이 심화된 후 그 전처럼 주체사상을 강조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붉은기 사상', '강성대국론' 등,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통치 구호들을 잇달아 내세우며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고 있다.

(통일교육원, 새천년 통일문제 새로 보기, 2000, pp.30-31)

#### <7> 권력구조

일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는 당, 국가, 근로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기관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고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포괄적인 인전대(transmission belt)로서 균중을 교양하고 당정책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근로단체는 각계 각층의 광범한 균중을 조직화·의식화하여 당을 중심으로 단결시키는 인전대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적 논리와는 달리 당, 국가, 근로단체라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상위에 '수령'이라는 절대권력자의 존재를 설정하고, 그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총체를 유일적으로 움직이며 영도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권력구조는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달리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수령절대주의체제)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9월(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 이루어진 국가 권력구조 개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석제를 폐지하고 내각을 부활하여 국가 통치권력의 기능적 업무 분담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상·군대사업은 국방위원회 위원장(국가최

고 직책, 김정일)이, 대외·외교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국가대표, 김영남)이, 그리고 대내·행정 경제사업은 내각 총리(정부대표, 홍성남)가 각각 책임을 지는 업무 분담 형태를 취한 것이다. 과거 국가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권한과 임무는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으로 기능적으로 분산되었다. 국가 수반의 권한과 임무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로, 외교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행정 경제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및 책임은 내각으로 각각 이관되었다.

개정 헌법에서 국가 수반에 해당하는 직위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상으로는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직책이지만(헌법 제102조), 실질상으로는 “나라의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는 국가 최고직책”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식상·외교상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헌법 제111조). 그리고 내각 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헌법 제120조)고 함으로써 북한의 행정부를 이끌면서 행정 경제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와 같이 이번 개정헌법은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무원 총리를 내각 총리로 개편함으로써 1948년 정권수립 당시 또는 1972년 헌법 이전의 권력구조로 회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구조의 개편은 국가 권력의 분산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김정일의 정치적 필요와 통치스타일을 반영한 역할 분담의 성격이 강하다. 난관에 처한 행정 경제사업은 내각으로 이관하고, 의식상의 행사가 많은 대외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김정일은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대외적인 공식활동을 최소화하려 한다. 또한 이러한 권력구조 개편은 김정일의 사상·군사 중시 의지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김정일은 ‘후계 수령’으로서 당총비서와 국방위원장직에 전념함으로써 대내적인 사상결속과 군사중시의 사회체제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유환, 국방위원장과 내각총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북한의 권력구조,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 지도자료 CD, “대립에서 화합으로”, 2000)

## 나. 의식주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 (1) 학습목표

- (가) 북한 주민들의 의복 생활을 이해한다.
- (나)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식량난의 실태와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다.
- (다) 북한 주민들의 주거 생활을 이해하고 우리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있다.

### (2) 교수-학습 모형 : 문화이해지를 원용한 수업

#### (가) 문화이해지(Culture assimilator)<sup>25)</sup>

문화이해지는 귀인훈련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문화이해지를 통하여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리고 나는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배운다. 즉 타문화의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을 할 때, 서로가 행동원인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를 출현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다.

#### (나) 남북한간 문화이해지의 제작과정

##### 1) 갈등상황의 수집

남북한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수집한다. 이 갈등상황의 선정은 다양한 통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

---

25) 정진경, “남북한간 문화이해지의 제작”, 통일연구(연세대 통일연구원), 제2권 제2호, 1998. pp. 167-175.

컨대 북한의 소설, 영화나 TV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의 수기나 북한 방문기 등을 학생들이 다양하게 접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선행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에서 나타나는 심층면접 자료도 상황의 선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2) 사례의 작성

문화이해지의 형식은 각각의 사례마다 상황묘사·보기 및 해설을 필요로 한다. 선정된 갈등상황을 기초로 하여 각 상황마다 사례를 작성한다. 남북한간의 문화이해지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상황

- 남북한 사람이 만난 상황을 전제로 한다.
- 서로 만나거나 왕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북한사람의 행동을 남한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구성한다
- 상황묘사가 현실적이고 자세하고 가능한 한 재미있게 만들되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은 제외시킨다.
- 보기에서 오답을 고를 수 있는 약간의 근거를 준다.
- 내용이 북한에 대해 차별적인 느낌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 길이는 약 10-20줄 정도로 한다.

### ◆ 보기

- 4지선다형으로 하고, 각각의 길이는 2줄 정도로 한다.
- 완전한 문장으로 맺는다(“……때문에” 등으로 하지 않는다)
- 정답이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오답에는 주로 남한사람이 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고정관념을 반영한다.
- 상황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 ◆ 해설

- 정답·오답에 대한 해설이 모두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 해설이 북한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가능한 한 자세하게).
- 북한에 대해 차별적인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 해설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하면 좋다는 것을 넣어도 좋다.

## 3) 작성된 사례의 정당화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1차로 작성된 사례들은 타당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이해지의 작성과정에서 필수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아니나 북한의 실제상황과 맞는지, 그리고 정답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치는 것이 좋다.

타당화를 위해서는 작성된 사례들을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보이고 조언을 얻는다든가,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보이고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지적은 북한의 실제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을 수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다) 본시 수업모형 활용의 유의사항

- 1) 본시 수업의 흐름은 문화이해지 배부 → 풀이 → 정답 및 이유 발표 → 교사의 설명으로 이루어진다.
- 2) 문화이해지를 학생들이 풀이할 때 정답을 찾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반드시 적도록 한다. 학생들이 이유를 말하고 나서 교사가 정답을 발표하고 각 보기가 왜 맞거나 틀리는지를 문화적 배경과 함께 해설해 준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정답을 맞추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의 추론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다는 점이다.
- 3) 문화이해지를 풀고 시간이 남으면 의식주 생활에 대한 강의를 통해 보충한다.

(3) 교수-학습 과정안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학습 상기</li> <li>○ 학습 동기</li> <li>○ 학습 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사회의 특징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상기시킨다.</li> <li>○ VTR자료:평양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준다.</li> <li>○ 학습목표를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에 답변한다.</li> <li>○ VTR을 시청한다.</li> <li>○ 경청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료&lt;1&gt;</li> </ul>
전개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이해지 풀이(20')</li> <li>○ 강의 :북한 주민의 의식 주 생활 (10')</li> <li>○ 민족 동질성 탐구(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이해지를 배부하고 정답을 찾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이어트</li> <li>• 오늘은 내가 뉘게</li> </ul> </li> <li>○ 정답과 해설을 설명한다.</li> <li>○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생활</li> <li>• 식생활</li> <li>• 주생활</li> </ul> </li> <li>○ 남북한 의식주 생활의 공통점을 알아보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이해지를 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답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를 적는다.</li> </ul> </li> <li>○ 발표하고 근거를 제시한다.</li> <li>○ 경청하며 필기한다</li> <li>○ 경청하며 궁금한 사항은 질문한다</li> <li>○ 답변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료 &lt;2&gt;</li> <li>○ 오답도 발표하게 한다</li> <li>○ 학습자료&lt;3&gt;</li> <li>• 북한 주민의 생활 모습 사진 자료를 보여준다 (통일교육 CD자료: “대립에서 화합으로”)</li> </ul>
정리 및 평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 및 평가</li> <li>○ 차시학습 예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바로 알기 질문을 통해 정리한다.</li> <li>○ 북한의 가정생활을 예고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지를 작성하고 답변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료&lt;4&gt;</li> </ul>

## (4) 학습자료

## &lt;1&gt; VTR자료

제목 : 평양의 보통 사람들  
 출처 : KBS1 남북의 창  
 분량 : 2분 30초  
 주제 : 평양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거리 풍경  
 줄거리 : '백두에서 한라까지' 프로그램을 취재하기 위해 갔던 KBS특파원들이 평양의 거리를 취재하고, 사람들과 기자들이 함께 지낸 짧은 시간을 스케치한 것임.

## &lt;2&gt; 문화 이해지

▶ 다이어트<sup>26)</sup>

## &lt;상 황&gt;

서울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현주는 건강하고 큰 체격의 여학생이다. 그는 평소에 자기가 좀 뚱뚱하다고 생각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건강하고 좋아 보인다고 아무리 말해도, 현주는 거듭 다이어트를 시도하며 살을 빼려고 애쓰고 웃도 날씬해 보이도록 신경 써서 입고 있다.

올해에 현주네 학교가 청진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방학 동안에 한 달간 서로 왕래를 하게 되었다. 현주는 북한에 처음 가보는지라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하였고, 북한 학생과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모임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현주의 짝이 된 영준이라는 남학생이 현주를 힐끗 보며 옆의 남학생에게 “남한 여학생들은 몸집이 좋다, 야.”라고 하였다. 현주는 그 말을 듣고 무안하고 화가 나서 그 남학생을 쏘아보았더니 그는 얼른 외면하였다. 그 남학생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 &lt;보 기&gt;

1. 현주가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한 것을 무심코 말한 것이다.
2. 짓궂어서 북한에서 온 여학생을 놀리려고
3. 현주의 체격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4. 북한 남학생이 교양이 없어서

## &lt;정 답&gt;

26) 정진경, “남북 문화이해지를 활용한 남북 상호 이해 교육”,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정 강의안, (2001) 참조.

<이 유>

▶ 오늘은 내가 낼게<sup>27)</sup>

< 상황 >

성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북한에 있는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기로 한 성우는 처음 접하는 북쪽 생활에 조금은 두려움과 호기심을 갖고 학교생활을 시작했다.

며칠 뒤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다른 친구들이 그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성우는 학교 주변에 새로 생긴 남한식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격의없이 서로의 사사로운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성우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모든 경비를 그가 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들 중 술이 얼큰히 취한 친구가 시큰둥하게

"왜 내 술값을 내가 내나?"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성우는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기에 당황했고 선의로 한 말에 이렇게 무안을 당해서 마음이 불편했다.

기숙사 친구가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

< 보 기 >

- (1) 성우가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2) 북한에서는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 (3) 남한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 (4) 떠들고 잘 노는 성우의 부르주아적 태도에 반감이 생겼다.

<정 답>

<이 유>

27) <http://www.multicorea.org/html/situ/situ03.html>



<문화이해지 정답 및 해설 >

<1> 다이어트

<정답>

3. 현주의 체격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해설>

남한에서 여학생들이 텔레비전의 모델들처럼 마른 체격을 좋아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여성이 좀더 통통한 것을 좋아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날씬한 남한 여성들은 북한 남성들이 보기에 몸이 약해 보인다고 한다. 북한영화를 보면, 여자 배우들이 남한의 배우들보다 얼굴이 동그스름하고, 체격도 마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1980년대에는 북한 남성들 사이에 ‘몸나기’ 즉 살찌기 붐이 일어났다. 살집이 좀 있고 배도 좀 나와야 간부처럼 보여서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볼 때, 남한의 학생들이 여자나 남자나 북한 학생들보다 키가 크고 몸집도 큰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서 살다 온 한 젊은 남자는 “북한에서는 내 키가 작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여자들이 나보다 키 큰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작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최근 북한이 여러 해에 걸친 식량난을 겪고 있어서 어린이들의 영양문제가 심각하여, 이런 차이가 앞으로는 더 벌어질 염려가 있다.

북한의 또래친구와 만나게 되면 이 점을 고려하여,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똥다리’니 ‘숫다리’니 하는 농담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고 매우 무례한 일이다. 북한에서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게 직선적이고 비하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한다. 양쪽 다 지금부터는 그런 말을 쓰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하겠다. 기회로 삼는 것도 좋겠다.

<2> 오늘은 내가 빌게

< 정 답 >

- (1) 성우가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2) 북한에서는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 해 설 >

통일 후에도 남쪽과 북쪽의 경제수준은 큰 격차를 보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북한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끼거나 자신감을 잃는 경우도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 사람들은 돈과 관계있는 일에서 무심코 북한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것이 좋다.

북한에서는 각자 먹은 것은 자기가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식당이 선불제로, 각자가 자기의 식권으로 사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서구의 더치페이와 유사하다 하겠다. 여럿이 먹은 것을 한 사람이 다 내는 것을 당연시하고 미덕으로 여기는 남한의 경우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 오해를 하기가 쉽다.

교류를 시작하면 남과 북의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해 서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만수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친구들이 만든 자리이므로 그 친구가 적대감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같이 즐겁게 놀다가 돈을 내는 데서부터 갈등이 생긴 것이므로 그 이전에 성우의 행동을 부르주아적 태도로 보아 불쾌하게 여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사진 자료

제목 :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을 보여 주는 사진 자료

출전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개발 통일교육 CD자료, '대립에서 화합으로', (2000), 주제별 지도자료 중 북한 사회의 이해

내용 : 네거리 처녀들, 여성의 옷차림, 노동자 살림집, 평양 시민의 주방 등

## &lt;4&gt; 북한 바로 알기 질문지

북한을 바로 알아봅시다	
①	함경도의 명물 순대로 돼지고기, 찹쌀, 숙주나물, 배추 등과 당면으로 된 순대 속이 일품인 이 음식의 이름은?
②	북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몇 층이며, 건축물의 이름은?
③	북한말로 '하늘소'는 어떤 동물을 가리키는 말인데, 어느 동물을 말할까요?
④	북한의 평양 옥류관은 하루에 약 8천 그릇 정도가 팔린다고 하는데,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한다는, 옥류관의 유명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⑤	북한말로 '땀받이'는 어떤 물건을 일컫는 말일까요?
⑥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금강산은 봄에 부르는 이름으로 계절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계절마다의 금강산의 이름을 쓰시오 여름 - (                    ), 가을 - (                    ), 겨울 - (                    )
⑦	북한의 공장, 기업소에서 근무하는 일반 노동자들은 배급표와 배급 카드에 따라 식량 배급을 받는데, 노동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몇일에 한 번 배급표를 받을까요?
⑧	다음 중 가난하여 남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북한말은? 1) 구걸                    2) 구간질                    3) 군것질
⑨	1950년대에 설립된 조립식 아파트로 각 층마다 후면으로 단일 복도가 설치되어 있고, 단일 복도를 따라 방, 부엌 각각 한칸이 달려 있는 아파트를 가리켜 무엇이라 부르는가?
⑩	최근 북한의 여성들은 '옥류머리', '들국화머리' 등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떤 머리를 이렇게 부를까요?

(5) 참고자료

<1> 계층별 의류 배급 체계

대 상	회 수	품목 및 수량	가 격
4호대이상 간부	연 1회 년2회	양복지 1벌 기성복 1벌 내의류 무제한	반액공급
기사, 교원	3~4년 1회	양복지 1벌	염가공급 또는 의류특혜
학 생	연1회	교복 1벌	염가공급
노 동 자	연1회~2회 연1회	작업복 1벌 런닝, 내의 3매 양말 4족	무상공급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자료원, 1995, p.209)

<2> 북한의 식생활 실태

북한 당국이 “국가는 인민의 생활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인민생활을 골고루 급속히 향상시키면서 생활수준의 격차를 없애는 데 힘을 쏟는다” 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의식주 및 생필품의 배급체계를 살펴보면 계층에 따라 차별화한 공급품을 제공한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계층에 따라 중앙공급대상과 일반공급대상으로 나누고, 물자 공급등급을 매일 공급대상자, 1주 공급대상자, 2주 공급대상자, 인민반 공급대상자로 세분하여 차별적으로 배급해 왔다. 특히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와 지방도시, 농촌 등 지역에 따라서도 차별적으로 배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평양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특권층에는 필요한 양만큼 매일 또는 수시로 배급하지만, 일반주민들에게는 식량 배급표에 따라 월 2회 또는 매주 단위로 배급한다. 모든 주민에게 식량을 계층이나 지역간 차이없이 1인당 700g을 배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백미와 잡곡 비율에서 차이를 보여 특권층은 9:1 내지 8:2, 일반주민들은 2:8 내지 1:9의 비율로 배급받는다. 특권층은 잡곡을 일부 배급받는다 하

더라도 옥수수가 아닌 밀가루와 콩, 팥 등 고급 잡곡을 배급받지만, 일반 주민들은 대부분 옥수수로 받는다.

부식 역시 배급제로 공급되는데, 가구별로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배급량을 할당받아 국정가격으로 구입한다. 주요 공급품목은 간장·고추장·된장 등 장류와 식용유, 계란, 육류, 당과류 등이고 나머지 품목은 자유판매품으로 되어 있다. 당·정간부들은 간장·된장·고추장·식용유와 같은 필수부식을 수시로 배급받지만, 일반주민들의 경우 1년에 한 번 12장으로 되어 있는 배급카드를 받아 매달 지정된 분량(간장의 경우 월 1ℓ, 된장의 경우 500g, 식용유의 경우 월 400g)만큼 국영상점에서 구매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배급량의 50~70%정도만 공급하기 때문에 생일잔치나 특별한 기념일에는 대부분 장마당에서 비싸게 구입한다는 것이다. 소금은 8월초 양배추가 출하될 때 1인당 1kg, 10월말 김장 때 2kg이 공급되는 것이 고작이어서 가장 품귀현상을 빚는 부식이다. 배추·무우는 김장 때 가구당 60~70kg 공급받고 모자라면 장마당에서 구입하거나 개인 텃밭에서 경작하여 조달한다. 생선은 월 1인당 1kg(명태), 돼지고기·닭고기는 연 5회 가구당 1kg을 배급받지만, 김일성·김정일 생일 등 특별한 날에는 세대별로 정해진 분량을 유상 공급받는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심각한 식량난으로 배급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북한은 각종 채소류와 나물, 밀가루를 이용한 대용식품들을 보급하는 운동을 벌여 왔다. 1996년부터 분조관리제를 개선하여 농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고, 1998년도에는 이모작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구황식품인 감자·고구마·도토리까지 공식적인 식량배급체계에 포함시키고 장마당에서 식량 거래를 묵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농업 생산방식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통일부, 북한이해, 2001, pp. 218-224)

### <3> 북한의 식량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00년과 2001년에도 북한 식량 사정도 여전히 불안정

한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 식량 농업 시스템 특별경보' 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지역 강수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평균치를 밑돌고 전력난으로 농업용수를 끌어쓰지 못해 식량사정이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남한에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주재 세계식량계획(WFP) 데이비드 대표가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 95년 이후 북한에서 기아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만 명 내외라고 한다. 한편 북한의 1인당 영양부족 정도가 칼로리 섭취량 기준으로 세계 11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2000년 세계 식량 부족사정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하루 칼로리 섭취 부족치가 북한은 340kcal로 소말리아 490kcal, 아프리카니스탄 480kcal, 아이티 460kcal, 모잠비크 410kcal, 브룬디 410kcal 등에 이어 11위를 기록하였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 해결을 위해 감자농사에 주력, 끝장을 볼 때까지 철저히 관철해 가야한다고 노동신문에서 밝히고, 특히 농업부문 간부들이 직접 감자밭에 나가 감자농사를 잘 짓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감자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감자를 주식으로 하기 위한 연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감자생산은 중세기 유럽을 휩쓴 전염병과 굶주림에서 유럽인들을 구한 구황작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요리법을 개발할 경우, 북한이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알고싶은 통일이야기, 충북청원교육청, 2000, p. 68)

#### <4> 평양의 음식

① 평양냉면 : 평양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진 전통음식이다. 밀가루, 감자농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달걀, 배 등을 주재료로 쓴다. 메밀가루와 감자농마를 섞어서 더운 물에 반죽한 것을 국수분통에 넣고 눌러서 국수사리를 만든다. 고기류는 삶아서 소와 돼지고기는 버들잎 모양으로 얇게 편을 뜨고 닭고기는 찢어둔다. 시원한

배를 곁들이고 달걀로 초대와 실달걀을 만들어 었는다. 실파와 실고추로 고명을 하고 양념도 었는데 국물은 나중에 조심스럽게 붓는다. 겨자즙과 식초는 따로 낸다. 평양냉면은 오리가 질기고 국물이 시원하며 달고 약간 새콤한 배맛이 잘 어울려 뒷맛을 감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방적·계절적 특성과 함께 국수오리, 양념, 고명, 향료감이 조화롭게 결합된 음식이다.

② 평양온반 : 평양지방에서 해먹는 장국밥 형식의 하나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특징은 닭고기 장국을 만들고 구미로 닭고기와 녹두지짐을 었는 것이다. 대접에 더운 밥을 담고 그 위에 녹두지짐과 버섯볶음을 었고서 고기를 놓은 다음에 끓는 장국물을 꾸미가 잠길 정도로 붓는다. 평양온반에는 양념장과 나박김치를 낸다.

③ 평양어죽 : 평양어죽은 일반어죽과 달리 물고기가 아니라 닭고기로 만든다. 예로부터 한여름 더위를 가시고 몸을 튼튼히 하는데 효과 있는 보양음식이다. 닭고기를 삶아놓고 닭고기 삶은 국물에 씻은 쌀을 넣어 천천히 끓인다. 쌀알이 다 퍼졌을 때 찢어놓은 닭고기를 넣고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맞춘 다음, 파를 썰어 넣고 달걀을 풀어 놓는다. 닭고기가 절반쯤 익었을 때 송어나 메기를 넣고 죽을 쑈기도 한다. 평양어죽에는 고추장과 오이찬국을 같이 내는 것이 제격이다.

④ 대동강 송어탕 : 대동강의 신선한 송어에 소고기, 두부 등을 넣고 얼큰하고 감칠맛나게 끓인 음식이다. 소고기는 갖은 양념에 재었다가 볶으면서 물을 부어 탕국을 만드는데 이렇게 끓이면 맨 송어로만 끓인 것보다 한결 달고 맛이 좋아진다. 송어는 기름이 적은 물고기이므로 특히 소고기국물과 맛이 잘 어울린다. 방아잎(혹은 썩갓)을 넣어 비린내를 없애고 맛을 좋게 한다.

⑤ 대동강 송어찜 : 손질한 송어의 배속에 고기소를 넣고 물위끓임을 한 음식이다. 송어찜은 물고기찜 중에서 대표격이라 할 만큼 잘 알려진 음식이다. 송어는 살이 많고 희며 기름기가 적어서 양념맛을 잘 받는다. 맛있는 고기소를 넣고 찜 송어찜은 감칠맛이 나고 비리지 않은 게 특징이다. 고명으로 색깔을 맞추어 놓은 송어찜은 연희상, 큰상 같은 데 올린다.

⑥ 노치 : 참쌀이나 기장쌀, 조참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역기름을 넣고 식혀서 지진

떡이다. 주로 명절 때 만들어 푸짐한 명절 음식상에 놓곤 하는 고유의 떡이다. 특히 평안도지방에서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맛이 달고 향기로우며 오래 두고 먹어도 변하지 않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 노치는 맛이 달고도 새콤하며 쫄깃쫄깃하고 먹으면 끈기가 있다. 기름종이에 싸서 보관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도 있다.

(주강현, 북한의 민족 생활 풍습, 민속원, 1999, pp. 219-221)

#### <5> 북한의 주거생활

북한은 민법 제50조에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이용권을 로동자, 농민, 사무원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주택공급은 중앙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주민에게는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만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계층과 직위에 따라 규격화되어 있는 각 등급의 독립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형식으로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주택은 주로 아파트와 2~3세대용 연립식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입주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에 따라 그 형태 및 구조를 각각 달리하고 있다. 주택형은 대체로 당·정 부부장급 이상 고급간부 등이 거주하는 특호로부터 일반근로자와 집단농장원에게 배정되는 1호주택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구분되어, 계급과 성분에 따라 차등 배정되고 있다.



## &lt;계층별 주택구조&gt;

구 분	주 택 형	가 옥 구 조	입 주 대 상 자
특 호	독립고급주택	·독립식 단층 또는 2층 주택 ·정원 ·수세식변소 ·냉난방장치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내각 부상급 이상 ·인민군 소장급 이상
4호	신형고층 아파트	·방 2개 이상 ·목욕탕 및 수세식 변소 ·베란다, 냉온수시설	·중앙당 과장급 이상 ·내각 국장급 이상 ·대학교수 ·인민군 대좌 ·문예단체 간부 ·기업소 책임자
3호	중급단독주택 및 신형아파트	·방 2 ·부엌 ·창고	·중앙기관 지도원 ·도단위 부부장급 ·기업소 부장
2호	일반아파트	·방 1~2 ·마루방 1, 부엌 1	·인민학교·고등중학교장 ·일반노동자 ·사무원
1호	집단공영주택	·방 1~2, 부엌 1	·말단근로자 및 사무원
	농촌문화주택	·단층 연립주택 ·방 2, 부엌 1, 창고 1	·협동농장원
	구 욕	·방 2~3개의 농촌 기존 구옥	·변두리 농민

다른 기본생활 사정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주택부족 사정도 상당히 심각한 편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4~5년 정도 기다려야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차례가 돌아올 정도로 어려운 것이다.

일반 주민들의 경우 방 1개, 부엌 1개의 2칸 주택이 보통이고, 방 2개, 부엌 1개의 3칸 주택에 2가구가 동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대부분 일반주민들의 경우 국가에서 배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등록 후 세대주를 변경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돈을 주고 집을 구입하고 있다. 이러한 편법매매는 주

택에 대한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사회에서 불법으로 되어 있으나 그 동안 사실상 묵인되어 왔다. 그러나 편법매매가 최근에 들어 공공연하게 확산되기 시작하자 당국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평양에 1981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10만여 세대의 주택을 문수·창광·광복·통일·안상택 거리 등에 건설하였으나,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편 원산·함흥·청진 등 지방도시에도 평양과 같은 시기에 3,000여 세대의 아파트·공동주택이 건설되었으나, 공급부족 현상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주택은 당·기관·기업소 등의 간부들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어 일반주민들의 주택사정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

이와 같이 아직도 주택사정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주택건설계획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 현재 주택문제 보다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의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1, pp.226~229 참조)

#### <6> 유행하는 머리모양(헤어스타일)

북한에도 멋쟁이들이 있어 끊임없이 이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런 욕구는 머리모양에도 예외 없이 나타나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비록 속도는 완만하지만 연령층과 시대의 흐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꾸준히 변화하는 양상마저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신문·방송·잡지 등 매체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통용되는 머리모양은 28가지가 있고 연령층에 따라 선호하는 머리형태도 다양하다.

여성들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렁치렁하게 늘어뜨린 생머리가 크게 유행했다. 그 와중에 길게 늘어뜨린 생머리가 단속 대상이다 보니 끈으로 묶고 다니는 변형이 등장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취향과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특정한 유행형이라고 할만한 것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귀가 보일 정도로 짧게 커트한 머리가 선호되고 있다. 파마와 조발에 구애되지 않고 세련되고 젊게 보이는 머리모양을 찾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커트머리는 일단 파마를 살짝 한 후 짧은 머리를 손질하기 좋게 한 번 더 자른 형태. 손질이 비교적 간편하고 얼굴이 귀엽게 보여 젊은 여성 대부분이 선호하고 있다. 중년여성은 양털머리를 좋아하는데 짧은 머리를 아주 곱슬곱슬 하게 말아 마치 양털 처럼 만든 것이다. 여학생들의 경우 귀를 덮는 중간정도나 단정하게 보이는 단발머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제법 멋을 부릴만한 나이인 인민학교(초등학교) 상급학년이나 고등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머리핀이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머리핀을 꽂고 다닐 정도면 머리가 길다는 뜻인데 상당수는 멋으로 꽂고 다닌다.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머리핀은 삼각형에 꽃무늬나 줄무늬가 있는 것으로 대부분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대만 등 외제 일색이다. 북한산도 있지만 비닐로 만든 데다 모양이나 색깔에서 외제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뒤지기 때문에 찾지 않는다.

남성들의 머리모양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발이 대유행이었다. 남한의 88올림픽에 대응해 북한이 이듬해 평양에 유치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평양축전)의 여파였다. 당시 장발바람이 어찌나 거셌던지 곳곳에서 단속반과의 숨바꼭질이 벌어지고 붙잡히면 머리 가운데에 보기 좋게 고속도로를 내놓기도 하지만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는 그도 옛 얘기로 회자될 정도로 짧게 자른 스포츠형의 머리가 추세를 이루고 있다. 당국에서도 “남자들의 머리단장에서 기본은 머리형태를 혁명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풍모와 시대적 미감에 맞게 고상하고 간편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머리를 짧게 깎고 기름을 발라 단정하게 가꿀 것을 권장하고 있다.

청소년층에서는 머리 전체를 짧게 자른 패기머리, 옆머리와 앞머리를 길게 잘라 갈매기가 날아가는 모양으로 옆으로 빗어 넘긴 갈매기머리가 유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경우 인민학교는 박박머리, 고등중학교는 1cm가 표준이다. 하지만 고등중학교만 해도 끼가 넘치고 튀어보려는 녀석들이 있어 어떻게든 1cm의 벽을 뚫어보려고 무진 애를 쓴다. 물론 금방 눈에 띄는 앞머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두고 뒷머리만 살짝 길러 한껏 멋을 부린다.

한편 북한 여성들은 머리손질을 위해 송진을 이용해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송진무스’를 널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송진무스는 냄새가 향기롭고 시원할 뿐만 아니라 비듬이 생기지 않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의 머리 스타일>

옥류머리	앞머리부터 목선 아래까지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은 스타일
파도머리	목을 가리는 정도 길이에 층을 너무 많이 내지 않고 약하게 퍼머한다
들국화머리	앞머리를 국화꽃처럼 꾸미고 파마한 머리를 짧게 잘라 드라이어로 자연스럽게 볼륨감을 준다.
함박꽃머리	중간 정도 길이의 머리를 층을 많이 내어 파마하고 매끈히 빗어 밑머리 부분을 활짝 핀 함박꽃처럼 장식.
청춘머리	중간 정도 길이의 머리를 층을 거의 내지 않고 살짝 파마하여 앞머리를 살짝 구부려주는 스타일. 사회에 갓 진출한 예비 숙녀들이 많이 함.
대학생머리	앞머리를 내리고 뒷머리는 아무런 장식 없는 스타일.
조발머리	파마한 후 곱슬한 뒷머리를 잘라 형태를 만듬.
치녀머리	앞과 옆머리는 짧게, 뒷머리를 약간 길게 하는 스타일.
양털머리	짧은 머리를 양털처럼 곱슬하게 한 스타일. 중년여성 선호

(조선일보, 2001. 5. 26)

다. 가정생활은 어떠할까?

(1) 학습목표

- (가) 북한 주민들의 가정 생활의 특징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다.
- (나) 북한 주민들의 가정 생활의 변화 추세를 설명할 수 있다.

## (2) 교수-학습 모형 : NIE학습

### (가) NIE(Newspaper In Education)학습의 의의

오늘날의 고도 지식산업 사회에서는 학교 밖에서 지식·정보를 획득하는 양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아개념이나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도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대중매체이다. 그 중에서도 신문은 그 자체가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학습의 장으로 끌어들여 현실감 있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새로운 학습의 동기유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학습재이다. 결국 NIE학습은 사회를 바르게 보는 눈과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 삶의 폭을 넓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나) NIE학습의 특징

효과적인 NIE 학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잘 살려야 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이나 학교급별 수준을 고려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도 착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범 교과적 지도)

#### 1) 신문의 구성

- 브레인 스토밍, 신문의 종류, 신문기사의 종류, 신문 내용 정리
- 신문 구성(종합면, 국제면, 칼럼·시론, 경제면, 생활문화면, 사회면, 특집면 등)

#### 2) 민감성

- 신문에 나온 사진이나 글, 그림 등을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른다.
- 인물사진의 표정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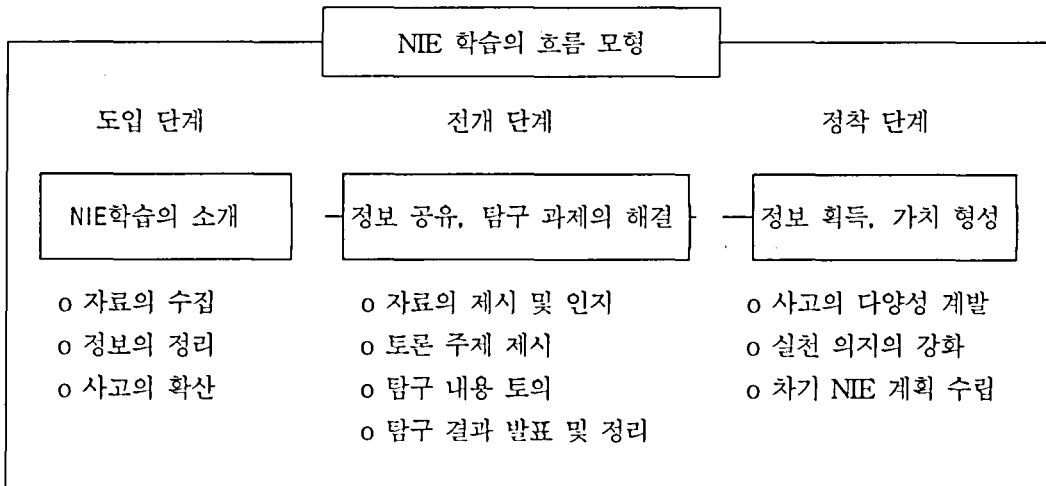
#### 3) 유창성

- 신문을 이용한 놀이 방법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한다.
- 사진, 그림자료 등을 보고 연상되는 어휘를 제한시간 내에 많이 찾아보도록 한다.

#### 4) 융통성

- 기사 내용을 읽고 논평을 하고, 주인공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기사를 다시 써 보도록 한다.
  - 사진, 그림자료 등을 보고 내용을 상상하여 만화로 꾸며 보도록 한다.
- 5) 독창성
- 생활용품 관련 사진, 그림자료 등을 수집하여 다른 새로운 모양으로 그려보도록 한다.
  - 일기 예보를 이용하여 가상 기상도를 작성해 보도록 한다.
- 6) 정교성
- 시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상도를 그리거나 논평을 써보도록 한다.
  - 사진, 그림자료에 숨은 그림을 그려 넣고 그림 찾기를 해 본다.

(다) NIE학습의 기본 학습 과정



(라) NIE학습의 사전 준비

1) 수업전 교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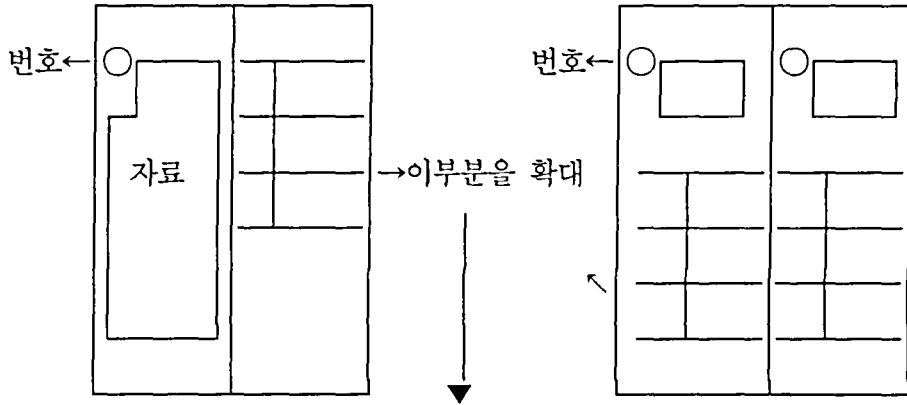
- 가) 학년 교과서의 내용을 충분히 구조화하여 교과 내용에 따른 학습조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나) 교사는 다양한 형태의 소집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업 형태를 구상한다.
- 다) 과제의 예습 과정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안내를 제공한다.
- 라) 학습 내용과 연계되는 신문을 읽는 법, 스크랩을 하는 법을 안내한다.

2) 수업전 학생 활동

- 가) 1주간 발행된 신문들 가운데 경제·사회문제, 국제문제, 통일문제 등과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북으로 만들어 조별 발표에 준비한다.
- 나) 구체적인 스크랩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규격 : 대학노트, 같은 크기 화보집도 가능
  - ② 번호는 달력에서 오려서 붙임
  - ③ 스크랩 내용 : 신문에 나타난 기사, 만화, 광고, 삽화, 독자 투고 등 신문에 나타난 모든 정보가 대상임
  - ④ 출처 : 신문 이름, 년월일, 신문 면수 반드시 기재함
  - ⑤ 자료 제목 : 신문, 잡지 기사 제목을 씀
  - ⑥ 소감은 자료를 읽고 간단하게 두줄로 씀(소감을 점점 자세히 쓰도록 훈련함)
  - ⑦ 유의사항 : 자료 발견 즉시 신중히 앞뒤면 고려하여 보고 마련  
(※어려운 한자가 있으면 반드시 붉은색 싸인펜으로 독음을 쓸 것)

다) 자료의 제작

○자료가 큰경우(2페이지에 걸쳐 작성)    ○자료가 작은 경우(한페이지에 하나씩)



출처	한국일보1997. 1. 28 - P.16
제목	북한땅 환경 오염은 회복 불능
소감	북한환경문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두줄로 간략히 소감을 씀)

라) 활용방법 : 조별 발표시 해당 학생은 토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그 내용을 소개한다. 분량이 많을시 요약하여 말하고, 화제의 대상으로 떠올릴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탐구 주제로 설정하여 탐구조 중심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한다.

(마) 본시 수업활용의 유의사항

- ① 신문은 독자가 일반인이기 때문에 지적 수준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단계에서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비교육적 내용과 수준에 알맞지 못한 기사의 게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② 특히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 내용의 논의가 이뤄졌을 때 역작용이 우려되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③ 본 수업을 진행하면서 북한의 가정생활 모습을 스크랩해 온 신문 기사를 가지고 탐구하도록 한다.
- ④ 끝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신문사간 상반된 의견이 제기됐을 때, 이를 열린교육 차원에서 토론을 거쳐 최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도출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야 한다.

(3) 교수-학습 과정안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수업 전 활동	○과제 부여	○모둠별로 '북한의 가정 생활과 관련한 신문 기사 스크랩 해오기'를 과제로 부여한다.	○모듬을 구성하고 신문 기사 스크랩 계획을 세운다.	
도입 (5')	○전시학습 상 기 ○학습동기 부 여 ○학습목표	○북한의 의식주 생활의 특 징에 대해 질문한다. ○북한의 가정 생활 사진을 보여주고 느낌을 말하도 록 한다. ○학습목표 제시	○답변한다 ○사진을 본 느낌을 발 표한다. ○경청한다.	○학습자료<1> ·통일교육 CD자료 : "대립에서 화합 으로"
전개 (40')	○신문스크랩 기사 소개 ○탐구 활 동 전개 ○탐구 결 과 발표	○신문 기사에 나타난 북한 의 가정 생활 모습을 소 개시킨다. ○신문에 나타난 북한의 가 정 생활에 대해 탐구하도 록 한다. ·가정의 역할 ·효심은? ·이혼은 가능한가? ·선호하는 배우자는? ·가정생활의 특징 ○탐구 내용을 발표시킨다	○준비해온 신문 기사 내용을 발표한다. ○탐구활동을 한다. ○탐구 내용을 발표한 다.	○교재와 참고자료 및 스크랩기사 를 활용하여 탐 구활동을 전개 하도록 한다 학습자료<2> ○모든 모듬이 발 표하도록 한다.
정리 (5')	○학습정리 ○차시예고	○북한주민들의 가정생활의 특징을 ○,×퀴즈로 질문 하여 정리한다. ○다음시간은 북한의 경제 생활에 대해 공부한다.	○답변한다	학습자료<3> ○,×퀴즈 학습지

## (4) 학습 자료

## &lt;1&gt; 사진 자료

제 목 :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모습 출 전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 CD자료, “대립에서 화합으로”, (2000) 내 용 : 북한 사회의 이해 부분 중에서 ‘일상생활’에 나오는 사진 자료 - 결혼과 이혼 / - 여성의 생활 / - 도시와 농촌의 처녀
--

## &lt;2&gt; 학습지

통일교육 탐구 학습지			
주제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모듬명	
※ 다음 내용과 관련있는 신문기사를 스크랩하고 그 내용을 알아봅시다.		관련 신문 기사	
1. 가정의 역할  2. 북한사람들도 가정생활에서 효도를 중시할까?  3. 이혼은 가능한가?  4. 남녀가 좋아하는 배우자는 각각 어떤 사람들인가?  5. 북한 주민들의 가정생활의 특징을 간략하게 적어봅시다.			

<3> 북한 주민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퀴즈

- (1)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연애결혼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 (2) 북한의 남성들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여자보다는 돈벌이가 괜찮은 직업을 가진 여자를 더 좋아한다.(○)
- (3) 북한에서는 자신의 족보를 보려면 종친회에 가면 볼 수 있다.(×)
- (4) 북한에서도 부부가 이혼할 때는 위자료를 지급한다.(×)
- (5) 북한의 모든 가정에는 5장 6기라 하여 이불장, 양복장, 책장, 신발장, 찬장/TV수상기, 냉동기, 세탁기, 재봉기, 사진기, 선풍기를 기본적으로 갖추어놓고 살고 있다.(×)
- (6) 북한에서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 다산모(多産母)에게 영웅칭호를 수여하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 (7) 북한에서는 해방 이후 가족제도의 변화를 통해 가정과 사회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이루었다.(×)
- (8) 북한에서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다.(○)

(5) 참고자료

<1> 북한의 가족 및 친족관계

북한은 1946년 7월에「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면서 봉건적 가족제도 철폐의 일환으로 호주제도를 철폐했다. 따라서 이후 가족형태는 모든 산업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가부장적인 확대가족 형태는 소멸되고 핵가족 및 2세대중심 가족형태로 발전해 왔다. 가족 구성원은 대개 3~6명으로 3세대 가족은 약 20%내외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세대 중심의 가족에서 가족관계는 부부관계와 부모·자식관계의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부부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보느냐 수평적 관계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에서는 형식상 여성들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와 육아 및 일부 가사노동의 사회화로 남녀평등질서가 구축된 것처럼 주장

하지만, 실제로는 앞서 본 것처럼 80년대 이후 확대된 가부장적 가족정책으로 가정내에서는 가부장적 수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남편은 주인이며 부인은 아랫사람인 것이다. 북한의 선전자료는, “여성들이 - 혁명화, 로동계급화되면 - 남편도 더 존경하게 되고 생활도 더 알뜰히 꾸미게 되며 결국 가정이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범적인 혁명전사요 노력일꾼인 여성은 가정에서도 아내·어머니·며느리 역할을 잘한다고 하며, 여성들에게 슈퍼 우먼이 될 것을 주장하고 역할기대와 실제 역할수행간의 긴장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는 남녀평등이 이룩되었으며, 여성들은 해방되었다는 선전과 달리, 북한여성들이 사회주의이념과 가부장 이념 양자에 구속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의 부모자식관계 또한 전통적인 가부장적 요소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다. 이는 부자세습제로 김정일의 효를 강조함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북한의 가족법 제28조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로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통치차원의 교육 때문인지 몰라도 북한에는 부모의 자식사랑과 자식의 부모공양, 효라는 덕목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는 편이다. 통계에 따르면, 1988년 현재 북한노인들은 아들부부와 거주비율이 45%, 딸부부와 거주비율은 24%, 노인부부와 독거노인의 비율이 17%, 양로원입주 비율은 14%로 부모공양비율이 69%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여성의 경우 만 55세, 남성의 경우 만 60세에 직장을 그만두고 노령연금과 하루 300g의 식량배급만으로 연명해야 하므로 결국 노인들의 삶의 유지에 필요한 그 이외의 부양비용을 자식들이 떠맡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노인부양비용을 높이는 원인이기도 하다.

부모-자식관계는 권위적 관계인데 특히 부권의 권위가 강하게 존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남아선호사상이 지배적인데, 가족법 제30조에는 아들이 없거나 자식을 낳지 못할 경우 타인의 자식을 입양할 수 있다는 규정도 정해 놓고 있다.

최근 생활고가 심해지면서 북한의 여성들은 자식을 적게 낳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스스로 피임도 한다고 한다. 북한당국은 71년 김일성이 자녀수

는 3명 정도가 좋다는 교시를 한 이후부터 명시적인 산아제한정책은 아니지만 2명 이하로 출산을 권장해 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구가 줄어 들고 징집연령층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자 다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45세 이상의 여성들에게도 출산을 장려하고 간염·결핵 등 환자외에는 임신중절, 피임수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유교전통이 사라지면서 가족을 넘는 친족관계는 제한되어 있다. 북한은 경우 친족관계의 범위가 좁혀진 것은 여타 자본주의국가들처럼 산업화와 핵가족화의 영향보다 문벌·문중·가문 중심의 봉건적 가족제도를 의도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에서 정착되었다. 그리하여 서로 인지되는 친족은 대개 6촌 이내로 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4촌만 넘으면 ‘먼 친척’으로 치부된다. 북한에서는 이미 60년대부터 항렬이나 촌수를 따지는 풍습이 아예 사라지고 없으며,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자신의 본(木)이 어디고 선대에 어떠한 인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전언이다.

친족관계의 제한을 가져온 것은 무엇보다도 가정의례의 간소화와 여행의 제한 때문이었다. 친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혈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대부분 장례·혼인·제사·회갑잔치·돌잔치 등 전통적인 풍습을 통해서이다. 북한에서는 가정의례 자체를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라 하여 간소화하고 제한할 것을 행정명령으로 시행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족관계의 범위가 좁아졌다. 최근에 와서 강화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3대 가족의 거주형태를 ‘조선의 미덕’이라 하여 권장함으로써 직계가족이 2대 중심에서 확대되는 경향이라 하겠다.

(북한관련 정보 나눔터, “가정생활과 여성의 위치” ;

<http://unikorea.net/frunikshypnk20tb.htm>)

## <2> 북한주민의 결혼식 모습

“신랑입장!”

결혼축가의 부드러운 선율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신랑이 입장하며 시작되는 남한

의 결혼식은 ‘꿈같은 천국의 결혼식’이라고 부를 만하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단장된 결혼식장의 홀, 많은 하객들을 한자리에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객석, 주차장 등은 북한에서는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급수준이다. 남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은 식당에서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식은 집에서 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결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시작된다. 신부의 집에서는 예식이 간단하기에 결혼식 당일 날 보다는 전날에 하객들을(북한에서는 하객이라는 용어가 없고 손님들이라고 하지만) 초청한다. 보통 하루 일이 끝나는 시간부터 손님들이 모여 오는데, 통상 작업이 오후 다섯시에 끝나므로 그때부터 반별로 작업총화를 마치고 함께 모여 결혼식 집에 가는 것이다. 이때면 예비신부는 보통 결혼식 옷차림을 하고 부모 친척들과 함께 손님들을 맞아들인다. 신부의 집 방 한두칸으로는 어렵으므로 이웃집의 양해를 얻어 여러 개의 방에다 손님을 대접한다.

신부와 부모들이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아들일 때, 손님들은 축하의 말을 해주며 ‘축의금’(북한에서는 보통 ‘부조’라고 한다)을 전달한다. 이어 손님들은 곧장 방으로 안내된 뒤 식사를 한다. 축의금은 신부의 공장 측에서 주는 축의금과 개인 이름으로 된 개별 축의금이 있다. 액수는 개인이 5-10원, 집단명의(공장 및 조직)로는 50-150원 정도이다. 신부측 공장의 여성들과 친구들은 신부가 준비한 신혼살림 세간들을 구경하는 것을 잃지 않는다.

결혼식 날 백년 가약을 약속하는 사랑의 해가 뜨면 마을의 아줌마들이나 신부의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 화장에 능한 사람들이 모여 신부의 화장을 돕는다. 때로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전문가’(?)가 화장을 해주기도 하나 드문 경우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북한에도 미용실이 있지만 남한처럼 화장문화나 화장도구가 발전되어 있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신부집에서는 큰상을 차려놓고 그 동안 신부가 정성껏 준비한 신혼세간 살림들을 차려놓는다. 신부의 집 아랫방에는 상을 잇거나 혹은 편이 고른 문짝을 사용하여 길고 넓은 큰상을 차린다. 큰상에는 전통적으로 신랑 신부의 사랑의 징표인 닭이 빨간

고추를 물고 앉아 있고, 대추와 갈비, 그 밖의 귀한 음식들이 부모와 가족, 친척들의 정성 속에 차려져 있다. 사과와 배 등의 과일들과 옥창탕, 함경도 지방의 풍습인 커다란 문어가 모양을 갖추고 자리를 잡고 큰상을 빛내준다. 어디에서 구해왔는지 시중에서는 보기 힘든 고급술이 올라왔아 은근히 큰상을 갖춤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신랑 쪽에 알려줄 것이다.

방 한쪽이나 옷방에는 신부가 준비한 이불장과 양복장, 그 속에 들어 있는 화려한 색상의 두툼한 이불들, 알루미늄 가마솥과 여러 가지 그릇, 경대 등이 신부가 자신의 의무를 훌륭히 해 냈음을 자랑한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을 하는 것은 큰상과 신부의 신혼살림 준비이다. 특히 여성들은 신부의 살림 준비물을 관심을 갖고 보고 평가를 한다.

결혼 당일 날 신부집에서 하는 예식은 의외로 간단하다. 신부집에서는 통상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큰상을 차린다. 신랑은 결혼 당일날 보통 점심 전으로 신부집에 도착한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큰상을 받고 장인 장모에게 예의를 표시한다. 그러기는 곧장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기 때문에 큰상만 차리고 나면 별반 어려움은 없다.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집은 부산해진다. 신랑은 도착하자마자 큰상을 받는다. 그리고 ‘찍기는 순간, 남기는 만년’이라는 사진을 찍는다.

신랑이 신부집에서 가장 용기있는 모습은 큰상을 허무는 것이다. 신랑은 큰상에서 귀한 고급술을 따서 그 자리에서 장인장모와 주변 손님들에게 먼저 올리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그 자리에서 먹어버리는)야 남자다운 신랑이고 호기있는 배짱을 가졌다고 칭찬을 듣는다.

신부가 떠날 때쯤이면 부모님들은 떠나는 딸자식을 바래다 주며 눈시울을 붉히고 신부를 허리를 굽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며 떠나간다.

신부집을 출발한 버스는 시내의 유명한 장소를 향해 간다. 일반적으로 유원지나 공원으로 가는데, 함흥의 경우 김일성 동상이 있는 곳을 공원으로 꾸며놓아 공원의 경치 좋은 곳에서 포즈를 취하고 신랑 신부는 결혼사진을 찍는 것이 보통이다. 정오가



되면 무대는 신랑집으로 옮겨간다.

신랑집의 큰상은 신부의 것이다. 신부는 큰상을 받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정중히 술잔을 올리고 신랑에게 술을 드린다. 또한 주변의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술잔을 올린다. 다음 몇 가지의 형식적인 절차를 치르고 나면 결혼식날의 공식행사 절차는 끝이 나는 것이다.

이제 저녁 퇴근 시간이 되면 신랑의 집으로 손님들이 오게 되는바 그것이 결혼식의 마지막 행사이다. 손님을 치르는 것은 신부집에서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손님들은 잔치집에 오면 우선 축하의 인사말을 하며 축의금을 주고 방으로 인도되어 식사를 대접받는다.

일반 손님들은 식사를 하고 돌아가지만 마지막에 신랑의 절친한 친구들이 모여 마지막 장식놀이를 하는 것이 특이하다. 이 과정은 손님들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좀 여유가 있을 때 신랑집 아랫방을 차지하고 신랑의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방 한 쪽에는 신랑 신부가 평상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앉는다.

신랑의 친구중 분위기를 잘 잡는 친구가 나서서 놀이를 주관한다. 그는 신랑과 신부를 불러 세워 노래를 시키고 또 신랑의 부모와 친척들도 붙잡아서 노래를 시키기도 한다. 부엌에서는 제일 좋은 술과 음식을 상에 올리고 너도나도 흥에 겨우면 상을 치워버리고 그 좁은 방안에서 춤을 추기도 한다. 그렇게 결혼식의 밤은 깊어 가는데 흥이 돋구어지면 밤 12시를 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결혼식을 치르느라 피곤한 가족과 신랑 신부의 '첫날밤'을 생각해서 저녁 10시 정도면 끝을 낸다.

(김승철, 북한동포들의 생활문화양식과 마지막 희망, 자료원, 2000, pp.108-116 참조)

### <3> 북한 남성들의 여성상

남한의 남성들이 좋아하는 여성상은 아마 미스코리아형의 외모를 가진 여성일 것이다. 이러한 남한 남성들의 여성상에 비해 북한 남성들의 여성상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우선 북한 남성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외모는 얼굴이 동그란 계란형에 조

금은 통통하고 소심한 듯, 그리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여자, 얼굴을 약간 숙인 채 무언가 생각하는 듯한 여자, 그런 여자가 제일 예뻐보이고 사귀고 싶은 여성상이다. 남한 남자들이 말하는 소위 ‘내숭떠는’ 상이기도 하다.

북한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북한 배우 가운데 한 명은 단연 이설희이다. 한때 그녀는 김정일의 애첩이라는 소문이 나기도 했었으나 실제와는 다른 소문이었다.

평양의 배우 이설희는 키가 170cm 정도이며 피부는 흰 편이고, 코는 뾰족하지 않고 약간 몽푹하며 얼굴은 가냘프지 않고 살이 포동포동한 편이다. 눈매는 매서웁지 않고 선한 편으로 큰 쌍꺼풀에 서글서글하게 생겨 누구나 봐도 친근감이 있다. 또한 몸집은 좀 크지만 귀여운 상이라 말해야 옳을 것이다.

한편 평양 총각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성들의 성격은 남자들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순종하며,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진 이른바 ‘현대판 춘향형’이다.

반면에 남한 남성들의 여성상은 이와는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꼬집어 말했다가는 ‘큰 코 다칠 것 같아’ 이 정도로 그만두려 한다.

하지만 우리 남한 신세대 남성들은 활동적이고 서구적인 외모를 가진 여성상을 대체로 지향하고 있는 듯하다.

예뻐지려는 여성들의 마음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평양 처녀들이 가장 신경쓰는 것이 바로 화장품 사용이다. 미인일수록 더욱 좋은 화장을 구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곳 처녀들, 이른바 잘나가는 집안의 딸들이나 잘사는 집 자녀들은 어지간한 수준들이 있어 외제화장품을 선호하며, 특히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화장품을 많이 쓴다. 생활이 좀 어렵다 싶은 평양 처녀들은 중국산 화장품을 주로 사용한다.

한편 어떤 여성들은 좋은 화장품을 구하기 위해서 돈있는 유부남을 사귀기도 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북한 총각들이 처녀와 사귀어 처음으로 주는 큰 선물이 바로 외제 화장품이다. 그렇지만 ‘남들은 일제 화장품을 선물로 받았는데 왜 우리 애인은 그런 것 하나 선

물하지 못하나’ 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토라지는 평양 처녀들을 생각하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다.

(윤 응, “북한 남성들의 여성상”; <http://unikorea.net/>)

#### <4> 북한의 이혼- “위자료 한푼도 없어 여자만 골탕”

세계적으로 북한만큼 이혼하기 힘든 나라도 드물다. 되도록 이혼을 시키지 않는 것이 국가정책이다. 불가피하게 이혼할 경우 전적으로 여자만 손해보게 돼 있는 것 또한 원인이다. 위자료 같은 것은 전혀 없다. 돈으로 보상하는 것은 자본주의 요소로 보기 때문이다. 단지 아이를 어머니가 키울 경우 남자가 한달 월급의 15% 정도를 양육비로 주게 돼 있는 게 고작이다.



이혼한 여자가 재혼하기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다. 또 철저한 남성중심의 북한 사회에서 일부 간부계층의 여성들을 제외하고 여성이 혼자서 살아가기란 너무도 벅찬 일이다. 폭력사회로 변해버린 북한에서 치한들로부터 제 한 몸 지켜내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북한 여성들은 남편들의 폭력이나 외도 등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참고 산다. 북한에서는 남자의 외도는 있을 수 있는 일로 용인하면서도 여성의 외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다.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경우엔 재판소에 가서 이혼신청을 한다. 이혼신청이 접수되면 판사는 아주 중대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곧바로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가능하면 화해하고 살도록 조정한다. 재판정에서도 판사는 서로에게 최대한 설득을 벌인다. 서로의 입장도 확인해주고 용서를 구할 대목이 있으면 다시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맹세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용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인내심을 가지고 이혼을 만류한다.

평양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혼하려면 아예 지방에 가서 하라는 식으로 화해를 유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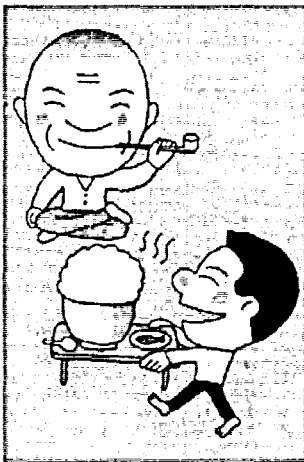
다. 평양에서 사는 것이 큰 특권인 북한에서 지방에 내려가 사느니 참고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엔 동네 주부들을 모아놓고 ‘공개재판’ 을 열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두 사람의 사정을 듣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인데 괜히 부부간의 비밀만 폭로돼 망신 당하기도 한다. 이래 저래 이혼은 원하면서도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본인들이 죽어도 이혼하겠다고 우기면 어쩔 수없이 이혼판결을 해준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나 범죄행위), 고부갈등, 성격차이 등이 있다.

과거에는 부부중 한 명이 정치범으로 걸려 수용소로 갈 경우 강제 이혼시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지방으로 추방하거나 함께 수용소로 보내고 있다. 정치범으로 걸렸을 경우 다시 살아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어 이때 갈라서는 부부들이 많다.

(조선일보, 2001. 3. 26)

<5> 효도 드리는데는 남북이 따로 없다(북녘 자손들의 부모 모시기 )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도리를 다 하는 것은 북이나 남이나 다르지 않다고 본다. 결혼을 앞둔 자식들, 특히 만이는 부모님을 잘 모실 아내를 선택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알고 있으며, 맛있는 음식이라도 생기면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당연지사라고 알고 있다. 북한은 남한처럼 핵가족화가 돼있지 않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경우가 많으며 식사도 부모님에게는 쌀밥을 따로 마련해 올리는 집도 꽤 많다.

하지만 북한에는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하고 남한처럼 소비문화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다. 더욱이 90년대의 식량난을 맞으며 북한에서 효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북한의 자식들을 불효자로 만드는 것은 배급제다. 북한에서는 모든 공민이 직업을 의무적으로 갖게 되어 있지만 만 60세면 무조건 정년이다. 정년이면 “연로보장”(년로보장) 대상이 되는데 연로보장자는 배급량이 하루 300g이다. 연세가 들면 식사량은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부모님이 연로보장 대상에 포함되면 쌀독이 항상 걱정한 며느리들은 부모님의 배급량 때문에 속을 썩이고 이 때문에 갈등도 생긴다.

필자가 1986년 기차를 타고 가다 한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할머니의 조카들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삼형제가 모여 제비뽑기를 하였다는 이야기였다. 또 며느리를 잘못 들여 부모 자식간에 갈등이 생기고, 자살하면 “민족반역자”로 보는 북한사회에서도 부모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 것은 남한보다는 북한에서 부모 자식간의 갈등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남한 사회의 모든 생활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대신 북에서는 배급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들어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생존의 절박함으로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적으로나마 유지되고 강조되던 효의 사상도 가정의 파괴와 함께 붕괴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조선일보, 2001. 5. 7)

## 라. 경제생활은 어떠할까?

### (1) 학습목표

- (가) 북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이해한다.
- (나) 북한 주민들의 소비생활 모습을 말 할 수 있다.

### (2) 교수-학습 모형 : Jigsaw 수업모형<sup>28)</sup>

Jigsaw모형은 미국의 Texas 대학의 Elliot Aronson과 그 동료들에 의해서 개발된

28) 우천희, Jigsaw협동학습,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새로운 교수방법 연수 자료, (2000), pp.38-41.

학습 모형이다. 이 모형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주제를 5-6명이 한 팀(모집단)으로 하여 구성원(전문조)수에 맞게 하위 주제(소주제)로 나누어 공부한 후, 전문가(전문조)로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책임지고 가르치고, 다른 소주제에 대해서는 동료에게서 배우는 개인의 책무성을 요구하는 수업 형태이다.

즉 동료들 간의 극단적인 상호 의존적 환경을 구성하게 되어 어느 누구도 집단 내 다른 동료의 도움 없이는 학습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구성원이 모두 자기가 맡은 하나의 소주제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도서관, 서점, 백과 사전, 교과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활동, 그리고 기타 활동을 통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조사, 탐구, 실험 등의 방법이나 정보 해석 방법을 배우게 된다. 여기서 교사는 더 이상 학습 집단의 주된 자료원이 아니며 오히려 집단 구성원들을 서로가 주된 학습 자료원이 되게 한다. 각 학습자는 학습 단원의 일부분만 학습 자료로 제공받지만 학습 단위 전체를 평가받으므로 소집단 구성원은 학습 단위 전체를 공부하기 위해 다른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 모형은 보상 구조를 통해서가 아니라 과제 분담 구조를 통해서 집단 구성원간의 상호 의존성과 협동성, 즉 정의적 측면의 증진을 목표로 시작되어 교사의 창조적 수정 보완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배울 수 있도록 발전되었다.

#### (가) Jigsaw협동학습 모형의 6가지 요소

##### 1) 특별히 고안된 학습 자료

학습 자료는 소집단 구성원들이 서로의 도움 없이는 학습 할 수 없도록 소집단 수 만큼 나누어진 부분 자료로 재조직된다.

##### 2) 모집단 조직과 의사 소통 훈련

모집단 구성원들 간의 의사 소통은 Jigsaw 모형의 핵심적 요소이다. 원만한 협동 활동과 의사 소통을 위해서는 역할 놀이, 브레인 스토밍 등의 협동 학습 활동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 3) 모집단 리더

모집단의 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리더의 역할이 강조된다. 리더는 교사에 의해 선출되며 토론이나 역할 놀이의 운영 등 리더의 역할을 위한 특별한 훈련을 따로 받아야 한다. 리더는 소집단을 조직하여 유지하고 과제를 수행하며, 소집단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 4) 모집단

모집단의 크기는 세 명이나 일곱 명의 범위가 가능하며, 5~6명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권장된다. 교사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또는 직관에 의해 학습 능력이나 성별, 심리적 특징 등에서 이질적으로 모집단을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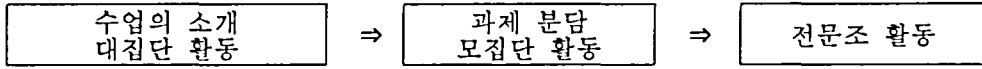
### 5) 전문가 집단

모집단의 각 구성원은 같은 학습 자료를 할당받은 다른 모집단의 구성원들과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들이 맡은 학습 자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연구하고 내용을 습득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 6) 개인적 평가와 보상

학습자들은 전체 학습 단원에 대해 개인적 평가를 받으며 집단 보상은 받지 않는다.

(나) Jigsaw 수업의 흐름



- (1) 선수 학습 성취 확인
- (2) 학습 목표 상세화
- (3) 학습 방법 안내

- (1) 과제분담
- (2) 모집단 활동

- (1) 각종 참고물
- (2) 사진 자료
- (3) 백과 사전



- (1) 서로 가르치고 배움
- (2) 선택 학습

- (1) 보충 설명
- (2) 질문
- (3) 보상과 강화

(다) Jigsaw 모형 적용에서 유의할 사항

이 수업은 교사가 내용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투입해야 하므로 교사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모형이며, Jigsaw 학습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익숙해야 한다.

- 첫째, 공부한 내용의 배분과 학습 자료 준비,
- 둘째, 소집단 활동,
- 셋째, 보고서 작성

1) 주제 배분과 학습 자료의 준비

학습 자료 제작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주제를 나눌 때 소주제의 수와 분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집단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 활동(공부)시간과 활동 장소를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현 교육 실정에서 전문가 활동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것이 과제이다. “전문가 활동은 가정 학습 과제로 부과하고 학교에서는 학습 안내와 전문가 집단 활동과 발표 시간을 가질 것인가? 교실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전문조가 해야 할 주제를 나눈 후에 교사는 학생들이 해야 할 활동과 질문을 제시하는 전문지(Expert sheet)를 개발해야 하고, 제시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습할 과제를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사의 능력이다.

전문지에는 자기가 맡은 소주제에 대해서 학생들 수준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유인책이 되도록 흥미도 부여하고 장애물도 적당히 부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제별로 조사·탐구 활동, 책읽기, 컴퓨터 모의 실험, CAI 프로그램 적용, 비디오 보기, 실험 해보기와 같은 해야 할 일을 전문지에 구체적으로 정해 주고, 질문 형태로 주제의 줄거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전문조가 부차적 논제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전문지 제작과 자료 준비에서 교사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것이다.

## 2) 전문가 집단 활동

모집단의 구성은 가능한 성별, 학습 능력 등을 기준으로 이질 집단으로 구성해야 하나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모집단에서 구성원이 공부할 주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주제의 분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안내해야 한다.

집단 활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전문가 집단과 모집단에서 얼마나 활기찬 토론이 이루어지는가?. 또 얼마나 질서를 유지하는가”하는 것은 학습의 효율화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토론이나 발표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브레인스토밍 법 등 의사 결정 요령을 익혀야 하며 조장이 이를 잘 이끌어 조정되어야 한다. 전문가로서 각자의 주제의 공부가 끝나면, 다른 모집단에서 같은 주제를 공부한 전문조끼리 모이는 전문가 집단으로 모인다. 여기서 각자 공부한 내용을 검토하고 토론에 의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하여 소주제의 내용을 충분히 학습한 다음에 모집단에서 발표할 내용을 요약 정리하게 된다. 여기서의 활동에서 각자가 모집단의 구성원에게 발표할 간단한 자료와 지도 자료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전문조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부과된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활기찬 토론이 이루어져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발표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모집단의 구성원들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도 고려해 보도록 안내해야 한다.

### 3) 보고서 작성의 문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여 모집단에서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하는가?” 하는 문제는 학습 목표에 얼마큼 도달할 수 있는가를 결정해 준다.

전문가 집단에서의 활동이 끝나면 학생들은 원래의 팀으로 돌아간 후에 전문가들은 주제를 팀원에게 가르칠 책임성이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교수법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면 그들은 자기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표현할 것이다. 보고서를 읽거나 컴퓨터, 패도, OHP 자료, 슬라이드 자료, 또는 참고 도서, 복사 자료를 보여주며 생각한 바를, 요약된 글, 사진, 도해, 도표, 그림으로 설명한다. 팀원들이 보고서를 토의하고 질문하도록 하면 각 팀원들은 다른 소주제에 관해 배우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이 각 팀에 보고할 때에는 짧은 학습 토의나 질의 응답을 수행케 하고 전문가가 자기 주제에서 간단한 문제를 만들어 조원에게 답하게 한다. 간단한 퀴즈 문제는 각자의 학습을 충실하게 보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학생들 스스로가 배우는 학습 과정을 강조하는 점에서 STAD보다 우수하며 학생들이 더 활동적이다.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적, 정의적 능력은 물론 모든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 비록 그 학습의 깊이나 학습의 양은 학습자에 따라 다양할 지 모르나 자기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자기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형이다.

#### (라) 본시 수업 모형 활용시 유의사항

Jigsaw수업 모형을 학교 교실에서 적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시간이다. 모집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이동하여 전문가활동을 벌인 후, 다시 모집단으로 와서 모

집단 구성원들에게 학습시키며 교사가 마지막에 대집단 활동으로 마무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한 2시간이 되어야 여유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50분 수업동안에 이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전문가들이 탐구할 과제를 가정학습 과제로 부과하여 전문가 활동시간에는 그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또한 모집단 구성과 전문가 선정도 수업 전에 이루어지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교수-학습 과정안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동기</li> <li>○ 학습 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주민들의 소비생활을 보여주는 동영상 자료를 보여준다.</li> <li>○ 학습목표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자료를 보고 난 후 느낌을 발표한다.</li> <li>○ 학습목표 경청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료&lt;1&gt;</li> <li>· 통일교육CD자료: '대립에서 화합으로'</li> </ul>
전개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집단 활동</li> <li>○ 전문가 활동</li> <li>○ 모집단 활동</li> <li>○ 대 집단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를 선정하고 과제를 분담한다.</li> <li>· 북한경제 체제의 특징</li> <li>· 의화 사용실태</li> <li>· 남북한 경제 비교</li> <li>· 농민시장</li> <li>○ 같은 주제를 선택한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하여 과제를 탐구한다.</li> <li>○ 전문가 활동을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과제를 모집단 구성원들에게 학습시킨다</li> <li>○ 모집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li> <li>○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집단 이름과 리더를 정하고 과제에 따라 전문가를 정한다.</li> <li>○ 전문가 집단으로 이동하여 탐구활동을 벌인다.</li> <li>○ 소집단으로 모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 활동을 벌인다..</li> <li>○ 보고서를 작성한다</li> <li>○ 발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료&lt;2&gt;</li> <li>전문가용지</li> <li>○ 전문가 선정과 과제 탐구를 사전 수업 과제로 부여하여 전문가 활동 시간을 단축, 50분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li> <li>○ 학습자료&lt;3&gt;</li> </ul>
정리 및 평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성평가</li> <li>○ 차시예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성 평가를 실시한다.</li> <li>○ 북한 주민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별로 형성 평가를 실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료&lt;4&gt;</li> </ul>

## (4) 학습자료

## &lt;1&gt; 동영상 자료

제 목 : 북한의 소비 생활
출 진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 CD자료, '대립에서 화합으로', (2000)
내 용 : 북한 사회의 이해 중 경제단원의 소비생활

## &lt;2&gt; 전문가 용지

학년 반	모듬명	성명
① 북한 경제 체제의 특징		
<p>북한의 경우, 경제에 관한 조항들은 사회주의헌법 제2장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9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34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북한 경제체제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p> <p>소유권과 관련해서는 제20~22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 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 “국가 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협동단체 소유는 협동경영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의 소유에 관해서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로 제한하고 있다.</p> <p>정권 수립 이래 북한 경제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북한은 모든 경제 체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면서, 소위 ‘자력갱생원칙’을 표방하는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경제 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의 심화와 에너지 사정의 악화로 야기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대외경제협력을 모색하는 등 정책 방향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p> <p>50년 간에 걸친 1인 독재 통치를 해 온 김일성의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체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방식의 경직성, 비효율성 등 체제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다소 개방적인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악순환만을 거듭하고 있다. 사실상 북한은 해방 직후 소련으로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스탈린식 경제체제를 이식 받은 결과 정권수립 초창기부터 모든 물자의 생산·교환·분배 과정이 중앙당국에 의해 철저히 통제·결정되는 체제를 유지해 왔다.</p> <p>이는 자유시장경제체제와는 그 양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① 전체주의적 정치 권력 및 정보와 교육의 국가 독점, ②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화, ③ 중앙계획경제제도를 제도적 특성으로 하고 있다.</p> <p>전형적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체제는 대내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소 그 성격을 달리해 왔으나, 당과 행정부로 구성되는 중앙통제기구에 의한 경제운영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p>		

즉,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개혁·개방 움직임에 따라 북한의 후진국이자 동맹국인 구소련과 중국도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구하였으나, 정작 북한만은 이러한 시대적 조류와 요청을 외면한 채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력갱생원칙을 통해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지향하는 폐쇄적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국가주석의 직접적 명령을 받는 중앙인민위원회가 각 시·도 인민위원회와 지방기업소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 또한 당중위원회가 실질적인 최고 경제운영기관인 내각에 당적 지도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당우위정책의 단편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경제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 북한의 경제체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북한경제의 내부지향적 폐쇄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무시하고 자급자족만을 확대하여 자립경제를 구축하자는 논리로서,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통용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고도의 중앙집권적 관리체계를 통해 자원 배분을 계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북한은 사적 소유를 철저히 배격하면서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각종 노력동원체계를 지니고 있다.

< 소치형 외, 북한의 이해, 1999, pp.226~228 >

<탐구 과제>

1. 북한 경제체제의 기본 원칙은 무엇으로 규정되어 있나?
2. 남한 경제 원칙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3. 북한 경제의 기본 구조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기본 노선인 자립적 민족경제의 개념은 무엇이고, 그것이 지닌 본질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학년 반		모듬명		성명	
<p>② 북한은 외화 천국?</p> <p>얼마 전 북한을 다녀온 중국 조선족 약재상은 “지금 북한에선 중국 화폐가 북한 돈처럼 쓰이고 있다” 고 전했다. 국경지대는 물론, 청진 일대의 장마당에서도 중국 위안화가 거침 없이 통용되고 있고 북한 당국도 이를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p> <p>이러다 보니 평양을 비롯한 주요도시의 외화상점이나 국경지대의 암달러상들에게는 미국 달러와 일본 엔에 이어 중국 위안화가 인기품목이 되었다. 국경지대에서는 달러나 엔을 제치고 위안화가 훨씬 많이 통용되고 있다고 한다.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서방세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심받을 위험도 있지만 중국 돈은 그럴 염려가 없어 특히 장사꾼들에게 인기가.</p> <p>위안화의 시세도 상승세다. 90년 초에 1위안에 북한 돈 10원이던 것이 지금은 25원까지 올랐다. 중국 돈이 이처럼 인기인 것은 장마당이 중국상품들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97년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내에서 달러나 위안화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듬해쯤부터 진국의 외화상점이나 식당서도 중국 돈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북한에서는 원래 외화를 바로 사용할 수 없고 ‘외화와 바꾼 돈표’ 로 바꾸어 사용해야 했다. 서방권의 화폐는 푸른색 ‘외화와바꾼돈표’ 로, 중국 등 사회주의권 화폐는 붉은색 ‘바꾼돈표’ 로 바꾸어야 했다. ‘붉은색’ 바꾼돈표로는 고작 음식이나 사먹을 수 있을 정도였고, 제대로 된 물건은 ‘푸른색’ 이어야 살 수 있었다. 북한당국이 외화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도입했던 이같은 제도는 이제 유명무실해졌다. 달러든 엔이든 위안이든 북한에서는 이제 제집 안마당처럼 자유롭게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p> <p>참으로 역설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주체 경제를 내세우며 지독히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이 외화 사용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아마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외화가 자국 화폐처럼 통용되는 나라가 북한 말고 또 있을까.</p> <p>북한 내의 외화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가 인민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것이 시장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것은 북한 체제의 자기 모순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http://nk.chosun.com/news)</p> <p>&lt; 탐구 과제 &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북한 화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li> <li>2. 북한에서 인기있는 외국 화폐는 무엇인가?</li> <li>3. 북한에서 중국돈이 인기가 있고 그 시세가 상승하는 이유 두가지는?</li> <li>4. 북한 내에서 외화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봅자</li> </ol>					

학년 반	모듬명	성명
<p>③ 남북한 경제 비교</p> <p>2000년중 북한의 경제규모는 18조 9,779억원으로 남한의 약 1/27 수준이며,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85.6만원으로 남한의 약 1/13 수준이다. (남한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로 환산한 2000년중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757달러로 추정)</p> <p>2000년중 북한의 경제성장률(실질GDP 기준)은 1.3%로 전년에 이어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었으나 성장폭은 크게 축소되었다. 북한은 2000년중 기간산업의 정상화, 주민소비품 생산증대, 농업부문에 대한 역량집중 및 경제적 실리추구 등을 경제부문의 중심시책으로 설정하여 경제회생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부분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비중이 큰 농업은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곡물수확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었다.</p> <p>2000년중 북한의 대외무역규모는 19억 7천만달러로 남한의 약 1/169 수준이다. 2000년중 북한의 수출 및 수입이 각각 7.7% 및 46.9% 증가하여 대외무역규모는 전년에 비해 33.1%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규모의 남북한간 격차는 전년보다 축소되었으며, 발전설비, 트럭, 굴착기 등 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큰 폭 증가하였다.</p> <p>한편 2000년중 남북교역규모는 4억2천5백만달러로 전년보다 27.5% 증가하였는데 남한의 대북한 반출은 거래성 교역이 38.7% 증가하고 비료 등 지원물자와 경수로 사업물자 등 비거래성 교역도 24.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8.8% 증가하였다. 반입은 농림수산물 등의 상업적 거래와 섬유류,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의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25.3% 증가하였다.</p> <p>※ 주요 반출품목 :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기계류·운반기계, 전기 및 전자 順입          주요 반입품목 : 농림수산물,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 順입</p> <p>2000년중 북한의 산업구조를 보면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의 비중은 높아진 반면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낮아졌으며 서비스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림어업은 재배업의 작황 부진으로 제조업은 중화학공업의 생산 저조로 전년보다 낮은 30.4% 및 17.7%를 각각 기록하고 있으며,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의 비중은 심각한 에너지난 해소 및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서비스업은 정부서비스업의 비중이 전년보다 0.2% 포인트 하락한 반면 기타서비스업의 비중이 전년보다 0.2% 포인트 상승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p> <p>(한국은행, 2000 북한 GDP 추정 결과, 2001. 5. 28)</p> <p>&lt;탐구 과제&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남북한 경제력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표로 만들어 봅시다.</li> <li>2. 우리나라의 1000원은 북한에서 얼마이며, 이 돈으로 북한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li> <li>3.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 봅시다.</li> </ol>		



학년 반	모듬명		성명	
<p style="text-align: center;">④ 농민시장(장마당)</p> <p>북한의 농민시장은 북한사회에 남아있는 시장경제적 요소로서 농민들이 협동농장에서의 작업외에 터밭등 집에서 부업으로 생산한 농산물과 축산물을 매매하는 시장이며, 북한당국의 배급중단 상황에서 주민들이 식량과 생필품을 구해 생명을 유지해가는 유일한 창구이기도하다.</p> <p>농민시장은 1958년 8월 내각결정 140호에 따라 이전의 농촌시장이 폐지되고 창설된 것인데, 70년대까지만 해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나 80년대 들어 허용되지 않은 암거래가 생겨나면서 활성화되었고, 80년대 말부터 암거래가 확산되면서 거대한 암시장으로 변모되고 있다.</p> <p>농민시장은 보통 협동농장이 쉬는 날을 골라 10일에 한번씩 시와 군 단위 2-3곳의 지정된 장소에서 열리다가, 1993년 3월 보리고개 절정기를 전후하여 10일장이 매일장으로 전환되고 엄격히 단속하던 쌀의 판매도 허용하기 시작했다. 농민시장에서 물품거래 가격은 국정가격이 아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되며 시장관리는 '농민시장 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물건량에 따라 하루에 북한 돈으로 2원-15원의 장세를 거두어 들인다.</p> <p>농민시장에서는 온갖 종류의 물건들이 암거래되어 "김정일 사지만 빼고 다 있다"는 말이 유포될 정도인데, 이 물건들 대부분은 당간부들이 주민 대상 배급품이나 국영상점에서 팔아야 할 물건을 빼돌려 몇 배나 되는 암가격으로 파는 것이므로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p> <p>한편,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시장경제 요소인 농민시장을 허용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당국은 "완전 공급제가 실시되는 공산주의 사회 건설 이전에 존재하는 과도기적 현상"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p> <p>2000년 12월 22일 통일부의 &lt;2000년도 북한의 농민시장 물가동향&gt;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농민시장의 가격지수는 98년 기준으로 99년 125.8배에서 2000년 9월 현재 110.6으로 99년보다 12.1%가 떨어졌다. 2000년도 농민시장의 곡물류 가격 (1kg 기준)을 보면 쌀이 47원 (이하 북한 원), 강냉이알 27원, 밀가루 43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27%, 18%, 4% 하락했다. 또 곡물류 가격지수는 99년 77.6에서 2000년 60.5로 떨어져 98년 이후의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p> <p>농민시장의 물가를 지역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 지역평균을 100으로 볼 경우 접경지역은 97.2, 함흥 98.7, 평양 104.2 순으로 조사됐다. 또 지역별 가격편차는 작년 55.9에서 51.7로 다소 감소해 상품의 지역간 이동이 지난해보다 활발히 이뤄졌음을 보여줬고, 지역별 가격편차가 큰 상품은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채소, 과일류, 생필품류로 나타났다.</p> <p>정부 당국자는 '현재 농민시장의 가격은 상품의 수급상황에 결정되고 국정 가격보다 최소 수십배 이상 비싼 실정'이라며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농민시장에서 가격 흥정, 이윤추구의 시장경제적 마인드를 형성해 공식부문으로부터 생산요소의 유출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right;">(<a href="http://www.koreascope.org/sub/2/nk3_7.htm">http://www.koreascope.org/sub/2/nk3_7.htm</a>)</p> <p>&lt; 탐구 과제 &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북한에서 농민시장(장마당)이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li> <li>2. 북한의 일반 상점이나 백화점과 장마당이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li> <li>3. 북한의 시장과 우리의 시장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li> </ol>				

<3> 모집단 보고서

주제 : 북한 주민의 경제생활	
일시 :    년    월    일	모듬명 :                    모듬구성원 :
<p>● 다음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적어 제출하시오</p> <p>1. 북한 경제 체제의 특징을 정리하시오</p> <p>2. 북한 화폐의 종류와 외화 사용 실태에 대해 서술하시오</p> <p>3. 남북한 경제 수준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p> <p>4.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과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의 다른점을 약술하시오</p>	
평가자 : 교과담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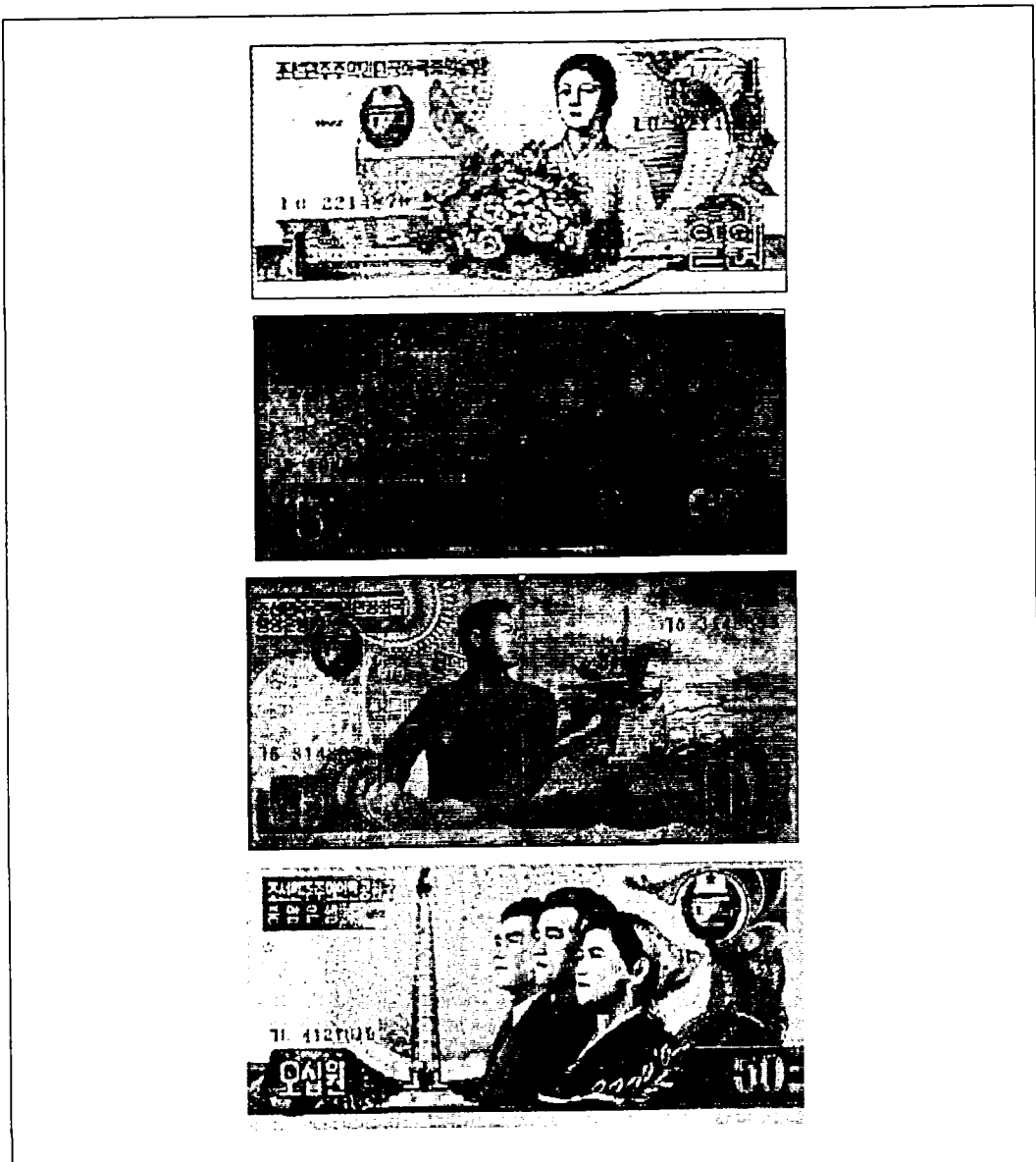
<4> 형성평가

<p>북한 주민의 경제 생활 형성 평가</p> <p>(   )학년 (   )반 (   )번, 성명 (   )</p>
<p>※ 다음 설명을 읽고 북한 주민들의 경제 현실과 부합하면 ○표, 부합되지 않으면 ×표 하시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북한에서의 생산 수단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국가와 협동 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다. (   )</li><li>2. 북한의 식량난은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 재해가 계속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   )</li><li>3. 북한 돈 1원짜리 화폐에 그려진 여자는 '꽃파는 처녀'의 주인공인 인민배우 홍영희이다. (   )</li><li>4. 평양의 백화점은 소비자들의 수요에 따라 상품을 공급하는 곳이다. (   )</li><li>5.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 군단위로 농민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li><li>6. 현재 남북한은 1인당 총소득에서 약 1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li><li>7. 북한에서 통용되고 있는 '외화와 바꾼돈표'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다. (   )</li></ol>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5) 참고자료

<1> 북한의 화폐





## 〈2〉 북한의 은행

북한의 은행은 발권은행인 '조선중앙은행'과 조선중앙은행의 통제하에 국제금융거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조선무역은행'을 비롯한 10여개의 대외거래 결제은행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 은행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예금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을 상대로 한 예금업무는 각지에 설치한 체신소내의 저금소에서 맡고 있으며 주민들이 예금을 기피해 그나마 형식에 그치고 있다.

해방후 정권기구로 등장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8월 '주요산업국유화법령'을 공포하고 이에 의거해 각지에 산재한 58개소의 은행지점을 무상몰수, 국유화하면서 이를 기초로 그해 10월 '북조선중앙은행'을 창립했다. 북조선중앙은행은 1948년 9월 북한정부 수립과 함께 조선중앙은행으로 정식 출범하였다.

조선중앙은행은 내각에 소속되어 있는 중앙정부기관이며 북한의 유일한 발권은행이자 통화조절 및 전반적인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중추기관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발권과 현금유통 조절, 무현금 결제, 국가자금 조절, 국가수입금의 수납, 고정재산 등록 및 국가보험 대부, 원화에 의한 통제, 귀금속의 관리 등이 있다. 이밖에 필요에 따라 복권이나 기념주화를 발행하기도 하는데 1991년 11월 액면가 50원의 '인민복권'을 발행한 바 있으며 1987년 4월 김일성 75회 생일 이후 주요기념 행사때마다 기념주화도 발행하고 있다. 조선중앙은행은 평양에 본점을 두고 각 도(직할시)·시(구역)·군에 200여개의 총지점과 지점을 두고 있다.

북한의 대외거래 결제은행으로 대표적인 은행은 조선무역은행이 있다. 조선무역은행은 1959년 11월에 창립되었으며 1963년 7월부터 대외경제거래가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서방권 은행들과도 대외거래를 시작하였다. 조선무역은행은 평양의 본점외에 각 도(직할시)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 호주, 쿠웨이트, 마카오, 홍콩, 북경 등에 해외지점과 사무소도 갖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외국환은행으로서의 외화관리와 거래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환율의 결정, 원태환권인 '외화와 바꾼돈표'의 발행, 외국은행과의 협정체결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대외거래 결제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실이 운영하는 「조선대성은행」, 북한의 낙원무역상사와 재일동포가 운영하는 파레스사가 합작설립한 「조선낙원금융회사」, 비사회주의 국가와의 거래를 주로 담당하는 「금강은행」 등이 설립되어 지난 197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대외투자유치와 귀금속 판매를 취급하는 「조선신용은행」, 조총련의 합영사업추진위원회와 북한의 조선국제합영총회사가 공동출자한 「조선합영은행」, 유럽과 아시아를 대상으로 국제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선창광신용은행」, 재미교포 자본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고려상업은행」 등이 설립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노동당 산하 오산덕총국과 홍콩의 루비홀딩사(紅寶石有限公司)가 합작설립한 「조선통일발전은행」, 홍콩의 대금융회사인 페레그린사와 「조선대성은행」이 공동출자한 합영은행인 「페레그린-대성개발은행」이 잇달아 생겨났다. 또한 네덜란드의 금융보험그룹인 ING와 조선국제보험회사가 합작투자한 「ING동북아시아은행」, 국가무역은행 나진지점으로 출발해 1995년 2월 이름을 바꿔 나진-선봉지역 유일의 외국환은행으로 자리잡은 「황금의 삼각지은행」 등도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통일교육원, 통일문답, 2000, pp. 88~89)

### <3> '北, 식량난으로 장마당 증가'

식량난으로 북한에서 식량을 팔고 살 수 있는 사설시장인 '농민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입수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보고서 6월호는 '사설시장(private market)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이 시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식량가격이 비싸 식량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주민들이 곡물을 사기 위해 오리나 닭과 같은 가축들을 내다 팔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사설시장 증가지역을 밝히지는 않았다. 보고서가 밝힌 사설시장은 북한에서 '농민시장' 혹은 '장마당'으로 불리며 농민들이 협동농장이 아닌 텃밭 등에서 부업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매매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 9일 최근 탈북자 증언을 인용, '평양의 농민시장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가 심해 쌀, 옥수수 등 농산물이나 개인이 직접 만든 생활필수품 등이 주로 거래되고 있다' 며 평양시내에 12개의 농민시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북한의 농민시장이 ▲군 단위 별로 1~2개 ▲시 단위별로 3~5개 등으로 북한 전역에 300~350개가 상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이 달 10일부터 남한에서 차관형식으로 지원한 식량의 나머지 부분이 주민들에게 하루 150g씩 배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가을 추수기까지 식량 배급체제를 유지해주는 보리, 밀, 감자와 같은 이모작 작물들의 수확량이 가뭄으로 인해 북한 당국이 예상했던 40만t보다 적은 17만t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지역 대부분에서 파종이 끝난 옥수수의 경우 가뭄 피해로 다시 심어야 할 상황이어서 가을 추수기에 곡물수확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벼의 경우는 관개시설로 가뭄의 영향을 덜 받아 지난 6월말까지 90%의 논에서 모내기를 끝냈으나 관개시설이 미비한 북서부지역의 경우 30%의 논에서 모내기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식량농업기구(FAO)와 WFP의 공동 식량공급평가단이 지난 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이모작 작물의 작황을 조사하고 2000~2001년 식량수급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며 이에 관한 보고서는 이 달 말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1. 7. 10)

#### <4> 북한의 백화점 풍경

북한의 백화점은 각도에 한 개 이상씩 있다. 일반상점들은 군(도시는 구역)인민위원회 산하의 상업관리소가 상품 공급과 관리를 지도하는 반면, 도시의 백화점들은 시인민위원회의 상업관리국이 직접 지도관리를 담당한다. 수입품을 취급하는 백화점들은 노동당이나, 특수기관이 직접 지도 관리한다.



원래 백화점은 공급제를 기본으로 하지 않는다. 특정 행정구역에 소속돼 그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백화점에서도 가능한 한 상품권을 발급하여 공급하려고 한다. 이때도 구역마다 있는 상점과는 달리 기관이나 구역행정위 등을 대상으로 하여 상품권을 발급해 준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공업상품 구매권 수첩들이 있는데, 상품권을 받으면 구매권과 돈을 함께 가지고 가서 해당 상품을 구입하게 된다.

그리고 북한상점들에 가보면 진열된 상품들은 비교적 많은데 이는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외국손님들이 불쑥 나타날 때를 대비한 것이다. 외국손님이 달라면 주겠지만 주민들에게는 파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인이 상점에서 상품을 살 때 외국사람 옆에서 함께 상품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면 판매원은 그 사람 것까지 함께 주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인민반 회의에서 개인이기주의를 버리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백화점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완구매장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진열 상품을 사 달라고 울며 불며 떼를 쓰는 것을 볼 때이다. 어른들이야 그런 대로 참고 살면 되겠지만 아이들이야 어디 그런가. 일단 마음에 드는 것을 보면 가지지 않고서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것은 북한 아이들이라고 다르지 않다.

아이 어머니는 판매원에게 사정을 해보지만 판매원은 냉담하기만 하다. 그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아이들이 한 둘이어야 말인가. 매일 수 백번 씩 겪는 일이니 판매원의 심장도 굳세졌을 것이다. 사정하다 말고 우는 아이를 쥐어박으며 백화점에서 끌고 나오는 어머니의 입에서 “왜 팔지도 않을 상품을 진열하느냐”는 원망이 터져 나온다.

어머니는 아이의 작은 요구 마저 들어주지 못하는 자신이 민망스러웠는지, 아니면 아이를 때린 것이 가슴 아픈지 두 눈에 이슬이 맺힌다. 어린이들을 더는 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은 특단의 경제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게 바로 개혁이고 개방이 아닐까.

(조선일보, 2001. 4. 9)

### <5> 임금

북한의 계획경제적 분배관리체계는 크게 소득에 대한 분배·관리의 정책적 방향, 노동자·사무원의 소득 분배, 협동농장 농장원의 소득분배로 구분되어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소득에 대한 분배·관리의 정책적 방향을 보면, 북한은 사회의 국가관리, 과학, 교육, 보건 등 공동적인 소비와 예비기의 조성에 돌려지는 몫, 그리고 직접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몫 등으로 소득을 구분하여 계획적으로 분배한다. 생산수단은 기자재 공급계획에 따라, 노동임금은 노동보수계획에 따라 분배된다. 노동보수계획은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지불할 노동보수의 규모와 수준을 규정하는 노동계획 기본 항목의 하나다. 주로 노동자, 사무원의 생활수준, 상품유통규모, 소비와 축적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다.

노동자·사무원의 소득 분배 차원에서 이들은 생활비를 기초로 한 노동보수 분배방식에 따라 노동임금을 분배받는다. 1993년 말 현재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00원에서 110원 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임금수준을 보면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같은 근로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지급한다. 지급방식에는 노동자, 사무원 구분없이 도급지불제와 정책지불제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임금은 직종 및 기술급수에 따라 격차가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임금기능등급제를 적용 받는다.

협동농장 농장원의 소득분배 차원에서 협동농장원들은 통상 추수와 탈곡이 끝나는 매년 11월 이후 협동농장별로 결산분배를 받게 된다. 협동농장의 현물 및 현금 총수입 중에서 국가납부와 생산적 지출(생산비)을 먼저 공제한 다음, 협동농장 자체의 공동축적 기금과 각자 일년간의 작업에 참여한 노력일에 따라 분배받게 된다.

농장원에 대한 분배량 결정 방법도 3가지가 있다. 기본적인 분배, 작업반 우대제 실시하에서의 분배, 분조도급제 적용시의 분배 등이 그것이다. 개인 몫의 분배량 결정은 생산계획 목표의 90%이상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기본 분배에서 5~15% 삭감하도록 되어 있다.

(조동호, “북한의 노동정책과 실태”, 현대경제사회연구원편,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1997, pp.145-146, 162 참조)

## 마.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 (1) 학습목표

(가) 남북한 주민의 하루 생활 모습을 통해 우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나) 북한 사회의 질서와 인간의 보편적 인권의 실태를 설명할 수 있다.

### (2) 교수-학습 모형 : 직소우 수업모형(153-159쪽 참조)

### (3) 교수-학습 과정안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과제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 집 단 활동</li> <li>○ 전 문 가 과제 분 담 및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을 4명을 한 단위로 한 모집단을 구성한다.</li> <li>○ 탐구할 과제를 적은 전문가 용지를 나누어주고 모집단별로 전문가를 정하도록 한다.</li> <li>○ 과제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주민의 하루 직장 일과</li> <li>-북한 주민생활의 변화모습</li> <li>-평양의 교통 수단</li> <li>-남북한 사회 생활 비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집단별로 집단명을 정하고 조장을 뽑는다.</li> <li>○ 전문가를 정한다.</li> <li>○ 과제 수행</li> </ul>	학습자료<1>
도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학습</li> <li>○ 학습동기</li> <li>○ 학습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 모습을 말하여 보자.</li> <li>○ 평양 시내의 모습을 담은 VTR 자료를 보여준다.</li> <li>○ 학습 목표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변한다.</li> <li>○ VTR 자료를 시청하고, 느낌을 발표한다.</li> <li>○ 경청한다</li> </ul>	○ 학습자료<2>
진개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문 가 활동</li> <li>○ 모 집 단 활동</li> <li>○ 보 고 서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들끼리 모여 탐구과제를 수행한다.</li> <li>○ 전문가 탐구 과제를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사회 생활 모습에 대해 토론하고, 소집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로 해 온 전문가 용지를 가지고 전문가끼리 모여 토론한다.</li> <li>○ 전문가들은 원래 모집단으로 복귀하여 조원들에게 탐구 내용을 설명해주고, 모집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li> </ul>	○ 학습자료<3>
정리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구내용 발표</li> <li>○ 형성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집단 별로 탐구 내용을 발표시킨다.</li> <li>○ 형성 평가를 실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별로 발표한다.</li> <li>○ 형성 평가 문항을 푼다.</li> </ul>	○ 학습자료<4>

(4) 학습 자료

<1> 전문가 용지

학년 반		모듬명		성명	
<p>◎ 북한 주민의 하루 직장 일과 ◎</p> <p>1. 북한 주민이 직장에서 하루 일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p> <p>2. 북한의 여성 노동자들이 하루 일과에서 남한과 다른 점은?</p> <p>3. 북한주민들에게 직장이 필수적인 이유는?</p> <p>4. '외화벌이 사업'이란 무엇인가?</p> <p>5.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자</p>					

학년 반		모듬명		성명	
<p>◎ 평양의 교통 수단 ◎</p> <p>※ 평양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 수단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하철</li> <li>2. 무궤도 전차</li> <li>3. 택시</li> <li>4. 여객선</li> <li>5. 기차</li> <li>6. 평양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지옥의 원인은 무엇인가?</li> </ol>					

학년 반		모듬명		성명	
<p>◎ 북한 주민 생활의 변화◎</p> <p>경제재건을 위한 ‘총진격’ 속에서 북한의 사회 분위기도 다소 밝아지고 있다. 평양 방문객들은 북한이 97년 겨울의 위기를 넘긴 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진한다. 외모에의 관심, 스포츠 열기, 오락에 대한 장려, 일터 분위기 쇄신 등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p> <p>평양과 신의주, 원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화장, 패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 간부나 외국 경험이 있는 외교관 부인, 외국인과 접촉이 잦은 합영회사 직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게 한 여성 탈북자의 말이다.</p> <p>한때 가요 ‘휘파람’으로 서울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보천보경음악단, 여가수 전혜영이나 염청, 김광숙, 인민배우 오미란의 화려한 패션과 화장, 헤어스타일도 한몫하고 있다. ‘미안(美顏) 과 살갓간수’ 같은 잡지 기사가 피부미용에 관심있는 여성들에게 호응을 얻기도 한다. (중략)</p> <p>자본주의 냄새를 풍기는 스포츠로 여겨지던 농구붐이 일고 있는 것도 변화의 하나다. 김정일 총비서가 “청소년들의 성장 발육에 아주 좋은 운동”이라며 농구를 권장하면서 생긴 일이다. ‘천리마’는 농구스타 기사를 실어 청소년의 관심에 부응하고 있다. 지난해 8, 9 월호는 ‘우뢰’ 팀 이명훈, 박천중 선수를 히어로로 부각시켰다. 직장, 학교 어디에서나 농구경기 모습을 볼 수 있다.</p> <p>평양의 골프장과 볼링장을 찾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고 ‘공화국 프로권투 선수권대회’라는 프로권투 경기도 생겼다. 프로권투 막간에 한복차림의 라운드걸이 등장하기도 한다.</p> <p>건강태권도가 권장되고 대중운동체조(에어로빅)도 붐이다. ‘체육의 날’인 매달 두 번째 일요일은 기관, 기업소마다 크고 작은 스포츠행사를 갖는다.</p> <p>공장, 기업소 등 일터 꾸미기가 강조되는 것도 요즘 모습이다. 노동신문은 3월 30일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꽃피워 일터와 마을을 더욱 알뜰하게!”라는 제목 아래 특집을 내 보냈다. 3월 11일에는 동대원피복공장의 사례를 소개했는데 ‘공장 안은 궁전같이, 공장 밖은 공원같이’가 슬로건이었다.</p> <p>金총비서가 지난 1월 말 공장을 휴양소같이 꾸몄다는 양책베어링공장을 따라 배울 것을 지시한 뒤 공장마다 환경미화에 열성이다. ‘고난의 행군’을 끝낸 뒤 사회분위기를 바꾸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중앙일보. 2000. 5. 17)</p> <p>&lt;탐구과제&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북한 사회의 변화를 부분별로 정리하여 변화 전과 비교하여 보자.</li> <li>2. 북한 사회의 변화 방향과 그 원인에 대해 알아 보자.</li> </ol>					

학년 반	모듬명	성명		
◎ 남북한 주민의 사회 생활 비교 ◎				
※ 교재와 참고 자료를 통하여 남북한 주민의 사회 생활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조사해 보자.				
	영역	같은점	다른점	비고
	여행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			
	정보 통신 이용 실태			
	자동차 이용			
	종교 생활			
	의료 시설 이용			
	종합 의견			

<2> VTR자료

제 목 : 북한의 여성  
출 전 : KBS 북한 특별 기획 현장 보고  
내 용 : KBS가 기획, 구성하여 요녕 국제 TV에 현지 촬영을 의뢰한 작품으로 네명의 북한 여성(김초경:평양시 궤도 버스 운전사, 정명옥:평양제1백화점 지배인, 고영애:평양산원 의사, 한정화:협동농장 관리위원장)들을 통하여 북한 여성의 사회 활동과 사회적 역할을 알 수 있다.

<3> 모집단 보고서

주제 : 북한 주민의 사회생활	
일시 :    년    월    일	모듬명 :                    모듬구성원 :
<p>● 소집단 토의 결과를 적어 제출하십시오</p> <p>1. 북한 주민의 사회 생활의 특징을 정리하십시오</p> <p>2. 평양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 시설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자.</p> <p>3. 북한 노동자들의 하루 일과를 조사해 보시오.</p> <p>4. 남북한 사람들의 사회 생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점은 무엇인가?</p>	
평가자 : 교과담당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lt;4&gt; 형성평가

북한 주민의 사회 생활 형성 평가 (     )학년 (     )반 (     )번, 성 명 (     )
<p>※ 다음 설명을 읽고 북한 주민들의 사회 생활 현실과 부합하면 ○표, 부합되지 않으면 ×표 하시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북한에서는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사회주의 노동법에 명시하고 있다. (     )</li> <li>2.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작업 시간 중에 유아에 대한 수유시간을 배려하고 있다. (     )</li> <li>3. 북한에서의 휴일은 직종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다. (     )</li> <li>4. 도시 지역에서는 이동전화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눈에 띈다. (     )</li> <li>5. 평양의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와 지하철이다. (     )</li> <li>6. 평양 시민들은 출퇴근 신간에 교통지옥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 (     )</li> <li>7. 북한사회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여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의 인권이 잘 보장되어 있다. (     )</li> </ol>

(5) 참고 자료

<1> 북한 주민의 하루 일과표

구 분	노 동 자 사 무 원	학 생	비 고
출근(등교)완료	06:50-07:00	08:00-	주부 출근시 유아를 탁아소에 맡김 정기강연회(07:00-09:00)있는날(수·목) 생략
독보회	07:00-07:30		
작업준비	07:30-08:00		
오전작업(수업)	08:00-12:00	08:00-12:00	주부 유아 수유 30분
점 심	12:00-13:00	12:00-13:00	주부 유아 수유 30분
오 침	13:00-14:00		
오후작업(수업)	14:00-18:00	14:00-16:00	주부 유아 수분 30분, 인민학교 학생 오후 수업 1시간
작업총화	18:00-19:00	16:00-18:00	인민학교 학생 14:00-16:00 노력동원, 군사훈련 및 조직활동
학습회 및 강령	19:00-20:00		주부 18:00-19:00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1, p.241)

<2> 어떤 변화인가

북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바람의 눈' 은 경제다.

김정일 총비서는 지난 1월 25~28일 신의주를 방문했다. 평북 소재 공장, 기업소를 직접 지도하면서 각종 경제과업을 특별 지시하는 등 분주하게 산업현장을 독려했다. 아주 '상징적인' 방문이었다. 연이은 군부대 방문을 통해 군총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경제총사령관' 으로서의 연성이미지로 탈바꿈하려는 모습이 큰 변화로 잡힌다. 1998년 9월 헌법 개정에 따라 국방위원장에 재취임한 그는 '강성대국' '제2천리마운동' 의 깃발 아래 경제재건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자 노동신문(당기관지) 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맞이 사설을 실었다. 제목은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 경제재건에 매진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김주석 사후인 95년에 '김일성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97년에 '김일성의 진사답게 역세게 싸워나가자' 라고 한 것과

는 판이하다.

평양 당국이 올해 경제재건에 본격 착수한 것은 지난해 4억달러가 넘는 국제사회의 무상지원에 힘입어 10년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들은 ‘강성대국’ 구호가 60년대 한국 사회에 풍미한 ‘싸우면서 건설하자’와 흡사하며 ‘제2천리마운동’은 새마을운동과 닮았다고 지적한다.

북한 당국이 ‘자력갱생’ 화두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당.국가 지도부의 머리 속에 외자유치 및 수출 확대를 성공시키려는 ‘개발독재’ 청사진이 입력돼 있는 지도 모른다.

한국은행 북한경제팀 박석삼(朴石三) 연구위원은 대규모 기업집단인 연합기업소체제 해체, 과학기술 개발, 외국인투자관련 법규 개정, 수출활성화정책 등이 ‘김정일식 경제개혁’의 요체라고 설명한다.

북한은 ‘개혁·개방은 곧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라는 걱정에 사로잡혀 개혁, 개방을 한사코 피하면서도 ‘경제사업 개선’을 강조함으로써 변화의 숨통을 트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연합기업소를 해체,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효율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金총비서가 1월 신의주 방문 때 공장, 기업소 운영의 ‘개선’을 특별 지시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실용주의는 더 힘을 얻게 됐다. 경제사업에서 ‘실리’가 강조되고 간부들의 ‘실력’향상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도처에서 진행되는 등 실적주의의 새 바람이 불고 있다.

농업에선 농민에게 작물선택 권한을 부여하고 벼, 옥수수 농사에만 매달리던 관행에서 벗어나 감자농사, 이모작에 열성을 보인다.

강원도와 평안북도에서 대대적인 토지정리가 끝나고 황해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평양~남포 고속도로를 비롯한 인프라 건설현장의 열기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동해안의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가 난관을 거듭하자 서해안쪽으로 눈을 돌려 신의주, 남포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할 조짐이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쩍 강조되는가 하면 교육분야에서 해외교류 확대책이 모색되는 등 변화의 물결은 광범위하다. 金총비서의 관심 속에 인터넷, 컴퓨터 바람도 일

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남북간에는 금강산관광 확대, 서해안 남북 합작공단,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전자상거래 등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가시화하고 있다.

변화는 대외관계에서 더 쉽게 감지된다. 지난 1월 이탈리아와 전격적인 외교 수립에 합의한 평양은 베이징(정상회담 협의중), 워싱턴(고위급인사 방미) .도쿄(수교협상) 와의 관계에 외교력을 집중하는 한편, 아태지역 및 유럽연합(EU) 국가로 외교반경을 넓히고 있다. 북한 외교일꾼들이 “올해 안에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릴 것” 이라고 서슴없이 얘기하고 다닐 정도다.

남북대화. 대외개방의 길목에 서있는 북한은 지금 변화의 폭과 속도를 고민하며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김정일의 북한 지금 변화 중' 시리즈<1>, 2000. 4. 24.)

### <3> 북한 주민의 생활 실태

- ① 여행 : 원칙적으로 통제되고 결혼, 의화별이 등 사정에 의한 타지방 이동은 반드시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가능하다.
- ② 의료 : 무상의료제를 실시한다고 하나 실제로 병원, 의료시설, 의약품이 부족하여 진료받기가 어려워 민간치료요법에 의존하며 콜레라, 장티푸스 등 후진국형 전염병이 자주 돈다.
- ③ 자동차 : 98년 기준 29만여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소속차량만 존재하며 그나마 연료부족으로 운행이 제한되어 있다.
- ④ 전화 : 현재 100만회선 정도로 추정되며 그중 80%가 아날로그 방식이고 20%가 디지털 방식인데 당, 정 고위간부를 제외한 일반주민이 전화를 소유하는 경우는 드물다.

(<http://www.koreascope.org/sub/2/ks2.htm>)

#### <4> 북한 주민의 직장 배치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직장에 소속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기본적으로 재산 및 사회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아 직장에 소속을 두지 않으면 생필품을 배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연로보장을 받은 노인이나 전업주부, 기타 질병을 앓는 환자 등 당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서도 학교·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15일 이상 쉬는 사람이 있으면 인민반장을 통해 우리의 파출소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 분주소나 공장·기업소 등에서 분주소 기능을 하는 주재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의 선택은 개인이 소득을 높이고 사회적 성취를 목표로 스스로 판단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 일반 주민들의 직업 선택은 일차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에 의한 사회부분별 노동력배치에 의해 규정된다. 노동력 배치는 이미 계획차원에서 작성된 ‘노동자원 균형표’ 및 공장·기업소별 ‘로력대장’, ‘공정별 표준 로력조직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16세 이하의 남자와 55세 이하의 여자는 원칙적으로 조선노동당이 배치하는 직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16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11년제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학교에 재학해야 하며 55세 이상의 여자와 60세 이상의 남자는 직장에서 물러나 연로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경우 전업주부에 해당하는 가두여성이 될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지 않고 직장에 배치 받는다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법률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차원의 수급계획에 따라 출신성분과 당성이라는 정치적인 기준에 따라 필요한 곳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는 형태로 인력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밖에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개인의 학력과 자격, 실무능력, 활동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직장을 배치하게 된다. 물론 직장배치 과정에서 개인의 희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이 원하는 직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보다 국가와 집단의 필요를 우선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배치하는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이다.

직장배치를 할 때에는 간부사업의 대상자와 노동자를 구분한다. 간부사업의 대상자는 도·시·군 당 간부부에서 관장하며 노동자는 해당 지역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배치한다. 직장배치 대상자는 11년제 의무교육을 마친 고등중학교 졸업생과 대학졸업생, 제대군인 등 3개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집단별로 직장을 배치받는 과정을 요약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등중학교 졸업예정자 중에서 대학이나 군대에 가지 않을 사람들은 거주지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받은 이력서, 신원진술서, 취직희망서,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한다. 학교는 각 개인에 대한 평정서를 작성해 청년동맹이동증과 군사이동증, 식량정지증명서 등 다른 서류와 함께 졸업 3개월 전에 시·군인민위원회 노동과에 제출한다. 한편 노동과에서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에 따라 졸업생들을 직장에 배치한다. 간혹 이 과정에서 탄광이나 염전, 철도 및 도로 건설장 등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특정 지역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이 집단배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북한당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간부사업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지방대학 졸업생의 경우 지방당 간부부와 지방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배치를 담당하지만 소위 중앙에 속한 대학 졸업생은 내각 사무국 대학생배치과에서 직접 관할한다. 이들의 졸업을 앞두고 내각 사무국 대학생배치과에서는 대학당위원회에 지도원을 보내 졸업생 각 개인을 만나 그 사람의 출신성분과 사상, 학업성적, 재학 중의 정치활동 참가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직장을 배치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대학 졸업생의 경우 대부분 개별면담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개인의 출신성분과 학업성적, 사상, 재학 중의 정치활동 등을 고려하여 각 도별로 직장배치를 받는다. 졸업생 개인은 자신이 정확하게 어느 직장에 배치되는지 해당 도에 가서 알게 된다고 한다. 한편 전문학교 졸업예정자는 각 도와 직할시의 노동처에서 직장배치를 받게 된다.

제대군인의 경우 사병과 군관의 직장배치가 다르다. 사병의 경우 출신지역 시·군인

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직장배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병으로 제대한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 소속부대의 추천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거나 당 지도원이나 사무원이 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특정 공장이나 탄광 등지로 '집단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대위 이상의 군관으로 제대하는 사람들은 간부사업의 대상으로서 출신지역 시·군 당 간부과에서 직장을 배치하는데 주로 출신지역의 공장이나 기업소의 지도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직장을 배치 받고 난 뒤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특히 직장이동이 결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옮겨가는 과정은 복잡하고 힘든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북한에서는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로 부르는 사무원 등을 통칭하여 근로자라 부르는데 이들이 모두 예외 없이 '로동수첩'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로동수첩이란 근로자 개인의 직장경력을 연대기 형식으로 기록한 법적 문건으로서 노동경력, 기술자격, 표창여부, 휴가관계 등을 적어 놓아 한사람의 과거 행적을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1. pp. 234-237)

#### <5> 북한의 대중교통수단

북한의 대중교통 중에서 평양의 지하철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교통수단이다. 평양의 지하철은 1968년 착공하여 1973년 9월 운행을 시작했다. 1974년 8월 15일 개통했던 서울의 지하철보다 1년 가량 빨리 운행을 시작했으며 이 점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자부심을 느껴 왔다.

평양의 지하철은 남북노선 14km와 동서노선 20km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노선과 동서노선이 서로 교차하는데 환승역은 전구역과 전승역이다. 남북노선에는 부흥역과 영광역 등을 비롯한 8개역이 있고 동서노선에는 광복역과 건국역, 황금별역 등 9개역이 있다. 지하철 운행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오전 05:30-오후 10:30이며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에 5분이고 다른 시간에는 15-30분 정도인데 최근에는

전력난으로 배차 간격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 지하철 승차 요금은 거리에 관계없이 1회 편도 이용에 10전이며 표를 파는 것이 아니라 10전짜리 동전을 투입하면 된다.

최근에는 평양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땅 속 깊숙이 내려가서 지하철에 승차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놀라는 사람도 많은데 실제로 평양의 지하철은 그 깊이가 지하 150미터 정도에 이른다. 서울의 지하철이 보통 10-30미터 땅 속에 건설되는 것에 비해 상당히 깊고 지하철 내부를 샹들리에와 대리석으로 꾸며 놓고 벽면도 그림과 조각으로 장식하여 대단히 화려한 인상을 준다. 그 중에서도 남북노선의 부흥역과 영광역은 외부인들의 관광코스로 자주 이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평양을 제외한 곳에는 지하철이 없다.

북한에 택시가 등장했던 것은 1987년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 1989년 7월의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대비하여 외국인과 해외동포들이 이용할 운송수단을 준비한 것이었다. 택시는 평양에 600-700대 정도가 있는데 주로 일제 도요다·닛산·크라운, 스웨덴제 볼보, 독일제 벤츠 등을 사용하며 차량번호는 “평양 50-xxx”로 표시한다.

북한의 택시는 외국인 전용택시와 일반주민용 택시로 구분된다. 일반주민용 택시는 1992년 북한 당국이 일본 조총련 회사와 합작 형태로 설립한 「광동합작회사」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외국인 전용택시와 일반주민용 택시는 번호판 색상으로 구분한다. 평양을 제외한 신의주·원산·청진 등 대도시 지역에서도 1993년부터 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비싼 요금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한다.

그밖에 자기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방에 갈 때에는 주로 기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배차 간격을 잘 지키지 않아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아니라고 한다. 최근 북한 당국에서 유류가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목탄차 이용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다. 목탄차란 자동차 연료로 유류 대신에 목탄을 사용하는 차를 말한다. 화물차 적재함 앞부분에 보일러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동력을 얻는 것이다. 주로 숯이나 팥감을 연료로 이용하지만 옥수수속대나 석탄·톱밥·벗짚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걷는 것이다.

(김석향, “북한의 대중교통”,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 CD자료, 2000)

## 바. 문화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 (1) 학습 목표

(가) 북한 주민들의 문화 활동의 특색을 이해한다.

(나) 남북한 문화 활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 (2) 교수-학습 모형 : 시청각 매체 활용 모형(45-48쪽 참조)

### (3) 교수-학습 과정안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 시 학습 상기</li> <li>○ 학습 동기</li> <li>○ 학습 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주민 사회생활의 같은점과 다른점을 발표해 보자.</li> <li>○ 북한에서 유행하는 대중가요(휘파람)를 들려준다.</li> <li>○ 학습목표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변한다</li> <li>○ 노래를 듣고 난 느낌을 발표한다.</li> <li>○ 학습목표 경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대중가요 ‘휘파람’을 녹음기를 통해 들려준다</li> </ul>
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디오 시청</li> <li>○ 탐구활동</li> <li>○ 탐 구 내 용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TR을 보여준다 -영상기행 평양 2000</li> <li>○ 학습지를 배부한다</li> <li>○ 학습지 내용을 질문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디오를 시청한다</li> <li>○ 학생들은 비디오를 보면서 학습지를 작성하도록 한다.</li> <li>○ 학습지 내용을 발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료&lt;1&gt;</li> <li>○ 학습자료&lt;2&gt;</li> <li>○ 모듬별로 토론을 거쳐 학습지를 작성할 수도 있다.</li> </ul>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li> <li>○ 차시 예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문화의 특성은?</li> <li>○ 남북한 문화의 공통점은?</li> <li>○ 다음시간은 북한의 교육과정 에 대해서 학습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변한다.</li> <li>○ 답변한다</li> </ul>	

(4) 학습자료

<1> VTR자료

제목 : 영상기행 평양 2000  
출전 : SBS-TV. 2000년 6월 8일 방영  
분량 : 20분  
내용 : 평양 대동강변과 만수대 유원지에서 여가를 즐기는 주민들의 모습과 설날 및 김일성 생일에 볼 수 있는 북한 주민 모습이 담겨있다.

<2> 학습지

<b>통일교육 학습지</b>	
제 ( )학년 ( )성명 ( )	
◆ 비디오 자료 '영상기행 평양 2000'을 보면서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1. 북한의 설날에 주민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2. 북한 사람들이 설날에 입는 옷은 우리와 무엇이 같습니까?	
3. 휴일을 보내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을 말해 봅시다.	
4. 북한 최대의 명절은 언제이며, 이때 주민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5. 문화 생활에 있어서 남북한의 공통점을 적어 봅시다.	
6. 비디오 자료를 보고 난 나의 느낌을 적고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가지 이상 적어 봅시다.	

## (5) 참고 자료

## &lt;1&gt; 북한의 연예인

연예인을 북한에서는 ‘대중예술인’ 이라 부른다. 남한처럼 북한에서도 유명 대중예술인은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일반 주민들과 다른 대우와 명예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대중예술인들에 대해 북한 당국은 어떤 정책을 펼칠까? 대중예술인 양성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며, 대표적인 대중예술인들은 누구일까? 이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의 대중문화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 북한의 대중예술인 정책

① 대우: 대중예술인들은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이 올라가는 것 외에 다른 부수입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민배우가 되는 경우 남한의 차관급과 비슷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급여는 물론 부식 공급까지 달라진다.

북한은 문예정책을 효과적으로 주민들 속에 전파하기 위해 예술인에게 명예욕과 물질적인 자극을 동시에 불어넣고 있다. 우선 예술인에게는 각종 상훈(賞勳)이 주어진다. 예술인들에게는 국기훈장을 비롯하여 노력훈장, 메달 등이 수여되며, 각 예술인단체의 ‘꺾어지는’ 창립일인 20돌, 또는 30돌이 되면 국기훈장 및 천리마, 붉은기 등의 칭호를 받기도 한다.

② 분류: 북한은 예술인들에 대해 급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민배우, 공훈배우, 일반배우 등 3등급으로 이들을 분류한다. 나머지 배우들은 8개의 급수로 나뉘어져 있고, 급외배우도 있다. 연극영화대학 학부를 졸업하면 6급을 수여 받는다.

인민배우는 톱스타로서 최고의 명예를 지닌 배우고, 그 다음 스타급이 공훈배우다. 인민배우 및 공훈배우 칭호는 주로 연출가, 연극, 영화, 무용, 성악가들이 수여 받는다.

◆ 인민배우

각 분야 연예인 중에서 최고의 명예칭호다. 연륜이 있고, 외모도 뛰어나야 한다. 당성도 중요한 요소다. 인민배우는 정무원 부부장(차관급)과 비슷한 혜택을 받는다. 북한 잡지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영화분야 인민배우는 20~30명 정도다.

◆ 대중예술인 선발과정

전문적인 예술인 양성을 위해 분야별로 각급 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예술전문 학교들은 대개 성악반, 기악반, 무용반, 화술반(연극반) 등을 운용하고 있다. 학생들 중 소질이 있는 학생은 전문단체에 배치되어 일약 주연을 맡는 경우도 있다.

1950년대까지는 예술분야의 각급 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한다. 다른 분야보다 출신성분을 덜 따지고, 실기와 재능을 중시하며 좋은 대우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60년대 초부터 예술단체는 당과 수령에게 충직한 붉은 예술인으로 꾸린다는 취자 아래 기본계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입학이 허용되고 있다.

◆ 대표적인 대중예술인

① 영화배우: 주민들의 영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 내로라하는 스타들이 많다. 먼저 19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을 계기로 우리에게 알려진 인민배우 홍영희가 있다. 그녀는 북한 5대혁명가극의 하나인 ‘꽃파는 처녀’를 영화화할 때 주인공 ‘꽃분이’ 역을 맡아 일약 톱스타로 부상했다.

1990년대 들어 최고 배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배우는 오미란이다. 그녀는 북한 영화계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 발표중인 시리즈 영화 ‘민족과 운명’ 8~9부, ‘도라지꽃’, ‘요염한 악녀’, ‘새별’ 등에서 열연한 바 있다. 1987년에 열린 제1회 평양 비동맹영화제에서 ‘도라지꽃’으로 최우수 연기자상을 받았으며, 배우경력 10년도 채 못되어 ‘인민배우’ 칭호를 받았다.

한편 북한에서 인기 있는 남자배우로는 ‘민족과 운명’에서 박정희역을 맡아 열연한 김윤홍이다. 일본에서 고아로 자라 1960년 북송선을 탔던 그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배우양성반을 졸업하고 영화배우로 데뷔했다.

이의 유명한 남녀배우로는 ‘민족과 운명’의 박기주, 천의 얼굴을 가졌다는 김준식,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유원준,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인민배우 김정화, ‘언제나 한마음’의 정선화, ‘검은장미’의 김명희, ‘우리 인민반장’의 김영숙 등이 있다.

② 가수: 북한 음악계에도 대중적인 스타들이 많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젊은 세대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중가수는 ‘휘파람’의 전해영이다. 보천보전자악단 소속의 그녀는 ‘휘파람’이 히트를 치면서 혜성같이 나타난 존재다. 한때 이 노래는 남한의 대학가에도 유행한 바 있으며, 북한에서는 금지곡이 되기도 했으나 곧 해금되었다.

전해영이 대중가요계의 스타라면 피바다 가극단 소속인 바리톤 가수 김승연은 인민배우로서 클래식계의 스타다. 그는 ‘동지애의 노래’,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서’ 등 100여 편의 영화 주제가와 ‘어머니 조국을 나는 사랑해’ 등 70여편의 혁명가곡을 불렀다.

클래식계 최고의 여가수는 소프라노 가수 왕선화다. 그녀는 ‘꽃파는 처녀’, ‘낙원의 노래’ 등에서 활약한 공로로 1977년 인민배우 칭호를 받았으며 현재 평양음악무용대학 교원으로 있다. 최근 회갑 기념 독창회까지 열었고, 자신의 대표곡인 ‘천리마’, ‘선구자의 노래’ 등을 부르고 있다. 그의 ‘꽃파는 처녀’의 주제가로 데뷔한 영화 주제가의 여왕 최삼숙도 유명하다.

③ 교예인: 평양교예단은 기계부문의 700여 단원과 300여명의 교예 배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최고의 배우는 인민배우인 김택성이다. 그밖에 인기있는 교예배우는 공훈배우 김철, 김광석, 김광철 등이 있다.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평양교예단 단원 모두가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다.

(북한관련 정보나눔터, “대중예술인” ; <http://unikorea.net/frunikshypnk20tb.htm>)

<2> 북한의 공연 시설

<극 장>

명 칭	설립일	내 용	비 고
만수대예술극장	1977.1.1	관람석 : 4,000석	북한 최대 극장
평양대극장	1960.8.13	관람석 : 2,200석, 최대 무대출연 인원 : 2,000명, 종합 연습실 : 700명	가극공연 외 각종 기념 행사 개최
평양교예극장	1989.4	관람석 : 3,500석	평양축전 시설
동평양대극장	1989.5.18	관람석 : 3,500석	평양축전 시설
국제영화회관	1989.5.18	관람석 : 3,150석	평양축전 시설
봉화예술극장	1985.6	관람석 : 2,000석, 800석	현대적 무대공연 설비
함흥대극장	1984.4.15	관람석 : 2,500석, 소극장 : 700석	김정일 지시로 건설

<주요 회관·궁전·학습당>

명 칭	설립일	내 용	비 고
4·25 문화회관	1975.10.7	노동자 및 인민군의 사상·문화 교양장소	극장 (6,000석·1,100석), 영화관 (600석)
청년 문화회관	1989.5		극장 (2,000석, 600석), 다기능홀 (1,000명)
인민문화궁전	1974.1.1	문화·오락시설을 구비한 북한주민들의 휴식, 학습, 문화, 교양 장소	대회의장 (3,000석), 원탁회의장 (930m <sup>2</sup> ), 휴게실, 영화관, 당구장 등
평양학생소년궁전	1963.9.30	평양시 청소년들의 특별 과외활동 장소	장서 (5만여권), 극장 (1,100석), 체육관 (500명수용), 도서관 (200석) 등
만경대학생소년궁전	1989.4	청소년들의 특별 과외활동 장소	극장(2,000석), 체육관, 수영장
인민대학습당	1982.4.1	『전사회의 인텔리화』를 위한 종합도서관	장서능력 (3,000만권), 1일 수용능력 (1만2,000명)

## &lt;동·식물원 및 기타 위락시설&gt;

명 칭	설립일	내 용	비 고
중앙동물원	1959.4.30	400여종 4,000여마리 사육	편의봉사시설 및 오락 시설 구비
중앙식물원	1959.4.30	2,000여종의 식물 재배	'김일성화·김정일화' 온실 설 치
창 광 원	1980.3	목욕탕 (1만명수용), 물놀이장, 수영장 (관람석 2,000)으로 구성	종합적인 문화 위락 시설
청 류 관	1982.4.15	1,000여석의 실내좌석과 6,000여석의 야 외좌석 및 39개의 봉사실 구비	종합음식점
옥 류 관	1960.8.15	250석의 좌석과 20여개의 기본실 및 50 여개의 부속실, 600여명 수용능력의 대 연회장 구비	종합음식점
만 경 대 유 회 장	1982.4. 8	5만명 수용규모로 29종의 유희시설 구 비	종합오락시설

(통일교육원, 북한개요, 2000, pp.555-559 참조)

## &lt;3&gt; 북한의 명절

북한에서의 명절은 국경일·기념일·전통민족명절 등을 총칭하고 있는데, 이 중 김일성·김정일 생일 등 국가적 명절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왔으며 전통 민족명절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배격되어 왔다.

그러나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추석 때 인근에 조상묘소가 있는 경우에 성묘를 허용하였고, 1988년 이후부터는 추석을 휴식일로 정한데 이어, 1989년부터는 음력설과 단오절까지 휴무일로 인정, 민족 고유명절을 부활시켰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는 전래명절의 부활이라는 측면보다는 과도한 주민 노력동원 등에 따른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교포들의 북한방문이 점증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취한 일련의 선전적 조치로 보인다.

<국가 명절 및 민족명절>

명 칭	구 분		비 고
	국가명절	민족명절	
설날		1.1	2일 연휴(1.2은 휴무일)
음력설날		1.1(음)	휴무일
김정일생일	2. 16		2일 연휴(2.17일은 휴무일)
국제부녀절	3. 8		
한식		4. 6	휴무일
김일성생일	4. 15		2일 연휴(4.16일은 휴무일)
국제노동자절	5. 1		
단오		5. 5(음)	휴무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	7. 27		
해방기념일	8. 15		
추석		8.15(음)	2일 연휴(8.16은 휴무일)
정권창건일	9. 9		
노동당창건일	10. 10		
헌법절	12. 27		
계	9회	5회	총 14회, 18일

(통일부, 북한개요, 2000, pp.464-467 참조)

<4> 북한의 추석

추석이 다가오면 묘소를 손질하거나 벌초하는 주민들로 분주해지기는 남북이 똑같다.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도 차례상만은 제대로 차리고 싶어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평상시 구하기 힘든 과일이나 해산물, 김일성 김정일 생일에 어린이들에게만 공급하는 고급사탕과자도 차례에 쓰려고 장롱 속 깊숙이 숨겨두는 집이 많다.

차례상은 묘소에 차린다. 묘소가 멀리 있어 가지 못하는 집에서만 부득이 집에서 차례를 지낸다. 그러나 전통적인 제사법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제사를 크게 모시는 것은 봉건잔재나 가족주의로 비판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집집마다 제각기 적당히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한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차려놓고 어떤 순서로 차례를 지낼 것인지 정해진 규칙은 없다. 특이한 것은 남한에



서 재배(再拜)를 하는 것과 달리 북한에서는 삼배(三拜)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1990년대 초에 요란한 제사를 자제하고 꽃과 묵념으로 대체할 것을 당에서 지시하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흐지부지 됐다.

추석 전날 장마당은 대목을 노린 장사꾼과 제사음식을 마련하러 나온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평소보다 20~30% 정도 비싼 가격에도 술, 과일, 수산물 등이 불티나게 팔린다. 가족이 함께 모여 떡도 빚고 제사 음식을 마련한다.

추석날은 묘소를 찾는 가족들로 공동묘지는 만원이다. 술꾼들은 이때가 기회라 싶어 이 집 저 집 묘소를 돌며 술을 얻어먹기도 한다. 이웃 묘소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기도 하고 모르는 이웃이 있으면 서로 인사한다.

추석은 하루만 공휴일이지만 직장인들은 3일간 사결(사유가 있어 결근)을 받을 수 있고, 추석을 전후해 3일간은 도(都)내에 한해 여행증 검열을 하지 않는다. 도를 벗어날 경우엔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평소에도 봄비는 열차지만 추석이 되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기차 지붕이나 난간까지 발 디딜 틈이 없고, 이로 인해 사고도 적지 않다. 제대군인이나 대학졸업생들을 무리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기차를 타고 조상 묘소를 다녀온 사람들은 과김치가 되지만 그래도 집에서 차례지내는 것보다는 마음이 가볍다.

(조선일보, 2001. 10. 5)

#### <5> 북한의 대중가요와 가수

북한은 대중가요라고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많이 불리는 노래를 “군중가요”라고 합니다. 북한의 군중가요 중에는 이념성이 강조되는 당 정책가요, 노동가요, 혁명가요 등이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른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경음악단이 연주하는 경쾌한 리듬의 노래, 사랑을 노래한 군중가요를 더 즐긴다고 한다.

북한 젊은이들은 경쾌한 곡에 맞춰 춤추는 것을 좋아해 빠른 리듬으로 신명나게 노

래할 수 있는 곡들의 인기가 높으며 1990년대 초에는 “휘파람”이라는 노래가 크게 유행하였다고 한다. 휘파람의 가사는 아래와 같다.

(1절)        어제 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벌써 몇 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복순이네 집 앞을 지날 땐 이 가슴 설레여  
              나도 모르게 안타까이 휘파람 불었네

(2절)        한번 보면은 어쩐지 다시 못볼 듯  
              보고 또 봐도 그 모습 또 보고싶네  
              오늘 계획 300을 했다고 생긱이 웃을 때  
              이 가슴에 불이 인다오 이 일을 어찌하라



(3절)        어제 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벌써 몇 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혁신자의 꽃다발 안고서 휘파람 불면은  
              복순이도 내 마음을 알리라 알아주리라

(후렴)        휘휘휘 호호호 휘휘 호호호  
              휘휘휘 호호호 휘휘 호호호

북한 음악계에도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스타들이 많다. 90년대 이후 북한의 젊은 세대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는 ‘휘파람’의 전혜영 이다. 휘파람은 한국에도 꽤 알려진 노래다.

노랫말에 혁명성이 없다는 이유로 90년대 초반 잠시 금지 곡이 됐으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민들의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전혜영은 뛰어난 가창력에도 빼어난 미모를 겸비하고 있다. 북한의 남녀노소가 골고루 그의 열렬한 팬이다. 특히 그는 다양한 율동과 밝은 표정으로 인기를 배가시키고 있다.

키 160cm가 될까말까 한 키에 가냘픈 몸매지만, 노래는 힘이 실려 있다. 민요나 가

요 외에 외국 노래도 고음으로 잘 소화해 낸다.

그의 대표곡으로는 90년 초 발표한 ‘휘파람’을 비롯해 ‘아무도 몰라’, ‘꽃파는 처녀’ 등이 꼽힌다.

전혜영은 1970년 탄광노동자인 아버지와 피복공장 합창부원이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유치원에 다니던 6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 인민학교 시절 전국 학생예술축전에서 연이어 3회나 1위에 입상했다. 1983년 8월 ‘김일성 소년 영예상’을 받았으며, 1988년 3월 북한 최고의 보컬그룹인 보천 보전자 악단에 들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1992년 예술인들의 최고 영예인 인민 배우 칭호를 받았다.

전혜영 외에 북한의 정상급 인기 가수로는 ‘인민 배우’ 김광숙을 비롯해 공훈 배우 리분희, 리경숙, 럽청, 조침미, 최삼숙 등을 꼽을 수 있다. 리경숙은 ‘반갑습니다’를 부른 가수이다.

(알고싶은 통일이야기, 충북청원교육청, 2000. pp.49-52)

#### <6> 우리식 여가

북한주민들은 학생의 경우 학교에 다니면서 소년단이나 청년동맹 조직원으로 활동해야 하고 성인의 경우 직장생활과 아울러 농근맹이나 직업총동맹 등 근로단체 활동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가 어렵다. 북한주민 대다수는 휴식일이나 짬시간에는 집안 일을 하거나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등 밀렸던 일을 처리하느라 바쁘다. 그러나 북한주민도 여건이 된다면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어한다.

북한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면서도 자주 이용하는 여가생활 방식은 들놀이나 영화관람, 음악감상, 음악에 맞추어 춤추기 등이다. 특히 인기를 누리는 영화작품이 상영될 때에는 암표를 구해서 여러 번 관람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와 음악을 골라서 즐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공장이나 기업소, 협동농장 등 직장단위로 매주 수요일이나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정해 놓는데 그 날 단체로 감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간혹 영화를 관람하고 난 후에 영화의 주인공처럼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다

하지는 취지의 영화실효투쟁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화관람도 완벽한 의미의 여가생활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공장·기업소 및 협동농장에서는 월 1~2회 의무적으로 영화를 관람시킨다.

공휴일에 공원이나 유원지를 찾는 것도 북한주민들의 빼놓을 수 없는 여가생활의 하나이다. 북한의 계도영화 「일요일에 있는 일」을 보면 조카와 함께 놀이공원을 찾는 삼촌이 주인공으로 나온다. 그러나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놀이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아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 주민들이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을 뿐이다.

식량난이 시작되기 전에는 직장단위로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천렵이나 등산놀이를 조직하거나 친구와 이웃 사이에 장기와 일종의 카드놀이인 주패놀이를 많이 했다고 한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딱지치기와 팽이 돌리기, 연놀이, 윷놀이도 즐겼으며 장구와 손풍금을 동원하여 음악과 함께 춤추기를 즐기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놀이를 조직하는 경우가 드물고 간혹 간부들 몇 사람이 차량을 동원하여 조용히 멀리 나가서 놀다 오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눈을 의식하여 공개적인 행사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북한 당국은 1980년대 말 이후 바둑을 비롯한 야구, 볼링, 프로권투, 소프트볼 등 자본주의적 스포츠를 도입하고,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 골프장과 ‘보링그관,’ 디스코텍 등을 개설하면서 취미 및 오락시설의 폭을 넓혀 왔다. 그밖에 최근에 들어 낚시, 등산, 사냥, 바둑 등도 북한주민들이 즐기는 취미생활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의 여가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은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있어서 보편적인 여가문화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김석향,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http://www.unikorea.go.kr/kor/gallery/>)

#### <7> 북한 인권 개념과 인권 실태

북한은 인권을 “인민이 응당 가져야 할 정치적·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북한정부는 주민들의 인권을 계속 부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지도

부는 국제규범의 인권, 특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불법적이고 미국적인 사회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인권의 보장이 국가나 노동당의 목표에 반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인권개념을 극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수령 중심의 당국가 체제인 북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개념은 무엇보다도 그 사회의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인권개념은 해석과 적용에 있어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으며, 주민의 인권보장을 수령의 시혜로 간주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정책을 반영하여 인권개념 또한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사회주의 혁명세력과 혁명에 동조하는 계급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이에 반대하는 계급들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행한다는 관점이 반영되는 것이다. 또한 인권개념에 집단주의라는 사회 특성에 기초하여 개인의 천부적이며 절대적인 권리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권리보다는 의무가 강조된다. 아울러 우리와 같은 사회에서는 인권이 사법제도의 뒷받침을 받지만, 북한의 사법제도는 통치권에 예속되어 있어 법적, 제도적으로 인권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음 표는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내용이다.

인권의 하위요소		인권 침해상황
시 민 적 · 정 치 적 권 리	생명권	사형 및 공개처형
	신체의 자유	고문 및 교화소내 인권유린
	법과 절차에 의한 보호	형법의 반인권성, 정치사업 역할의 변호, 불공정한 재판절차
	평등권	성분에 따른 사회차별, 거주지역의 차등배치 및 대우, 장애인에 대한 박해
	자유권	거주이전, 언론출판, 집회결사, 사상종교의 자유 제한, 사생활 감시
	참정권	유명무실한 참정권 행사
	여성의 지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여성동원, 가부장제와 남존여비, 형식적인 남녀평등
경 제 적 · 사 회 문 화 적 권 리	생존권	식량배급의 악화
	사회보장권	재원부족으로 인한 시행의 어려움, 성분에 따른 차등 보장
	근로권	자유노조의 부재, 노동시간의 과다
	직업선택의 자유	성분에 따른 직장배치, 무리배치
	교육을 받을 권리	정치적 왜곡 및 경제난으로 정상적 교육의 어려움, 성분에 따른 진학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0)

### Ⅲ.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

#### 1. 단원의 개관

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은 교육이 한 나라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 말이다. 북한 사회가 체제나 이념에서 다르다보니 현실적으로 같은 점보다는 다른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에 대한 열의와 이상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이 비슷한 것이 사실이다.

세계 수많은 나라의 교육자들이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은 결국,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가진 교육을 ‘전인교육(全人教育)’ 이라고 한다. 남북한의 교육은 『지덕체(智德體)를 고루 갖춘 전인적인 인간형성』을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또, 남북한 모두 기초적인 생활규범, 도덕적인 품성을 학교교육의 목표로서 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목적으로서 전통적인 도덕규범을 강조하고 있다. 즉, 남한에서는 예절과 신의, 효도와 공경 등의 덕목을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규범으로서 중시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도 전통적인 도덕 규범에 대하여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 풍습으로서 유지하고 계승해야 하는 덕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건국 초기에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바탕을 두었다가 1970년대 이후 주체사상이 확립됨에 따라 교육에서도 주체적 교육이 강조되었다. 북한에서의 전인교육은 궁극적으로 북한 어린이들을 “공산주의 체제”에 맞는 인간으로 키워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사상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다. 반면에 남한은 민주주의·다원주의 사회에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전인교육과는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 앞으로 역사의 주인공은 북한의 사회주의를 일구어 낸 혁명세대나 남한의 경제발전을 이끌어낸 구세대들이 아니고 바로 신세대들이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을 통해 북한학생들의 생활과 그들의

사고방식을 우리와 비교하여 바로 알아 이질감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며 민족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것이다.

본 단원의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청소년들은 어떤 과목을 배울까?’에서는 우리의 통일 주체 세대인 청소년들의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북한의 교육체제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따라서 전반적인 북한의 학제와 실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를 살펴봄으로서 북한 청소년들의 성장과정과 지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둘째, ‘북한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활할까?’에서는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모습을 살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이나 편견에 기초하여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이해해왔었던 북한 청소년의 모습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셋째, ‘과외 및 여가생활은 어떠할까?’에서는 폐쇄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청소년들이 즐기는 놀이문화와 이와 관련된 정보화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북한 청소년들의 여가생활모습을 이해하도록 한다.

넷째, ‘북한 청소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에서는 북한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과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는 고민과 갈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살펴봄으로서 북한 청소년들의 내면적인 삶의 모습을 이해하도록 한다.

## 2. 단원의 목표

(가) 북한의 학제 및 교육과정을 알 수 있다

- (1) 북한의 학제와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2) 남북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비교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있다.



- (나)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 알 수 있다.
  - (1) 북한 청소년들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가진다.
  - (2) 북한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 모습을 통해 우리와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 (다)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 (1) 북한 청소년들의 과외활동과 놀이문화를 이해한다.
  - (2) 북한 청소년 문화 생활의 장단점을 알고 설명할 수 있다.
- (라) 북한 청소년들의 고민거리와 우리의 고민거리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 (1) 북한 청소년들의 고민거리를 이해하고 나의 고민처럼 느낄 수 있다.
  - (2) 북한 청소년들의 고민거리와 사회문제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 3. 단원 구성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	교육과정	북한의 학제도 우리처럼 초·중·고로 나뉘어져 있을까?	북 한 청 소 년 들 에 대 한 객 관 적 이 해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배울까?	
		북한에도 우리의 특수 목적과와 같은 특수한 학교가 있을까?	
		북한의 학생들은 어떤 선택과목을 배울까?	
		우리처럼 영어를 중요시할까?	
	학교생활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은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할까?	
		개학과 방학은 언제일까?	
		시험은 어떻게 치를까? 유급이나 퇴학이 있을까?	
		북한에도 야간자율학습이 있을까?	
	과외·여가 생활	북한 청소년들은 과외활동을 어떻게 하나?	
		북한 청소년들도 컴퓨터를 얼마나 사용할까? 오락게임도 있을까?	
		북한의 연예인들은 팬클럽을 갖고 있을까?	
노래방은 있을까?			
북한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만화영화는? 북한 청소년문화도 서구식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			
고민거리	수능시험이 있을까? 속칭 일류대학은?		
	북한 청소년들도 이성교제를 하고 있을까?		
	친구를 따돌리거나 잘난 척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 4. 단원별 지도자료

##### 가. 북한 청소년들은 어떤 과목을 배울까?

###### (1) 학습목표

(가) 북한의 학제와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나) 남북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비교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있다.

###### (2) 교수-학습 모형 : 퀴즈 수업

###### (가) 퀴즈 수업

요즘 교육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EDUTAINMENT(Education과 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놀이학습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일 것이다. 학교에서의 열린교육이나, 각종업체에서 만들어 내는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교육방송, KBS, MBC, SBS 방송국의 각종 퀴즈프로그램 등이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 즐겁고 신나게 수업하고자 하는 에듀테인먼트 개념의 수업 유형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영화와 뮤직비디오, TV다큐와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자료를 녹화하거나 수집하여 디지털영상으로 변환하여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유형, 둘째는 스피드퀴즈, 액션스피드퀴즈, 크로스퍼즐퀴즈, 도전 골든벨 방식의 퀴즈들을 단원정리시간에 활용하는 유형, 마지막으로는 모둠별 학생 영상창작 수업 유형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영상세대인 학생들에게 친근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재미있고 신나는 수업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재미있는 수업,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놀면서 배우는 수업(에듀테인먼트)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퀴즈식 수업은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는 수업 형태 중의 하나이다. 단지 재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달성하고자 하는 수업목표를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생동감 넘치고 재미있는 분위기에서 무의식적으로 달성한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수업시간 그 자체를 싫어하는 몇몇 학생들까지도 모두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어 좋다.

퀴즈수업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각 반의 분위기 메이커를 지도하여 진행자 및 보조안내자로 활동하게 한다. 또한 문제는 교사가 30%, 학생들이 70% 정도를 제출하게 하고, 학생들의 재기 넘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문제내용은 통일교육 50%, 통일문제 관련 상식 25%, 기타 25%정도의 비율로 한다. 문제제시 형태는 문자 50%, 그림이미지 25%, 기타 멀티미디어 자료(음악, 동영상 등) 25%정도로 하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문자로 하되 그림이미지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면 되도록 그림이미지로 제시하면 좋다.

#### (나) 본시 수업모형 활용의 유의사항

미리 이번 차시의 수업 형태에 대한 자료를 배부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퀴즈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예고를 한다.

- 1) 먼저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관한 문제를 만들도록 한다. 주로 남한의 학생들의 생활과 다름이나 같음을 알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하도록 한다.(20-30문항 정도를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 2) 교실내에서 진행할때에는 학생들에게 ○, × 카드를 나누어주어 들게 한다. 탈락한 학생은 자기 자리에 앉게 한다.
- 3)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가 모든 진행의 관리자가 되도록 한다. 우선 규칙을 설명하고 탈락자의 처리와 패자부활전 그리고 최종 우승자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다.(수행평가와 병행해도 좋다.)
- 4) 퀴즈가 끝난 후 질문지를 통하여 퀴즈 학습의 소감을 받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 5) 전시 학습때 충분한 사전 지도를 통하여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일종의 버즈(BUZZ) 학습으로 타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될 수 있으면 야외수업)

(3) 교수 - 학습 과정안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학습 상기</li> <li>○ 동기 유발</li> <li>○ 학습 목표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사람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내용을 상기시킨다.</li> <li>○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전시 수업 과제를 점검한다.</li> <li>○ 학습목표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사람들의 문화생활을 상기한다</li> <li>○ 학생들의 생활 방식을 비교하고 이를 탐구학습에 응용할 수 있다.</li> <li>○ 학습목표를 경청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수 학습 요소를 점검한다.</li> <li>○ 북한 학생들의 생활 모습 예시</li> </ul>
전개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X 퀴즈 수업 전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퀴즈 풀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응용해 작성한다.</li> <li>○ 북한의 교육에 대한 O,X 퀴즈를 내고 탈락자와 정답자를 구분해 낸다.</li> <li>○ 매 문제마다 정답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준다. 가능한 재미있게 문제를 구성 제시한다</li> <li>○ 패자부활전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을 제고한다.</li> <li>○ 마지막 우승 학생이 나올때 까지 문제를 출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X카드를 준비 한다</li> <li>○ 문제를 풀면서 북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이해한다</li> <li>○ 패자부활전을 대비해 내용을 다시 요약한다</li> <li>○ 패자부활전 문제를 푼다</li> <li>○ 남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방식을 퀴즈를 통해 이해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퀴즈의 난이도를 잘 조정한다.</li> <li>○ 교실에서 할 경우에는 모두 일어서게 하여 문제를 제시할 때마다 틀린 학생들은 자리에 앉도록 하면서 진행한다</li> <li>○ 틀려서 앉아 있는 학생들은 되도록 문제를 경청하도록 한다</li> </ul>
정리 및 평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 내용 정리</li> <li>○ 평가</li> <li>○ 차시 학습 예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정리를 해준다</li> <li>○ 틀린 문제에 대한 재질문으로 피이드백을 한다.</li> <li>○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 컴퓨터실에서 수업할 것을 예고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내용을 기록한다.</li> <li>○ 피이드백(틀린문제에 대한 질문)을 통해 북한 학교 생활의 교육과정을 이해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퀴즈의 결과를 보상해 준다.(상품은 가상 북한여행 상품권 등을 제공)</li> </ul>

## (4) 학습자료

<1> 북한의 교육에 대한 O . X 퀴즈 문제

1. 북한의 의무 교육 기간은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으로 10년간이다.(×)
  - \* 유치원 높은반 1년까지 합하여 11년이다.
2. 남한의 제1외국어는 영어이고, 북한의 제1외국어는 러시아어이다.(×)
  - \* 북한도 1980년대에 영어가 제1외국어로 채택되었다.
3. 현재 북한에서 가장 비중이 큰 교과목은 국어, 수학, 외국어이다.(O)
  - \* 인민학교는 국어, 수학, 고등중학교는 수학, 국어 순으로 비중이 크며 외국어 특히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4. 북한은 한의학을 정책적으로 장려하여 대학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동의보감 등 10여종의 한의학 고전을 번역 출판하였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한의학을 ‘동의학’이라 부른다.(×)
  - \* 1993년부터 ‘고려의학’이라 변경하여 부르고 있다. 한의사는 고려의사, 한의학부는 고려의학부, 한약은 고려약으로 부른다.
5. 북한에도 대학가요제가 열린다.(O)
  - \* 형태와 내용은 달라도 남한의 대학가요제와 비슷한 대학생 축전이 있다. 다만 내용이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일 뿐이다.
6. 북한에도 청소년 퀴즈 프로그램이 있다.(O)
  - \* ‘전국 고등 중학교 학생들의 알아맞추기 경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7. 북한 학생들이 목에 매고 다니는 빨간 스카프(넥타이)는 고등중학생이라는 표시이다.(×)
  - \* 소년단 넥타이로서 소년단은 만7세부터 만 14세까지의 청소년단체이며, 가입은 의무적이다.
8. 북한에도 특별 교육 기관으로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다.(O)
  - \* 평양 외국어 학원은 6년제 고등중학교로 과정으로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영

- 어 등 8개 외국어를 중점 교육시키고 있으며, 각 시도에는 10년제 외국어 학원이 있다.
9. 북한에서는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면(18세) 신체검사를 받고 군대에 입대한다. (X)
- \* 신체검사를 15세에 받고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입대하거나, 일정기간 직장생활 후 입대
10. 한글전용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은 한자를 외국어 과목의 하나로 가르치고 있다.(O)
- \* 북한의 한글전용은 1949년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와 함께 실시됐다. 지속적인 한자추방운동을 편 결과 59년에 한자는 완전히 철폐됐다고 한다.
11. 북한에서 일컫는 '4대 양성소'란 집단농장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이다.(X)
- \* 4대 양성소란 공산 치하의 학교를 빗대는 은어로서 학교는 용광로, 작업장, 노동 수용소, 연마장 등으로 비꼬아 말하고 있습니다.
12. 북한에도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업·공업·상업 학교 같은 실업고등학교가 있다(X)
- \* 북한에서 기술교육은 중등교육을 마친 이후 기술자 양성기관이나 대학에서 이루어진다.
13. 북한의 고등중학교 남녀 공학이 없기 때문에 남녀가 따로 공부한다.(X)
- \* 북한의 모든 고등중학교는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여학생에게는 여학생 실습과목이, 남학생에게는 공작실습이 따로 있다
14.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6학년 동안 공산주의 도덕 과목을 배운다(O)
15. 북한의 평양외국어학원은 5년제 고등중학교 과정으로서 노어, 중국어, 일어, 영어 등 7개 외국어를 중점 교육시키고 있다.(X)
- \* 평양외국어학원은 6년제 교육기관으로서 외국어 8개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16. 만경대혁명학원은 1947년 10월 12일 인민무력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설립, 인민학교 졸업 후 입학할 수 있다. (O)

17. 북한은 2001년 4월 1일부터 전국 고등중학교에 ‘선택 과목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18. 북한에도 영어를 배우려는 지방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영어반’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 \* 1980년대 중반부터 설치한 반은 ‘사회반’을 설치하였다
19. 북한에는 특수목적고가 없다.(×)
- \* 북한은 예술·체육·외국어 등 남한의 특수목적학교에 해당하는 특수학교를 운영한다. 11년제의 음악·무용·조형예술학교 등 예·체능계 학교, 7년제 외국어학교, 4년제 체육·공예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조기 교육을 하며, 학생들은 엄격한 신원 조사를 거쳐 선발한다. 핵심 계층 자녀가 아니면 입학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
20.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 모두 컴퓨터에 능숙하게 프로그래밍 언어(베이직) 등 학년별 교과 과정안을 마련해 가르친다.(×)

#### (5) 참고자료

##### <1> 교육체제

남북한은 기본 학제와 수학 연한의 차이가 크다. 남한은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6년, 고등교육 4년인데, 북한은 초등 4년, 중등 6년, 고등 4년으로서 초등교육 단계에서 북한은 남한보다 2년이 짧다. 여기에 유치원 1년의 의무교육기간을 포함하면 (1)-4-6-4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학제는 해방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개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972년에 학제 개편을 단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 학제를 확정하고 그 기본 구조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하면 북한은 학제 개편을 비교적 쉽사리 단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도 교육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학제 개편의 필요성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학제 개편은 수 많은 교육과제를 수반하는 동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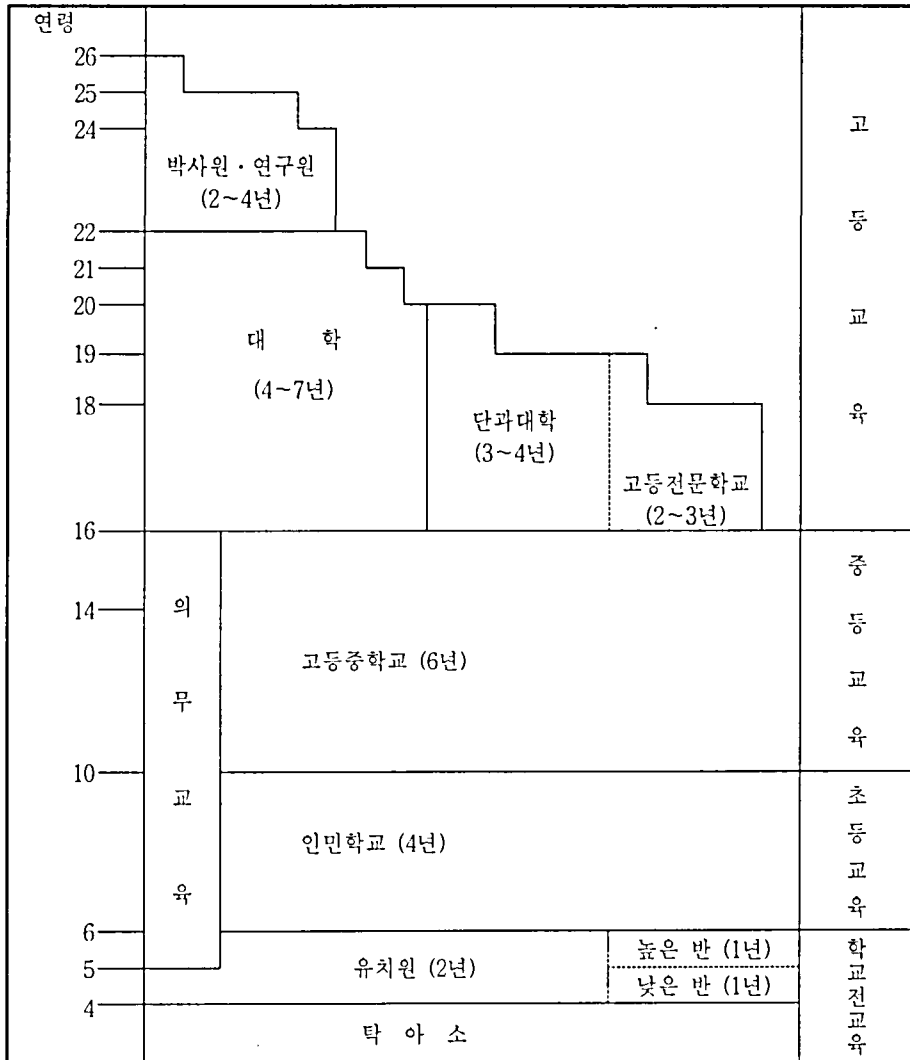
인력과 비용 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에 단 한번도 손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역시 중앙집권적인 계획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학제 개편과 같은 거대한 개혁사업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중등교육에서 남한은 전기 중등교육 3년과 후기 중등교육 3년으로 구분하는데 비해서 북한은 이러한 구분이 없다. 과거에는 고등중학교를 중등반 4년과 고등반 2년으로 구분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중등교육에서 실업계통의 교육기관이 없다. 우리의 농업, 공업, 상업 등의 실업고등학교가 존재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에서 노동교육은 기초적인 실습과 의무노동을 통하여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 기술 교육은 중등교육을 마친 이후 기술자 양성기관이나 대학에서 이루어진다. 직업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생들을 일찍부터 차별하여 노동자로 만들고 천대하는 교육이라고 비판한다. 그리하여 직업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방 이후 초기에는 특수 재능교육이 평등교육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취지에서 중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서 예체능 분야의 재능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혁명 유자녀를 대상으로 특수층 자녀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북한에서는 이를 특수 재능교육 기관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이르러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5~6세 아동부터 조기에 재능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육성하고 있다. 즉 우리와는 다르게 학생을 조기에 선발하고 별도의 특수 교육기관에서 육성하고 있다.



## 교육 체계



(통일부, 북한개요, 2000, pp. 488-491 참조)

\* 북한은 2002년도 새 학기를 맞아 신문·방송 등의 보도매체를 통해 기존의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명칭을 일부 변경하여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학제변경 여부에 대해 보도된 내용은 없으며, '중학교'의 경우 중전의 고등중학교와 같이 6년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고등중학교 교과영역 및 목적

교과 영역		분야	교과목	목적
정치사상교육			김일성·김정일교과, 현행 당정책, 공산주의 도덕	정치사상 교양
과학 기술 교육	일반 지식 교육	사회 과학 분야	국어문학, 력사, 지리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의 기초, 그 골격을 튼튼히 세워주며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혁명투쟁에 적극 참가할 수 있게 준비시키기 위함
		기초 과학 분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과학이론적 기초를 튼튼히 닦아주며 지적 능력을 키워주기 위함
		외국어 교육	외국어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과학문화분야에서 국제적 교류, 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함
		한문 교육	한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북한말을 다듬고 북한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함
	기초 기술 교육		제도, 전자공학기초, 여학생 실습, 공작실습	생산과 기술의 기초원리와 전기, 기계에 대한 지식을 비롯한 기초기술지식, 현대식 생산과 관계된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체득시키기 위함
	예능 교육		음악, 미술	혁명적 세계관이 튼튼히 선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며 문학과 예술을 군중적 토대위에서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함
체육 교육		체육	청소년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켜 그들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함	
정서 교양		각종 예능활동	혁명적이며 고상하고 아름다운 감정을 체험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함	

(한국교육개발원, 통일 대비 북한 중등학생의 정치사상 교육 방안 연구, 1998, p.47)

<3> 선택과목과 영어중시 추세

실용주의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는 2001년 4월 1일부터 전국 고등중학교에 실시기로 한 ‘선택 과목 교육’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도시, 농촌, 어촌 등에 관계없이 전국 고등중학교에서 꼭 같은 과목을 통일적으로 가르쳤다. 그러나 2001년부터 선택 과목 교육을 통해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 관련 교육을, 어촌 지역에서는 수산업 관련 교육

을, 산간 지역에서는 임업 관련 교육을, 경공업 공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는 경공업 관련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키로 한 것이다. 북한 언론은 이 같은 조치가 김 총비서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지금까지 있어 본적이 없는 선택 과목 교육은 학생들을 쓸모 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면서 선택과목 교육은 “나라의 교육 사업을 새 세기, 새 환경에 맞게 더욱 개선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선택 과목 교육 실시를 앞두고 보통 교육부문에서는 수십 개 학교에서 전국적인 ‘선택과목 교수 방식 상학(시범 교육)’이 진행됐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과목을 올바르게 설정해 교과서를 만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평양시에서는 약전, 식료, 의류, 기계, 농업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교육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으며 각 고등중학교에서는 실습기계·실험기구 등 실효성 있는 실습실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또한 국제 무대에서 영어권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러시아어와 영어 병행 교육에서 영어 위주로 전환해 1980년대 중반부터 각 학교의 러시아어반을 폐지했다. 구소련이 붕괴되기 이전에 이미 영어 교육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들어 초등학교 4학년 교과목으로 영어 과목을 지정하는 등 영어 조기교육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평양외국어학원과 각도 외국어학원은 고등중학교 1~6학년 과정으로 외국어 조기교육을 위해 설립됐다. 평양외국어학원은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불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등 8개 외국어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망생이 가장 많은 부문은 단연 영어다. 이 학원은 현재 각 학년별로 20명 안팎으로 이뤄진 5개 학급의 영어반을 두고 있으며, 영어 수업 비율은 전교과목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영어를 배우려는 지망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사회반’을 별도로 설치하고 일반 고등중학교 4학년 학생 가운데서 시험을 통해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980년대 들어 외화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이 학원에 입학하는 것은 김일성종합대학이나 평양외국어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평양 및 각도 외국어학원을 졸업하면 추천을 받아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 외국어대학, 국제관계대학, 압록강대학, 각도 사범대학 외국어학부 등에 시험을 치뤄 입학한다.

외국어학원이나 대학의 영어 전문교육은 보통 회화, 청취, 받아쓰기, 강독, 문법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1주일에 한 차례씩 번역이 안된 미국·영국 영화를 관람하는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4> 정치사상교양 중시의 교과목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 테제에는 “모든 교육 조건과 수단은 사람의 사상을 개조하는데 부족하여야 한다” 혹은 “정치 사상 교육을 잘하는 기초 위에서만 과학 기술 교육과 체육 교육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교육의 내용이 정치 사상성을 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사상성은 북한의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북한의 각급 학교 교과서들이 정치 사상적 내용, 특히 김일성 부자 우상화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단원의 주제 영역별 분포와 음악 교과서 노래 가사의 주제별 분포에 잘 나타나 있다. 국어의 경우 인민 학교 1~4학년 교과서의 총 161개 단원 가운데 64개 단원(40%)이, 그리고 고등중학교 1~3학년 교과서의 총 75개 단원 가운데 32개 단원(43%)이 김일성 부자를 주인공으로 한 것이다. 음악 교과서의 경우, 노래 가사 가운데 김일성 부자 우상화 내용이 인민학교는 57%, 고등중학교는 4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국어 교과서 내용의 주제별 분포>

구분\주제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 가계	적개심 고취	공산주의 도덕교양	언어	계
인민학교 (1~4학년)	32 (20)	25 (16)	7 (4)	13 (8)	31 (19)	53 (33)	161 (100)
고등중학교 (1~3학년)	16 (21)	9 (12)	7 (10)	10 (13)	12 (16)	21 (28)	75 (100)

\* ( )는 %(동일원 통일연수원, 북한이해; 1995, 212쪽 재인용)

## &lt;북한의 음악 교과서 노래 가사의 주제별 분포&gt;

구분 \ 주제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 가계	적개심 고취	사회주의 우월성	기타	계
인민학교 (1~4학년)	41 (36)	20 (17)	5 (4)	17 (15)	13 (11)	19 (17)	115 (100)
고등중학교 (1~3학년)	18 (33)	6 (11)	2 (4)	9 (17)	10 (18)	9 (17)	54 (100)

\* ( )는 %(통일원 통일연수원, 북한이해; 1995, 212쪽 재인용)

각 학년 국어 교과서의 제1과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시를 수록하였고, 그 뒤는 대부분 ‘김일성과 어린이’에 얽힌 이야기를 소재로 한 단원이 있다. 음악 교과서의 경우 각 학년 제1과는 김일성 찬양 노래, 제2과는 김정일 찬양 노래를 수록하고 있다. 김정숙 찬양 노래도 교과서마다 들어 있다. 노래 가사의 50% 이상이 이들 3명을 우상화하는 내용이며, ‘국가(國歌)’는 고등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만 수록되어 있다.

심지어 개인적인 차원의 효조차도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와 연결시키고 있다. 북한의 국어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효도의 사례도 아버지인 김일성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였다는 김정일의 어린 시절 효행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맛있는 배를 먹지 않고 있다가 아버지께서 드실 국수에 넣어 맛있게 드시는 아버지를 기쁘게 바라보거나 밤잠 이루지 못하는 아버지의 안녕을 걱정하여 함께 밤새우는 아들(인민학교 1학년 9과, 3학년 28과), 아버지께서 편안한 낮잠을 주무시게 하기 위해 시끄럽게 우는 매미를 잡거나, 아버지의 폭신한 베개를 만들기 위해 귀여워하며 즐겨 가지고 놀던 새를 죽이며, 또 깊은 생각 속에 걸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여 정원 길의 꽃가지를 자르는 아들(인민학교 1학년 19과, 3학년 20과, 4학년 29과), 그리고 아버지의 혁명대를 잇기 위해 어려서부터 혁명의 의지를 불태우고 실천하는 아들(인민학교 2학년 3과, 4학년 3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록 김정일의 덕성을 강조시키는 우상화의 일환이기도 하고, 김정일의 효행을 모범으로 하여 가족 차원의 효보다는 국가 가족 차원에서의 효, 즉 충성심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정치 교육의 한 방안이기도

한다.

수학 등의 자연 계열 교과서에도 본문뿐 아니라 많은 연습 문제가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학 교과서에는 ‘김일성·김정일의 어린 시절 이야기 책자를 몇 번이나 읽었느냐’는 유형의 연습 문제를 다수 수록하고 있다. 자연계 교과서의 각 단원 첫머리는 김일성 부자의 교시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발이 튼튼하려면 잘 닦아야 합니다”와 같이 지극히 상식적이거나 평범한 것들이다.

정치 사상 교육 내용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측면은 착취 사회와 착취 계급, 제국주의 등에 대한 증오심을 고취하면서 이를 모두 대남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비약시키는 것이다. 혁명 투쟁심의 고취 내용 유형은 대남 비방, 모략, 지주, 자본가의 탐욕과 무자비, 미·일의 만행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과서의 문장은 미사여구가 아니면 반대로 호전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일부 문구들은 극단적으로 자극적이다. 예를 들어, ‘배뎀기를 찌르다’, ‘까부시다’, ‘피바다’, ‘원썩’ 등과 같은 호전적 용어나 ‘혁명의 진취물’, ‘타승’(승리), ‘고지점령’(목표 달성) 등과 같은 군사 용어가 학교의 교육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언어를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 간주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다.

음악 교과서에도 대남 증오심을 고취하는 노래말은 “남녘 땅을 짓밟는 원썩 미제 일제를 쳐부수러 나간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피에 주린 침략자 모조리 쳐부시자. 부모 형제 피자국은 우릴 보고 외친다. 아. 나 어린 어깨 복수의 총을 메고 나섰다”(고등중학교 3학년, 음악 제10과 ‘소년 빨치산의 노래’)와 같은 것이다. 이와 비슷한 가사의 노래는 ‘소년 근위대원의 노래’, ‘나는야 꼬마 명사수’, ‘꼬마 땅크 나간다’ 등 매우 많다.

수학 교과서에는 남한 어린이의 비참성을 부각시키고 미·일에 대한 투쟁심을 고취하는 연습 문제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남조선에서 학교에 못가는 아동의 숫자, 이중에도 구두닦기는 몇 명이고 빌어먹는 아이는 몇 명인가”와 같은 비슷한 문제를 반복해서 수록하고 있다. 자연계와 수학 교과서의 연습 문제 가운데는 군사 지식을 전수하거나 전쟁 시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군사 놀이를 하면서 <암호>를 정했습니다. 보초가 부르는 수와 합하여 600이 되는 수

를 불러야 우리편입니다. 보초가 239를 불렀습니다. 몇을 불러야 우리편입니까”(인민 학교 2학년, 수학 ‘덜기’) 등과 같은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정치 사상 교화의 소재들이 다른 학년이나 다른 과목에 반복되어 수록되어 있는 것도 북한 교과서의 특징이다.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등의 노랫말은 국어와 음악 등 여러 교과서에 똑같이 수록하여 정치 교화의 반복 효과를 꾀하고 있다. 이로써 청소년들의 지적·심리적 구조의 변화를 의도하는 대로 유도하여 김일성 부자 체제에 순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재의 문장을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구체화하여 반복, 수록한 것은 기초 교육 과정에서 처음 싹이 튼 감성과 가치관을 학년이 올라갈수록 굳게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통일원, 북한의 교과서 분석 (1992); 박성희, “교과서 분석에 의한 북한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6권 2호, (1994, 겨울), pp. 188~215; 통일원 통일연수원 (1994), pp.211~214 참조)

#### <5> 원문통달 중심의 교육방법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 테제」에는 ① 깨우쳐 주는 교수 교양, ② 이론 교육과 실천 교육, 교육과 노동의 결합, ③ 조직 생활, 사회 정치 활동의 강화와 교수 사업과의 밀접한 결합, ④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결합, ⑤ 학교 전 교육, 학교 교육 및 성인 교육의 병진 등의 교육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방법을 매우 칭송하고 있다.

정규교육에서의 방법으로는 해설과 설복을 들 수 있다. 특히 사상교양에서 해설과 설복은 바로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나 잘 모르고 있는 문제들을 사리 정연하게, 알기 쉽게 해설해줌으로써 학생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옳은 길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본다.

둘째로, 긍정감화를 들 수 있다. 북한에 의하면, 청소년들을 교양하는 데 중요한 것은 긍정으로 부정을 이겨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속에서 모범적인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그 모범으로 모든 학생들을 교양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주장한다. 부정적인 것을 비판하고 과오를 행한 사람에게 체벌을 주는 것도 교양방법일 수 있지만, 광범한 대중을 교양하기 위하여서는 긍정으로 감화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들에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있는 영웅적 투쟁 사실들을 통해 학생들을 널리 교양해야 하며, 감동적인 산 실례들을 신문과 잡지를 통해 읽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모범을 따르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로, 외국어, 한문, 문학작품을 통한 교육의 측면을 보면, 문학작품을 통한 교육 방법은 6.25전쟁 때의 모습을 중·장편으로 엮은 소설이나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영화와 소설 같은 것을 통해 교양 할 것을 제시한다. 또한 과거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투쟁 이야기나, 을지문덕, 이순신과 같은 애국명장들의 전기 등을 통해 애국주의 사상을 교양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한 사람들이 한문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도 한문을 알아야 함을 강조한다. 외국어 또한 세계적인 범위에서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널리 교류하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인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다음으로 과외활동을 통한 교육의 측면을 보면 첫째로, 소년단, 사로청 생활을 통한 교양을 들 수 있다. 북한은 학생들에게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꾸준한 사상교양과 실천투쟁은 학교에서의 교수교양과 함께 반드시 정치적조직의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소년단, 사로청 조직생활은 먼저 학생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교원들이 학생들의 생활에 대하여 잘 통제하지 못하며, 가정에서도 학부모들이 다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과외생활을 잘 지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년단조직과 사로청조직밖에는 학생들의 과외생활을 책임지고 지도할 데가 없으므로 소년단, 사로청 조직들과 소년단지도원, 사로청지도원들은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학생들의 과외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도



하여야 함이 강조된다.

둘째로, 사회정치활동의 측면에서 청소년들을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는 것은 현실속에서 실천을 통하여 당정책의 정당성, 위대성과 조선의 구체적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배운 지식을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무기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학생들의 사회정치활동의 중요한 형식은 선전대활동, 좋은 일하기 운동, 다양한 형태의 과외활동(소조활동, 경연대회, 감상모임 등)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사회정치적 활동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내 사로칭, 소년단 조직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 <6> 주관식·암기식 위주의 평가

교수-학습 활동의 효과를 확인하거나 교수-학습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도 이런 의도에서 평가 활동을 중요시하고 있다. 북한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일상적인 학업 성적의 이해를 위한 평가 둘째, 주로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이루어지는 시험 셋째, 학업 성적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있다.

일상적인 학업 성적의 이해를 위한 평가는 학생들의 교수-학습 내용의 소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학습활동 과정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남한에서 수행하는 형성평가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러한 평가에는 담화를 통한 검열, 학습장을 통한 검열, 창작품을 통한 검열 등이 있다. 담화를 통한 검열은 교수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소화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담화를 진행하면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습능력과 학습태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북한의 학교 교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북한에서는 학생에 대한 시험부과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서는 교육과정에 의해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모든 교과목에서 일정 주기로 시험

을 치러 평가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다. 교육과정에 따라 개설된 교과에서는 반드시 시험을 통한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민학교 1~2학년에서는 어떤 교과목에서도 시험이 부과되지 않으며, 3-4학년의 경우에도 10개 과목 중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허용된 과목은 김일성·김정일 과목, 국어, 수학, 자연 5개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북한의 과정안은 학년별 그리고 과목별 시험시기를 명기하고 있다. 1986년의 과정안에 의하면, 자연교과에서 3-4학년 매학기에 실시하던 시험을 2학기에만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고등중학교의 경우, 수학에 대해서만 매학기 시험을 보고, 김일성과목과 특강, 국어 문학, 외국어, 물리, 화학 등의 과목에서는 2개 학기 중 한 번만 시험을 보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에서 학기당 시험과목 수는 3-6개 정도이다. 이처럼 시험 과목 수를 축소한 이유는 성적 경쟁이 가열되는 것이 북한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 달성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에서는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각 학교별 차이를 점검하는 ‘총평’이 1년에 한 차례 정도 있다. 시교육청 등에서 학교별 비교를 위한 시험(학과 경연)을 실시하기도 한다. 학과 경연은 보통 3개월마다 치르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아 ‘소조’를 조직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학업 성적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써, 시험을 포함하여 학과토론, 실험실습, 학과논문, 사회정치활동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학생의 학습활동과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참고로 하여 학생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적부에 학력점수와 생활점수를 병행하여 기록하고 있다. 학력점수는 5(최우등), 4(우등), 3(보통), 2-1(낙제)의 5단계로 기록하고 있으며, 생활점수는 모범/락후의 2단계로 기록한다. 제1단계(낙제)는 시험문제 가운데 한 가지도 답변 못한 경우(1), 제2단계(낙제)는 시험문제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답변 못한 경우(2), 제3단계(보통)는 시험문제 가운데 한가지를 답변하지 못하고, 두 가지를 완전히 답변한 경우(3), 제4단계(우등)는 시험문제 모두 답변, 그러나 시험관의 보충 질문

답변 못한 경우(4), 제5단계(최우등)는 시험문제, 시험관 보충질문 모두 답변한 경우(5)이다.

(곽병선의, 통일대비 교육과정 개발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8, pp. 67-68)

### <7> 제1고등중학교

제1고등중학교에 들어가려면 인민학교를 졸업했거나 현재 일반 고등중학교 재학생으로서 특히 과학·수학성적이 뛰어나야 한다. 물론 출신성분과 부모의 기반도 좋아야 한다.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만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시험은 웬만한 실력으로는 몇 문제 풀지도 못한다고 한다. 모집 정원은 400명 정도이다.

선발과정 못지 않게 교육과정도 체계적이고 철저하다. 한 학급은 25명 정도로 편성된다. 수업은 과학과 외국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1-2학년 동안 개개인의 지적 능력을 평가해 3학년 때부터는 학생들을 능력에 맞게 개별지도에 힘을 쏟는다고 한다.

교과서도 수재용으로 별도 제작된다. 교원들도 사범대학 출신이 아니라 김일성 대학, 김책공대 등에서 기초과학과 어학을 전공한 우수한 인력들이 선발된다. 교육기간은 일반고등중학교와 같은 6년이다.

학교 건물과 교육기자재를 비롯한 실험실습실, 기숙사, 수영장, 강당, 체육관 등은 최신식으로 꾸며져 있으며 교내에다 이발소까지 갖추고 있다.

최근 탈북한 북한 대학생들의 전언에 의하면 천재적 재능이 보이는 어린이는 특례 입학도 시킨다고 한다. 1993년 9월 여섯 살에 인민학교도 거치지 않고 남포 제1고등중학교에 입학한 전광석군이 그 대표적 실례라는 것이다.

이 어린이는 세 살 때 30분만에 한글을 깨우치고 다섯 살 무렵 인민학교 졸업생과 엇비슷한 실력을 보여 천재로 소문났었는데, 1994년 1월 김정일로부터 “훌륭한 학생이 되라”는 격려와 함께 ‘천필서한’까지 받을 만큼 영특했다고 한다.

제1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은 거의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김일성대학, 김책공대, 평양이과대학 등 북한의 일류대학에 입학된다. 이들은 1년 과정의 예과 과정을 거치지 않

는다. 바로 본과로 특례입학된다. 병역의무도 면제되고 해외유학의 특전도 보장된다.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1), 자료원, 1995, pp. 206-207)

#### <8> 혁명학원(수기)

나는 인민학교 4년 동안의 과정은 개성시 만월중학교에서 마치었다. 인민학교 4학년을 다니던 해 아버님께서 개성직할시 인민위원회 제1부위원장(직할시 제1부시장)에서 개성지구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승진하시었다. 남한에는 없는 기구인데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경제기획원 차관)급으로 각도의 경제를 기획관리하는 부서장인 셈이었다. 승용차도 소련제 뽀베다(승리)에서 불가(강이름)승용차로 바뀌었고 집도 안전원(경찰)들이 경비를 서는 큰 집으로 이사를 갔으며 공급대상 역시 3호에서 2호 대상(차관급)으로 올랐다.

인민학교 4학년 과정이 끝나가던 때였으니 1965년 2월달쯤 되었을 때, 나는 개성학생소년궁전에 갔다. 다른 학생들은 예비수험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독 나와 개성시 안전국장(직할시 경찰청장격)의 딸만이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과 아버지의 직장직위를 알아보고는 시험에 응시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시험응시과목은 국어, 수학, 역사, 음악, 암기(속셈) 등이었다. 개성직할시에서 200명이 모여 시험을 치렀는데 10명이 합격되었다. 예비 시험이 20대 1의 비중으로 치뤄진 셈이었다.

그로부터 15일이 지나 최종시험을 치기 위하여 평양으로 갔다. 시험장소는 평양의 국어혁명학원이었는데 이 학원은 평양시 대성구역 룡북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학원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학원생들이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마다에는 “혁명학원(혁명학원이라는 약자)이라고 쓴 배지가 달려 있었다. 나의 눈길을 끈 것은 그뿐이 아니었다. 모든 학원생들이 군대처럼 열을 지어 노래를 부르며 오가고 있었으며 인사도 군대처럼 군사경례를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에 완전히 매혹되다시피 하였다.

학원입학시험은 전국의 도, 직할시 예비시험을 통과한 4천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진행되었다. 또 다시 국어, 작문, 수학, 물리, 체육 등의 과목을 시험을 본 뒤에 인물심사

까지 하였다. 인물심사라는 것은 주로 암기력, 기억력, 집중력 등을 테스트하였고 노래를 불러보라, 걸어보아라 하며 40분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 시험이 끝나니 집으로 각자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3월 15일 기다리던 합격통지서가 날아왔다. 3월 25일까지 모든 수속을 끝내고 평양에 도착하라는 것이었다. 학원에 도착하여 보니 시험을 친 4천명중 80명만이 최종합격통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50대 1의 경쟁을 통과한 셈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원하던대로 프랑수어과에 들어갔다. 학급인원수는 10명, 박성철 당시 외무상의 아들부터 시작하여 모두 “차타는 집안”(차관급 이상이 북한에서는 관용차를 탄다)의 자녀들이었다. 학원은 기숙사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모든 학원생들이 기숙사에서 군복을 입고 군대식으로 학습하며 생활하도록 하고 있었다. 기숙사 생활은 1개 호실에 침대 4개와 옷장, 이불장롱이 갖추어진 고급방에서 진행되었으며 식사도 공동식당에서 하였다.

아침식사로는 러시아제 홀레브(검은빵)에 버터까지 나왔고 고기국도 나오는, 그리고 야식으로 과일과 과자 때로는 동독제 초코렛까지 공급하는 고급학교였다. 그러나 역시 13세의 어린소년이 속옷을 세탁하고 군복을 다려입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세탁소가 있어 큰 빨래는 그곳에서 집체적으로 해주었으나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닌데다가 학원생 대다수가 간부집안에서 고이 자란 ‘귀공자’들이었기에 더욱 힘들었는지도 모른다.

이 학원에서 빨래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군사식 생활방식 역시 너무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아침 6시 기상해서 저녁 10시 취침시간까지 모든 것이 군대 일과였다. 기상은 기상나팔로부터 시작되었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나팔소리가 바로 이 기상나팔소리였다. 학원생들은 이 나팔소리에 가사까지 붙였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았다.

“잘 잤건 못 잤건 일어나거라”

겸해 말하면 제일 기다리던 나팔소리는 식사나팔이었고 그 가사도 다음과 같았다.

“인민군댄 밥 먹고 미국놈은 똥 먹어라”

식사 나팔이 울리면 중대, 소대 하는 식으로 군대식으로 편성된 학년별, 학급별로

줄을 서 복장검열, 신체검열(손톱, 머리칼 길이 등)을 마친 뒤 노래를 부르며 식당앞으로 다가간다. 일단 대열이 멈춰서면 학생중대장이 상급학년 학생으로 임명된 ‘식당직일관’에게 보고를 한다.

“차렷, 식당직일관동지, 제1중대는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98명 정렬하였습니다.”

그러면 “식당직일관”이 “우측 1렬부터 식당앞으로 갓” 한다.

학과시간은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하여 하루 평균 6교시를 하였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집체적으로 축구를 하거나 스케이트를 타곤 하였다. 저녁시간 역시 집체적으로 보냈는데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복습시간”이라 하여 교실에서 집체적으로 예습을 하게 하였다. 여기에 빠지면 큰일이 난다. 찾아다니고 소동을 피웠다.

저녁 10시면 저녁점점 및 취침시간인데 매 학원생의 이름을 점호하였다. 학급에서 1명이라도 저녁점점에 빠지면 온 학급을 잠을 재우지 않았다. 온 소대, 중대가 이 ‘자유분자’, ‘날나리분자’를 찾아다녀야 하였다.

북한의 혁명학원들은 7년제로 운영이 되었다. 중학교 5년, 고등학교 2년이었다. 대수, 물리, 화학, 수학, 역사, 지리 등 일반과목들은 다른 중학교들과 거의 비슷하였으나 외국어와 군사학이 다른 데보다 강화된 수준에서 교육되고 있었다.

특히 외국어교육이 다른 학교들에 비하여 강의수도 많았고 교육시설도 훌륭하였다. 일제 소니녹음설비와 개인녹음기들이 설치된 외국어교육실이 있었고, 1967년경에는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AUDIO-VISUAL(시청각)교육설비가 갖추어졌다.

학원도서관에는 외국의 원문서적들과 사전들이 풍부하게 비치되어 있었고 그토록 통제하는 외국의 신문 잡지까지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또 있었다. 우리가 학원을 다닐 때 여러 명의 외국인 교수가 외국어를 직접 가르친 것이었다. 프랑스어 같은 것은 월남인 교수가 교육하였는데 이 교수는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다. 러시아인, 중국인, 일본인까지도 호텔에서 숙식하며 1~2년씩 교대로 외국어를 교육하였다.

특히 러시아어와 중국어과 같은데서는 영화에 의한 교육을 많이 하였다. 북한에서

는 외국영화라면 러시아와 동구, 중국영화밖에 돌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나라 영화들이 많았다. 프랑스로 된 프랑스 영화를 본 기억은 “장 잘장(장발잔)”과 “보쑤(꼭추)”등 몇 가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한같은 사회에서 일본 영화나 프랑스 영화 같은 것을 본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었다.

부모들이 소위 혁명가이거나 간부들인데다 군복까지 입고서 들이 보지 못하는 외국영화까지 보는 특수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졸업하면 대학입학은 자동적이며 외교관이 된다는 의식까지 합쳐 학원생들의 소위 엘리트의식은 매우 강하였다.

우리는 일반중학교나 고등중학교 학생들을 깔보고 비웃었으며 또 일반학교 학생들도 학원생들과 마주서기는 커녕 부러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조였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전국중학교 축구경기대회에 학원이 출전하여 준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상대는 평양시에 있는 어느 한 일반학교였다. 경기도중 심판이 학원편을 들어준다고 열이 난 상대측 학교 선수가 학원 공격수의 발을 거의 고의로 까버렸다. 이에 흥분한 학원생들은 경기가 끝나자 상대측 학생들이 귀가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무더기로 패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그 학교 학생들이 학원생들을 보복하였고 그 다음날 급기야 두학교 사이의 집단 패싸움으로 크게 번지었다. 안전원(경찰)들이 패싸움을 진압하였는데 상대측 학교학생들만 거의 50명을 잡아갔다. 학원생들은 빨건줄이 간 군복을 입고 있는 혁명학원생들이라 한 명도 잡아가지 못한 것이다. 학원의 위상은 더 높이 올라갔다.

(고영환, “정예교육을 위한 최고의 시설, 혁명학원체계”, 한만길역음,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 우리교육, 1999, pp.99-113)

#### <9> 북한의 선택과목교육용 교과서 발행

북한의 교육도서출판사에서 새 학년도부터 처음 실시되는 ‘선택과목교육’을 위한 교과서를 발행했다고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보도했다. 북한은 새 학년도인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의 고등중학교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선택과목교육을 실시키로 지난

99년 결정했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서는 농업관련 교육을, 어촌지역은 수산업 관련 교육을, 산간지역에서는 임업관련 교육을, 경공업공장이 집결돼 있는 지역에서는 경공업 관련 교육을 각각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위성중계된 중앙TV는 이날 선택과목교육의 실시가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지난 99년 5월5일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통교육부문의 교과서 및 참고서를 발간하는 평양의 교육도서출판사에서는 최근 광업, 기계, 임업, 식료, 피복, 약전 등의 고등중학교 6학년 교과서를 우선 펴냈다고 중앙TV는 전했다. 중앙TV에 따르면 △광업교과서에는 광산·탄광에서의 광석 및 석탄 생산공정 관련 지식이 △기계교과서에는 기계제작공정이 △임업교과서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 가꾸고 키운 다음 벌목·가공하기까지의 공정 등이 각각 담겨져 있다. 또 △식료교과서에는 식료품 생산의 기초원료와 간장·된장·당과류 등 기초식품생산 공정이 △피복교과서에는 옷을 만드는 방법이 △약전(弱電)교과서에는 약전재료, 회로구성, 텔레비전, 전자시계 등과 같은 약전기계에 관한 기초지식이 각각 들어있다. 중앙TV는 학생들이 이러한 과목을 배우면 거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정한 기초기술 지식을 소유하고 사회에 나가 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도서출판사 종업원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과서, 과외도서, 참고서 등을 학생들의 연령과 취미에 맞게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중앙TV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1. 3. 16)



## 나. 북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활할까?

### (1) 학습목표

(가) 북한 청소년들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가진다.

(나) 북한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 모습을 통해 우리와의 공통점과 다른점을 알 수 있다.

### (2) 교수-학습 모형 :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sup>29)</sup>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은 일반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정형화된 모형을 창출하기가 힘들다. 그것은 학년(초,중,고), 교과목, 단원, 학습환경에 따라서 많은 변인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은 첫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법과, 둘째, 수업시간에 필요한 내용만을 그때그때 불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홈페이지 속에 디지털화된 학습지가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다른 학교와 상호교류 속에 서로의 자료를 공유할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이 web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그룹웨어에 의한 Interanet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는 WBI(Web-based Instruction) 중심으로 수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 인터넷 활용의 교수-학습 모형

일반적으로 인터넷은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열린 사고, 실제적 수행능력,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도모하는데 적절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학습자가 학습내용 설정과 방법 모색에 있어 자기 주도적, 구성적 활동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

29) 이채연 교수의 웹교수 학습방: <http://lotus.silla.ac.kr/~lcy/syber-younsu3.htm> '98 경남 교원연수원 "인터넷 일반연수 과정"의 교안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 학습에 있어서도 인터넷의 특성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수업에 투입되는 것이 좋다.

1) 과제의 성격 : 구조화된 문제, 비구조화된 문제

학습과제는 구조화된 문제와 비구조화된 문제가 있는데 단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구조화된 문제는 개념이나 원리의 적용을 요구하는 문제로 초기의 상태가 잘 정의되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대부분 교과서에 나오는 응용문제나 단순한 적용문제들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비구조화된 문제는 문제와 관련된 상황이나 요소가 잘 정의되어 있지 않고, 문제 상황이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와 같은 맥락이지만, 일상 생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흥미있고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것이다.

2) 교수학습 형태 : 개별학습, 협동학습, 상호작용학습

개별학습은 학습자 개개인이 동일 과제를 각각의 문제해결 방식으로 수행하는 방법이다. 가령 교사는 같은 주제를 구성원들에게 제시하고 학습자는 주어진 과제를 자신의 능력에 맞게 풀어나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숙제(리포트)가 여기에 포함된다

협동학습은 학습자가 소집단을 구성하여 구성원간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방법이다. 협동학습은 서로의 협조와 도움을 통해 학습성취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협력적 경험을 통해 사회적 정의적 협력기술이 발달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와 유사한 형태의 학습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상호작용 학습은 개개인이 공동의 주제를 두고 학급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가령 교사가 특정한 주제를 제시하면 학습자는 각각의 인지적, 정의적 판단에 근거하여 과제해결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모두가 공유하는 방

식이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글쓰기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 3) 교수-학습모형 : 자원기반 학습모형

인터넷을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으로는 자원기반 학습모형(Resource Based Learning)이 있다. 자원기반 학습모형은 집단 교육의 상황에서 계획된 학습 자원과 상호작용 미디어, 기술의 통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통합된 전략들을 말한다.

이 모형은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과제나 교육내용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보다 증대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학습모형으로써 '정보확인 → 정보수집 → 정보분석 → 정보사용 → 결과 발표'라는 다섯 단계의 탐구수행 과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탐구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정보활용능력을 배양하는데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인터넷 매체언어의 교과 활용은 단원의 성격과 목표, 학습내용, 학습형태 등을 고려 하되 인터넷의 특성과 부합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넷, 매체언어, 활용, 교수-학습 모형은 '과제제시 → 자료생성(언어정보탐색, 언어정보분석, 언어정보산출) → 자료공유'의 절차모형에 따라 이루어진다.

① 과제제시의 단계 : 교사는 단원의 성격이 인터넷의 활용과 부합되는 지를 판단하고 과제의 성격(구조화된 문제, 비구조화된 문제)에 따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한다. 또한 과제의 수행이 개별학습, 협동학습, 상호작용학습 중 어떤 형태에 더 적합할 것 인지를 결정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형태에 따른 목표분석 및 전략을 설정하게 한다. 또한 학습과제의 양과 수행에 필요한 시간의 적절성 여부와 학습수행을 어떤 공간(교실/교실 밖)에서 할 것인지도 미리 제시한다.

② 자료생성의 단계: 자료 생성은 정보탐색, 정보분석, 정보산출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정보탐색 단계에서는 언어정보의 검색과 수집 그리고 자료출처를 기록하고 정보분석 단계에서는 취득자료의 분류 비교를 한 뒤 미흡한 부분은 교사와의 상담이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보완한다. 정보산출 단계에서는 언어자료를 재구성하여 문

제가 해결된 언어자료로 조직하고 발표에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웹 문서로 제출한다.

③ 자료공유의 단계: 교수-학습의 중점을 자료 공유에 두고 학습자들이 생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토의과정을 갖는다. 학습자는 생성된 자료를 발표하고, 교사는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학습자-학습자, 교사-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로 정리한다. 이 과정은 학습자로 하여금 인터넷 매체언어의 풍부한 자료성과 사회적 맥락성을 경험하게 하고 자료의 잠재적 생산자의 위치에 설 수 있게 한다.

#### (나) 본시 수업모형 활용의 유의사항

1)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 방법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형식적인 수업으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사전 모듬 활동의 근거를 체크하고 모듬별 컴퓨터 활용 능력을 평준화시켜야 한다.

2) 컴퓨터실 활용의 유의사항을 숙지시키고 모듬별 주제에 맞는 자료 탐색을 위주로 진행이 되도록 학생들을 지도한다. 탐구 자료 결과를 일회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연속적인 활동을 통해 추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멀티미디어 자료로 작성)

3) 결과물을 회람하여 다른 모듬의 활동을 서로 평가하고 자신들의 활동과 비교하여 참조가 되도록 한다

4) 발표는 바로 진행해도 되나 될 수 있으면 컴퓨터실에서의 발표회를 통해 서로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평가의 기회를 부여한다.

## (3) 교수-학습 과정안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학습상기</li> <li>○ 학습동기유발</li> <li>○ 학습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교육과정에 대해 발문한다.</li> <li>○ 북한 학생의 생활을 찾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제시한다.</li> <li>○ 멀티스크린으로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에 대답한다.</li> <li>○ 교사가 제시한 사이트를 찾아 본다.</li> <li>○ 학습목표를 경청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퀴즈수업 문제를 이용한다.</li> <li>○ 참고자료&lt;1&gt;</li> </ul>
전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구주제 부여</li> <li>○ 웹서핑으로 주제 탐색</li> <li>○ 북한고등중학교 학생들의 생활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구 주제를 제시한다</li> <li>·남북한 학생들의 하루 일과를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보기</li> <li>·우리의 학기와 북한의 학기를 비교해 보고 방학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보기</li> <li>·북한 학생의 시험을 묘사하고 불량청소년의 모습을 찾아보기</li> <li>·북한의 야간 자율 학습 모습을 예상해보고 실제의 모습을 조사하기</li> <li>○ 탐구주제별 학습자료를 모듬별로 제시한다.</li> <li>○ 결과물을 통해 예상한 북한 학생들의 모습과 비교하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구주제 중에서 적절한 주제를 선정한다</li> <li>○ 웹서핑을 통해 해당 학습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해결한다.</li> <li>○ 결과물을 정리하며 예상과 비교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실 사용시 주의 사항을 주지시킨다</li> <li>○ 탐구주제를 모듬별로 골고루 배분하도록 한다</li> <li>○ 교사는 웹 활용 실태를 모듬별로 수시로 확인한다</li> <li>○ 학습자료&lt;2,3,4,5&gt; 제시</li> <li>○ 시간내에 모듬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ul>
발표 및 정리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li> <li>○ 정리</li> <li>○ 차시 학습예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학습자료를 모듬별로 발표를 시킨다</li> <li>○ 발표내용을 토대로 북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정리해준다.</li> <li>○ 북한학생들의 과외 및 여가생활에 대한 탐구과제 주제를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듬 대표가 발표한다.</li> <li>○ 북한 청소년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해한다.</li> <li>○ 모듬별로 탐구과제 주제를 선택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못된 조사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교사는 미리 탐구과제 주제를 준비하도록 한다.</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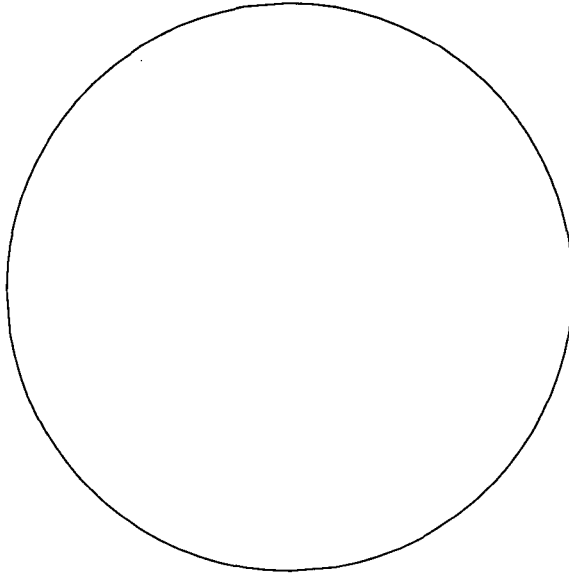


<2> 남북한의 학기를 비교해 보고 방학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보기

남한의 학기 제도		북한의 학기 제도	
월	내용	월	내용

♠ 북한의 방학생활 계획표 만들기

\* 나는 평양고등중학교 4학년이다. 방학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보자



<3> 북한 학생들의 모습 묘사하기

시험모습 예상하기	실제 시험 모습 조사하기
모듬원1 :	
모듬원2 :	
모듬원3 :	
모듬원4 :	
모듬원5 :	
모듬원6 :	
모듬원7 :	
분량청소년에 대해 예상하기	유급, 퇴학에 대해 조사하기
모듬원1 :	
모듬원2 :	
모듬원3 :	
모듬원4 :	
모듬원5 :	
모듬원6 :	
모듬원7 :	



## &lt;4&gt; 북한의 야간자율학습 비교하기

	남한의 고등학생 자율학습	북한 고등중학교생 자율학습
참여율		
시간		
공부하는 내용		
감독여부		
기타		

### (5) 참고자료

#### <1> 북한 우수학생들 청진시로 수학여행

북한 각지의 우수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이용, 함경북도 청진시로 수학여행을 가 '혁명사적지', 산업시설 등을 견학하고 있다고 평양방송이 25일 전했다.

21일부터 시작된 이번 수학여행에는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학생 '수백명'이 참가하고 있다.

방송은 학생들이 직삼·염분 등지를 비롯해 함경북도 곳곳에 있는 '혁명사적지'를 돌아보고 '3대장군(김일성 주석,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김 총비서의 생모 김정숙)의 업적'을 되새기는 한편 김책제철연합기업소, 6월5일 전기공장 등 산업시설을 돌아보며 현장체험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석암소년단 야영소에서 수학여행을 하게 된 평양시 학생소년들이 지난 기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1. 8.25.)

#### <2> 고등중학교 교육과 일과

고등중학교는 6학년제인데, 남한의 초등학교 4학년 또는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한다. 대개 한 학년에 4-5학급이 있고 한 반은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90년대부터 남녀공학이 되었다고 한다. 이 시기는 의무교육기간으로 되어 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아침 7시에 집 주변의 일정한 장소에 모여 집단으로 행진하면서 등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때 담임 선생님이 그 장소에 오기도 하고, 반장이 출석 점검을 하기도 한다. 개별 등교는 불허하고 있다. 4열 종대로 줄을 맞추어 노래 부르면서 학교에 등교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규칙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이러한 관행은 지속적이며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 때 학급 반장이 학교까지의 행진을 인솔한다. 이러한 집단등교를 통해서 학생들은 가정을 벗어나면 반드시 집단주의 방식

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운용의 기본원리를 체득한다.

학교 정문에 도착하면 정문검열이라는 의례를 거쳐야만 한다. 고등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소년단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소년단 간부가 나오고,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사로청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사로청 간부가 담당한다. 그러나 대개 소년단 간부와 사로청 간부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사람이 두 조직을 대표하기도 한다. 정문 검열에서는 먼저 인원을 점검하고, 옷차림, 위생상태, 김일성 초상 휘장 착용 여부 등을 검열한다.

정문검열이 끝나고 학교 정문에 들어올 때에는 노래 “김일성 대원수 만세”, “사회주의 지키세”, “인민군가”, “적기가” 등 김일성 찬양 노래와 정치적 내용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리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면서 김일성을 그린 대형 유화 앞에 도착하게 되면 집단으로 만세 삼창을 외친다. 대개 그 내용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만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만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만세”이다. 그런데 1992년부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원수님 만세”로 그 구호가 변화되었다고 한다.

만세삼창 후 학생들은 곧장 교실로 들어간다.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김일성 초상화에 대한 ‘정성사업’이다. 학급 사상부위원장 학생이 앞에 나서서 ‘차렷’을 외치면 모든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김일성 초상화를 향해 똑바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 학급 사상부위원장은 교탁 위에 올라서서 김일성 초상화에 묻어 있는 먼지들을 ‘정성걸레’로 깨끗이 닦는 의식을 치른다.

정성사업이 끝나면 독보행위가 약 20-30분 진행된다. 독보내용은 김일성, 김정일 숭배정신을 가르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항일 빨치산 회상기’, ‘인민의 지도자’, ‘김일성 선집’, ‘김정일 전집’ 등 김일성, 김정일에 관한 저서들에서 발췌하여 그날 그날의 독보내용을 구성해 낸다. 최근에는 김일성 회고록이 독보내용의 중점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끝나면 아침 모임이 진행된다.

7시 40분에 종소리가 울리면 모든 학생들은 학교운동장에 총집합 한다. 운동장에서 그날의 일과와 전달사항을 듣고 학교 내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에 대한 주의를 듣는

다. 또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하루의 정규 수업시작은 아침 8시부터이다. 한 시간 수업은 45분을 기본단위로 하며, 10분간 휴식시간을 갖는다. 8시부터 시작하여 1교시가 8시 45분까지 진행되며, 10분 휴식하고 이어서 5교시까지 오전수업으로 진행한다. 12시 30분이 되면 점심식사 시간이며 6교시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점심을 먹기 위해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도시락을 싸오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집에 가서 점심을 먹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5분 거리의 집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심을 집에서 먹는다.

오후 수업이 2시부터 시작되어 2시 45분에 끝나며 그날의 정규 수업 시간을 모두 마치게 된다. 그러나 수업이 끝났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3시부터는 교무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새로운 환동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학교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다. 즉 교무부에서 작업지시나 농총동원 지시가 떨어지면 작업을 하거나 농총동원을 위해 주변 농촌에 나가서 일해야 하며,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교실에서 자체복습을 하게 된다. 복습을 하는 날에는 오후 6시에 귀가를 할 수 있지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는 대개 저녁 8시에 귀가한다. 이때까지 학생들은 저녁을 먹지 못하며 노력봉사 활동에 참여해야만 한다.

특정한 봉사활동이 계획되지 않은 날에는 정규 수업시간이 끝난 후에 방과후 학습 반실에 모여 집단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공부가 끝난 후 거의 모든 과외활동을 학교에서 진행하며 그것도 학교와 학생조직의 엄격한 계획 아래 집단적으로만 진행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과외활동으로는 학급별 집체학습, 수학, 물리, 체육, 미술 등의 각종 소조활동, 나무심기, 토끼 기르기, 고철수집 등의 ‘좋은 일하기 운동’, 학교나 학급간에 벌어지는 각종 경연대회, 김일성, 김정일 어린시절 따라 배우기와 사적지, 전적지 답사, 집단체조 및 설맞이 공연과 같은 국가행사 참가 등이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일 대비 북한 중등학생의 정치사상 교육 방안 연구, 1998, pp.94-96; 민성길, 통일과 남북청소년, 연세대출판부, 2000, p. 69)

### <3> 학사 운영

#### <자료> 고등중학교 교육활동 기간

학년	수업 주수	시험 주수	현행당정책 수업주수	실습 주수	견학 주수	붉은청년근위대 훈련주수	생산노동 일수	방학 일수
1	36	2					30	53
2	36	2					30	53
3	36	2					30	53
4	32	3	1				45	53
5	29	3	1	2	1	(1)	45	53
6	25	3	1	3	(1)	1	60	53
계	194	15	3	5	1	1	240	298

#### <자료> 고등중학교 주별 학교운영 계획 및 일정

월	1~6학년까지 6시간 수업진행 교원(사상교육 학습), 학생(자학습)
화	1~6학년까지 6시간 수업진행 분과 운영의 날(분과별로 교재토론회) 과외복습, 과외체육(담임지도)
수	1~6학년까지 6시간 수업진행 각 과목 소조운영의 날(과목담임지도), 가정방문 과외복습, 과외체육(담임지도)
목	1~3학년까지 2시간 수업, 4~6학년까지 4시간 수업진행 소년단, 사로청원의 날(담임 사상교양사업) 과외복습, 과외체육
금	1~6학년까지 6시간 수업진행 분과운영의 날(시범수업 참관 및 교수문건 비준) 대청소 진행
토	1~6학년까지 6시간 수업 진행 주총화(주간에 있는 사업진행전형, 교원들만 총화) 과외복습, 과외체육(담임지도)

(여금용, "사상교양과 자유조직이 공존하는 고등중학교", 한만길 엮음,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 우리교육, 1999, pp. 68-70 참조)

#### <4> 김일성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로청)

사로청은 청년들의 정치조직으로서 15세 이상의 남녀 청소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고등중학교 시절 15세 때 가입하게 되는 사로청은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선봉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외에 쉬임없이 ‘생활총화’, 증산노력 투쟁, 노력지원 전투 등을 추진한다.

사로청 조직은 사로청 중앙위원회, 도급 사로청 위원회, 시급 사로청위원회, 군급 사로청 위원회, 리급 사로청 위원회, 각 단위 사로청 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사로청 지도원의 지위는 교장, 부교장 다음 위치이며, 학교 내 학생교양사업과 과외활동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지도한다.

사로청원들의 조직생활은 각 단위의 사로청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단위 사로청 위원회는 사로청 위원장과 부위원장(조직담당, 사상담당) 2명, 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보통 30명에서 40명의 사로청원을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사로청에는 15세부터 30세까지의 남녀가 망라되어 있다. 그리고 사로청이 끝나는 39세 이전이라도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39세가 되어도 입당하지 못하면 남자는 조선직업동맹에, 여자는 조선여성동맹에 자동적으로 소속된다. 사로청 생활 기간 중에 입당하지 못하면 이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로 여겨지며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가급적 어린 나이에 입당하려고 애를 쓴다.

사로청 가입은 의무적이며 자동적이다. 즉 소년단 조직생활을 마치게 되면, 남녀가 전부 사로청에 가입하게 된다. 사로청 가입 절차는 소년단보다 간소하다. 사로청 가입 희망자들이 조직 책임자들과 지도원들이 보는 앞에서 소년단의 붉은 넥타이와 뱃지를 떼고 사로청 맹원증과 뱃지를 수여 받은 후 김부자의 대형 초상화 앞에서 충성의 선서를 다진다. 사로청에 가입한 다음날부터 사로청 규약을 암기해야만 한다. 사로청 입단 맹서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조선 사회주의 노동청년 동맹원으로서 항상 조선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에게 무한히 충직하며 혁명선배들처럼 일하고 배우며 조국의 통일 독립

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중국적 승리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울 것을 맹서합니다.”

이 조직은 매월 1회 이상의 정규 집회를 갖는 것은 물론 연간, 월간, 주간, 분기별 사업계획을 중앙조직에서 수립하여 집단활동을 전개한다. 사로청 조직원들은 언제나 당의 사상으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기 위하여 학습을 생활화해야 하며 주 단위로 혹은 월 단위로 자신의 생활을 조직에 숨김없이 총화, 보고하는 것은 물론 다른 동맹원들의 잘잘못까지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

사로청 생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주 동맹생활 총화’이다. 이것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있는 정기적인 행사로서 그 주간의 생활에 대하여 조직원들 모두 앞에서 보고하고 평가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금부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마련해 주신 주 동맹생활 총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동무부터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 조직원 앞에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자신의 생활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 한 학생도 빠짐없이 일어나 2-3분 동안 자기의 한 주 생활을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교시에 비교하면서 자기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다른 학생의 잘못을 비판해야 한다. 이를 호상비판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은 학생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김일성, 김정일 이데올로기로 평가하고 비판해 감으로써 정치사상의식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사로청에서는 분단위원회별 학과 성적 평가 대책을 수립하며, 주 월 분단별 초급단체별 공산주의 도덕 향상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좋은 일하기 운동, 열성자 학습반 운영 및 과외복습 정형, 과외활동(거리가창대, 규찰대활동, 소년예술선전대 활동) 총화를 주도적으로 실시해 나간다. 결국 사로청 활동이 북한 중등학생의 일상생활 전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일 대비 북한 중등학생의 정치사상 교육 방안 연구, 1998, pp. 98-100)

## 다. 과외 및 여가 생활은 어떠할까?

### (1) 학습목표

- (가) 북한 청소년들의 과외활동과 놀이문화를 이해한다 .
- (나) 북한 청소년 문화 생활의 장단점을 알고 설명할 수 있다.

### (2) 교수 학습 모형 : 집단 탐구 학습

- (가) 집단탐구 학습 모형(80-83쪽 참조)

- (나) 본시 수업모형 활용의 유의사항

본 집단탐구 학습 형태는 교사의 세심한 주의가 성공의 관건이 된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일종의 중재자라는 생각으로 관찰과 기록을 주의 깊게 하며, 탐구활동의 극대화를 위해 과정상의 위험부담을 제거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 1)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한두 개의 질문만을 제시해야 하고 교사가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2) 학생의 능력과 흥미 수준을 고려하여 탐구 과제를 제시한다.
- 3) 학생들과 탐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 4)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떤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창안해 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와 기회를 주어야 한다.
- 5) 탐구주제는 전시에 미리 제시하여 학생 스스로 관련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되 교사도 충분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6) 집단을 구성할 때 교사는 미성숙한 학생과 고립되어 있는 학생, 그리고 학급의 지배적인 특성집단도 고려하여야 한다.
- 7) 각각의 탐구집단(소그룹)이 탐구 목표를 제대로 추구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 8) 교사는 학생들이 탐구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자, 지원인사, 상담자, 혹은 자문인사로 활동해야 한다.
- 9) 소그룹별로 모든 학습자가 전원 참여하여 전원이 사고(思考)하고 탐구하도록 지도한다.
- 10) 집단탐구 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교사는 성급하게 결론을 도출시키려 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기다리며 학생의 힘으로 탐구하여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 11) 집단탐구 학습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학생 측면, 교사 측면으로 나누어 수행할 필요가 있다.



(4) 학습자료

<1> CD 자료

제목 : 북한의 만화, 북한만화영화의 특징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00통일교육지도자료, “대립에서 화합으로”, (2000)  
분량 : 북한의 만화(1분), 북한만화영화의 특징(3분 30초)  
주제 : 북한의 만화영화  
줄거리 : 북한 만화의 제작 현황과 애니메이션의 특징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2> 선수 탐구학습 주제

- 1모듬:북한 청소년들은 과외활동을 어떻게 하나
- 2모듬:북한 청소년들도 컴퓨터를 많이 사용할까? 오락게임도 있을까?
- 3모듬:우리처럼 팬클럽을 만들고 열광하는 연예인이 있을까? 오빠부대는?
- 4모듬:북한에도 청소년이 즐길만한 노래방은 있을까?
- 5모듬:북한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만화영화는?
- 6모듬:북한 청소년문화에도 서구식 문화가 영향을 주고 있을까?

<3> 탐구활동 기록지

학 년	반	모듬명
탐구주제		
탐구내용		
모듬의견		
결론		

## (5) 참고자료

## &lt;1&gt; 과외활동

고등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방학을 했을 때 집에서 집안일을 도우며 지낸다. 간혹 여름철에는 해수욕을 가고 겨울철에는 스케이트 등을 타러 가지만, 방학 중에도 각종 노력 동원이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수시로 소집을 하기 때문에 자주 가지는 못한다. 방학 중에 먼 곳에 있는 친척집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담임 선생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허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몰래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적발되면 엄한 벌을 받는다고 한다.

학교에서의 과외활동은 학생 동원 지시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많다. 동원 지시가 있을 때에는 농촌에 나가 옥수수 껍질까지, 옥수수 영양단지 심기, 김매기, 모내기 등 농촌지원 활동과 학교 내의 작업으로 일관된다. 간혹 고급 당 간부들이 왕래할 때에는 학생들이 구역마다 배치되어 도로 청소 등도 책임지는데, 도로 청소는 일차 비로 쓸어낸 후 물로 씻고 마무리한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시키니까 과외활동이란 명분으로 말없이 수행하지만 학교에서 지나치게 학생들을 동원해서 꾀은 일을 시키기 때문에 원성과 불평이 따른다고 한다.

특별한 동원지시가 없을 때는 달리기·체조·군중무용 등 주로 체육경기로 과외수업을 하고, 기타 분야별 학습활동도 자주 한다고 한다. 분야별 학습활동은 학과목 연구, 예능소조, 독후감 감상 발표회, 영화감상회, 혁명전적지 답사, 창작발표회, 시낭송회, 미술전람회, 담화회, 전투영웅과의 대화 등인데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 2개 정도는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그러나 분야별 과외활동은 학교마다 편차가 많고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몇 개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기 마련이다.

그 좋은 예가 소위 '수령연구실' 활동이다. 이 연구조에 참가할 수 있는 학생은 우선 출신성분이 좋아야 하며 정치생활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고 학습에 뛰어나야 한다.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1), 자료원, 1995, pp.176-177)

## <2> 과외활동 수기

### ① 교과별 소조활동

소조활동은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한단계 발전한 집체학습이라고 볼수 있다. 내가 다니던 시골 학교에도 수학소조, 물리소조, 미술소조, 음악소조, 체육소조 등 각 과목 별로 10여개의 소조가 있었다. 주로 실험실이나 음악실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되며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므로 흥미도 있고 자부심도 있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도 고등중학교 3학년때 수학소조에 들었는데 공부하는 수준도 높았고 다른 학교와 수학경연을 해도 지지 않았다.

미술소조원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하기도 했고 물리소조원들은 라지오도 만들어보고 체육소조원들은 하루종일 운동장에서 축구나 배구, 농구를 하며 미래의 전문가들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집체학습이나 소조활동같은 학생실력 제고를 위한 과외활동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다른 일 때문에 자주 뒷전에 놓였던 기억이 난다.

### ② 좋은 일하기 운동

북한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들에서 활발하게 벌어졌던 좋은 일하기 운동은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여러가지 사회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지덕체를 겸비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는 김일성의 발기에 의해 인민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소년단조직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대중적인 학생운동의 하나이다. 토끼 기르기 운동이 그중 하나다. 지금은 그리 떠들지 않지만 내가 학교 다니던 60년대 말 70년대 초에는 이 운동이 대단했다. 모든 학교마다 학생들의 힘으로 수백 수천평 크기의 토끼사를 지었고 한 학교당 수천 수만 마리의 토끼를 길러 나라에 바치곤 했다.

그때는 공부가 끝나면 모두가 토끼 키우는데만 정신이 팔려 있을 정도였다. 매일 아침에 등교하면서도 모든 학생이 토끼풀을 헤가야 했고, 1~2명의 그날 당번은 수업에도 참가하지 않고 토끼우리에 나가 풀을 주고 청소도 하며 토끼를 돌보아주곤

했다.

토끼기르기 운동은 학교에서의 집체적인 운동외에 매 가정집에서도 경쟁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집에도 30여마리 이상이나 되었으니 나도 공부는 까맣게 잊고 매일 토끼와 씨름을 하며 살았던 기억이 난다. 매일같이 토끼장을 만들고 땅굴도 파주고 새끼도 받으며 한마리 한마리 늘어나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몰랐다. 다 큰 토끼는 학교에 바치기도 하고 가족만 모았다가 바치기도 했는데 많이 하는 학생들에게는 표창장도 내주었다.

### ③ 수매운동과 외화벌이 운동

수매운동은 아마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규모도 가장 큰 좋은 일하기 운동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매운동은 파철(고철), 파동(구리), 파종이, 파고무, 파병, 파비닐 등 각종 낡은 재생용 자재들과 개가죽, 토끼가죽, 닭털, 오리털 등의 1차 공업용 산품들, 그리고 도라지, 고사리, 더덕 등 각종 산나물로 수집해 바치는 일종의 애국 운동이라고 할수 있다.

그 중에서도 파철모으기 운동은 매 학생별로 경쟁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매주, 매달 계획과제가 주어져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경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곤 하였다. 공부가 끝나면 산과 들을 헤매며 파철을 주어 모으고 건설장의 굴착작업장에도 예외 없이 찾아 다녀야 했다. 낡은 콘크리트속에 박힌 철근도 함마로 깨부수고 빼내곤 했으며, 심지어는 철로 만든 손수레, 철로 된 울타리 까지 건어다 바치는 일도 있었고, 일부 학생들은 집에서 쓰는 철가마(철 밥솥)를 훔쳐다 바치거나 도로의 상하수도 구멍을 덮어놓은 뚜껑도 훔쳐가곤 했다.

1년에 보통 20~30킬로그램, 많을 때는 100여 킬로그램씩 모아바치고 1킬로그램당 5~10전 정도씩 받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전국의 학생들이 이렇게 모은 돈으로 해마다 소년호 전기 기관차나 소년호 땅크 등을 만들어 국가에 헌납하곤 한다.

외화벌이 운동도 수매운동의 변화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내가 학교에 다니던 70년대 전후만 해도 증산, 절약차원의 수매운동이었으나 80년도 이후부터는 그 내용

도 많이 달라졌다.

좋은 일하기 운동이 외화벌이운동으로 바뀐 셈이다. 김정일이 국가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던 80년대부터 전당, 전국이 외화벌이에 떨쳐나서게 되었고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때부터 동(구리), 금, 은과 같은 귀금속들과 개가죽, 오리털과 같이 외국에 내다 팔 수 있는 모든 것이 수매 대상이 되었다. 수십 종류의 수매품들이 파운드(영국 화폐 단위)로 환산되어 1년에 몇 파운드씩 과제가 주어졌다. 이때부터 파철이나, 파종이같은 수매운동은 뜸해지고 외화가 되는 수매품이 주종을 이루면서 이 운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표창도 주고 소정의 선물도 주곤 했다.

#### ④ 사상개조를 위한 과외활동

북한의 학교들에서 진행되는 과외활동은 70년대 중엽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면서 정치적 성격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치적 성격을 띤 과외활동들은 70년대 이후 김정일이 정치에 나서면서 부터 폭발적으로 많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부터의 과외활동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과외활동이라기 보다는 학생들 모두를 김일성과 김정일의 충신으로 만들기 위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사상개조 운동이었고 철저히 상급당의 지시에 따라 치밀하게 진행되는 조직생활이었다.

강제적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실력을 높여주던 집체학습과 소조활동, 여러가지 좋은 일하기 운동들이 점차 과외활동에서 사라져가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새로운 형태의 과외활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수많은 과외활동 중에서도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것은 해마다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을 맞으며 진행되던 여러가지 행사들이다. 공부는 아예 잊어버릴 정도다.

한두달 전부터 각 학급별로 1차 2차 예선을 거쳐 전교적으로 10여종목을 선출해 학교적인 기념예술공연을 하는 것이다.

재능같은 것은 안중에 없고 분위기 조성파 충실성 배양의 목적으로 진행되므로 누구도 빠지거나 출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무조건 참가해야 한다. 그래서 음악 경연대



회, 미술 경연대회, 체육경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계획되고 추진된다.

생활총화와 충성의 선서모임도 새로 나타난 학생활동의 대표적 실례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담임교사를 모시고 소년단 또는 사로칭 조직생활총화가 진행된다. 한 학생도 빠짐없이 차례로 일어나 2~3분 동안 자기의 한 주 생활을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교시에 비교하면서 자기비판을 하고 다음은 반드시 다른 학생의 잘못을 비판해야 한다.

생활총화에서 비판하는 학생들의 잘못이란 기껏해야 공부시간에 졸았다든가, 숙제를 질적으로 못했다든가, 옷차림을 단정히 하지 못했다든가 등의 단편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항상 누구의 감시 속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별 것도 아닌 잘못으로 대중 앞에서 비판을 받고 망신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싫은지 모른다.

학교창립일이나 국가적인 명절, 일요일 등 하루 쉬고 출근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충성의 선서모임을 한다. 물론 과외활동은 아니지만 엄격한 정치생활의 일부임에는 틀림이 없다.

김일성, 김정일의 어린 시절을 따라 배우는 운동이 또한 최근까지 벌어지는 과외활동 중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공부가 끝나면 학급별로 지정된 시간에 학교마다 몇개 방씩 최고급으로 꾸려놓은 김일성 원수님 혁명사상 연구실, 김정일 선생님 혁명력사 연구실 등에 들어가서 학과목과는 별도로 정치사상학습을 한다.

지금도 100여 페이지나 되는 김일성 원수님의 략력을 한글자도 빠짐없이 외웠던 일이 생각나 혼자서 웃곤 한다.

김일성, 김정일의 어린시절, 청소년시절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회상실기, 덕성실기, 시와 소설 등 매일 그 책들을 연구하게 한 다음 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는 김일성, 김정일의 어린시절을 주제로 글짓기를 시키고 발표하는 일, 시랑송모임 등 모든 방법과 가능성이 총동원되어 학생들의 숭배교육, 의식개조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개인숭배교육은 정신무장과 함께 실천운동으로도 진행되었다. 김일성이 해방 후부터 20여 차례나 다녀갔다는 우리 농장에는 그 당시 사적 발굴과 함께 사적지 건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우리 학생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청소를 하고 꽃도 심고 가꾸며 충성의 마음을 키워가군 했다.

자기 지방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의 사적지, 전적지 답사도 자주 진행 되었다. 김정일의 고향집이 있는 만경대 견학, 소년궁전 견학, 백두산으로 행군해 갔다오는 「배움의 천리길」 및 「광복의 천리길」 답사, 조국해방 전쟁기념관 및 신천박물관(전쟁시기 미군의 학살만행을 전시한 곳)견학 등이 그 대표적 실례들이다.

최근에 유행처럼 진행되는 것이 백두산에 만들어 놓은 김정일의 고향집 방문이다. 김정일의 탄생 신화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백두산과 같이 자연의 웅장함과 신비함을 지닌 명소를 방문케 하여 그 진의를 믿도록 하는것이다.

### <3> 여가활동 : 어떤 놀이를 할까?

북한 청소년들은 대개 아침 일찍 일어난다. 일부는 철봉, 평행봉, 축구 등 새벽운동을 즐긴다. 기상 후 집안을 정돈하고 아침 식사를 한 후 등교한다. 등교거부나 무단결석은 없는 편이다.

여가에는 소수의 공부하는 학생과 소수의 노는 아이들로 구분되는데, 대다수가 폐거리를 이루어 같이 논다. 비교적 단조로운 생활이다.

보다 어린 아이들은 동네 안이나 인근 산과 들에서 모여 즐겁게 논다. 큰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의 것을 뺏는 수가 흔한데, 어린애들은 큰 애들을 토벌군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청소년들은 방과후 숙제를 끝내면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하기 보다는 주로 동네친구들과 어울려서 집 주위의 골목길이나 공터, 공원, 학교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논다. 친구들과 주로 하는 놀이는 별다른 도구없이 자연물을 이용하거나 몸으로 하는 놀이가 대부분이다. 남자들은 주로 진지점령하기, 저격수놀이, 탱크맞추기, 군기빼앗기, 적진지쳐들어가기 등의 군사놀이와 별놀이, 패땅치기, 쥐구멍파기, 다리뛰어넘기, 말타기, 소타기, 섬지키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을 하거나 편을 나누어 축구경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자들은 고무줄놀이, 줄넘기, 자갈차기, 아바이놀이(숨바꼭질), 씨차기, 공기놀이

등을 하거나 짝궁끼리 모여 서로 이야기를 한다. 시골의 경우는 가까운 산에 가서 산나물이나 열매 등을 따먹으면서 놀기도 한다.

북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은 경제적인 이유로 다양하지는 않다. 여가도 주로 개인의 즐거움보다는 집단주의적이다. 매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정해 단체로 군중무용을 하거나 영화, 교예, 연극 관람 등의 취미 오락생활을 한다.

간혹, 학교나 문화회관 등에서 탁구를 치거나 장기를 두기도 한다. 탁구는 북한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 종목으로 학교나 직장, 문화회관 등에는 대부분 탁구대가 설치되어 있다.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은 서양식 카드놀이와 비슷한 주패놀이를 많이 한다. 주패놀이는 중국식 56장짜리 트럼프를 사용하는 놀이로 몇몇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현금, 담배, 버스표 등을 걸고 하는 내기 또는 도박으로서 많이 행해지고 있다.

북한 청소년들이 주로 읽는 책은 러시아의 고전적 명작들(안나 카레리나, 고리오 영감, 전쟁과 평화 등), 왕자와 거지, 보물섬, 몬테 크리스토히백작, 임궫정전, 동학농민전쟁 같은 역사소설들이다. 또한 과학과 인생, 독소전쟁, 반탐(간첩)이야기 등이 있다. 춘향전 같은 책은 없다고 한다. 위인적으로는 에디슨, 뉴턴 등이 소개되고 있다. 남한 책으로는 태백산맥 등이 알려져 있다. 노래는 이념적인 것보다는 생활이나 남녀관계에 대한 것이 인기가 있다. 남한 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청소년들이 그것이 남한 노래인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민성길, 통일과 남북청소년, 연세대출판부, 2000, pp.79-81)

#### <4> 좋아하는 연예인

북한 청소년들도 남한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연예인을 좋아한다.

연예인을 키워내는 평양 연극영화대학의 입시율이 김일성 종합대학보다 더 높아 100대 1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나온 적이 있다.

연예인이 되는 지름길이 평양연극영화대학이기 때문이다. 북한 청소년들의 연예인 선호 경향에는 사회적인 출세가 비교적 빠르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북한 사회구조가 아직은 다원화되지 못하였고, 직업 선택의 폭도 좁은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북한 당국은 연예인을 비교적 우대하고 있다. 북한의 연예계가 당국의 관리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는 연예인이라는 개념이 없다. 출연료나 개런티 등의 개념도 당연히 없다. 다만 배우가 연예인이고, 급수에 따라 대우가 달라질 뿐이다. 급수는 무급에서 시작되어 점차 위로 올라가 1급이 되고, 다시 공훈배후를 거쳐 최고의 칭호인 인민배우에 이른다. 그래서 가수도 영화배우도 연극배우도 최고의 꿈은 ‘인민배우’이다. 인민배우는 대체로 내각의 부상, 우리로 치면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월급도 북한돈으로 300원이 넘고 경우에 따라서는 승용차와 방 3개짜리 아파트를 배정받는다. 이런 대우를 받는 연예인은 약 20여명 정도로 파악된다. 여자 연예인으로서는 오미란, 김정화, 조청미, 전체영이 있다. 오미란은 80년대의 최고의 성과작이라는 영화 “도라지 꽃”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별명도 도라지 꽃이라고 한다. 김정화는 우리로 치자면 ‘섹시한 이미지’로 유명한 여배우로 남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고 한다.

조청미는 북한이 자랑하는 소프라노 가수이다. 남한의 조수미에 비교된다. 전체영은 노래 “휘파람”의 주인공으로 인기가 상한가를 치고 있다.

남자 연예인들은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높다. 북한주민들은 아직도 남자는 ‘무게가 있어야 한다’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현상이라고 한다.

우리로 치면 최불암 스타일이라고나 할까? 영화 “림격정”의 주인공 최창수, 최근 상송세를 타고 있는 이용호 등이 곱힌다. 특히 “즐기는 뿌리에서 자란다”에서 열연, 단번에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다시피 하였다고 한다.

김정일로부터도 “만점짜리 배우다”라는 평을 들은 이영호는 85년 극영화 “로동자 부대”로 데뷔하였다. 이영호는 제일동포 출신으로 지난 67년 북한으로 갔으며, 평양 학생소년궁전을 거쳐 평양영화연극대학을 졸업했다.

(연합뉴스, 김정일 100문 100답, 2000, pp.252-253 참조)

### <5> 북한의 컴퓨터 교육

북한은 올해 컴퓨터 교육체계가 새롭게 개선, 강화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올해 평양과 함흥에 컴퓨터(컴퓨터)기술대학이 설립되고 김일성종합대학에 컴퓨터과학대학이 신설됐으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컴퓨터대학 등에 정보센터가 설치됐다고 소개했다. 통신은 이어 '교육강령과 내용을 개선하며 프로그램(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한 연구사업을 유일적(통일적)으로 집행, 지도할 수 있는 정연한 컴퓨터 교육체계가 더욱 완비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교육체계의 개선과 함께 컴퓨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올해에 고등중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 학생들이 참가한 전국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전시회와 경연이 큰 규모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교육사업에서 실리를 보장할 데 대한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조선의 컴퓨터 교육은 '은 나라의 컴퓨터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일환으로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 교육성은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컴퓨터 및 과학·기술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각 도에 2~3개의 '본보기 학교(시범학교)'를 조성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12.8)에 따르면 교육성 소속 보통교육지도국은 간부들을 평양시, 자강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등 각지에 내려보내 컴퓨터 교육을 비롯한 현대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시설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보통교육지도국은 도별로 2~3개의 학교를 '본보기 단위'로 조성하고 이를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민주조선은 소개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교육의 강화는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98년 2월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교육을 확대하도록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당시 교육위원회(현 교육성)는 컴퓨터대학과 컴퓨터학부, 컴퓨터학과 및 전공반, 프로그램센터 등을 신설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통교육지도국은 또 교원들의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단계·급수별로 자질향상 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며 '시·군 교원 재교육 강습소'에서 교종·학년·과목별 강습도 실시하고 있다고 민주조선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0. 12. 23, 29)

#### <6> 북한이 소개한 최신 컴퓨터 프로그램

북한신문이 최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제11차 '전국 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라디오방송 전산시스템인 '만방 2000' 등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11. 10)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는 경제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영업무 및 생산조종 프로그램, 과학기술 계산프로그램, 설계프로그램, 정보처리부문 프로그램, 교육·문화·보건분야의 응용프로그램 등 2백70여건이 전시됐다. 가장 인기를 끈 프로그램은 △경영업무 및 생산조종 부문에서 '만방 2000'과 '밀뿌리' △과학기술 계산 부문에서 '최량캠'과 '봉화' △정보처리 부문에서 '단군'과 '창덕' 6판 등이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 출품한 '만방 2000'은 라디오 방송순서 편집과 방송편집물 계획 및 진행 등을 신속 정확하게, 방송기술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현대화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인기를 끌었다. '밀뿌리'는 평양 인민경제대학에서 개발했으며 함북 김책제철연합기업소내 여러 직장의 생산과 지휘를 최량화(가장 좋은 것으로 되게 하는 것), 과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최량캠'은 컴퓨터 지원캠 설계프로그램으로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에서 출품했으며 라선캠, 굴곡캠 등 각종 캠이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최량지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축설계지원 프로그램인 '봉화'는 과학원 건설건설분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설계, 기초설계 등 각종 설계를 컴퓨터상에서 할 수 있게 해 인력을 절감하면서도 설계를 정확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창덕' 6판은 문서편집과 전자출판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글문서 편집프로그램으로 기능이 매우 높고 쓰기 편리하며, 평양프로그램센터에서 개발했다. '단군' 역시 평양프로그램센터에서 출품했으며 한글의 입력, 표시, 인쇄 등의 기능과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입력을 보장하는 표준한글 처리프로그램으로 종전 것에 비해 정확성, 신속성, 편리성이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가받았다. 이에 앞서 조선중앙방송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출품한 문자인식 프로그램 '용남산 3.2',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장기프로그램 '부르나 2.0', 리과대학의 연속음성 인식프로그램 '평양 2.0'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민주조선은 이번 전시회가 '우리 식'의 컴퓨터공업을 발

전사시키고 북한에 절실히 필요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며 나라의 프로그램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2000. 11. 29)

#### <7> 북 내부 컴퓨터망 홈페이지 첫 공개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등 1천300여 기관 및 기업소등과 연결된 북한 내부용 컴퓨터망 ‘광명’의 홈페이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2001년 8월 22일 발간된 월간 『민족21』 2001년 8월호는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북한 컴퓨터망 ‘광명’의 홈페이지를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민족21』이 소개한 사진은 ‘광명’ 홈페이지의 과학기술자료검색체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진상으로는 ‘광명’이 윈도 운영 체제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진에는 또 새기술자료, 과학기술동속자료 등을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사진 왼편에는 접속, 자료기지, 검색, 파일보관, 기타봉사 등의 메뉴도 보인다. 이 잡지는 ‘광명’의 데이터베이스에는 3천만 건에 이르는 수학·물리학·화학·생물학 등 기초과학과 전기·석탄·농업·양어 등 경제기술 자료, 800여 종의 최신 과학·기술잡지 등이 수록돼 있다고 전했다. ‘광명’은 지난 97년 북한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 개발한 과학기술자료 검색시스템이다. 내각의 각 위원 회와 성·중앙기관,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 평양정보센터(평양프로그램센터) 등 연구기관, 과학원 발명국, 인민대학습당, 주요 공장·기업소 등이 ‘광명’으로 연결돼 있다. 과학기술자료 검색, 전자우편, 홈페이지 검색, 자료 전송 등을 할 수 있는 이컴퓨터망에 가입한 컴퓨터 대수가 최근 2년동안 4.6배로 대폭 증가했다고 북한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이 잡지는 또 남한의 국립도서관 격인 북한의 인민대학습당 홈페이지 사진도 소개했다. 인민대학습당의 전경을 배경으로 한 이 홈페이지에는 ‘인민대학습당 소개’, ‘자료기지 검색’, ‘인민대학습당 리용안내’, ‘다른기관 호출’, ‘알리는 소식’, ‘과학기술자료’, ‘상식자료’, ‘강의자료’, ‘전자동보’, ‘원격주문’ 등의 메뉴를 갖추고 있다. 신준영 『민족21』 편집장은 “광명 홈페이지 사진은 북한이 첫 화면이라고 공개한 것” 이라면서 “북한에서는 주로 일본판 윈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인민대학습당 홈페이지 사진에 보이는 익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스플로러가 일본어로 돼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korea21.com/lastnews178.htm>)

**라. 북한 청소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1) 학습목표

(가) 북한 청소년들의 고민거리를 이해하고 나의 고민처럼 느낄 수 있다.

(나) 북한 청소년들의 고민거리와 사회문제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2) 교수-학습 모형 : NIE(137-141쪽 참조)



## (3) 교수 - 학습 과정안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학습 상기</li> <li>○ 전시과제 확인</li> <li>○ 학습목표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청소년들의 과외, 여가생활에 대한 질문을 한다.</li> <li>○ 북한 청소년들의 고민거리에 대한 신문 자료 준비를 점검한다.</li> <li>○ 북한의 대학입시에 대한 동영상을 제시한다.</li> <li>○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에 답변한다.</li> <li>○ 모아온 신문 자료를 모듬별로 제시한다.</li> <li>○ 자료에 대한 느낌을 발표한다.</li> <li>○ 학습목표를 경청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간지와 인터넷의 자료를 수집해 오도록 지도한다.</li> <li>○ 학습자료&lt;1&gt;</li> </ul>
전개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지 제시</li> <li>○ 탐구활동 전개</li> <li>○ 탐구결과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지를 제시한다.</li> <li>○ 모아온 신문내용 중에서 제시된 주제에 맞는내용의 기사 스크랩을 지시한다.</li> <li>· 북한 청소년의 고민거리</li> <li>· 수능시험과 일류대학</li> <li>· 북한청소년의 이성교제</li> <li>· 왕따와 공주병</li> <li>○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발표 준비를 지시한다.</li> <li>○ 발표를 지시한다</li> <li>· 모듬원 기사를 선출하여 발표한다.</li> <li>· 북한 청소년들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아온 신문자료 중에서 모듬 주제에 맞는 내용의 기사를 스크랩한다</li> <li>○ 제시된 주제에 맞게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고 기사에 대한 느낌을 적는다.</li> <li>○ 탐구모듬원들과 대화를 통해 학습지를 완성한다.</li> <li>○ 모듬별로 기록지에 기사를 정리하여 발표에 대비한다.</li> <li>○ 탐구 내용을 발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료&lt;2&gt;</li> <li>○ 여러 자료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기사를 작성한다.</li> <li>○ 시간조절을 잘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정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구내용 평가</li> <li>○ 탐구내용 정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퀴즈로 평가 한다.</li> <li>○ 탐구과정 중 제기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느낀점을 발표시킨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퀴즈를 푼다.</li> <li>○ 느낀점을 발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료&lt;3&gt;</li> <li>○ 학생들이 탐구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을 강조한다.</li> </ul>

(4) 학습자료

<1> CD-Rom

제목 : 북한의 대학입시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 CD자료, “대립에서 화합으로”, (2000)  
분량 : 3분 10초  
주제 : 북한의 대학입시의 특징  
줄거리 : 북한 대학입시 실태 관련 내용



<3> 통일 O, X 퀴즈

- 1 북한 청소년들도 땡땡이를 친다.
- 2 북한에는 입시 지옥이 없다.
- 3 북한에서도 동성동본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 4 북한 여성들 중에 쌍꺼풀 수술을 하는 여성도 많이 있다.
- 5 북한에서는 연예 결혼은 생각할 수 없고, 당에서 정해주는 배필과 결혼한다.
- 6 북한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므로 남아선호사상은 없다.
- 7 북한에서는 결혼식을 대개 결혼식장이 아닌 공공장소나 가정집을 이용한다.
- 8 북한에서는 최근 자본주의형 생활양식의 유행으로 청바지와 바지치마, 종대바지 (쫄바지), 외국어가 새겨진 티셔츠 등을 입거나, 장발 등 특이한 머리 모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반지를 끼거나, 문신, 눈 화장이 증가하고 있다.
- 9 북한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신랑감은 당간부 아들, 외교부나 무역부 직원, 군인들이다. 한편 북한 청년들이 좋아하는 신부 감은 옷가게 점원, 호텔요리사, 백화점 직원 등이다. 이중 북한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신부 감은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호텔 요리사가 가장 인기가 있다.
- 10 북한의 연인들은 모란봉 공원, 평양 체육관 앞 광장, 대동강변 오솔길 등 주로 야외에서 데이트를 즐긴다고 한다. 문제는 연인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연인들은 처음에는 보통 남성의 경우 여성을 '아무개 동무', 여성의 경우 남성을 '아무개 동지'라고 부르다가 가까워지면 서로를 '자기'라고 부른다.
- 11 북한에도 남한에서처럼 대학진학을 위한 비밀 과외가 있다.

통일 O, X 퀴즈퀴즈 정답

- 1 북한 청소년들도 땡땡이를 친다.(O)
- 2 북한에는 입시 지옥이 없다.(X)
- 3 북한에서도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X)

- 4 북한 여성들 중에 쌍꺼풀 수술을 하는 여성도 많이 있다.(X)
- 5 북한에서는 연애 결혼은 생각할 수 없고, 당에서 정해주는 배필과 결혼한다.(X)
- 6 북한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므로 남아선호사상은 없다.(X)
- 7 북한에서는 결혼식을 대개 결혼식장이 아닌 공공장소나 가정집을 이용한다. (O)
- 8 북한에서는 최근 자본주의형 생활양식의 유행으로 청바지와 바지치마, 풍대바지 (졸바지), 외국어가 새겨진 티셔츠 등을 입거나, 장발 등 특이한 머리 모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반지를 끼거나, 문신, 눈 화장이 증가하고 있다.(O)
- 9 북한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신랑감은 당간부 아들, 외교부나 무역부 직원, 군인들이다. 한편 북한 청년들이 좋아하는 신부 감은 옷가게 점원, 호텔요리사, 백화점 직원 등이다. 이중 북한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신부 감은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호텔 요리사가 가장 인기가 있다.(O)
- 10 북한의 연인들은 모란봉 공원, 평양 체육관 앞 광장, 대동강변 오솔길 등 주로 야외에서 데이트를 즐긴다고 한다. 문제는 연인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연인들은 처음에는 보통 남성의 경우 여성을 '아무개 동무', 여성의 경우 남성을 '아무개 동지'라고 부르다가 가까워지면 서로를 '자기'라고 부른다.(O)
- 11 북한에도 남한에서처럼 대학진학을 위한 비밀 과외가 있다.(X)

#### (5) 참고자료

<1> 대학입학시험 : 금룡이의 무너진 대학 진학의 꿈(수기)

한국에 와서 나는 기자선생님들로부터 북한에 있을 때 나의 장래희망이 무엇이라는 물음을 많이 받았었다. 그 때마다 나는 대답을 못하고 과연 북한에서 살면서 나의 장래 희망은 무엇이었으며 나에게 장래 희망이 존재였을까 하고 생각하곤 하였다.

나는 가정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친척들은 나를 보면 자주 “금

풍이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던 생각이 난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북한에서도 유명한 대학 중의 하나이며 북한에서 유명인사들은 모두가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들이다. 김정일도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이어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누구나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하였으면 하고 바라는 인기대학이다.

아버님도 어려운 가정 살림에서도 나에게 “너는 꼭 대학공부를 해야한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다. 때문에 나는 고등중학교 4학년까지는 내 실력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아버님의 소원을 꼭 풀어드리려고 열심히 공부했었다. 나는 나의 희망을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때 나는 김일성종합대학만 졸업하면 나도 큰 간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의 꿈을 실현하기에는 사회적 압박감에 비하여 나의 힘은 너무나도 보잘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누이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할 때 나는 사회 현실에 대하여 많은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북한에 있을 때 누이에게는 심성희라는 학교동창생이 있었다. 심성희 누이는 고등중학교 시절에 공부를 아주 잘하였는데 회상구역적으로 고등중학교 졸업생들 속에서 시험을 쳤을 때 종합 1위를 하였다.

나는 고등중학교에 다닐 때 심성희 누이와 2년 차이여서 심성희 누이로부터 공부를 배우면서 심성희 누이도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하겠다는 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특별히 심성희 누이를 따랐다. 북한에서는 대학으로 갈 때 자기가 원하는 대학으로는 갈 수 없고 학교에서 추천서를 써 주어야 대학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추천서를 얻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 추천서 때문에 매해 고등중학교 졸업시기인 7월에는 그 추천서를 쟁취하기 위한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북한에서는 당간부들의 세도가 너무도 강하여 대학 뿐트(추천서)는 모두 당간부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식들이 모두 대학에 간다.

하지만 심성희 누이는 구역적으로 성적이 1등이니 김일성종합대학 추천서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었다. 나는 심성희 누이가 김일성종합대학 추천서를 손에 넣었다는 이

야기를 듣고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할 수 있겠구나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심성희 누이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고 다시 함흥으로 내려왔다. 성희 누이의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김일성종합대학은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해외교포들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은 대학에 입학할 수 없기 때문에 성희 누이는 시험을 잘쳤으나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소리를 들으니 나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나의 동무 호명이의 형님은 심성희 누이보다 키가 더 작았으나 큰아버지가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로 있는 덕분에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였다. 나는 그제서야 성희 누이의 아버지는 힘이 없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백이 없어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때에야 비로소 대학입학이 실력으로만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제서야 “대학에 입학하려면 실력과 백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소리가 근거없는 소리가 아님을 알았다.

그러나 1993년도에 떨어진 김정일의 방침은 나의 이 희망마저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당시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학생들 속에서는 군대보다 대학을 더 선망하고 대학에 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대학시험에 떨어져도 군대에 가지 않고 사회에 진출하여 공부를 자습으로 하다가 다음해에 대학입학시험에 합격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다 군대에 나가서 영양실조를 만나서 제대되는 사람들이 많아 고등중학교 학생들 속에서는 군대에 나간다면 영양실조를 만나러 나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군대에 나가는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다.

때문에 1993년 2월에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은 대학에 갈 수 없으며 신체검사에서 합격되는 사람은 100 % 군대에 내보내라는 김정일의 지시가 떨어졌다. 이 때 군대에 나가서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추천되어 오면 대학입학시험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내용이 김정일의 지시에 첨부되어 있었다.

이 지시가 떨어졌을 때 우리 학급 동무들의 반응은 제각기 달랐다. 간부 자녀들은 김정일의 지시에 적극 호응하며 떠들어 있고, 노동자 자녀들은 덤덤히 앉아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간부자녀들이 김정일의 지시에 적극 호응하여 떠들어대는 것은, 지난 시기에는 군대에 나갔다가 대학추천을 받아도 대학 입학시험 때문에 걱정을 했었으나 김정일의 지시가 떨어지면서 고등중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무방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노동자 자녀들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한 줄기의 희망이나마 무참히 사라진 데 대하여 억이 막혀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나의 김일성 종합대학 꿈은 물거품으로 사라졌다. 김정일의 지시가 떨어진 후에 나는 공부에서 손을 떼고 등무들을 찾아다니며 놀러다니기만 했다.

(한만길여음,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 우리교육, 1999, pp.66-68 참조)

## <2> 북한의 대입 '수능시험' 과 '본고사' 제도

북한에서도 대학입학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수능시험과 유사한 대학입학을 위한 예비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 시험은 매년 3월에 고등중학교 졸업반(6년생)을 대상으로 시, 군, 구역의 교육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다. 선발학생수는 보통 대학 입학정원의 5배 정도이며 수험과목은 김일성·김정일혁명역사, 문학, 수학, 화학, 물리, 영어 등 6개 과목이다.

내각 교육성에서는 이 시험결과에 따라 해당 시, 군, 구역에 할당해 대학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고등중학교에서는 자기 학교에 배정, 할당된 인원을 추천하게 되고 여기서 추천된 학생들은 각 대학별로 실시하는 입학시험(본고사)에 응시하게 된다.

북한에서도 대학시험의 최종 합격여부는 물론 일차적으로 시험성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학생 개개인의 배경과 출신성분이 학과실력보다 우선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당간부 자녀나 혁명유자녀 등은 특혜를 받게 되고 출신성분이 나쁜 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해도 대학입학 자격을 얻어내기가 어렵다.

북한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원서를 제출하는 남한과 달리 입시원서가 필요치 않으



며, 학생 개개인의 가정성분 신상 등과 관련된 자료는 기밀서류로 분류돼 등기우편으로 해당 대학에 보내진다.

대학 본고사는 전역의 대학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필기, 체육(체력장), 인물심사(면접시험) 등을 보고 있다.

필기시험은 예비시험과 같아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 문학, 수학, 화학, 물리, 영어 등 6개 과목이고 문제는 교육성에서 일률적으로 출제한다. 보완유지를 위해서 입시 4-5일 전에 출제위원들을 합숙을 시키면서 출제토록 하고 밤을 새워 문제를 인쇄한 뒤 각 대학에 보내고 있다.

필기시험은 하루에 2과목씩 3일간 치르는데 △혁명역사·문학·영어는 3문제 △화학·물리는 각각 이론 2문제, 문제풀이 1문제 △수학 3-5문제 등으로 모두 주관식이며 점수는 과목당 5점 만점제이다.

혁명역사 과목은 경우 ‘김일성 주석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행한 고난의 행군’에 대하여, ‘김정일 총비서가 제시한 숨은 영웅들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의 본질은 무엇인가’ 등 대부분 김주석과 김총비서의 혁명역사와 관련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문학은 ‘○○○ 작품의 종자(작자가 표현하려는 사상적 알맹이), 주제, 사상을 분석하시오’, ‘배속하다’ ‘속닥속닥’ 등의 단어를 뜻풀이하고 짧은 글을 지으시오 라는 식으로 하고, 영어는 작문, 독해, 단어쓰기 등으로 출제되고 있다.

체육시험에서는 남녀 각각 100m달리기, 남자 1천500m와 여자 800m 달리기, 남자 턱걸이, 여자는 등반봉 오르기(철봉타고 오르기) 등을 실시해 체력상태를 점검하나 시험점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면접은 수험생이 10여명씩 들어가 1-2개의 질문을 받는데 역시 합격여부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점은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다. 채점에서 비리를 없애기 위해 각 대학에 자동차를 대기시켰다가 시험이 끝나는 즉시 대학별로 시험지를 교환해 채점토록 하고 있다. 교환채점후에도 다시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시험답안을 검토한 뒤 최종점수를 종합하고 있다. 또 시험지 맨위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쓰고 그 아랫부분을 묶어 교수들이

채점에서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며 시험당일 밤중으로 채점을 끝내도록 하고 있다. 채점하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방안에 출입시키지 않으며 화장실 이용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1. 10. 23)

### <3> 이성관

북한 청소년들도 남한에 비해 다소 늦게 나타나기는 하나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성교제, 성적 행위 등은 그런 대로 발견되는 것 같다.

대개 15, 6세 때(고등중학교 5학년, 남한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 이성에 눈을 뜨고 교제하고 싶은 생각이 나타나며, 17, 8세가 되면 용기있는 아이들은 데이트를 신청하기도 한다.

15세경이 되면 청소년들은 외모를 가꾸기 시작한다. 즉 특정 신발을 구해달라고 부모에게 떼쓰는 것이 그 예이다. 17세 경이 되면 연애편지가 나노는데, 40-50명의 학급당 5-6명 정도가 이 일에 몰두한다. 대개 고등중학교 졸업 때 술을 마시고 처음으로 좋아한다는 말을 고백하기도 하다. 그때는 이미 입대를 앞두고 있을 때이며, 사람에 따라 제대할 때까지 자기를 기다려 달라고 말하기도 한다.

청소년기 때 학교에서 남녀 학생간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지낸다. 그렇다고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잡담할 때 여학생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한다. 같은 반 여자아이한테는 말은 안하지만, 다른 반 여자아이들에게는 장난을 걸고 괴롭히기도 하다. 그러면 그 반 남자아이들을 보복성의 장난을 또 하기도 한다.

대체로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무지하다. 키스로도 임신이 되는 줄 아는 아이가 많다. 대체로 성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려도 한다. 남자를 밝히는 여자 아이에 대해서는 경멸하는 태도가 있다. 학교에서는 성교육이 거의 없다.

북한의 여자아이들도 모여서 남자 이야기를 많이 한다. 누구를 속으로 좋아하는데, 그 아이가 오늘 너똥게 행동했다고 말하면, 그것에 서로 동의를 하거나 반대를 하며 수다를 떠는 것이다.

흥미있는 일은 삼각관계가 생길 때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경쟁이 없다. 즉 대인관계에서 그렇게 까지 아득바득 경쟁하거나 자기 이익이나 욕심을 채우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민성길, 통일과 남북청소년, 연세대출판부, 2000, pp.86-88 참조)

#### <4> 북한에서 사랑은 물레 하는 것이다.(수기)

남과 북에서는 우선 이성에 대하여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 남한에서는 남녀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에서는 남녀간에 친구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 내가 한국에 와서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접했지만 이성간의 관계가 이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았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남한의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고 남녀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고정관념을 깰 수가 없었다. 오로지 남녀는 연인사이 이외에는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남녀교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어려서부터 이성을 바라보는 눈이 띄우고 씻겨서 많은 사람과 교제를 하고 때론 친구도 되고 때론 연인도 되는 일이 흔히 펼쳐지고 있다. 아무튼 많은 청년 남녀들이 다정하고 친근하게 지내는 모습은 아름답고 행복해 보여서 기분이 좋다. 하지만 여기서 나쁜 점을 얘기 하려면 사랑을 너무 쉽게 하고 너무 쉽게 버리는 점이다.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율이 북한보다 몇배로 많다. 그리고 남녀교제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란한 성문화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미숙아, 미혼녀 등 사회질서가 혼잡하고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남녀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연인사이라 할지라도 내놓고 말도 못하고 손도 쉽게 잡지 못한다. 북한사회에서는 남녀교제가 정당화되어 있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 불미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이것은 북한 독재정권이 인민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남녀간의 사랑을 질투라도 하는 것처럼 모든 인민들의 사랑의 마음을 무조건 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돌아가도록 바라면서, 남녀가 사랑을 나누면 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해지고 불순한 정신사

상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경향이 몇 십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면서 청춘남녀들의 사랑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되게 되었고 90년 초까지만 해도 손도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결혼하는 연인들이 부지기수였다.

북한에서는 남녀평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밖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반말을 쉽게 할 수가 없고 남자들의 이야기에 끼어들 수도 없으며 옹고 그름을 떠나서 남자의 말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솔직한 감정 표현을 생애 한 번 해볼 수 있을까 말까 한다. 그리 애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고 느끼지 못한다.

결혼 같은 경우도 90년대 초반까지는 거의 중매로 결혼을 하고 한번 결혼하면 이혼하기가 매우 힘들다. 법적으로 이혼이 잘 안된다. 이것 또한 북한 당국의 욕심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맞지 않아도 서로 운명이라고 인정하고 산다.

이런 과정을 걸쳐 9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성교제의 자유로운 문화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중매로만 만나던 남녀가 서로 일터나 대학에서 감정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교제하고 잘되면 연애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중매결혼 문화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주로 편지로 연애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여건이 되면 영화도 같이 보고 식사도 함께 하는 일이 최근 들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남북간의 남녀들의 교제는 비슷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정도의 차이와 수단 방법의 차이이다. 남한에서는 전화로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북한에서는 편지로 사랑을 나누는 이 정도의 차이 말이다.

(이00, “남한학생들의 문화”, 한만길·현주·오기성,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교육 적응 연구, 1999, 참조)

## Ⅳ. 하나됨을 위하여

### 1.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된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고 있다. 통일한국은 부강한 경제력과 통합된 민족의 저력으로 세계 평화를 이끌어 나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세계의 중심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일 한국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닌 주변국과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국제적인 성격도 띠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의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국제적인 통일 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국제관계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통해 주변국들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분단국의 통일된 사례를 연구하여 바람직한 통일의 유형을 연구하고,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통합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서독의 통일과정 뿐만 아니라 우리와 문화가 유사한 중국·대만의 교류·협력 관계를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통일은 지금 당장 성급히 이루려 하기보다는 꾸준한 인내를 갖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우선 고등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높이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통일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건전한 사회로 만드는 길이 통일준비의 기초이듯이 고등학생들의 생활세계 내에서의 평화와 관용, 나눔의 문화를 고양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나아가 상대방의 다름을 이해하고 장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도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본 단원에서 다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된 사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에서는 통일된 사회를 상대방의 ‘다름’을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같음’을 기뻐할 수 있는 사회, 도덕적이고 민주적이며 상승된 국력을 바탕으로 선진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사회로 제시하고 있다. 통일한국은 한반도의 통일만이 아닌 지구촌 분단국의 마지막 통일작업이기 때문에 통일국가의 모습은 가장 이상적이고 평화 지향적인 국가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다른 분단국은 어떻게 통일을 준비했을까?’에서는 분단국가들의 통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서독의 동방정책을 통한 꾸준한 통일노력과 통일 이후 갈등완화를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의 사례를 통해 분단국가에서의 자연스런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도출하고 있다.

셋째,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에서는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준비와 자세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 준비 사항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구성원들의 통일에 대한 신념과 강력한 의지일 것이다. 통일은 한 마음으로 굳게 뭉쳐 이루어야 할 대업(大業)이기 때문에 목적의식을 갖고 대내외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우리 세대에 반드시 성취해야 할 역사적 사명임을 깨닫고, 통일을 위해 청소년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와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를 심어주도록 하였다.

## 2. 단원의 목표

가. 통일된 사회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지금부터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 (1) 통일사회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2)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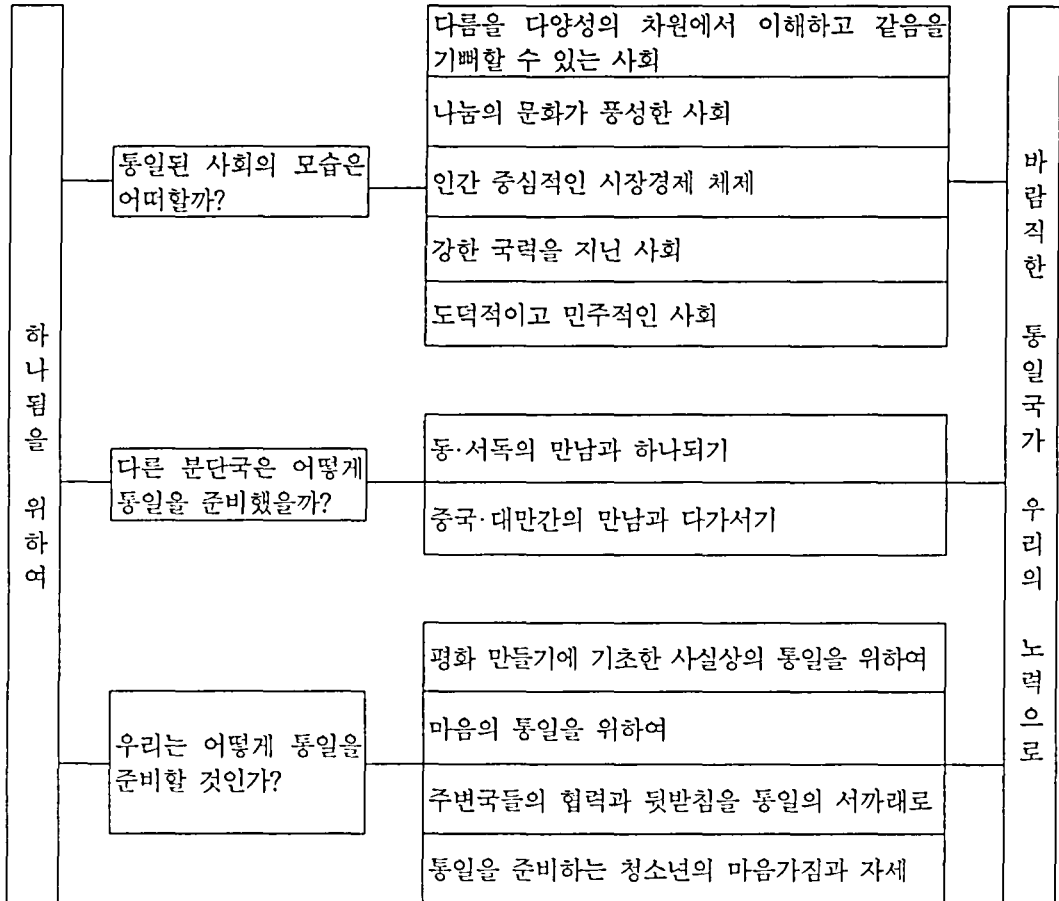
나. 분단국 유형과 통일 형태를 분석하여 한반도 통일에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다.

- (1) 어떻게 통일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
- (2) 외국의 통일 사례를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을 말할 수 있다.

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세를 제시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는다.

- (1)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자세를 제시할 수 있다.
- (2) 통일을 이루기 위한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 3. 단원 구성





#### 4. 단원별 지도 자료

##### 가. 통일된 사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 (1) 학습 목표

- (가) 통일사회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나)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

###### (2) 교수-학습 모형 : Computer 활용 협동 학습(통일 신문 만들기)

###### (가) Computer 활용 협동 학습<sup>30)</sup>의 특징

컴퓨터를 학생들마다 개별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활동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보다 나은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고립감을 쉽게 느끼게 되며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학습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하여 CAI프로그램을 협동 학습 상황에 활용해 본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서로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학습에 점차 흥미를 느끼게 되고, 친구들은 서로 존중해줄 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지적 학습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 (나) 협동 학습 설계 전략

- 1) 협동 작업 구조 :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를 함께 학습하도록 장려하고, 교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집단 구성원들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작업 분담 구조 : 집단 구성원들의 역할에 따라 각기 다르게 작업이 분담된다.
  - 나) 공동 작업 구조 : 집단 구성원 모두가 주어진 학습과제를 함께 학습한다.

30)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열린교육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의 이론과 실제(1997), pp.289-291 참조.

- 2) 협동 보상 구조 : 집단으로서 성공하면 그 성공에 대한 대가가 집단 구성원간에 공유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개별성취에 대한 집단보상, 집단 성취물에 대한 집단 보상, 협동적 행동이 나타났을 때 주어지는 집단보상 등 보상 체제를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

(다) 집단 조직 전략

- 1) 이상적인 집단 규모 : 학습의 목적이나 학습내용의 성격, 학생들이 능력수준이나 발달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2~4명으로 구성된 집단이 문제해결학습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다.
- 2) 이질적 집단 구성 : 협동학습에 있어서 집단 구성 방법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동질집단보다는 이질집단의 구성 방법이 보다 좋은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라) 협동 학습 활동(모듬 활동을 통한 통일 신문 만들기)의 단계

1) 사전 모듬 활동

가) 과제 부여

과제는 '통일된 사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에 대한 공통 과제를 2개월 전에 부여하고 전체 학생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준다.

나) 모듬 활동

① 역할 분담

모듬장은 각 모듬에서 리더십이 뛰어난 학생을 모듬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모듬장 책임하에 사전 모듬 활동이 잘 이루어져야 좋은 작품이 완성될 수 있음을 주지시킨

다. 또한, 개인별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서기는 모둠에서 협의한 내용을 협의일지에 기록하여 수행평가지 제출한다. 구성원은 편집회의 과정을 통해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 ② 편집회의

사전 모듬 활동은 모듬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위임한다. 편집회의는 모듬별로 여러 차례 협의를 하여 모듬별 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방법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한다. 편집회의활동에서는 자료준비, 제목, 편집 구성, 기사, 참고 자료, 그림, 사진, 디자인, 배색, 제작 시나리오 작성, 원고 작성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한다.

## 2) 본시 학습 활동

본 학습의 주제가 “통일된 사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통일 노력이 아닌 “통일 후 미래 통일된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호기심과 함께 통일 한국의 긍지를 함께 가질 수 있는 수업 형태가 되어야 한다.

### 가) 과제 정리

본시 학습은 50%의 진행율이 진척된 상태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 모듬 활동의 상황을 교사는 수시로 모듬장을 통해 점검하고, 본시 학습 활동에서는 준비된 자료와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 준비를 한다.

### 나) 과제 발표

과제 발표는 프린트 용량의 한계를 생각하여 사진이나 그림 등은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며(사진 자료의 경우 확대 복사 등을 사전에 할 것), 조별로 제작된 통일신문을 발표하도록 한다. 발표할 때는 간단한 특징과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로 하고, 이미 제작된 통일 신문은 전시회나 윤독을 통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평가

교사는 과제 발표와 전체 학생들의 호응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이를 수행평가에 적용한다.

(마) 컴퓨터 활용 협동학습의 교육적 활용과 기대 효과

- 컴퓨터 활용 협동학습에 활용할 경우, 다양한 교수-학습 구조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각종 절차를 학습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하여 여러 학습구조에 적용해 볼 수 있다.
- 학생들간의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런 활동을 통해 사고력, 창의력, 수학적 학습능력 등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협동학습 목표 중의 하나인 긍정적인 태도와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 컴퓨터 활용 협동학습 상황에 활용하게 되면 컴퓨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집단 크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므로 각 절차를 학생들이 짜는 데에 항상 컴퓨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자신이 생각한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시켜 보는 데에만 컴퓨터를 활용할 수도 있다.

(바) 본시 수업 모형 활용의 유의사항

모듬별 탐구 활동은 협동학습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되, 본시 수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 유의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사전 협동 과제를 부여해야 한다. 신문 만들기는 충분한 준비를 요하는 수업 형태이기 때문에 2달 전에 집단별 탐구 과제를 부여하고, 집단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과 계획 수립에 의하여 치밀한 탐구 활동을 구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문 만들기 수업은 특별한 교실을 활용해야 하는 공간적 제한을 받는다. 보통 수업 교실보다는 청소년들의 재능과 기술적 문제를 고려하여 컴퓨터실을 이용하여 수업을 전개하고, 내용을 프린트하여 다시 편집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여건

을 고려해야 한다.

- 본 수업은 다양한 기법과 디자인을 요하기 때문에 각 모듬별로 컴퓨터에 재주가 뛰어난 학생을 고르게 배정해야 한다. 컴퓨터의 공간과 학생들의 창의적인 두뇌의 결합은 수업의 효과는 물론 학생들의 지적, 창의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모듬별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이 다른 수업 형태보다 다양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물론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가져야 하겠으며, 협동 모듬장은 모듬 구성원들과의 편집회의를 통해 구성원의 희망과 개성, 소질에 적합하도록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 충분한 자료 수집과 구성원의 협력으로 협동학습을 통해 신문을 제작해야 한다. 유능한 한사람보다는 전체적인 협동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완성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 협동 학습 시간은 수업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시간적 배분이 필요하다.

과점	단계 및 내용		역 할		진행 율
			교 사	학 생	
사전 모듬 활동	과제 부여		2개월 전 과제부여	모듬별 과제 확인	5%
	모 듬 활 동	역할분담	모듬장 위임 활동	모듬별 역할 분담	5%
		편집회의		여러 차례 편집회의를 통해 자료준비, 제목, 편집 구성, 기사, 참고 자료, 그림, 사진, 디자인, 배색, 제작 시나리오 작성, 원고 작성 등	40%
본시 학습 활동	과제 정리		각 모듬별 과제 정 리 및 발표 준비	지금까지의 준비 내용을 토대로 컴퓨터 편집 작업 및 프린트하여 정리 및 발표 준비	20%
	과제 발표		과제 발표	정리된 과제를 조별로 게시하고 발표함	20%
	평가		종합 평가	전시회 및 학급 구성원 운동	10%

## (3) 교수-학습 과정안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학습상기</li> <li>○ 학습 동기 유발</li> <li>○ 학습 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에 대해 전시 학습한 내용을 상기시킨다.</li> <li>○ 남북대화와 관련된 자료를 소개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한다.</li> <li>○ 본시 학습목표를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학습한 내용을 기억한다.</li> <li>○ 조용히 시청한다.</li> <li>○ 경청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료&lt;1&gt;</li> </ul>
전개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모듬 활동 자료 확인</li> <li>○ 과제 정리</li> <li>○ 과제 발표</li> <li>○ 평가</li> <li>○ 합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모듬 활동으로 부여한 과제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한다.</li> <li>○ 사전 모듬 활동을 통해 준비된 자료를 통해 정리하도록 한다.</li> <li>○ 모듬별로 준비된 내용을 컴퓨터 상에서 '공유'시키도록 하고, 출력물은 전시하도록 하며, 간단한 설명으로 발표하도록 한다.</li> <li>○ 각 모듬별 작품은 윤독을 하며, 상호 평가한다.</li> <li>○ 평가는 교사의 평가, 모듬별 상호 평가를 하도록 한다.</li> <li>· 최우수 작품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한다.</li> <li>· 기타 작품은 복도에 전시하여 전교생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한다.</li> <li>○ '희망의 나라로'를 합창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듬활동을 통해 준비된 내용을 정리하여 확인을 받는다.</li> <li>○ 모듬장 중심으로 준비된 자료를 정리하고, Computer를 활용 발표준비를 한다.</li> <li>○ Computer를 활용하여 공유시키고, 모듬장이 발표한다.</li> <li>○ 윤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li> <li>○ 모듬별 상호 평가를 실시한다.</li> <li>○ 최우수 작품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한다.</li> <li>○ 선생님의 지시에 따른다.</li> <li>○ 합창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료&lt;2&gt;</li> <li>○ Computer실 활용시 유의사항을 주지시킨다.</li> <li>○ 모듬별 상호 평가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li> <li>○ 학습자료&lt;3&gt;</li> </ul>
정리 및 평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li> <li>○ 형성평가</li> <li>○ 차시학습예고 및 과제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한국의 이상적인 사회 모습을 통해 희망을 심어준다.</li> <li>○ 형성평가는 상호평가로 대체한다.</li> <li>○ '다른 분단국은 어떻게 통일을 준비했을까?'를 예고하고 과제를 부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용히 경청한다.</li> <li>○ 모듬별 상호 평가를 제출한다.</li> <li>○ 공책에 기록한다.</li> <li>○ 유인물을 잘 챙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고자료&lt;1~6&gt;</li> <li>○ 학습자료&lt;4&gt;</li> <li>○ 학습자료&lt;5&gt;</li> </ul>

(4) 학습 자료

<1>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sup>31)</sup>

남북대화는 분단과 한국 전쟁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의 지속적인 역사만큼이나 남북한간에 부단히 모색되고 전개되어 왔다. 1971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많은 접촉이 있어 왔지만 남북 양측의 정치적 상황변수에 영향을 받으면서 남북대화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제자리걸음을 걸어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된 대북화해협력정책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냈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을 분명히 확인해 주었으며,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남북 대화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3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 CD 자료, “대립에서 화합으로” (2000), 4-1-2 남북 대화 참조.



## &lt;2&gt; 협동학습 일지(협동 학습 계획서 및 준비 상황)

모듬명		작품의 주제		
활동 계획				
단계	역할 분담		역할 임무	준비 기간
역할구분	모듬장 :			
	서기 :			
	구성원 1 :			
	구성원 2 :			
	구성원 3 :			
	구성원 4 :			
	구성원 5 :			
자료준비				
편집회의 일지				
일시		장소	참석 인원	
협의 내용				

<3> 협동학습 교사 평가표

제 ( )학년 ( )반 ( )모둠조

과정	단계 및 내용	평가					비고	
		평가 내용	배점					
			상 (5점)	중 (4점)	하 (3점)	소계		
사전 모둠 활동	과제 부여	부여한 과제를 잘 숙지하고 있는가?					기본점 수 부여	
	모듬 활동	역할 분담	역할 분담의 과정이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전과 제로, 객관적 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
			역할이 편중되지는 않았는가?					
			역할 분담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학생은 없는가?					
	편집 회의	모듬장이 협의회 과정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가?						
		5번 이상 편집회의를 하였는가?						
		편집회의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였는가?						
모듬활동 협의 사항을 5번 이상 보고했는가?								
본시 학습 활동	과제 정리	협동 학습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수업중 이나 수업후 평가함	
		협동 학습시 소외되는 학생은 없는가?						
		발표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과제 발표	과제를 창의적으로 준비하고 발표하였는가?						
		모듬 구성원의 협동 학습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발표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						
계						70점 만점		

<4> 협동학습 모둠별 상호 평가표

제 ( )학년 ( )반 ( ) 모듬조

과정	단계 및 내용	평가 내용	조별 평가 내용																	
			조				조				조				조					
			상	중	하	소계	상	중	하	소계	상	중	하	소계	상	중	하	소계		
사 진 모 둠 활 동	모 둠 활 동	역할 분담이 민주적인가?																		
		역할이 편중되지 않는가?																		
	편집 회의	편집회의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가?																		
		편집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가?																		
본 시 학 습 활 동	과제 정리	협동 학습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협동 학습시 소외되는 학생은 없는가?																		
		발표준비는 협동적인가?																		
	과제 발표	창의적으로 준비하고 발표하였는가?																		
		협동 학습의 결과가 나타났는가?																		
		발표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																		
	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5〉 미래 통일 국가 예상하기

구분	내용		이유
통일 국가의 국호(國 號)	통일국가의 국호를 선정할 때의 고려할 점 은?		
	현재의 남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국호를 그 대로 사용한다면 그 이유는?		
	새로운 국호를 제정해야 한다면 그 명칭과 이유는?		
통일 국가의 국기(國 旗)	통일국가의 국기에 담겨져야 할 의미는 무 엇인가?		
	통일국가의 국기를 정한다면 그 이유는?		
	통일국가의 국기를 도안해 보세요.		
통일 국가의 국화(國 花)	현재의 남북한 국화를 사용한다 면?	무궁화	
		목란	
	새로운 국화를 정한다면	꽃명	
		이유는?	
통일 국가의 수도(首 都)	통일국가의 수도 선정할 때의 고려 사항		①
			②
			③
	통일국가의 수도		①
			②

## (5) 참고자료

## &lt;1&gt; 통일된 사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가치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크게 인류역사상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온 기본 가치와 한민족의 역사적 특수성에서 나타나는 특수적 가치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우선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치로서는 첫째, 인간의 존엄성, 평등, 다양성의 인정, 풍요와 복지의 균형, 그리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제도가 강조되는 민주적 가치, 둘째, 억압과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하여 인간과 자연을 위협하는 모든 비평화적 요소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평화적 가치를 들 수 있다.

특수적 가치로서 민족적 가치로는 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존의 가능성을 여는 민족화해의 가치, ② 분단체제하의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한 반성과 과거 청산의 가치, ③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통해 창조될 수 있는 민족번영이라는 가치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와 민족적 가치에 의한 가치판단은 서구중심적인 가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면서도 우리 민족이 지녀온 고유한 가치라는 특수성의 묘합을 말한다.

## ▶평화

통일교육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지향할 경우 교육적 기초이자 출발점은 평화의 중요성이다. 여기에서 평화는 소극적 및 적극적 의미를 포함한다. 즉 소극적 의미에서는 남북한간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차원에서부터 적극적 차원에서는 일상에서의 폭력, 차별 등으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한다. 이러한 평화의 가치의 측면에서 볼 경우 안보는 고귀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남북한간의 평화문제 이전에 우리 사회 내부의 비평화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들이 기초 능력 배양에서 출발한다. 그럼으로써 우리사회 평화 만들기가 출발점이 된다.

▶민주

‘민주’라는 가치는 반공과 동의어이거나 북한에 비한 무조건적 우월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맹목적인 신념 함양보다는 그 원리와 지향 가치를 단순히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신뢰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지향가치가 곧 우리의 불완전한 현재의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 인류가 여러 대안적 이념과 체제를 구상하고 실험해 오는 가운데 그나마 차선책으로 선택될 수 있는 가치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선책으로서의 민주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는 여러 대안적 이념과 체제들과 차별된 형태가 아니라 발전과정에서 여러 이념과 체제들을 수렴하는 과정도 있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이념과 체제가 하나의 스펙트럼 속에 위치할 수 있으며 여기에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는 여러 대안 중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인류의 행복을 구가해 줄 수 있는 이념이자 체제가 될 수 있다는 개방된 견해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적 가치란 무조건적인 우월성이나 전체주의적 속성을 지닌 북한사회에 대비한 차별성이라기 보다는 이념적 스펙트럼 상에서 다른 이념들과 공존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또한 개방적 성격으로 인해 보다 훌륭하고 현실적인 이념의 장점을 수용할 수 있음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 이 속에서 국민들은 이념적 및 제도적 형태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현실적 유용성 뿐만 아니라 생활방식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가 보다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인지적, 정의적, 태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 ▶민족

통일국가의 실현은 단순히 분단국가의 재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 의미에서 하나의 통일된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해 지향하는 가치로서 민족적 가치는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고양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족정체성을 재확립시키는 가치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오기성, “학교 통일교육의 실패러다임 연구”, 국민윤리연구, 제46호, 2001 참조)

## 〈2〉 통일한국의 미래상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이루려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통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남북한의 통일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한 사이의 이질성과 생활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통일 이전에는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일 직후에는 아직도 남북한 사이에 지난 반세기 분단의 유산으로서 경제적 격차, 정치적 가치의 차이, 생활습관의 차이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통일국가는 이러한 남북격차와 이질감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취하여 통일의 결실이 모든 구성원에게 고루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선진민주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자유’란 분단으로 인한 민족구성원 모두의 고통과 불편이 사라지고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며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확보하는 상태를 말한다. ‘복지’는 민족의 총체적 역량이 크게 신장되어 풍요로운 경제를 이루고 그 혜택이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존엄성’이란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과 억압이 해소되고 법 질서와 정의의 기초 위에서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는 상태를 말한다.

통일국가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선진민주사회” 구축을 지향한다. 통일된 민족공동체는 통일국가 구성원들의 삶을 질적으로 드높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다가올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선도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주역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특히 통일국가는 동북아 지역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평화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일국가의 실현을 이루고 앞당기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내실화를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하며, 세계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사회”를 가꾸어 주변국가와 국민들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 북한도 동참하도록 부단히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2001, pp.171-173; 이상우, 함께사는 통일, 1993, pp. 347-360 참조)

### <3> 통일한국의 영토와 인구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인구는 얼마나 될까?

1992년 현재 남한의 인구는 연앙인구(매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인구) 기준 4,366만명, 북한은 2,233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땅덩어리는 남한보다 넓으면서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쟁으로 인한 살상이 없이 이 인구가 고스란히 통일된다고 할 때, 통일한국의 인구는 1992년 현재 6,599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가 점차 앞으로 늘어날 인구를 계산해 보면 1995년에 6,811만 명, 2000년에는 7,153만 명, 2010년에 7,699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선진국 진입을 위한 7,000만 인구에는 대략 맞아떨어진다.

이처럼 한반도가 통일되면 인구면에서 통일한국은 중국, 인도,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본, 파키스탄 등에 이어 전 세계에서 12-13위 정도 하는 대국이 된다.

한편 인구의 변화도 변화이지만, 인구밀도의 측면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난다. 땅



덩어리는 남한보다 넓으면서, 반대로 인구는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북한이 통합되기 때문에 현재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남한의 인구밀도가 조금은 뒤로 밀리게 된다.

1992년 현재 남한의 인구밀도는 무려 439명이고 북한은 181명인데, 통일이 된 이후 인구밀도는 297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통일한국은 벨기에(323명), 네덜란드(369명), 일본(328명)보다 인구밀도가 더 낮은 나라가 되며, 영국(235명), 이스라엘(236명), 인도(258명)와 비슷할 것이다.

이처럼 통일 한국의 인구밀도는 여전히 전 세계 수위권을 차지할 것이 틀림없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떨어진 수준이 된다. 그래서 골고루 분산되어 살기만 한다면 통일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쾌적한 나라가 되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경훈, 이용숙, 통일 그날이후, 길벗, 1995, p. 45-56.)

#### <4> 통일한국의 GNP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통일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경제 통합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GNP는 일정 기간동안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세계 10위권 정도에 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산업연구원이 1994년 2월에 발표한 보고서 “남북한 경제통합의 추진방향” 역시 그러한 부류에 속한다. 이 보고서는 1996년부터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이 단계적으로 이어져 2010년 경 정치·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질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 그 경우 통일 한국의 국민총생산은 1990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1조 달러에 달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통합에 따른 경제조정 효과의 나타나기 시작하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의 남한지역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 북한지역은 11%가 되어 국민총생산은 2조 달러, 1인당 국민총생산은 2만 5,000달러로 증가, 통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에서도 경제대국의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통일 이후의 1인당 GNP도 구체적으로 계산한 연구결과가 있다. 즉 통일을 전제로 북한이 남한과 공존하면서 중국식으로 점진적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남한

이 매년 경제성장률만큼 지원하는 방식을 상정하면 2032년에는 남북한의 1인당 GNP가 5만 8,000여 달러 수준으로 같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영선교수가 “한반도에서의 경제적 통합의 효과-통일비용과 이득에 대한 시나리오적 접근”이란 논문에서 계산한 것이다.

그밖에 관계당국에서도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GNP는 일정기간의 조정기간을 거치면 세계 10위권에 드는 것은 무난하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는 우선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한의 기술 자본이 결합했을 때 상당한 저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시베리아와 만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줄 것인데, 이것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으로 GNP의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통일이 되면 남북한 인구가 7,000만이 될 것인바, 이 정도면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적절한 인구를 가지게 되어 통일 한국의 경제력 성장은 낙관적이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먼저 통일이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우리의 경제력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세계 10위권 진입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훈, 이용숙, 통일 그날이후, 길벗, 1995, p. 135)

#### <5> 통일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사회적 측면의 갈등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주민들은 원칙적으로 재산의 사적소유가 금지된 사회에서 살아왔으므로 통일시에는 북한 농민들이 경작해 온 협동농장의 토지소유문제와 주택소유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아울러 ‘무상’과 ‘조세’의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식 배급제에 익숙한 북한주민들이 시장경제에 기초한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적응하는 일도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일이 되어 북한의 대다수 사람들이 남한의 산업인력수요에 흡수될 경우 상당수의 북한주민들은 상대적 지위격하를 느끼게 되고, 남한의 비숙련노동자들과 북한인력간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이로 인한 갈등유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근로 의식의 부족, 노동 구조에의 부적응 등으로 직업적 부적응 현상이 초래될 것이며 실업자 군의 양산이 우려된다.

반면 통일이 될 경우 북한주민들이 경제생활에서 겪게 될 심리적 고통 중에는 소득 수준의 격차에서 오는 것, 다양한 광고와 상표가 주는 혼란과 소비재 선택의 어려움, 시장경제·화폐기능의 이해부족으로 재투자 등 합리적인 경제활동의 제약에서 오는 것, 기타 사치·퇴폐·향락에 빠진 풍조들에 대한 이질감 내지 혐오 등이 있을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통일 한국에서 북한지역 주민들은 패배의식, 자신감 상실, 새로운 체제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스스로 이등 국민의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남북지역 주민들간에 심리적 장벽이 가로놓이게 되고 지역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통일 후 북한지역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더라도 남북간 경제력 차이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양 지역간의 부의 불균형에서 오는 북한지역 주민들의 사회·심리적 박탈감과 열등의식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들에게는 폐쇄된 사회와 억압구조 속에서 탈인성화와 이의 결과로 생성되는 유아화 현상이 새로운 사회에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통일 이후 1인 독재와 같은 강력한 통제가 없어지는 상황이 도래하면 평안도와 함경도의 지역 감정 역시 표면화될 수 있으며, 나아가 경상도와 전라도로 동서가 갈라지는 한국사회의 병폐가 통일 이후 북한에서도 동서로 갈라지는 병폐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선거문화가 들어가고 지도자들이 함경도와 평안도의 지역감정을 자극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들면 남한에서보다 더욱 강력한 지역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다. 또한 해방이후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과 6.25로 인한 이산가족 그리고 기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이산가족들이 상봉하게 되면, 이산전후의 가족관계가 달라진 점으로 인해 호적문제, 재산문제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북한주민들은 타도의 대상인 ‘미·일제국주의와 남조선 반동통치배’들에 대해 끊임없는 증오심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대남 및 미일에 대한 집단적개심과 이질감은 통일이후에도 일정기간 계속될 것이며 민족적 대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사회에서 형성된 이러한 집단 적개심(hostility)이 축적될 경우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뒤섞여 이웃하여 살게 될 때 겪게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의존구조의 붕괴에 따른 북한사람들의 열등감의 노정과 새로운 정체감 형성과정에서 생겨날 심리적 혼돈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아이디어를 끊임 없이 개발하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며 부단한 경쟁을 통하여 자아를 개발하여 온 자주성이 강한 남한 주민들과,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기계적으로 순응하여 온 피동적인 북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북한에서는 여타 사회주의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한에 비해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높으며 사회 활동에서 남녀 차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통일 후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 성적 가치관에 대한 차이로 인한 여성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또한 남북한간 여성의 근로조건, 탁아정책, 가족정책 등 여성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통일정부의 이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적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예컨대 여성의 실업률 증대, 남북 여성들간의 사회참여에 대한 갈등, 여성의 성 상품화 등이 대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오기성, 북한사회의 이질화 및 갈등 분석, 2000 국방대학원 용역과제 보고서 참조)

#### <6> 통일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및 교육적 갈등은?

문화적 측면에서 북한은 문학예술 분야에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는 정책을 견지해 왔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북한은 남한 예술에 대해 양키식 문화라고 비방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은 보편적인 예술관과는 거리가 있는 폐쇄적인 예술관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통일이 되는 경우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든 남한예술에 대해 이미 형성된 자신들의 관점으로 보려 할 것이고, 이런 일은 양쪽 예술인들의 감정적 대립까지 가져올 수 있다. 또 북한 문학예술에서 가장 강조되는 측면은 사람들을 혁명투쟁으로 이끌고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심과 절대적인 복종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 예술인들 중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밀려나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언어생활에서도 어떤 면에서 남북한 주민간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양자간의 의사소통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화된 언어는 서로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며, 서로 다르게 발음하거나 글자가 다른 명사가 2천4백 여 개에 이른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또한 문법용어, 어휘, 맞춤법이 다르고 발음, 억양, 리듬의 음성학적인 차이가 있다. 어휘분야의 차이는 특히 심다.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에 기반한 다원주의적 민주체제를 지향하는 통일국가에서 북한주민들이 자본주의적 경쟁이나 개방적 성문화 등과의 접촉을 통해 가치관의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점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에서 집합적 정체성은 물론, 개인적인 자기 정체성까지도 동요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문화통합형보다는 문화동화형이나 문화분리형 또는 문화주변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감정정체가 깊게 누적되어 왔을 경우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와 같은 경쟁체계의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또한 북한사회는 동원이나 '집단주의 원리' 아래 움직여지기 때문에 남북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일상생활상의 여가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주민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직업, 소득수준, 교육수준에 따라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는 남한 사람들의 생활태도에 대해 부적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사회생활 가운데 풍요롭게 물질생활을 하는 남한 사람들의 행동에서 상대적 빈곤의식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 형성된 경직된 도덕적 판단과 태도는 문제를 가중시키기 쉽다.

아울러 대다수 북한주민들에게는 남한의 시장 경제적인 자본주의 문화가 결코 긍정적인 모습으로 부각되기보다는 '변태적이며 서양화된 비극'으로 비칠 수 있다. 더욱이 이는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인에게 나타나고 있는 복고주의적인 사회심리현상이 북한주민들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 대부분은 북한의 현재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면서도 "제도는 본래 좋은데" 라는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북한은 사상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아주 좋으나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통일 시 남한의 현 교육제도를 따른다고 가정할 경우에 북한지역 주민들은 통일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따라서 북한지역의 학령인구는 그만큼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지역 학령아동의 진학률이 낮아질 것이다. 또한 정규교육 이외에 사교육에서도 남한지역 학령아동들에 비해 북한지역 학령아동들이 기회가 적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며, 특히 취학 전 아동에게 중요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남북한 지역 학령아동간 교육기회의 불균형은 사회경제생활에서의 경쟁력 차이로 연결되어 남북한 지역 주민간 소득격차, 생활수준의 차이 등을 발생시키는 등 실질적인 사회통합에 주요한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교육의 이념과 목표에서 보면, 유일무이한 '주체사상'에 의존하기만 하면 삶이 보장되는 유일한 가치관과 세계관에 길들여진 사람들과 다양한 가치를 자신의 책임하에 선택적으로 삶을 꾸려가면서 형성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만남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교육내용과 방법에서도 갈등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북한의 교육 내용과 방법은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인문 사회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내용까지도 개선되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교수학습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또한 남북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교육용어는 대부분 교시와 당 강령에 기초한 강령적인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북한의 교육 용어는 교육학이라는 학문적 범주에 기초하여 생성·채용·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요구되는 자질과 특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강령적 언어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은 서구의 교육이론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상태이다. 이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모두 해당된다. 아울러 교육정보화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의리와 온정을 중시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조직화되어 움직이는 사회에서 몇 십 년 동안 살아온 북한학생들에게 있어 자유롭고 이해관계에 치밀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우관계를 새롭게 잘 형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울러 특히 북한 지역의 청소년들은 급격한 체제변화에 대해 사상적 방황, 상실감과 부적응

현상을 보일 수 있으며, 무감각적인 순응을 하거나 정치적 폭력행위와 같은 공격형태로 자신의 방향과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때에 지역분열을 부추기는 기성세대의 정치전략에 청소년들의 경우 세대를 잇는 새로운 지역 갈등이 노정될 수 있다. 또한 신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세대의 집단적 갈등도 예상할 수 있다.

(오기성, 북한사회의 이질화 및 갈등 분석, 2000 국방대학원 용역과제 보고서 참조)

#### 나. 다른 분단국들은 어떻게 통일을 준비했을까?

##### (1) 학습 목표

(가) 어떻게 통일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

(나) 외국의 통일 사례를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을 말할 수 있다.

##### (2) 교수-학습 모형 : 시청각 매체 활용 모형(45-48쪽 참조) 및 글쓰기

(3) 교수-학습 지도안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학습 상 기</li> <li>○ 학습 동기</li> <li>○ 학습 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학습 '통일된 사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의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한다.</li> <li>○ 학습동기 유발 : 분단국의 통일 사례를 제시한다.</li> <li>○ 학습목표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학습 내용을 회상한다.</li> <li>○ 메모한다.</li> <li>○ 경청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학습과의 연계성 강조</li> <li>○ 학습자료&lt;1&gt;</li> </ul>
진개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전 유의 사상 점검</li> <li>○ 시청각 자료 투입(10')</li> <li>○ 시청 후 보고서 작성</li> <li>○ 시청 후 소감문 발표</li> <li>○ 시청 결과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전 유의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한다.</li> <li>○ VTR자료(MBC통일5부작 중 1부)를 보여준다. · 동서독의 통일 사례 · 중국·대만간의 교류</li> <li>○ 시청 후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다.</li> <li>○ 몇 명의 학생을 지명하여 발표하도록 한다.</li> <li>○ 외국의 통일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발표시킨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용히 경청한다.</li> <li>○ 시청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공책에 메모 한다.</li> <li>○ 소감문을 작성한다.</li> <li>○ 소감문 내용을 발표한다.</li> <li>○ 교훈을 발표한다. · 필요한 사항은 공책에 기록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료&lt;2&gt;</li> <li>*참고자료 &lt;1~3, 5&gt;</li> <li>○ 학습자료&lt;3&gt;</li> <li>*참고자료&lt;4&gt;</li> </ul>
정리 및 평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li> <li>○ 형성평가</li> <li>○ 차시학습 예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국가의 사례를 정리한다.</li> <li>○ 소감문 작성으로 대체한다.</li> <li>○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를 예고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변한다.</li> <li>○ 소감문을 작성한다.</li> <li>○ 공책에 메모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료&lt;4&gt;</li> </ul>



## (4) 교수-학습 자료

## &lt;1&gt; OHP자료 1 : 분단국의 통일 사례

비교 \ 국명	베트남	예멘	독일
체제간 이질성	매우 큼	약함	매우 큼
통일방식	무력적 흡수 통일	합의 후 무력통일	평화적 흡수 통일
통일 후의 체제	공산주의	이슬람 공화국	자본주의

## &lt;2&gt; VTR자료 1 : 다른 나라의 통일과정(MBC 5부작 - 1999년 11월)

- ♣ 다른 나라의 통일과정과 통일이 되면 좋은 점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통일 이후의 가상현실을 여러 상황으로 재현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 1부 : 독일, 예멘, 베트남의 통일과정과 통일후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통일의 형태, 통일 후 예상 시나리오, 통일 후 이로운 점 등을 다룬다.
- ♣ 2, 3, 4 부 : 통일 후 벌어질 예상 문제점들을 가상현실기법을 사용하여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즉, 이산가족, 화폐 동폐합, 경제구조의 변화, 교육문제, 군비 축소, 토지 분배, 사회 갈등, 북의 거부감과 상대적 빈곤감, 노동에 대한 인식 차이, 여성문제 등 통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가상 드라마 형식으로 제시한다. 통일에 대하여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가상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 ♣ 5부 : 통일비용 문제,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 통일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준다.

<3> 분단국 통일 사례에 대한 소감문

국 명 비 교		베트남	예멘	독일
교류·협력		실행 안됨	인적교류가능·간헐적 협력	원활히 추진
체제간 이진성		매우 큼	약함	매우 큼
발전격차		거의 없음	약간 있음	매우 큼
통일방식		무력적 흡수 통일	합의 후 무력통일	평화적 흡수 통일
통일 후의 체제		공산주의	이슬람 공화국	자본주의
통일 후 문제점	정치	거의 없음	무력 대결	없음
	경제	전후 재건 비용	저 성장 악순환	막대한 통일 비용
	사회·문화	국민 통합 문제	사회 혼란 가중	사회 통합 문제
시사점				
소감문				

<4> 통일작품 감상<sup>32)</sup>

시부분 / 최우수	
<b>통일의 노래</b>	
이유경(선정고등학교 3학년)	
<p>드디어 비가 내린다. 봄비가 내린다.</p> <p>파아란 하늘 아래 산자락마다 다소곳 엮드린 저 다정한 촌락들 풀어진 넥타이로 흐르는 삼천리 황토길 위로 애타던 님처럼 봄비가 내린다. 반세기 긴 겨울 속에서 사친만 애간장 녹여 온 저 질긴 가뭄 위로 다순 바람이 봄비를 몰고 온다.</p> <p>메말라 먼지 부서이며 갈라진 이 땅덩이 틈새에 서릿발로 박힌 저 냉엄한 이념 그 얼음장을 녹일 봄비가 내린다.</p>	<p>살갓 찢긴 지 반세기 누구는 가슴에 못 박은 채 새가 되어 날아갔고, 아직 숨쉬는 이들 뒤척이며 날마다 밤잠을 설치는데, 목이 메이는데</p> <p>불신과 오기로 얼룩진 황량한 이 벌에 메말라 굳은 사상 적시며 뺏신 누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진다.</p> <p>빗물 스미는 곳마다 갈라진 땅 하나되어 부드러운 흙으로 되살아나느니,</p> <p>긴 세월의 불모지에 온갖 꽃들 다투어 피어나리라.</p>
소감문	

32) 통일교육원, 2000년도 학생 통일 글짓기 입선작, 「하나로 향하는 마음」 (2000), pp. 266-267.

(5) 참고자료

<1> 남북정상회담, 70년 동서독 회담과 어떻게 다른가?

2000년 6월 13일 열린 남북간 정상회담은 지난 70년 동·서독간 정상회담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70년대 동·서독 정상회담은 독일을 둘러싸고 대치해있는 서방진영과 공산진영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면 남북정상회담은 외세의 힘을 배격한 채 순전히 남·북한 양국간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공항의전부터 달랐다.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총리 일행을 에어푸르트 역에서 영접했던 인물은 동독의 실세였던 울브리히트 국가평의회 의장이 아니라 슈토프 총리였다.

하지만 이날 평양순안공항에는 북한의 공식적인 국가원수인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나와 파격을 보여주었다.

김 위원장이 또 직접 트랩 앞까지 걸어가 트랩 위에서 미소를 지으며 내려온 김 대통령에게 악수를 건넨 것도 충격적이었다. 의전절차도 달랐다.

에어푸르트 역에 도착한 특별열차편엔 서독을 표시하는 일체의 표지가 부착되지 않았지만 전용기엔 태극마크와 대한민국이란 표지가 너무나 선명했다.

남측 수행원과 보도진들도 모두 가슴에 태극뱃지를 달았다. 국가연주나 의장대 사열도 없었던 70년 당시에 비교하면 김 대통령이 김 국방위원장과 나란히 북한군을 사열하는 모습은 가슴 벅찬 광경이었다.

더욱이 김 대통령이 순안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북측 환영인파를 향해 손을 흔들며 공항 통제선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인사들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더욱 환영케 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정상회담의 형식과 내용도 달랐다. 동·서독 정상회담은 만 하루동안 진행됐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친 확대정상회담에 이어 저녁에야 단독회담이 이루어 졌다.

남북 정상회담은 이날 오전 백화원 초대소에서 양국 정상간의 상견례를 겸한 회담

을 시작으로 최소 2박3일간 진행된다.

회담 주제도 동독이 양국간 동등관계 인정과 손해배상 요구 등 정치적인 선전에만 열중하면서 아무런 소득을 건지지 못했지만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이산가족문제에서 부터 남북경협에 이르기까지 상호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매일경제, 2000. 6. 13)

## <2> 독일 통일 10년만에 '장기호황'

올해로 공식 통일 10년을 맞는 독일의 경제가 상반기 3.2% 성장했다. 이는 통일후 최고의 성적이다. 2/4분기 성장률은 3.1%로, 1/4분기(3.4%)에 뒤진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성장세는 그러나 수출 및 내수 호조 등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중앙은행인 분데스뱅크의 에른스트 벨데케 총재는 “독일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기에 들어섰다” 고 말했다. 올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상하고 있는 정부와 달리 분데스뱅크를 포함해 상당수 기관들이 3%대로 전망할 정도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확산되고 있다.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앞서 독일 경제가 ‘미국식 장기호황기’에 접어들었으며, 활황세가 수년간 지속될 것 같다고 RWI 경제진망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일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우리로서는 부러운 일이다.

▶ 독일이 1945년 8월 연합국에 통치권을 이양하면서 동과 서로 갈라선 뒤 첫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1970년 3월. 이로부터 재통일까지는 9차례의 정상회담과 20년이 필요했다. 이런 역사적인 통일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고 LG 경제연구원의 '주간경제' 최근호가 지적했다.

90년대 통일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 2.5%를 밑돌았다. 경제부진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통합방식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정부는 신속한 통합을 위해 서독과 동독 마르크화를 1대 1로 교환되도록 했다. 암시장 교환비율이 1대 7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동독 주민들에게 아주 유리하게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동독의 노동비용을 급상승시켜 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고, 서독기업에 같은 조건으로 경쟁해야 했던 동독기업들의 부도가 잇따랐

다. 이는 고실업으로 이어졌다.

▶ 서독지역 역시 낙후된 동독지역의 인프라 구축 등에 막대한 재정이 지원되는 가운데 경기침체를 감수해야 했다. 서독 지역은 통일을 전후한 1990년과 1991년 동독 경제재건을 위한 투자 증가로 5~6%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후 1997년까지 1%대의 성장에 그쳤다. 1980년대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2.5% 성장한 것에 비하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독일 정부가 지난 10년 간 쏟아 부은 통일비용은 1조9,200억 마르크(960조원)로 추산됐다.(인제대 배진영교수) 이는 통일전 논의됐던 각종 전망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 독일경제연구소는 공식 통일 직전인 90년 6월 향후 10년 간 통일비용을 1조 마르크로, 타임지는 8,000억 마르크로 각각 추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동독의 노동생산성이 서독의 80%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투자금액이 1조 마르크 정도 들 것으로 추산했다. 동독의 노동생산성은 아직 여기에 못 미치고 있고, 더구나 이런 비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통합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올 들어 분단 후 첫 정상회담, 이산 가족 상봉, 그리고 생사확인 등을 위한 가족 서신교환 합의 등 남북교류가 급류를 타고 있다. 향후 통일비용에 대한 추산도 잇따르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남북 경제수준이 대등해지려면 10년 간 1조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고, 바클레이즈 캐피털은 북한 주민의 소득을 남한의 75%까지 끌어올리려면 통일 후 20년 간 해마다 남한 GDP의 9.5%, 총 200억 달러 가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예로 보면 이 역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회통합의 선결 요건은 경제력 격차의 축소다. 경제력 격차의 축소는 사회통합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난 반세기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에서 살아 온 남북한의 교류 활성화는 향후 통일 비용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독일이 정상회담 후 통일까지 20년이 걸렸기 때문에 통일비용 논의는 성급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독일 경제가 통일후 제자리를 찾는데 10년이 소요된 점을 생각하면 진지한 논의와 연구가 시급한 지 모른다.

(머니투데이, 2000. 9. 3)

### <3> 독일 통일의 교훈

1989년, 40여 년 독일분단을 상징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독일의 통일은 우리의 분단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과 한반도 분단 상황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우리가 독일 통일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독일은 2차 대전 패전 후 미국, 소련(러시아) 등 전승국에 의해 분할되었다. 때문에 독일인들은 민족갈등 보다는 같은 아픔을 가졌다는 동지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는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른 아픈 기억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분단은 단순한 정치적, 영토적 분단뿐 아니라 민족적 분단이라는 의미가 크다. 우리의 상황은 독일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독일과 우리의 통일국가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독일통일은 분단이전의 근대적 민족국가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근대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국가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에게 통일은 새로운 민족국가를 창조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통일경험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우선 통일문제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같이 다가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수십년 간의 일관된 실사구시적 정책으로 통일 당시 이미 '사실상의 통일' 단계에 이르러 있었다. 서독은 평화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동독의 실체를 인정하며 동서독간의 교류 및 방문을 추진하는 등 차근차근 통일의 여건을 조성해 왔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독일 통일은 통일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 당시 독일은 주변국들에게 독일 통일이 유럽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꾸준히 설득하였다. 이러한 서독 통일외교의 밑바탕에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었음은 물론이다.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도 다양한 입장이 있고 주변국의 이해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 그리고 주변국에 한국 통일의 당위성과 유용성을 설득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은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통일을 이룬지 10여년이 흐른 지금 독일은 아직도 통일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우리가 통일에 앞서 화해와 평화를 강조하는 것은 이런 통일 후의 몸살을 줄여보자는 것이다.

(통일교육원, 새천년, 통일문제 새로 보기, 2000, pp. 18-19 참조)

#### <4> 중국·대만의 문화 교류 사례

중국과 대만간의 문화교류 사례를 보면, 남북한과 중·대만은 공히 이념적, 체제의 대립을 장기간 경험하였고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교류, 협력의 확대를 통한 민족화해, 민족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의 공통점은 첫째, 중국의 통일은 매우 장기적으로 보며 비정치적인 교류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통일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이며, 둘째, 이러한 장기적인 통일은 결국은 국민의 삶의 질로 결정되며, 셋째,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쌍방이 모두 개혁과 개방정책을 통한 민주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과 중·대만은 이념과 체제의 대립을 완화하고 상호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중국과 대만은 지난 45년 간 단절을 겪고 나서 대만 인민이 다시 故土를 밟고 고국의 문물을 접함으로써 자연히 형용하기 어려운 감동을 맛보았으며, 같은 혈연의 정을 불러일으켰다. 필경 양안은 혈연 상으로나 문화상으로나 단절시킬 수 없는 관계이며 5천년에 걸친 문화에 바탕을 둔 상호이해는 단절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심오한 문화적 이해는 또한 미래에 통일로 매진하는데 돈독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만과 대륙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동질문화에 속한다. 대만과 대륙이 비록 하나의 문화적 전통에 속해있다 해도 여전히 의식형태, 정치체제와 경제발전방향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미래의 장기적 발전의 측면에서 ‘中國의 特色’, ‘現代化’는 양안의 미래의 문화교류방면에 있어서 공통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의 자유스러운 분위기와 민주제도 중에서 전통문화에 기인한 창조적인 활력을 보존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중국인의 현대생활의 맥락 속에서 창조한 문화전통의 새로운 방향이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대만과 대륙의 문화교류는 중국대륙을 중화문화로 회귀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만과 대륙 쌍방의 문화교류는 기본적으로 쌍방에서 계승되고 있는 공동의 문화유산을 운용하여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兩岸 인민의 공동적인 이해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45년 간 국토분열에 의해 조성된 생활상의 격차를 보충함으로써 중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성적인 대화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은 제도적 동일을 달성하는 선결조건이 될 것이다. 중·대만관계의 발전과정에서 인적 교류가 수행했던 역할의 중요성은 인적교류가 활성화된 1988년 이후와 그 이전의 중, 대만관계가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전의 남북한의 인적교류 역시 남북한 주민의 상호이해의 촉진, 각종 교류·협력의 확대요인으로 작용하여 남북한 관계의 변화의 새로운 계기를 조성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대만관계의 발전과정을 보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화교가 많은 지역이 양안관계를 촉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현재 우리의 해외동포는 총 5백 2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연변 지역이나 미주지역은 교포들이 집중되어 있어 남북한간 중개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 판단된다.

반면 지속되어 온 중국과 대만간의 교류에서 표출되는 문화적·심리적 갈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본토를 여행하고 온 홍콩인들과 대만인들은 본토의 일부 관료들이나 경제파트너들에게서 생색내는 듯한 태도와 우월감의 표출을 종종 경험하였고, 그것들은 그들의 분리정서를 강화시켰다. 본토의 부패상, 본토 친척들의 지원 요구, 열악한 생활과 여행조건들 또한 그러한 감정을 더욱 보강하였다. 본토인들의 입장에서 홍콩과 대만 여행객들은 거만하고 요구가 지나치며, 신의가 없게 인식되었다. 너무 밀접한 접촉은 어떤 방식으로든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정을 증폭시켜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오기성, 남북한문화통합론, 교육과학사, 1999, pp. 285-287)

## 다.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

### (1) 학습 목표

- (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자세를 제시할 수 있다.
- (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 (2) 교수-학습 모형 : 시청각 매체 활용 모형(68-70쪽 참조) 및 글쓰기

#### (가) 본시 수업 모형 활용의 유의사항

- 우리의 통일은 남북한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된 후에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시킨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북한에 대한 지나친 감정적 자세나,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주지시킨다.
- 북한을 우리의 동포로서 서로 '나눔'의 정신을 갖기 위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지나치게 감상주의적인 수업이 전개되지 않도록 교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가능하면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한다.
-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VTR시청을 할 때 유의사항을 미리 교육시킨다.
- 고정관념 탈피를 위한 학습자료를 만들어 충분한 사용 설명을 한 후 작성하도록 하고, 발표시에는 적절히 내용을 수정해 준다.
- 집단 탐구보다는 개별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통일을 위한 고등학생들 차원에서의 실천동기와 의지를 심어주도록 한다.

## (3) 교수-학습 과정안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학습상기</li> <li>○ 학습 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학습 '다른 분단국은 어떻게 통일을 준비했을까?'를 정리하여 설명한다.</li> <li>○ 학습목표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학습의 내용을 회상한다.</li> <li>○ 경청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학습과의 연계성 강조</li> </ul>
전개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동기유발</li> <li>○ 학습지 작성 설명</li> <li>○ 질의 응답을 통한 수업 전개</li> <li>○ 고정관념에 대한 탐구</li> <li>○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하기</li> <li>○ 통일 4행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각자료를 보여준다. (다양성을 소중히)</li> <li>○ 내가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그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지시한다.</li> <li>○ 고정관념의 정의를 설명하고 질문한다.</li> <li>○ 자신의 고정관념을 발표하도록 한다.</li> <li>· 자신의 고정관념은 어디서 배웠는가?</li> <li>· 내가 만약 고정관념이 사실이라면 그 믿음은 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li> <li>· 어떤 집단이나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생각은?</li> <li>○ 북한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순서로 질문을 한다.</li> <li>○ 학생통일글짓기 입선작을 감상하게 한다.</li> <li>○ 통일관련 4행시를 발표시킨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한다.</li> <li>○ 연습지를 받아 작성한다.</li> <li>○ 답변한다.</li> <li>○ 연습지의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li> <li>○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li> <li>○ 조용히 감상한다.</li> <li>○ 4행시를 짓고 발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료&lt;1&gt;</li> <li>○ 학습자료&lt;2&gt;</li> <li>○ 선입견과 편견을 비교 설명해 준다.</li> <li>*참고자료&lt;1&gt;</li> <li>*참고자료&lt;2&gt;</li> <li>○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에 관한 질문으로 한정한다.</li> <li>*참고자료 &lt;3, 4&gt;</li> <li>○ 학습자료&lt;3&gt;</li> <li>○ 학습자료&lt;4&gt;</li> </ul>
정리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li> <li>○ 북한이해퀴즈</li> <li>○ 통일의지 자성예언</li> <li>○ 합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발표하게 한다.</li> <li>○ 북한이해하기 퀴즈를 낸다.</li> <li>○ 다같이 통일의지 자성예언을 하도록 한다.</li> <li>○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합창하게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략하게 답변한다.</li> <li>○ 퀴즈를 푼다.</li> <li>○ 큰 목소리로 읽는다.</li> <li>○ 다함께 합창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상적이지 않게 유도</li> <li>○ 학습자료&lt;5&gt;</li> <li>○ 학습자료&lt;6&gt;</li> <li>○ 흥미 있도록 전개</li> </ul>

(4) 학습 자료

<1> VTR자료 1 : 다양성을 소중히

제목: 다양성을 소중히 출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이해교육자료 시간 ; 20분 내용 : 슈퍼마켓 점원인 마리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 음식, 언어, 체격, 나이, 신체적 조건 등-에게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안되고 인간관계가 부드럽지 못한 것을 보여주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함을 교육시키는 자료
--

<2> 고정관념 탈피를 위한 연습지

■ 내가 어떤 집단이나 타인에게 갖는 고정관념

대 상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stereotype)	
내가 그들에게 보이는 있는 태도(attitude)	
내가 하고 있는 차별적 행동(behavior)	
나의 행동에 대한 결과들(consequences)	

■ 내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대 상	북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stereotype)	
내가 그들에게 보이는 있는 태도(attitude)	
내가 하고 있는 차별적 행동(behavior)	
나의 행동에 대한 결과들(consequences)	

<3> 학생 통일 글짓기 입선작 감상<sup>33)</sup>

시부문/ 고등부 최우수작	소감문
<p style="text-align: center;"><b>그리는 마음</b></p> <p style="text-align: center;">이지연(명덕외국어고등학교 2학년)</p> <p>나 여기서 너를 본다  강 건너면 닿을 고향  말없이 흐르는 저 강물 위로  죽음 앞두고 흘린  넌 향한 할머니 눈물 보았다.</p> <p>잃어 버린 어린 시절  그리다 지친  늙은 몸 이끌고  이 곳에 왔건만  겨우 눈물 흘리는  이 마음 어느냐.</p>	

33) 통일교육원, 6·15 공동선언 1주년기념 전국학생 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2001), pp. 17-18.

<4> 통일 관련 4행 시 짓기

통일 관련 4행시 짓기

(        )학년 (        )반 (        )번 이름(        )

주제	사행시 짓기	작성 후 소감
국토 분단	국 :	
	토 :	
	분 :	
	단 :	
평화 통일	평 :	
	화 :	
	통 :	
	일 :	

## &lt;5&gt; 북한사회 이해하기(O, X 퀴즈 문제)

1. 북한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므로, 남자아이를 더 좋아하는 일은 없다.(X)
2. 북한에는 족보가 없다.(O)
3. 요즘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남자의 경우 국가 안전부(경찰)이고, 여자의 경우 당 간부이다.(X)
4. 북한에서는 극장에서 암표를 파는 사람이 없다.(X)
5. 북한에서는 연애 결혼을 할 수가 없다.(X)
6. 북한에도 노래방이 있다.(O)
7. 북한에도 복권이 있다.(O)
8. 북한에도 지역 감정이 있다.(O)
9. 북한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민속 명절이 없다.(X)
10. 북한에서는 개고기를 단고기라고 부르며, 남한처럼 개고기를 즐겨 먹는다.(O)
11. 북한에서는 냉면을 국수라고 부르며, 평양 냉면을 최고로 여긴다.(O)
12. 북한에는 라면이 없다.(X)
13. 북한에도 수업을 빼먹는 아이들이 있다.(O)
14. 북한에서는 쌍꺼풀 수술을 무료로 해 주고 있다.(O)
15. 북한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X)
16. 북한의 국보 제1호는 김일성 동상이다.(X)
17. 북한 TV에서도 코미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O)
18. 북한의 직장인들은 여가 시간에 탁구를 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O)
19. 북한의 직장인들도 보너스를 받는다.(O)
20. 북한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김치는 통배추 김치이다.(O)

<6> 통일의지 '자성예언' 하기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마음가짐과 자세

1. 통일은 내가 만든다는 주인정신을 갖자.
2. 강한 의지력을 키우자.
3. 현명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자.
4. 남의 말을 경청하고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을 키우자.
5. 국제 사회의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자.
6.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자.
7. 민주시민의 질서를 습관화하자.
8. 화해와 나눔의 정신을 갖자.
9. 다름을 이해하는 노력을 하자.



## &lt;7&gt; 가정 학습 과제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민족의 아픔에 관한 자료(가능한 사진 자료)를 수집하여 스크랩 제작하고, 자신의 소감과 민족통일을 위한 준비해야 할 과제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기록하시오.

자료 제목	
자료 출처	
자료의 내용	기사의 내용이나 사진 화보를 붙이도록 한다.
자료에 대한 소감	
민족 통일을 위한 과제	
실천 방안	

(5) 참고자료

<1> 이제는 심리적 통합을 준비할 때

50여년 동안 생사조차 모르며 꿈에도 잊지 못하고 그리던 가족과 얼싸안고 기쁨과 회한에 몸부림치는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보며 진정한 통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이산가족의 만남은 이제 통일이 더 이상 이루어지기 힘든 소원이 아니라 머지 않아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실체적 사실이고, 또 통일이 이산가족들만의 만남을 넘어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남과 북의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엄청난 사건임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것을 앞당길 수 있을 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 논의는 주로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통일 못지 않게, 오히려 진정한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더 중요한 것이 심리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는 점은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10여년 전에 이미 정치적 경제적 통일을 이룬 독일은 아직도 서독 출신과 동독 출신 사이에 심리적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오히려 동서간의 정서적 대립이 더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개최된 한 강연회에서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가 준 충고, 즉 “통일 과정에서는 언젠가 희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치 경제적 준비 못지 않게 이를 극복하려는 정신적 심리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충고는 심리적 통합에 대한 치밀한 준비 없이 맞이하는 정치·경제적 통일에 예상외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통일 후의 심리적 통합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 실태이다. 89년에 귀순해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현재 냉면 집을 운영하는 등 ‘자본주의에 가장 잘 적응한 귀순자’라는 평을 듣고 있는 전철우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귀순 생활 10년이 꼭 행복하지만은 않았다”고 털

어놓으면서, “내가 만나본 귀순자의 80%가 ‘남한이 지긋지긋하다’며 고개를 젓습니다”라고 귀순자들의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남북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하고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 통일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통일한 나라들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심리적 통합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치밀한 준비와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심리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서로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단일민족으로서 분단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동질적인 문화 속에서 생활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동일한 사회 속에서도 문화는 변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남과 북은 서로 이질적인 정치 경제 체제 속에서 반세기 동안 생활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질적인 면 못지 않게 이질적인 면을 갖게 됐다. 이 점은 귀순자들이 한결같이 서로 상이한 문화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다. 만약 현실적인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감상적 동질성’의 환상을 갖고 있다면, 이 환상이 깨지는 날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비난이 커지고 통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이러한 문화적 차이점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심리적 개방성’이다. 단순히 서로간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심리적 통합을 이룰 수 없다. 만약 이 차이점을 통일의 방해요소로 보고 시급하게 없애려고 한다면, 서로간의 불신만 늘어나고 끊임없는 권력 싸움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여러 나라에서 성급하게 문화적 이질성을 없애려는 용광로 정책이 실패로 끝나고 결국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뀐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심리적 통합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은 서로를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가야 할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어느 한 편이 상대방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거나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결과는 반목과 질시만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한성열, “이제는 심리적 통합을 준비할 때”, 동아일보. 2000. 8. 15)

## <2> 한반도 냉전의 매듭 풀기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적 질서가 막을 내린 지금도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가 해체되지 않으면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이나 통일은 달성되기 어렵다. 그래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는 이 시대 우리의 기본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 ▶ 한반도의 냉전구조

한반도 냉전구조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 개의 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남북한과 주변 4강간에 얽혀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가 있고, 그 아래에 남북한간, 남한 내부, 북한 내부 등 3개의 냉전적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한반도 냉전구조에서 각 행위자들은 냉전적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채 두 편으로 나뉘어 서로 대결하고, 부딪히면서 긴장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남북한간의 극단적 대립과 갈등, 북한과 미국·일본간의 갈등, 남북한 내부에서의 불신과 편가르기 등은 이러한 한반도의 냉전 구조의 산물들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은 상호간의 적대관계를 주도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소모전을 되풀이해 왔으며, 이러한 갈등 속에 주변국들도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해 왔다. 1991년 기본합의서 채택이후 북한 핵문제로 남북한이 실질적인 관계 개선에 실패하고 1994년에는 급기야 전쟁위기까지 갔던 일은 이런 한반도의 긴장구조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이다.

### ▶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는 시대적 요구이다.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① 남북관계 개선, ② 북·미, 북·일 관계의 정상화, ③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④ 대량살상무기 위협해소, 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에로의 전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제들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

다. 그러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의 틀이 형성되지 않으면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정상회담과 10월 12일의 북·미 공동성명은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한반도 냉전의 매듭을 풀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원, 새천년 통일문제 새로 보기, 2000, pp. 48-49)

### <3> 내적 통일 준비 영역

#### ▶ 차이와 공통점에 대한 이해

우선 중요한 것은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 알고 차이와 공통점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동찰력을 가져야 한다. 즉 차이는 줄이고 공통점을 확대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 ▶ 상호인정 - 이질화와 동질화의 평화공존

무엇보다 남한 사람은 북한에 대한, 그리고 북한 사람은 남한 사람에 대한 선입견, 오해, 편견을 버려야 한다. 특히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선입견, 냉전구조에 의한 선입견, 경제적 격차에 근거한 오해 등을 극복해야 한다.

남북한이 상호 인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북한사람에서 보는 나쁜 점이 남한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과 남한의 좋은 점이 북한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인정하고 그래서 나와 같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다. 표면적인 오해, 편견, 증오, 의심 아래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상대방에 대한 희망사항, 이기적 욕구, 부당한 열정이 있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동질화가 가능한 것은 동질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부를 동질화하려고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필요에 따라 어떤 것들은 다른 채로 남겨둘 수 있는 아령과 율통성도 있어야 한다. 즉 이질성이 동질성이 평화공존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야만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으며, 다양성이 보장될 때 상호자극과 보완이 가능하여 보다 큰

발전이 가능해 질 수 있다.

▶ 결핍과 상실의 보충-잠재력의 개화

북한은 그 특유의 생존전략 때문에 오랫동안 폐쇄적이었고, 통제적이어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정서적 생활, 그리고 인격 발달에 있어 많은 것이 제한되어 왔다. 즉 결핍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최근 국제적 궁핍 때문에 전반적 결핍 상태는 보다 심화되고 있다. 남한은 이를 이해하고 민족 우선의 차원에서 배려하는 마음에서 양보하고 인정과 물질을 베풀어야 한다. 식량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 뿐 아니라 미래 통일 한국의 생산성이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시급하다. 나아가 손상된 자존심의 회복, 차이가 심한 삶의 질 부분에 대해 균형적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적에 따라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같은 민족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잠재력이 피어나도록 해야 한다.

▶ 남한도 변해야 한다.

남한 사람도 반성해야 한다. 남한에도 결핍되고 빈곤한 것이 없는가? 50년간 바쁘게 달려오면서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남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풍요하고 너그러운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만 상호 신뢰할 수 있고 진정한 속마음을 들어내는 대화와 화해가 가능해 진다. 그리고 우리가 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이를 가까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남한 사람은 북한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서독 사람들이 동독사람들을 대하듯이, 남한 사람들이 북한사람들을 이등국민으로 본다든지, 통일을 통해 북한을 남한화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남한 사람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기회로 본다든지, 북한을 남한이 식민지화하려 한다든지 굴복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이러한 생각은 변화되어야 한다.

(민성길, 통일과 남북한 청소년, 2000, 연세대출판부, pp. 251-254)

#### <4> 남북 경제교류 협력 : 북한 잘살게 되면 통일 비용 줄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6월 평양을 다녀온 뒤 한반도에 통일 열기가 가득해졌어요. 특히 남북한이 힘을 합쳐 어려운 북한의 경제를 살리고 남한 경제를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를 남북간 경제협력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줄여서 남북경협이라고 하지요.

남북경협이 잘되면 북한의 경제 사정이 좋아져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통일비용이란 북한 경제를 남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북한에 도로·철도 등을 놓고 공장을 짓는 등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데 드는 돈을 말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통일비용이 2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남북한간 경제력 차이가 클수록 이를 줄이는데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통일 이전에 남북경협을 잘 해서 북한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지요.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에도 옛 서독과 동독 주민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애쓰고 있답니다.

남북경협은 1988년 (주)대우란 회사가 북한에서 도자기를 들여오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반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서 자기 나라까지 날아와 터질 수 있는 핵 폭탄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며 무기 개발을 중지하라고 요구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고 남북경협도 얼어붙었습니다.

94년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했고 이어 수해가 몇 년째 계속되면서 식량이 부족해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자 남한이 쌀과 비료를 지원하면서 경협의 물꼬가 다시 트였습니다.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는 속담처럼 사정이 나은 우리가 북한을 도와준 것이지요.

김대통령이 98년에 취임하면서 ‘햇빛정책’을 꾸준히 펼 결과 남북경협도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외국과 거래한 무역규모가 14억3천만 달러인데 이 가운데 남북한 사이에 이뤄진 것이 3억3천만 달러입니다. 북한 전체 교역의 20%가 넘는데 대부분 우리가 사들인 것입니다.

남북경협 초기에는 고사리·꽃게·샘물 등 주로 북한산 농산물이 국내에 많이 들어 왔지요. 최근에는 평양 인근 대동강 공장 등에서 우리 기업의 부품을 가져다 조립한 컬러TV가 들어오는 등 점차 전자제품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북한에서 만든 담배(한 마음)를 아빠가 피우는 것을 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또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든 뒤 남한으로 다시 가져오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투자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에선 옛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에 큰 공장 단지를 만드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지요.

햇빛정책이 뭐냐고요. 이는 김대통령의 통일정책을 말합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햇빛(화해정책)을 북한에 쬐어 북한이 자연스럽게 두꺼운 외투를 벗고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마음(문)을 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영향으로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고 9월에는 48년에 끊겼던 철로(경의선=서울~신의주)를 잇는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업인들은 북한은 임금이 싼 데다 근로자의 손재주도 좋고 말이 같기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보다 우리 기업이 투자하기에 좋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기업인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도 그전보다 쉬워졌어요.

북한을 방문하려면 우리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 신청서를 내 허가 받아야 하는 절차 등은 남아 있지만 경제협력을 위한 방북은 대부분 허용되고 있어요.

북한도 최근 북한에 투자를 원하는 국내 기업인에게 초청장(비자)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이 초청장을 들고 중국 베이징(北京)에 있는 북한 대사관으로 가 북한 입국 허가증을 받고 베이징에서 매주 두차례 평양을 오가는 북한 비행기(고려항공)편으로 북한에 들어갑니다.

북한에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란 단체가 남북경협의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데, 민경련 밑에 다시 삼천리총회사 등 정부가 운영하는 4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방북 초청장도 대부분 민경련이 발급합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는 추세지만 아직 경제협력의 걸림돌도 적지 않습니



다. 국내 기업들이 북한에서 물건을 만들려 해도 공장의 시설이 낡아 대부분 우리 설비를 들여가거나 새로 지어야 합니다. 특히 전기가 모자라 북한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공장을 가동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또 물건을 실어 나르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항만·도로·철도·통신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도 낙후돼 있습니다.

전화보급률을 예로 들어볼까요. 북한은 인구 1백 명 당 5명 꼴로 전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 중 한사람 꼴로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통신보급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도로와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관리할 돈이 모자라 곳곳이 패어 있거나 부실해 자동차나 기차가 제 속력을 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북한의 SOC 재건 사업이 중요하고, 경의선 복원을 서두르는 것도 길이 먼저 뚫려야 사람이 오가거나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의선이 다시 연결되면 서울에서 기차를 타면 신의주에서 중국~몽고를 거쳐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나라 제품을 바다를 통해 유럽으로 보내는 것보다 운송료가 싸게 먹히고 운송기간도 20일이면 충분하지요. 또 러시아·중앙아시아 등으로 우리 수출시장을 더욱 빨리 넓힐 수 있는 등 경제적 실익이 큼니다.

우리 기술자나 설비가 이 기차를 통해 북한 공장으로 가고, 거기서 북한 인력을 활용해서 물건을 만들면 생산 원가도 싸져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북한도 생산기술을 익히고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우리 기업의 투자를 보장하고, 세금을 이중으로 매기지 않는 것은 물론 서로 돈을 보내고 받는 시스템과 같은 제도적인 안전 장치가 필요한데 현재 남북한 당국이 협의 중입니다.

(Joins.com, 2000. 8. 30)

<5> 가정 학습 과제 예시답안

자료 제목	“생사만이라도 알려주오”
자료 출처	2000년 ○월 ○일 ○○일보 ○면
자료의 내용	신문 기사나 서적의 원문이나 사진·화보를 붙이도록 한다.
자료에 대한 소감	80평생을 살아오면서 북에 두고 온 자신의 하나뿐인 남동생을 만나지도, 생사조차도 확인하지 못한 한 맺힌 아쉬움에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다는 어느 할머니의 기사 내용이 안타깝다.
민족 통일을 위한 과제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및 연락처 확인 등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실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남한 무의탁 노인들이 계신 사회 복지 시설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로해드리고 말벗이 되어 드린다.</li> <li>- 용돈을 절약하여 매달 2000원씩 절약하여 연말에 이산가족 돕기에 성금으로 보내드린다.</li> <li>- 집안에서 쓰레기 분리 수거를 잘하여 폐지와 빈 병을 팔아 모은 돈으로 굶주리고 있는 북한 어린이 돕기에 성금을 낸다.</li> </ul>

■ 채점기준표 : 상 - 5점, 중 - 4점, 하 - 3점

상: 민족의 고통에 대한 자신의 소감문에 진실성이 있으며, 북한 동포를 돕는 방법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다.

중: 민족의 고통에 대한 자신의 소감문과 북한 동포를 도우려는 의지가 다소 포함되어 있고, 자신의 소감문이 성실하다.

하: 소감문이 불성실하며, 북한 동포를 돕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천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못했다.

■ 유의사항

- 자료 제작에 대한 성의가 있으면 가능한 좋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다.
- 북한 동포에 대한 동정심이 아닌 동족으로서 민족 결합 의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매스컴에서 방영하고 있는 이산가족 찾기에 대한 소감도 가능하도록 지도한다.
- 북한 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예: 용돈 절약하여 굶주린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 모으기, 한끼 굶어 북한 어린이 돕기, 학용품 절약하기 등)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및 논문

- 고영환, “정예교육을 위한 최고의 시설, 혁명학원체계”, 한만길엿음,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 (서울: 우리교육, 1999)
- 곽병선 외, 민주시민 자질함양을 위한 한국교육의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4)
- 곽병선의, 통일대비 교육과정 개발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8)
-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1999)
-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 1999.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 지도자료 “대립에서 화합으로” (2000)
- 권낙원, 토의수업의 이론과 실제 (서울: 현대교육출판, 1997)
- 김승철, 북한동포들의 생활문화양식과 마지막 희망 (인천: 자료원, 2000)
- 김육 외, 통일이후의 사회와 생활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6)
- 김태환,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인천의 발전방향”, 지역사회연구, 제3집 (1999)
- 김학준 외, 남북의 생활상 (서울: 박영사, 1987)
- 김형찬, 북한의 교육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민성길, 통일과 남북청소년 (서울: 연세대출판부, 2000)
- 박성희, “교과서 분석에 의한 북한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 연구, 제6권 2호, (1994, 겨울)
- 박성희, 북한청소년의 생활」 (서울: 공보처, 1995)
- 서강식, 도덕·윤리와 수업모형 (서울: 양서원, 1999)
- 서울시교육과학연구원, 통일교육자료 통일로 미래로 (2000)
- 선한승, 북한 주민의 직장생활과 노동 (서울: 공보처, 1994)
- 소치형 외, 북한의 이해 (1999)
- 여금룡, “사상교양과 자유조직이 공존하는 고등중학교”, 한만길엿음, 북한에서는 어떻게

- 게 교육할까 (서울: 우리교육, 1999)
- 여금주, 내가 체험했던 인민학교 이야기(1,2,3) (서울: 새싹나라, 1995)
- 여만철외, 와 헛바크를 돕네까?, (서울: 다나, 1996)
- 오기성 외, 사회통일교육 표준프로그램모델 개발(서울: 통일교육원, 2000)
- \_\_\_\_\_, “남북한 문화의 긍정적 다름이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0권 1호 (2001)
- \_\_\_\_\_, “서독의 통일대비 정치교육-「독일문제 교육지침」이 한국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교육 (2000)
- \_\_\_\_\_, “학교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공주교육대학교 세미나 주제발표논문 (2001. 7)
- \_\_\_\_\_, 남북한 문화통합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9)
- \_\_\_\_\_, 북한사회의 이질화 및 갈등 분석, 2000 국방대학원 용역과제 보고서
- 오인택, “통일교육의 방향,” 이영선 편, 『통일준비』(서울: 오름, 1997)
- 우천희, Jigsaw협동학습,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새로운 교수방법 연수 자료, 2000,
- 이경훈, 이용숙, 통일 그날이후 (서울: 길벗, 1995)
- 이근철, 오기성,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이해하는 통일교육론 (서울: 엑스퍼트월드, 2000)
- 이우영, “대학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인천광역시 윤리교과연구회, '97 교육부 지원 교과연구활동 윤리교과연구자료집 (1997)
- \_\_\_\_\_, 열린교육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의 이론과 실제 (1997)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토론문화의 정착 방안-토론(토의)수업을 중심으로 (1999)
- 임현진·정영철,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남북통합의 모색 : 현실과 과제”, 통일연구 (연세대 통일연구원), 제3권 제1호 (1999), pp.339-340 참조.
- 정세구,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 『교육월보』(1922. 1)

- 정영희, “통일대비 교육의 방향”, 『교육학연구』, 제31집 4호(서울: 한국교육학회, 1993)
- 정진경, “남북 문화이해지를 활용한 남북 상호 이해 교육”,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 과정 강의안, (2001)
- \_\_\_\_\_, “남북한 간 문화이해지 제작”, 통일연구, 제2권 제2호 (서울: 연세대 통일연구원, 1998)
- 정창우, “도덕과 수행평가의 원리와 실제”, 『도덕윤리과교육』, 제9호(서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1998)
- 조난심, “도덕윤리과 평가론”,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보』, 제9호(서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1998)
- 조동호, “북한의 노동정책과 실태”, 현대경제사회연구원편,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1997)
- \_\_\_\_\_,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민족통일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1997)
- 조선일보사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3)
- 주강현, 북한의 민족 생활 풍습 (서울: 민속원, 1999)
- 차우규, “도덕윤리과 수업 개선을 위한 새로운 평가 방안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제9호 (서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1998)
- 최현·김지형, “청소년의 성격 형성과정에 대한 남북한 비교 연구”, 이장호·이춘재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4)
- 추병완, 도덕교육의 이해 (서울 : 백의, 1999)
- 충북청원교육청, 알고싶은 통일이야기 (2000)
- 통일교육원, '99학생 통일 글짓기대회 입상 작품집 내마음속의 통일바라기꽃(1999)
- \_\_\_\_\_, 2000학년도 학생 통일 글짓기 입선작 하나로 향하는 마음 (2000)
- \_\_\_\_\_, 북한이해 (2001)
- \_\_\_\_\_, 새천년 통일문제 새로 보기 (2000)

- \_\_\_\_\_, 통일문답 (1999)
- 통일부, 2001 통일교육지침서(서울 : 통일부, 2000), p.4.
- \_\_\_\_\_, 2002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2001)
- \_\_\_\_\_, 북한개요 (2000)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0)
- 통일원, 북한의 교과서 분석 (1992)
- 평화문제연구소, 한국방송프리듀서연합회, 통일·북한핸드북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1997)
- 한국교육개발원, 민주사회 민주시민 교사용 지도자료 (1993)
- 한국교육개발원, 통일 대비 북한 중등학생의 정치사상 교육 방안 연구 (1998)
-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지도자료 '대립에서 화합으로' (2000. 11)
- 한국은행, 2000 북한 GDP 추정 결과 (2001. 5. 28)
- 한만길·오기성·정영순,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통일 교육 지도지침 및 자료개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9)
- \_\_\_\_\_,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8)
- 한만길·현주·오기성,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교육 적응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 한만길 외, 학교 통일교육 내용의 체계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7)
- Fong, S., "Assimilation and Changing Social Roles of Chinese American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29, No. 2 (1974)
- Hersh, Richard H, John P. Miller, and Glen D. Fielding, *Models of Moral Education*(New York: Longman Inc. 1980)
- KMK, *Die deutsche Frage in Unterricht* (Bonn, 1978)
- Matsuoka, J., "Differential Acculturation among Vietnamese Refugees," *Social Work*, Vol. 35, No. 4 (1990)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2) 신문 및 웹자료

Joins.com, 북한 잘살게 되면 통일 비용 줄어요, 2000. 8.30

NK조선, <http://nk.chosun.com/glossary/>

[www.koreascope.org/sub/2/nk3\\_7.htm](http://www.koreascope.org/sub/2/nk3_7.htm)

국민일보, 2000. 8. 16, 18

김용의 북한이야기, <http://kimyong.co.kr/northkorea>

동아일보, 2000. 8.15, 16.

매일경제, 2000. 6. 13

머니투데이, 2000.09.03

북한관련정보나눔터-내가 보는 북한, <http://unikorea.net/>

연합뉴스, 2001. 3. 16, 7. 10, 8. 25, 11. 19

윤 응, “북한 남성들의 여성상”, <http://unikorea.net/>

이채연 교수의 웹교수 학습방:<http://lotus.silla.ac.kr/~lcy/syber-younsu3.htm> '98 경

남 교원연수원 “인터넷 일반연수 과정”의 교안

조선일보, 2001. 3. 26, 4. 9, 5. 7, 5. 26, 10. 5

중앙일보, 2000. 4. 24, 5.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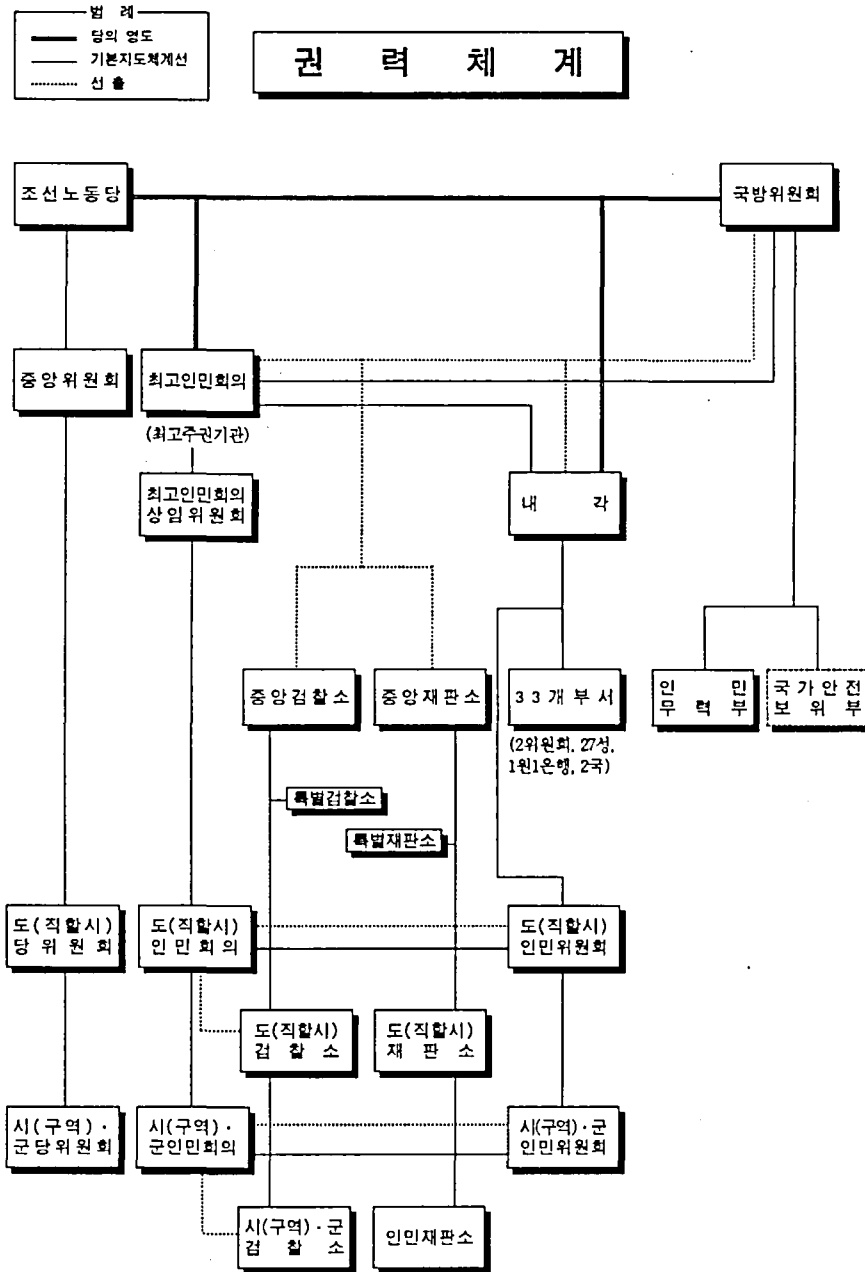


# 부 록

1. 북한권력기구도(2001. 12. 31 현재)
2. 북한의 주요 대남제의
3. 2002년도 북한 주요행사 예정표
4. 통일/북한 관련 국내·외 사이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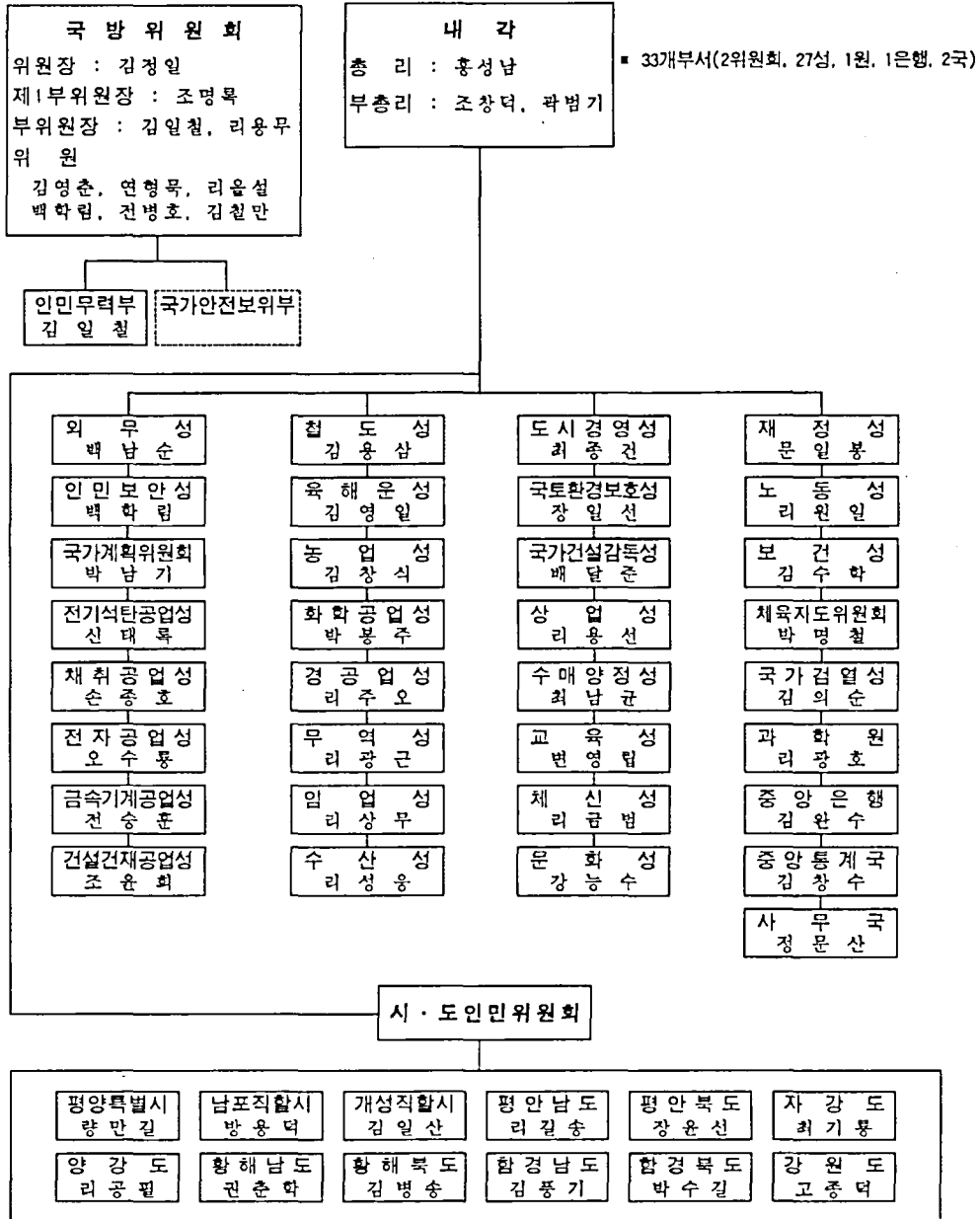


1. 북한권력기구도(2001. 12. 3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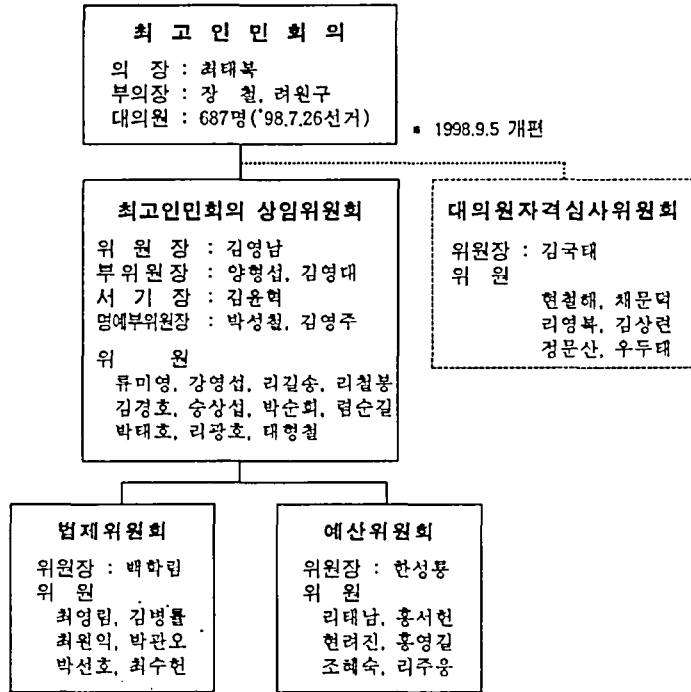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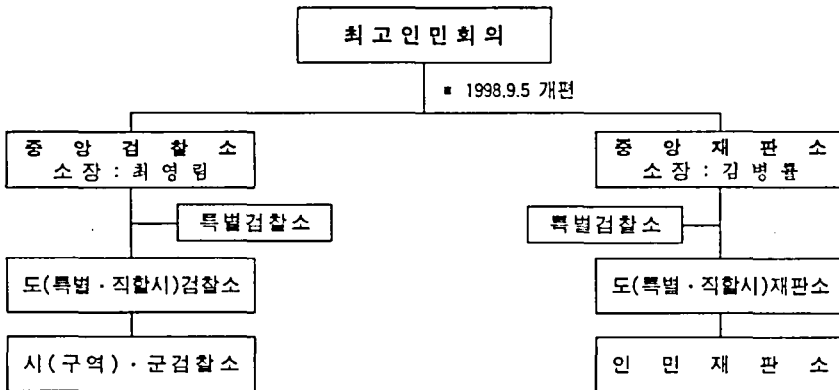
# 행정 기관



## 입 법 기 관



## 사 법 기 관



정 당 · 단 체

정당·대남	조선천도교청우당 위원장 류미영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김영대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조국전선) 위원장 박성철 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위원장	한국민족민주전선 (한민전) 위원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북측본부 의 장 안경호	조국통일범민족청년 학생연합북측본부 의 장 김인호	민족화해협의회 회 장 김영대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 장 류미영	남조선의 비전향 장기수 구원대책 조선위원회 위원장 문제철
	남조선의 국가보안 법철재를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장 문제철	조선평화옹호전국 민족위원회 위원장 문제철	재북평화통일촉진 협의회 서기국장 강태우		
대외단체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용순	조선대외문화연락 위원회 위원장대리 문제철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조선위원회 위원장 문제철	조선외교협회 회장	조선아시아·아프리카 단결위원회 위원장 김국훈
	일제의 조선강점 피해조사위원회 위원장 리봉호	중군위안부 및 태 평양전쟁피해자 보상 대책위원회 위원장 홍선옥	조선반핵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용순	반핵평화를 위한 조선피폭자협회 회 장 주성운	아시아여성들과연대 하는 조선여성 협회 회 장 리성희
	조선유네스코민족 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조선유엔식량 및 농 업기구민족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조선유엔개발계획 민족조정위원회 서기국장 리태균	유엔기금조선조정 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인종격리제도반대 조선위원회 위원장
사회단체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청년동맹) 1 비서 김경호	조선직업총동맹 (직총) 위원장 린순길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농근맹) 위원장 승상섭	조선민주여성동맹 (여맹) 위원장 박순희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장재언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성국	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일선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위원장 함학선	조선중앙변호사협회 위원장 리동석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최국권
경제단체	대외경제협력추진 위원회 위원장 김용술	민족경제협력연합회 회 장 정운업	조선아시아무역촉진 위원회 위원장 리성복	조선국제합영촉진 위원회 위원장	조선국제무역촉진 위원회 위원장 김봉문
종교단체	조선카톨릭교협회 위원장 장재언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 강영섭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박태화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조선종교인협의회 회 장 장재언
학술체육단체	조선사회과학지학회 위원장 양형섭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문어총)중앙위원회 위원장 장 철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광호	조선건축기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용상	국제문제연구소 소 장 김광우
	조선역사학회 회 장 전영훈	조선김정일화화연맹 위원장 장 철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황봉영	동아시아경기대회 협의회 회 장 박명철

## 2. 북한의 주요 대남제의

- '48. 3.25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소집 제의(북조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 4.30 전조선 정치회의 소집 및 민주주의 임시정부수립 제의(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 '49. 6.28 입법기관 구성을 위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등 8개항의 통일방안 제시(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결성대회)
- '50. 6. 7 남북 민주주의 정당·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 소집 제의(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 6.19 전조선 입법기관 구성 제의(최고인민회의)
- '54. 4.27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에 대한 3개항의 통일방안 제의(외무상 남일)
- 6.15 남북조선군축 및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협정 체결 제의(외무상 남일)
- 10.30 남북 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와 국회 합동회의 소집 제의(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8차 회의)
- '55. 8.14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공동회의 소집 제의('8. 15'경축대회 김일성)
- '56. 4.28 남북조선의 정권당국간 무력불행사 선포 제의(조선노동당 제3차대회)
- 7. 3 통일문제 협의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 제의(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결성대회)
- 11. 7 남북당국간 군비축소 회담 제의(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2차 회의)
- '57. 1.31 남북적십자단체 대표들간의 정기 서신교환 제의(조선적십자회 위원장 홍명희)
- 6.10 국제체육대회 단일한 조선민족팀 구성 제의(조선올림픽위원회)
- 9.20 남북조선대표참가 유관국 회의소집 제의(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 회의 김일성)
- 12.18 제17차 국제올림픽대회에 남북조선 유일팀 구성 제의(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홍명희)
- '59.10.26 평화통일문제 토의를 위한 '상설위원회' 설치 제의(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6차 회의 부수상 남일)
- 10.27 '남북경제발전 및 교류상설위원회' 설치 제의(최고인민회의)
- '60. 4.27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 소집 제의(제정당·사회단체 지도자 연석회의)
- 8.14 남북 「연방제」 제의(김일성)
- 11.22 남북 경제·문화교류 제의(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 회의)
- '62. 6.21 남북조선 정권 당국자 무력불행사 협정 체결 제의(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1차 회의)
- 7.28 제18차 동경올림픽대회 남북조선 유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제의(조선올림픽위원회)
- 11.28 남북조선올림픽위원회 대표회담 로잔느에서 개최 제의(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홍명희)
- '63. 3.29 남북조선올림픽위원회회의제의(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홍명희)
- 9. 8 남북불가침조약 체결 제의(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용건)
- '64. 3.27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소집 또는 남북조선 각계대표의 접촉 제의(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3차 회의)
- '67. 1. 4 남조선당국자와 통일문제 조건부 협상 제의(김일성)
- 8.21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유관국 회의 소집 제의(정부)
- '71. 4.12 평화통일 8개 방안 제의(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 외무상 허담)
- '72.12. 4 남북간 다방면적 합작 제의(남북조절위원회 위원장대리 박성철)
- '73. 4. 5 남북평화협정체결 제의(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 총리 김일)
- 6.23 조국통일 5대강령 제시(김일성)
- '74. 3.20 조·미 평화협정 체결위한 회담 제의(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
- '77. 1.25 남북정치협상회의 준비를 위한 예비실무회의 소집 제의(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 2. 8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의(인민군 부총참모장 김익현)
- '79. 1.23 전민족대회 소집을 위한 남북회담 제의(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 1.31 남북상호비방·중상 중지조치 제의(조선중앙통신사)
- 2. 5 민족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남북연락대표 접촉 제의(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 12.20 제22차 올림픽대회 남북 민족유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인대표회담 제의(조선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김유순)
- '80.10.10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의(노동당 제6차대회 김일성)
- '81. 1.11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접촉 제의(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 '82. 210 남과 북, 해외의 정치인 100인 연합회의 소집 제의(조국평화통일위원회)
- '83. 1.18 남북의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소집 제의(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
- 9. 9 연방국가의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에 남북공동의장 및 공동위원장 선출, 윤번제 운영 제의(김일성)
- '84. 1.10 남·북 및 미국 3자 회담 제의(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연합회의)
- 3.30 제23차 올림픽대회와 아시아 및 세계선수권대회에 남북유일팀 공동출진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제의(조선올림픽위원회 김유순)
- 9. 8 남조선수재민구호봉사재공 제의(조선적십자회 위원장 손성필)
- '85. 1. 9 남북 부총리 접촉 제의(정무원 부총리 김환)
- 4. 9 남북국회회담 제의(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4차 회의)
- 5.28 남북적십자예술단 상호방문 제의(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 '86. 1.11 남북 상호 군사연습 중지 제의(외교부)
- 6. 9 남·북·미국 3군사당국자 회담 제의(인민무력부장 오진우)
- 6.23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 창설 협상 제의(정부)
- 12.30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 김일성)
- '87. 7.23 조선반도에서 단계별 다국적 무력축감협상 제의(정부)
- 11.11 민족단합방안 5개항 제시(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평화통일위원회 연합회의)
- '88. 1. 1 남북연석회의 소집 제의(김일성)
- 7.20 남북국회연석회의 소집 제의(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 11. 7 조선반도 평화보장 4원칙 제시(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
- 12.21 제11차 아시아경기대회(북경) 유일팀 출진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제의(조선올림픽위원회 김유순)
- '89. 1. 1 남북정치협상회의 제의(김일성)
- 5.31 남북 제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 제의(조선적십자회 위원장 손성필)
- 7. 9 남·북·해외동포대표들이 참가하는 「전민족대회」 소집(90. 8. 15) 제의(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허담)
- 9.28 민족통일협상회의 소집 제의(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남)
- 11.30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3개항 실천조치 제의(외교부)
- '90. 1. 1 남북자유왕래 및 전면개방 실현 위한 남북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수뇌들의 협상회의 소집 제의(김일성)
- 1.17 IPU총회(제84차) 남북단일대표단 구성 참가 제의(의회 그루터위 위원장 양형섭)
- 5.24 조국통일 5개방침 제시(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 김일성)
- 5.31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10개항 제시(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
- 6. 4 민족통일준비위원회 구성 제의(제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
- 8.15 조국통일범민족연합결성 제의(범민족대회)
- 9.14 UN가입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제의(총리 연행록)
- '91. 1. 1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소집 제의(김일성)
- 7.30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제안(외교부)
- '93. 4. 7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제시(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
- 5.25 남북최고위급의 목사교환 제의(정무원총리 강성산)
- '94. 4.11 전민족대단결 방도 모색을 위한 「민족대회」 소집 제의(당·정·사회단체 연합회의)
- 6.17 남북정상회담 개최용의 표명(김일성, 「카터」 전 미대통령에게 의사전달)
- '95. 3.29 「8.15 민족통일대축전」 관련 민간급접촉 제의(민족통일대축전 북측 준비위원회)
- 5.26 남한의 쌀제공 검토용의 표명(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 이성록)
- '98. 4.18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 발표(김정일 「서한」형식)
- '99. 2. 3 「남북고위급 정치회담」 제의(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
- '01. 1.10 「올해를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한 것」 등 제의(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대회)

3. 2002년도 북한 주요행사 예정표

월	일	주요 행사	비고
1월	1	○ 설(신년) ○ 「전반적 무상치료제」 시행일(49주년) ○ 「협동농민사회보장제」 시행일(17주년)	'46. 2. 24 제정 '53. 1. 1 시행 '85. 10. 4 채택
	8	○ 국제공업절	'83. 12. 9 제정
	12	○ 김형권(김일성 삼촌) 사망일(66주기)	'05. 11. 4~ '36. 1. 12
	14	○ 「노농적위대」 창설일(43주년)	'59. 1. 14 창설
	15	○ 훈민정음 창제일(558주년)	1444. 1. 15 창제
	17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결성일(56주년)	'46. 1. 17 결성 ( '96. 1. 19개칭)
	25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결성일(11주년)	'91. 1. 25 결성
	28	○ 무역절	'97. 1. 23 제정
	30	○ 「혁명전열정」 서명일	'92. 1. 30 서명
	31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결성일(56주년)	'46. 1. 31 농민동맹 결성 ( '65. 3. 25 개칭)
* 1~2월 : 동계체육 월간('80. 1 선경)			
2월	1	○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결성일(56주년)	'46. 2. 1 결성
	6	○ 「일당택」 구호 제시일(39주년)	'63. 2. 6 김일성 제시
	8	○ 「조선천도교청우당」 창당일(56주년)	'46. 2. 8 창당
	10	○ 「3대혁명소조운동」 발기일(29주년)	'73. 2. 10 발기
	12	○ 윤리 설(민속명절)	'89년 부터
	16	○ 김정일 생일(10회)	'42. 2. 16 출생
	19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발표일(10주년)	'92. 2. 19 발표 ( '91. 12. 13 채택)
	20	○ 기계절	'72. 1. 13 제정
	25	○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태제」 발표일(38주년)	'64. 2. 25 발표
	28	○ 「세계공산당선언」 발표일(154주년)	1848. 2. 28 선언
3월	1	○ 「반일 3·1 인민봉기」 기념일(83주년)	'19. 3. 1 발생

월	일	주요 행사	비고
3월	2	○ 식수절	4월 6일 ('71. 3. 25) 이었으나 '99년부터 3월 2일로 변경
	5	○ 「토지개혁법령」 공포일(56주년) ○ 농업근로자절	'46. 3. 5 공포 '71. 3. 5 제정
	8	○ 국제부녀절	'61. 3. 8 채택 ( '09. 3. 8 시카고 여성시위 기념)
	11	○ 「왕재산회의」 기념일(69주년)	'33. 3. 11 개최
	19	○ 이인모 송환일	'93. 3. 19 송환
	22	○ 어부절	'62. 5. 23 제정
	23	○ 「조선국민회」 결성일(85주년)	'17. 3. 23 김형직 결성
	24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결성일(53주년)	'49. 3. 24 결성
	25	○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결성일(56주년)	'46. 3. 25 결성
	4월	1	○ 세금제도 폐지의 날(28주년)
3		○ 「4·3 제주도 인민봉기」 기념일(54주년)	'48. 4. 3 발생
5		○ 한식(민속명절) ○ 보건의절 ○ 천도교 창도일(142주년)	'89년 부터 '80. 4. 5 제정 1860. 4. 5 창도
7		○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제의일	'93. 4. 7 제의
8		○ 체신절	'72. 1. 13 제정
9		○ 「환경보호법」 채택일(16주년)	'86. 4. 9 채택
15		○ 태양절(김일성출생일)	'12. 4. 15 ~ '94. 7. 8 '97. 7. 9 제정
19		○ 「남조선인민봉기」 기념일(4·19 의거)(42주년)	'60. 4. 19 발생
20		○ 김정일 「원수」 추대일	'92. 4. 20 추대
21		○ 강반석(김일성 모) 출생일	1892. 4. 21 ~ '32. 7. 31
4월	24	○ 탄부절(12주년)	'90. 10. 31 제정
	25	○ 「조선인민군」 창건일(70주년)	'32. 4. 25 「조선 인민혁명군」조각 '96. 4. 23 국가적 명절로 제정
	28	○ 「어린이 보육교양법」 채택일(26주년)	'76. 4. 28 채택

월	일	주요행사	비고	
4월	29	○「농업협동조합법 폐지법령」 공포일(36주년) ○ 토지법 채택일(25주년)	'66. 4. 29 공포 '77. 4. 29 채택	
	* 4월중 : 「4월의 봄 친선예술회전」(82.4 최초 개최) * 4월중 : 제15기 전국과학기술축전(85.4 최초 개최) * 4월 : 문화유적애호 원간			
5월	1	○ 국제노동자절(5·1절, 112주년)  ○ 「사회주의 노동법」 시행일	1886. 5. 1 미국 「시카고」노동자 파업기념 '78. 4. 18 채택	
	5	○ 「조국광복회」 결성일(66주년)	'36. 5. 5 김일성 조직	
	11	○ 철도절	'63. 3. 18 제정	
	13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결성일(41주년)	'61. 5. 13 결성	
	15	○ 지질탐사절	'70. 2. 3 제정	
	18	○ 「광주인민봉기」 기념일(22주년)	'80. 5. 18 ~5. 27 발생	
	20	○ 「조선학생위원회」 결성일(42주년)	'60. 5. 20 결성	
	21	○ 건설자절	'71. 4. 30 제정	
	23	○ 「무산지주전투승리」 기념일(63주년)	'39. 5. 23 전투	
	24	○ 「조국통일 5대방침」 발표일	'90. 5. 24 발표	
	25	○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결성일(47주년)	'55. 5. 25 결성	
	30	○ 「조선종교인협의회」 결성일	'89. 5. 30 결성	
	6월	1	○ 국제아동절(6·1절)	'49. 11 국제민주여성동맹 결정. '50. 4 제정
		3	○ 「남조선청년학생 봉기」 기념일(6.3사태)(38주년)	'64. 6. 3 발생
		4	○ 「보천보전투 승리」 기념일(65주년) ○ 「민주조선」 창간일(56주년)	'37. 6. 4 전투 '46. 6. 4 창간
5		○ 김형직(김일성 부) 사망일(76주기) ○ 「세계환경의 날」 기념일 ○ 해군절	1894. 7. 10 ~1926. 6. 5 '72. 12. 15 UN 제27차총회 제정 '72. 6. 3 제정	
6		○ 「조선소년단」 창단일(56주년)	'46. 6. 6 창단	
7		○ 지방공업절	'70. 4. 6 제정	

월	일	주요행사	비고
6월	10	○ 「반일 6·10 만세시위투쟁」 기념일(76주년) ○ 「6월민중항쟁」 기념일(15주년)	'26. 6. 10 발생 '87. 6. 10 발생
	15	○ 단오(민속명절) ○ 「남북공동선언」 발표일	'89년 부터 '00. 6. 13~15 남북정상회담
7월	19	○ 김정일 당사업 개시일	'64. 6. 19 개시
	20	○ 포병절	'82. 10. 28 제정
	23	○ 「조국통일 5대강령」 발표일 ○ 선박공업절	'73. 6. 23 발표 '88. 4. 21 제정 ('48. 6. 23 소급 설정)
	25	○ 「조국해방전투」 발발일(미제반대투쟁의 날)(52주년)	'50. 6. 25 발발
	28	○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서」 채택일	'94. 6. 28 채택
	30	○ 조선카톨릭교협회 결성일	'88. 6. 30 결성
	* 6월 25일~7월 27일 : 「반미공동투쟁」 월간(70. 7 국제민주법률가협회 결정)		
	1	○ 광부절	'57. 7. 5 제정
2	○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결성일(46주년)	'56. 7. 2 결성	
4	○ 「7·4남북공동성명」 발표일(30주년)	'72. 7. 4 발표	
7	○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남·북 청년학생공동선언문」 채택일(13주년)	'89. 7. 7 채택	
7월	8	○ 김일성 사망일(8주기)	'12. 4. 15 ~'94. 7. 8
	9	○ 「80년대 속도창조운동」 발기일(20주년)	'82. 7. 9 발기
	10	○ 「김형직(김일성 부)」 출생일	1894. 7. 10 ~1926. 6. 5
	11	○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일	'61. 7. 11 체결
	12	○ 해양의 날	
	22	○ 「조국통일민주주의의 전선」 결성일(56주년)	'46. 7. 22 결성
	24	○ 육·해운절	'72. 2. 26 제정

얼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월	일	주요행사	비고	
7월	27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49주년) ○「농촌기술혁명」기념일(29주년)	'53. 7. 27 휴전협정 체결 '96. 7. 26 국가적 명절로 제정 '73. 7. 27 제정	
	30	○「남녀평등권법령」공포일(56주년)	46. 7. 30 공포	
	31	○강반석(김일성 모) 사망일(70주기)	1892. 4. 21 ~1932. 7. 31	
* 7~8월 : 새기준·새기록창조 월간('81년 설정) * 7~8월 : 해양체육 월간('64년 설정)				
8월	1	○ 200해리 경제수여 발표일	'77. 8. 1 발표('77. 6. 21 채택)	
	10	○「주요산업 국유화법령」공포일(56주년) ○입업노동자절	46. 8. 9 제정 '63. 8. 10 제정	
	14	○「남북 연방제」제외일	'60. 8. 14 제외	
	15	○해방기념일(57주년) ○「제11차 범민족대회」 ○「제10차 청년학생통일대축전」 ○「조국통일범민족 청년학생연합」결성일(10주년)	'45. 8. 15 해방 '90. 8. 15. 1차대회 '91. 8. 15. 1차대회 '92. 8. 15 결성	
	20	○공군절	'72. 5. 20 제정	
	25	○「한국민족민주전선」결성일(33주년)	'69. 8. 25 「통혁당」창당('85. 7. 27 개칭)	
	28	○청년절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결성일(75주년)	'91. 2. 1 제정 '27. 8. 28 결성	
	* 8~9월 : 인민체력강화 기간('48년 설정) * 8월15일~9월15일 : 남북해외동포청년학생공동평화월간('91년 설정)			
	9월	1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시행일(27주년) ○「불러볼가담의 날」(비동맹의 날) ○「평화의 날」	'75. 9. 1 시행 '81. 2 인도 비동맹외상회의 결정 '82. 6 쿠바 제10차 세계적평대회 결정
		5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발표일(25주년)	'77. 9. 5 발표

월	일	주요행사	비고	
9월	5	○교육절 ○도시경영절 ○김정일「국방위원장」재추대일(4주년)	'77. 9. 19 제정 '82. 8. 2 제정 '98. 9. 5 ('93. 4. 9최초추대)	
	8	○「합영법」채택일	'84. 9. 8 채택	
	9	○정권 창건일(9·9절)(54주년) ○「주체」연호 시행일(5주년)	'48. 9. 9 수립 '97. 7. 8 제정	
	12	○「붉은 청년근위대」창건일(32주년)	'70. 9. 12 창건	
	15	○상업절	'71. 11. 6 제정	
10월	17	○UN 가입일(11주년)	'91. 9. 17 가입(UN제46차총회)	
	20	○피복공업절(4주년)	'98. 2. 4 제정	
	21	○추석(민속명절)	'88년 부터	
	22	○김정숙(김정일 생모) 사망일(53주기)	'17. 12. 24 ~'49. 9. 22	
	24	○전기절 ○「단군민족통일협의회」발족일	'71. 9. 15 제정 '97. 9. 24 발족	
	28	○「조·일 국교정상화추진 공동선언」발표일	'90. 9. 28 발표(노동당, 일본 자민당·사회당)	
	* 9월8일~14일 : 주한미군철거투쟁 주간('45. 9. 8 미군의 남한군정실시 선포)('78년 설정)			
	1	○「김일성종합대학」설립일(56주년)	'46. 10. 1 설립	
	3	○민족의 날	'98. 10. 3 선포	
	4	○「대자연개조사업」제시일(21주년)	'81. 10. 4 제시	
8	○김정일 「당 총비서」추대일(5주년)	'97. 10. 8 추대		
10월	9	○「국적법」공포일(39주년) ○금속노동자절	'63. 10. 9 공포 '70. 4. 17 제정	
	10	○「조선노동당」창당일(57주년)	'45. 10. 10 창당	
	11	○「단군충」개건기념일(8주년)	'94. 10. 11 준공	
	12	○「만경대혁명학원」설립일(55주년)	'47. 10. 12 설립	
	13	○체육절(10월 두번째 일요일)	'49. 8. 2 제정	
	14	○방송절	'70. 10. 14 제정	
	15	○방직공업절	'73. 10. 15 제정	
17	○「타도제국주의동맹」(트·ㄷ)결성일(76주년)	'26. 10. 17 김일성 결성		

월	일	주요행사	비고
10월	18	○「조선적십자회」창립일 (56주년)	'46. 10. 18 창립
	19	○「10월민주항쟁」기념일 (부·마사태)(23주년)	'79. 10. 16 ~10. 23 발생
	20	○ 민족면역의 날	'97. 9. 26 제정
	23	○ 국토환경보호절	'96. 11. 27 제정
	25	○「중국인민지원군참전」기념일 (52주년) ○「근로자」지 창간일 (56주년)	'50. 10. 25 참전 '46. 10. 25 창간
	28	○ 과학기술연구사업 결산 및 대책수립의 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창립일	'92. 1. 결정 '52.10. 28 창립
	29	○「조선중앙은행」설립일 (56주년)	'46.10. 29 설립
	30	○「지방예산제」실시일 (29주년)	'73.10. 30 실시
	31	○「조선출판위원회」결성일 (32주년)	'70.10. 31 결성
	* 10월중 :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지지 월간 ('89. 11. 25 설정, 파리) * 10~11월중 : 「공화국선수권체육대회」개최		
11월	1	○「노동신문」창간일(57주년) ○「출판절」	黨기관지「정로」(45. 11. 1 창간)와 신민당기관지「전진」을 합쳐 '46. 9. 1 발간 '70. 12. 20 제정
	3	○「평주학생사건」기념일 (73주년) ○「조선사회민주당」창당일 (57주년)	'29. 11. 3 발생 '45. 11. 3 창당
	11	○「조선기자동맹」결성일(56주년)	'46. 11. 11 결성
	18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결성일(57주년)	'45. 11. 18 결성
	19	○「사법·검찰기관」창립일 (57주년) ○「사회안전기관」창립일 (57주년)	'45. 11. 19 창립 '45. 11. 19 창립
	* 11월중 : 제12회 전국청년과학기술 및 창의 고안 선구자대회('89년부터 매년 개최)		

월	일	주요행사	비고	
11월	20	○「조국통일범민족연합」결성일(12주년)	'90. 11. 20 결성	
	28	○「조선그리스도교연맹」결성일 (56주년)	'46. 11. 28 결성 ('99. 2 개칭)	
	30	○「조선민주법률가협회」결성일(48주년) ○「조선직업총동맹」결성일 (57주년)	'54. 11. 30 결성 '45. 11. 30 결성	
	* 11월18일~23일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86. 11 최초 개최) * 11월중 : 문화유적애호 월간			
	1	○「과학원」창립일(50주년)	'52. 12. 1 창립	
	5	○「조선중앙통신사」창립일 (56주년)	'46. 12. 5 창립	
	6	○ 화학공업절 ○ 조선비혁명화위원회 결성일 (16주년)	'76. 10. 16 제정 '86. 12. 6 결성	
	10	○「4대군사노선」채택일 (40주년)	'62. 12. 10 채택	
	1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채택일	'91. 12. 13 채택 ('92. 2. 19 발효)	
	15	○「새날소년동맹」결성일 (76주년) ○「대안의 사업체계」수립일 (41주년) ○「KEDO·북한간 경수로협정」체결일	'26. 12. 15 결성 '61. 12. 15 수립 '95. 12. 15 체결	
12월	24	○ 김정숙(김정일 생모) 출생일 ○ 김정일 인민군최고사령관 추대일(11주년)	'17. 12. 24 ~ '49. 9. 22 '91. 12. 24 추대	
	26	○「조선불교도연맹」결성일 (57주년) ○「反日부녀회」결성일(76주년)	'45. 12. 26 결성 '26. 12. 26 결성	
	27	○ 헌법절 (사회주의헌법 채택일)	'73. 12. 24 제정 '72. 12. 27 채택	
	28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설립일	'91. 12. 28 설정 정무원결정70호	
	* 12월중 : 제12회 전국청년과학기술 및 창의 고안 선구자대회('89년부터 매년 개최)			
	年	* 매월 두번째 일요일 체육의 날 ('92. 3. 8 김정일 지시)		

#### 4. 통일/북한 관련 국내·외 사이트 현황

##### I. 정부 및 공공기관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통일교육원 <http://www.uniedu.go.kr>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인터넷 평화학교)
- 서울시교육과학연구원 <http://www.sesri.re.kr>
- 6.25 전쟁 기념 사업단 <http://www.mmd.go.kr:8778/>
-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
-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arirang>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http://www.acdpu.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nk>
- 이북 5도 위원회 <http://www.ibuk5do.go.kr>
- 이산가족 정보 통합센터 <http://reunion.unikorea.go.kr>

##### II. 교육기관·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http://ifes.kyungnam.ac.kr/ifes-kor>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http://ifes.kyungnam.ac.kr/gsnks-kor>
-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http://welove.korea.ac.kr/~nokor/>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http://asiacenter.or.kr>
- 관동대학교 북한학과 <http://www.kwandong.ac.kr/~unikorea/main.html>
- 마산창원 통일자료실 <http://www.atongil.com>
- 명지대학교 북한학과 <http://www.unikorea.net/myongji>
- 문화통합 <http://www.multicorea.org>

-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 서울대학교 지식 및 정보넷 연구실 <http://kins.snu.ac.kr/unikorea>
- 북한연구소 <http://nkorea.or.kr>
-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nk-infobank.com>
-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
-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http://riku.sookmyung.ac.kr>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http://suny.yonsei.ac.kr/~ikus>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http://home.ewha.ac.kr/~nk21>
-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
- 통일정보센터 <http://www.neopeace.net>
- 통일학연구소 <http://www.onekorea.org>
- 평화문제연구소 <http://www.ipa.re.kr>
-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 한국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http://www.kris.or.kr>
- 한반도통일연구소 <http://www.hankorea21.com>
- 통일시대연구소 <http://www.rink.or.kr>

### III. 언론기관

- 한국방송공사 <http://news.kbs.co.kr/hana>
- 미주통일신문사 <http://www.unitypress.com>
- 민족 21 <http://minjog21.com>
- 민족통신 <http://www.minjok.com>
- 대한매일 뉴스넷 [http://www.kdaily.com/features/koreanet/north\\_korea.html](http://www.kdaily.com/features/koreanet/north_korea.html)
- 세계일보 [http://210.91.16.5/northpeople\\_research/index.html](http://210.91.16.5/northpeople_research/index.html)
- 국민일보 <http://www.kukminilbo.co.kr/html/kmlist/13121800.html>

- 중앙일보 - 북한네트 <http://nk.joins.com>
- YTN-북한리포트 [http://ytn.co.kr/new\\_httpd/special/nkreport/nkreport\\_index.asp](http://ytn.co.kr/new_httpd/special/nkreport/nkreport_index.asp)
- 연합뉴스-북한리포트 <http://www.yonhapnews.co.kr/services/2200000000.html>
- 오도신문 <http://www.ibukodo.co.kr>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special/n\\_korea](http://www.joins.com/special/n_korea)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politics/nk.html>
- 문화일보 - 통일시대 [http://www.munhwa.co.kr/tongil/tongil\\_main.html](http://www.munhwa.co.kr/tongil/tongil_main.html)
- 통일정보신문 <http://www.unityinfo.co.kr>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section-003100000/home01.html>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politics/northkorea.htm>
- 야후! 북한동정 [http://kr.fullcoverage.yahoo.com/Full\\_Coverage/World/North\\_Korea](http://kr.fullcoverage.yahoo.com/Full_Coverage/World/North_Korea)
-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

#### IV. 민간단체 · 종교단체

- 경실련 통일협회 <http://tongil.ccej.or.kr>
- 국제 옥수수 재단 <http://www.icf.or.kr>
- 기독교 북한 선교회 CMNK <http://www.cmnk.org>
- 남북농발협 <http://www.potato.or.kr>
- 남북자가족협의회 <http://www.rehome.or.kr>
- 남북자 가족모임 <http://www.comebackhome.or.kr>
- 남북어린이어깨동무 <http://www.okedongmu.or.kr>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http://www.kcrc.or.kr>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http://www.nknet.org/index\\_ko.html](http://www.nknet.org/index_ko.html)
- 북한인권시민연합 <http://www.nkhumanrights.or.kr>
- 북한선교 두리하나 <http://www.durihana.com>
- 북한선교연구소 <http://www.inm4n.org/Main.htm>



- 사이버 통일 운동 Unipia <http://www.unipia.org>
- 남북 나눔 운동본부 <http://haja.sharing.or.kr>
-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 <http://www.ksm.or.kr>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http://www.bubtanet.or.kr>
- 통일대축전 서울대 사범대 준비위원회 <http://my.dreamwiz.com/tongil77>
- 통일연대 <http://www.615tongilyoundai.org>
-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http://www.tihanguk.net>
- 평안북도 중앙청년회 <http://www.pyongbuk.co.kr>
- 평안북도중앙청년회 신문 <http://inews.org/pyongbuk>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 <http://www.spark946.org>
- 평화의 숲 <http://www.peaceforest.or.kr>
-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 운동 <http://sharing.or.kr>
- 운영주체 평화 예술인 국제연대 <http://www.artdmz.org>
- 한겨레 통일문화 재단 <http://www.durihani.or.kr>
- 한국자유총연맹 <http://www.kfl.or.kr>
- 한국평화정책 연구소 <http://www.leechangho.org>
- 한민족 복지재단 <http://www.kwfw.or.kr>
- 한민족선교네트워크-한민족선교정책연구소 <http://hanminjok.peacenet.or.kr>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http://www.peacekorea.org>
- 황해도 중앙 도민회 <http://www.hwanghaedo.or.kr>
- Ton-a-Month Club(한글 페이지) <http://ton-a-month.tripod.com>
- 아태평화재단 <http://www.kdjpf.or.kr>

## V. 민간기업

- 10대 가 보는 북한의 모습 <http://www.cybertongil.net/>
- 21C 철마가 달린다 <http://zzna.com.ne.kr/>

- 전안이의 통일이야기 방 <http://totter.hihome.com/>
- 겨레화합연구학회 <http://club.dreamwiz.com/unikorea>
- 경남대 북한대학 동우회 <http://www.knsns.com/>
- 고국, 조선족, 그리고... <http://user.chollian.net/~rbtmbly/>
- 안해연 · 이주연 선생님의 통일 배움터 <http://www.tongilnara.org>
- 국화의 방 <http://www.fancy12.pe.ly/>
- 김동진의 통일과 영어교육 <http://myhome.bbi.co.kr/kdddjj20>
- 김성윤교수 홈페이지 <http://www.anseo.dankook.ac.kr/~ksy11>
- 김용의 북한과 요리 이야기 <http://www.kimyong.co.kr/>
- 김정일 안티 <http://www.kimjungilanti.com/>
- 남누리 북누리 <http://tongilnuri.wo.to/>
- 남북이야기 <http://www.okready.com/>
- 남북한통일교육정보 <http://www.ipcp.edunet4u.net/~teacher16>
- 남북통일문제연구소 <http://www.user.chollian.net/~yeoinsub>
- 노래로 배우는 통일교실 <http://210.119.114.5/union>
- 북한이야기 <http://my.dreamwiz.com/jisun8402>
- 권오윤교수 홈페이지 <http://www.kongguk.ac.kr/~oyoon>
- 등푸른 자유의 온누리 세상 <http://www.iwantolk.wo.to/>
- 내가보는 북한 <http://www.unikorea.net/>
- 민족통일정치연구회 <http://myhome.shinbiro.com/~uk4299>
- 백두산 가는 길 <http://www.baikdusan.net/>
- 백두 한라회 <http://www.baikhan.com/>
- 변재성의 사진과 비디오 보고서 <http://nhctv.net/>
- 북한 건축 <http://www.mwus.mokwon.ac.kr/~leewk>
- 북한 교육정보 <http://www.bk21.pe.kr/>
- 북한구호정보 <http://myhome.shinbiro.com/~residue>

- 북한문화자료실 <http://myhome.hanmail.net/~chltjdtm>
- 북한 통일 <http://www.bifa.pe.kr>
- 북한문학 연구 <http://nkmunhak.jinju.or.kr/>
- 뿌리넷 <http://www.poori.net>
- 사이버 금강산 관광 <http://web.edunet4.net/~75802580>
- 서울사람, 평양사람 <http://210.96.72.193/seoul>
- 안티김정일 <http://www.kimjungilanti.com/>
- 오영실의 홈 <http://www.oysil.ce.ro/>
- 우수강국시대 준비 <http://www.21kl.org/>
- 윤여상의 I LOVE minority <http://www.kiloveminority.com/>
- 이기영교수 홈페이지 <http://home.pusan.ac.kr/~klee388/>
- 조의성의 한국어연구실 <http://www.nicol.ac.jp/~choes/>
- 조취제의 통일교육 <http://www.edu.co.kr/chOhj>
- 천치와 천재 <http://www.twinpapa.com/>
- 통일과 북한문제의 새로운 접근 <http://club.dreamwiz.com/nkunify/>
- 통일 세상 <http://www.onekorea21.net/>
- 통일 엔진 <http://www.home.ntime.net/tongil>
- 통일요리 길라잡이 <http://www.northfood.co.kr/>
- 통일 이루기 <http://210.95.92.1/hg/shjj>
- 투어엔 코리아 <http://www.tourkorea.co.kr/>
- 통일 LIS <http://www.user.userchollian.net/~tongil100/>
- 평화통일의 길 [www.users.unitel.co.kr/~syrumkuk](http://www.users.unitel.co.kr/~syrumkuk)
- 하나된 한국 <http://user.chollian.net/~prokhr/korea>
- 하늘다솜 <http://poschool.or.kr/sky>
- 한국전쟁에서 통일까지 <http://user.chollian.net/~prokhr/war>
- 한반도 둘러보기 <http://mydreamwiz.com/ksks77>

- 카페, 남북정상회담 이야기 <http://cafe.daum.net/613>
- Daum 카페, 북한사람 <http://cafe.daum.net/al223n>
- Freechal동호회, 남북한 관계론 <http://www.freechal.com/nsktown>
- pemuto O의 홈페이지 <http://my.netian.com/~pemuto0>
- Wonny's Homepage <http://myhome.dreamx.net.hiwonny>

## VI. 해외기관

- U N(United Nations) [www.un.org](http://www.un.org)
- 미국 백악관(White House) [www.whitehouse.gov](http://www.whitehouse.gov)
- 미국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www.odci.gov](http://www.odci.gov)
- 미국 의회(House of Representatives) [www.house.gov](http://www.house.gov)
- 미국 국방성(Defence LINK) [www.defenselink.mil](http://www.defenselink.mil)
- 미국 국무성(US Department of State) [www.state.gov](http://www.state.gov)
- 노틸러스(NAPSNet) [www.nautilus.org/napsnet](http://www.nautilus.org/napsnet)
- CSIS(국제전략연구소) [www.csis.org](http://www.csis.org)
- CCFR [www.ccf.org](http://www.ccf.org)
- HOOVER연구소(Hoover Institution) [www-hoover.stanford.edu](http://www-hoover.stanford.edu)
- RAND연구소(RAND) [www.rand.org](http://www.rand.org)
- HERITAGE재단(Heritage Foundation) [www.heritage.org](http://www.heritage.org)
-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www.sipri.se](http://www.sipri.se)
-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Korea Institute) [www.fas.harvard.edu/~korea](http://www.fas.harvard.edu/~korea)

##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

2002년 9월 인쇄  
2002년 9월 발행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지원과  
142-715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Tel : 02) 901-7020  
Fax : 02) 901-7024

인쇄처 양동문화사  
Tel : 02) 2266-5277

---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

---

<비매품>

